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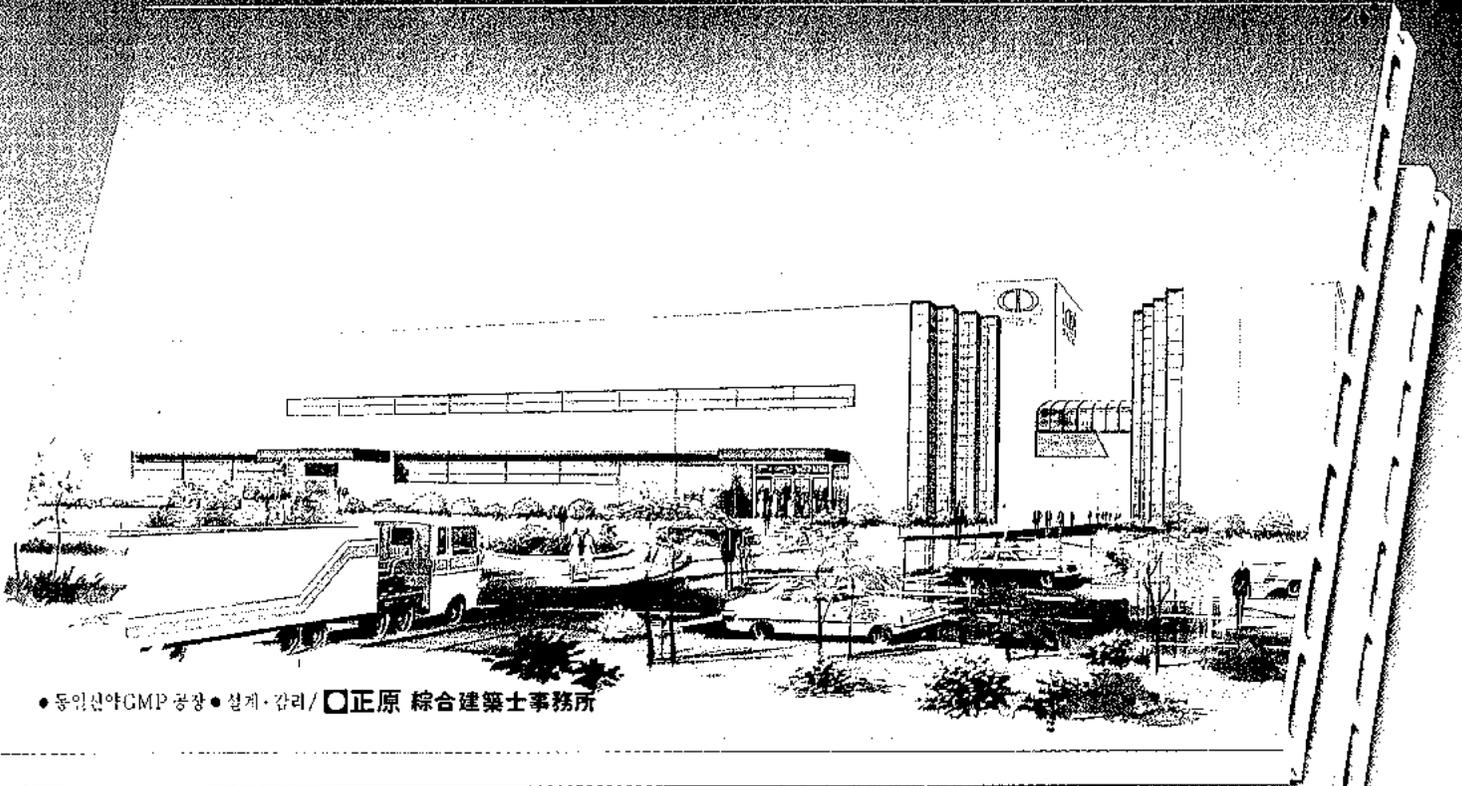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SEPTEMBER 1988. NO. 234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8. 9. 15. 1988. 12. 31 第3種郵便物 4 級 認可 郵便番號: 13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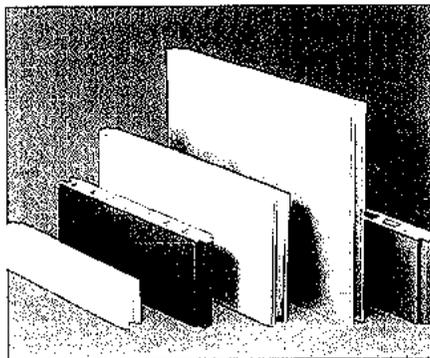


1988



• 동원신야GMP 공장 • 설계·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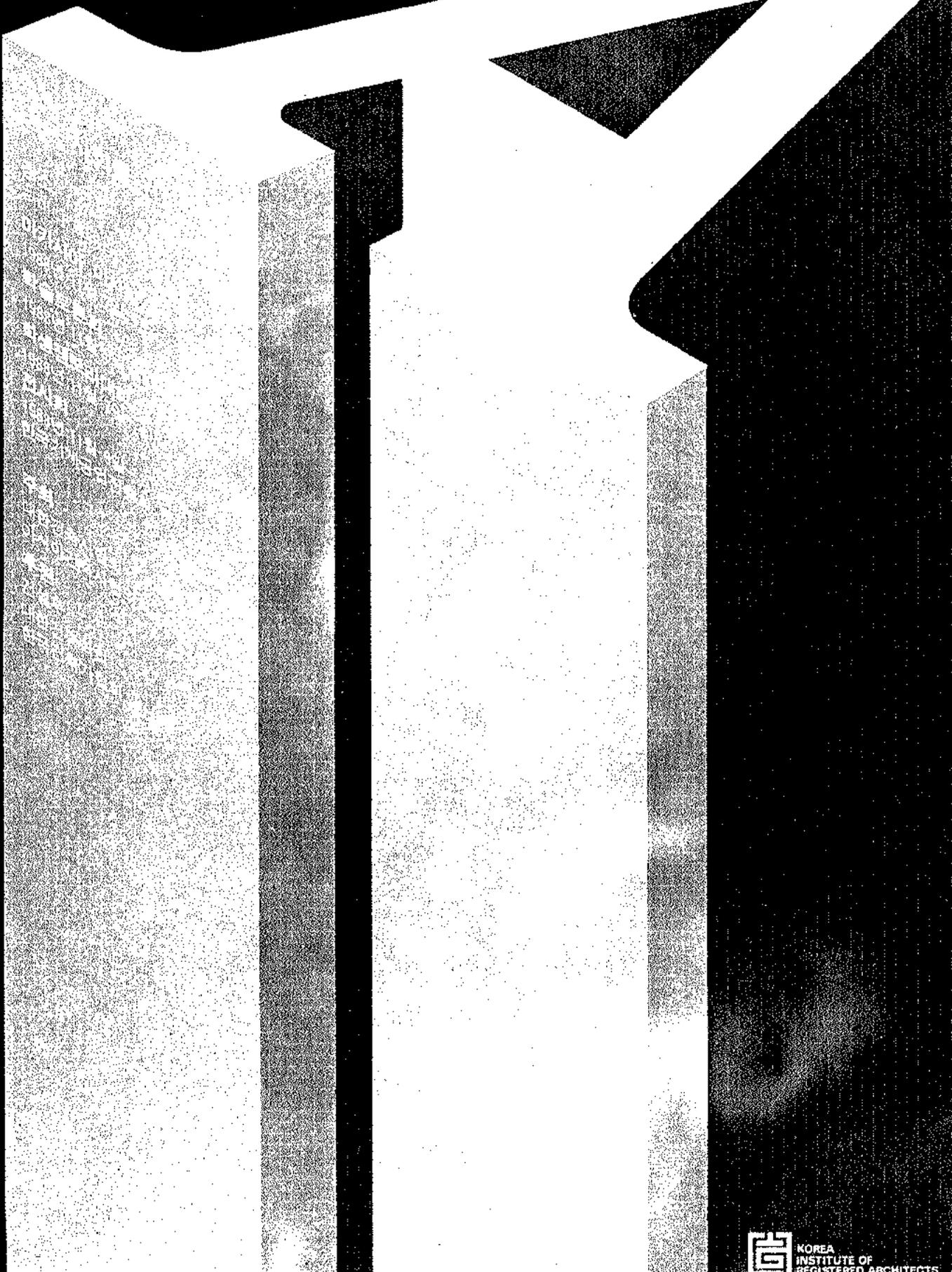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7-11, NOVEMBER, 1988





建築士

표지사진: 중앙대(안성) 도서관
설계: 公日坤+文炳國

發行人: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翼

副委員長: 尹錫祐

委員: 金琪碩, 卞銘, 金品東, 趙聖烈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팩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洸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s-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차 례

1988년 9월호(통권 234호)

會員作品

- 7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徐輔光
- 10 한일증권 사옥.....洪英熙
- 12 중앙대(안성) 도서관.....公日坤+文炳國
- 16 사티코프센타 빌딩.....예종합건축사사무소
- 18 일신기독병원 모자보건센터.....金宗根
- 20 신리수산사옥.....金榮洙
- 22 제3차 아시아建築士大會 학술토론회(3)

연구

- 26 외국의 현대건축가소개 ④ / 에밀리오 암바스.....成仁洙
- 42 한국의 전통건축 ④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張慶浩
- 46 (綜合)病院設計 着眼事項.....曹浚茲+孫炳錫
- 54 일본 건축기본법과 건축사법상의 벌칙과 주요제도에 대한 개관.....姜錫俊
- 80 조력발전소 건축(Dam 겸용)의 組立式 P.C構造工法에 관한 연구...李明春

설계경기

- 64 인천중합문화회관 현상설계공모
- 72 마산지방법원청사 현상설계공모

일하며 생각하며

- 78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해.....金永頤
- 85 민주화와自律化에 對한 視覺.....崔昌奎

90 協會消息

93 新入會員

96 7월분 도서신고 현황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34호
가입년월일	1988. 9. 30.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55 /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 169-16 / 333-1873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 1422-17 / 888-6744
- 도당분소 / 도당구수유동 131-13 /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81 /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상대동317-4 /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5 / 695-0787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 923-6213
- 종로분소 / 종로구정관동 201-1 / 735-0906
- 마포분소 / 마포구도화동 250-4 / 712-8844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 50-12 / 423-9158
-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 11-2 / 252-6507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 1가 129-22 /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 1623-1 / 586-7707
- 은평분소 / 은평구음암동 103-12 / 356-7172
- 동리분소 / 동대구사당동 147-79 / 599-6754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 241-6 / 545-0757
- 노원분소 / 노원구공릉동 617-6 / 976-1836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 1027-9 / 646-7172
- 중랑분소 / 중랑구명우동 516-41 / 491-0925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 410 /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 130-32 / 864-3988
-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가 1 (부산대피트네) (051) 23-6284-5
-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벌아동 3가1-8 / (053) 72-5141-2
-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 / (062) 223-7598
-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진척 1동 558-1 / (032) 424-0146, 5160 (한국종합빌딩 204호)
-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 3가 124-5 / (0331) 42-6490, 7072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6 /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촌동 5512 /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82 / (0351) 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장동 21 /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 303로 16로트 / (0341) 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종리 216-8 / (0336) 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 464-7 / 682-9875
-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속진동 39-5 / (0361) 2-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안산동 206 / (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상대동 6 / (0391) 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6 / (0392) 2-5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 55-43 / (0397) 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 1리 959-35 / (03732) 2659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16-168 / (0431) 2-275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외림동 8-8 /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읍온음산리 139-4 / (0433) 2461
-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서문동 487-1 / (042) 22-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 160-14 /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 (0451) 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문리 719-2 / (0463) 2-2217
-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북빌딩 508) (0652) 3-3881
- 이리분소 / 이리시남동동 1가 77-22 /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85 /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 106 / (0671) 2-6002
-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회정동 783-23 (추신회관) (062) 364-7567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 1번지 /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 51-11 / (0661) 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광동 441번지 / (0682) 64-7023
-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71285번지 / (053) 42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 96-70 / (0562) 74-9713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 100-1 / (0561) 3-7743
- 구미분소 / 구미시민평동 356-2 / (0546) 52-7903
- 안동분소 / 안동시북평동 29-5 / (0571) 2-6635-6
- 김천분소 / 김천시밀화동 280-1 / (0547) 2-2541
-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 침례분소 / 침례시경동 261-2 / (0581) 2-2706
- 황주분소 / 황주시남성동 11-3 / (0582) 2-4306
-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13 / (0551) 2-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5 / (0522) 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문성동 7-20 / (0591) 2-6403, 42-3434-5
- 창원분소 / 창원시서호동 177-101 / (0557) 2-2504,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림동 25B-17L / (0594) 2-3155
-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 67-1 /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 483-9 / (0598) 2-3777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마리 500-3 / (0523) 4-2669
-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 교원리 139-2 / (0558) 32-1086, 2-3372
-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도1동 1289-6 /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 425-1 / (0642) 62-3920, 3322

CONTENTS

September 1988 Vol. 234

WORKS

- The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 Suh, Bo-Kwang 7
- Headquarters Office, Hanil Instrument Co. Hong, Yeong-Heui 10
- Library of Ansoŋ Campus, Choongang University
..... Gong, Il-Kon & Moon, Byung-Kook 12
- Citi Corp.Center Building Associates.Art Group 16
- IL-SIN Christian Hospital Comprehensive Marnal Child Health Center
..... Kim, Jong-Kcun 18
- Silla Sea Food Co. Headquarters Office Kim, Yong-Soo 20

SPECIAL ISSUE / Introduction of the ACA-3 Conference 22

REPORT

- Overseas Contemporary 6 / Emilio Ambasz Seong, In-Soo 26
-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Chang, Kyung-Ho 42
- Ideas on the Design for a General Hospital Cho, Jun-Houn & Son, Beung-Suk 46
- Comparing the Law of Architect in Japan and Korea Kang, Suk-Jun 54
- A Study on the Prefabricated-Structure Construction Method of In-Jae Tidal Power
Dam Lee, Myung-Choon 80

COMPETITION

- Competition for Incheon Cultural Center 64
- Competition for Masan Local Court Building 72

ESSAY

COLUMN

KIRA NEWS

NEWLY ADMITTED MEMBER

STATUS OF ARCHITECTURAL RECORD-JULY 96

제1기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행정대학원

연수생 모집안내

本協會 國際委員會에서는 美國의 傳統 있는 私學名門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協議를 하여 都市建築行政과 經營에 關한 研修課程을 開設 하였습니다.

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개최되는 本 教育課程에 參與 할 會員을 募集 하오니 多數 同參하시어 美國의 首都 워싱턴의 建築行政, 經營의 眞髓를 見學視察하시고 國際感覺을 높힐 수 있는 自己發展의 機會로 活用 하시기 바랍니다.

주 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기획·주관: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해외협력위:

교육장소: 조지워싱턴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워싱턴 D. C.)

연수제목: 『도시계획과 현대건축』

『Advanced Course for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연수내용: 대학강의 및 시찰 (건축·설계·관련기관)

연수기간: 1988년 12월 4일 (일) ~ 12월 13일 (화) (9박10일)

참가자격: 회원 또는 건축계 관련인사

참가인원: 25명

참가회비: ₩3,700,000 (왕복항공료, 숙박비, 연수교육비, 시찰기관개발비, 국제협력비, 통역료 포함)

신청비: ₩1,000,000 (참가회비 일부금으로서 반환지 않음)

신청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방문도시: 뉴욕, 워싱턴, 시카고

신청마감일: 1988. 10. 25. 17:00까지

기타: • 研修後 조지워싱턴대학교 行政經營大學院측으로부터 修了證受與.

• 教育期間中 全 課程이 동시 通譯이 되므로 英語를 이해못하시는 분도 參與하실 수 있음.

• 修了者에게 조지워싱턴대학교 行政經營大學院의 同窓會員 資格賦與.

• 現在 上記 大學校의 韓國同窓會(名譽會長: 鄭周永 現代그림名譽會長)가 組織되어 있으며 會員 相互間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음.

포교성베네딕도 수녀원

The Missionary Benedictine Si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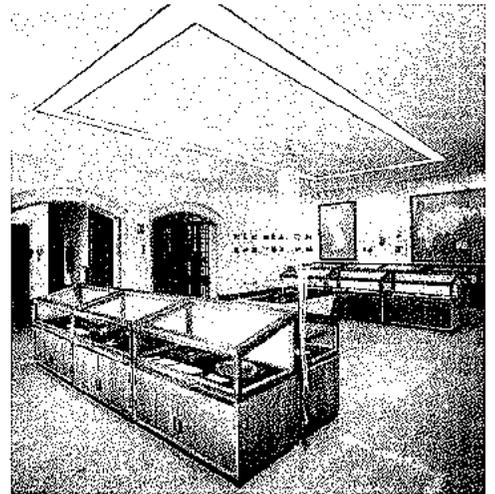
徐輔光 / 동성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uh, Bo-Kwang



전경



중정에서 본 벽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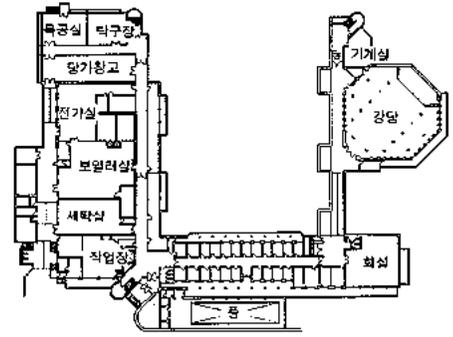


1층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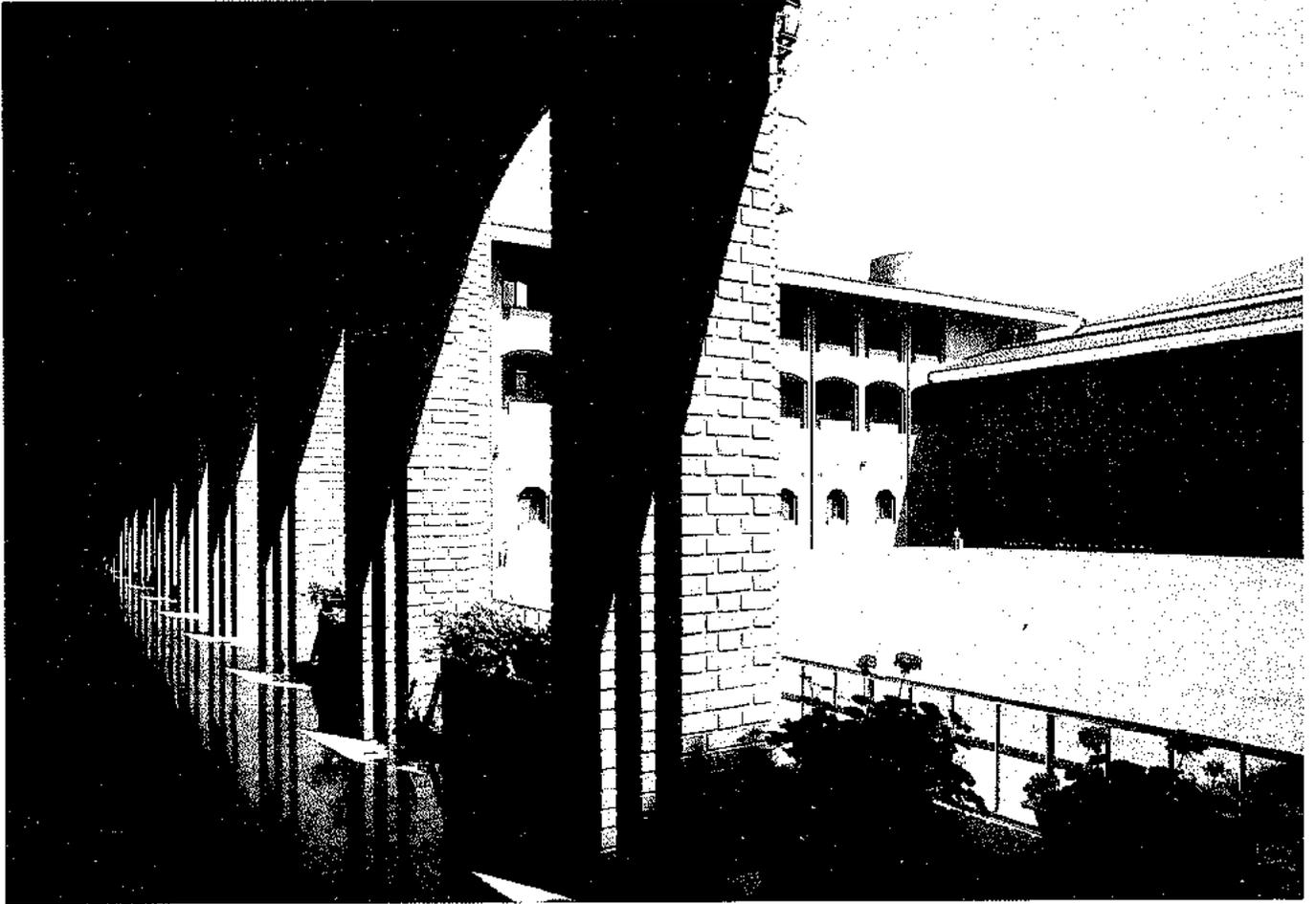
대지위치 / 대구시 북구 사수동
 대지면적 / 39,670m²
 건축면적 / 4,290m²
 연면적 / 10,580m²
 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미감 / 적벽돌 차장쌓기

설계소요

본 건물은 포교성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원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전체 대지에 남북으로 축을 설정, 좌정적 진입공간을 두고 'U' 자형으로 배치중정을 도입함으로써 개방된 대지내에 공적인 폐쇄감을 유도, 안정감을 부여했다. 이는 수도생활의 내면적 화해를 연상케 하며 중정내부에는 조경을 최대한 절제하여 말끔한 공간을 구성하여 순결한 건물자체의 내면적 속성을 표출케 하며 전체 건물의 이미지 설정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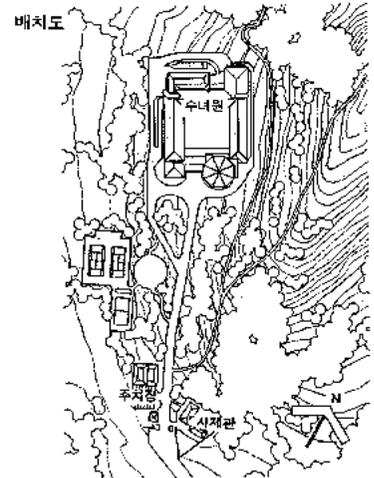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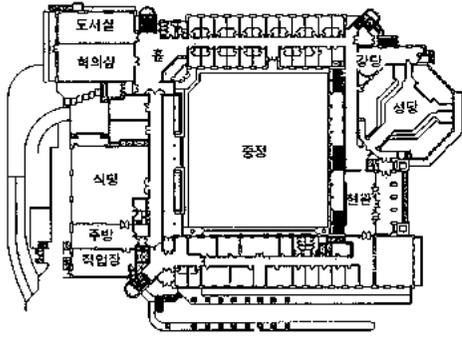


1층 식당측 복도에서 본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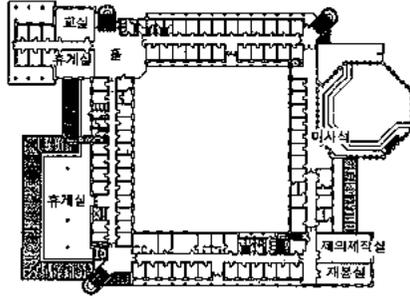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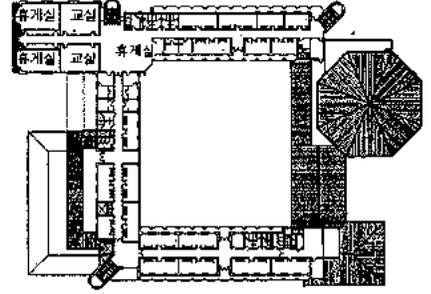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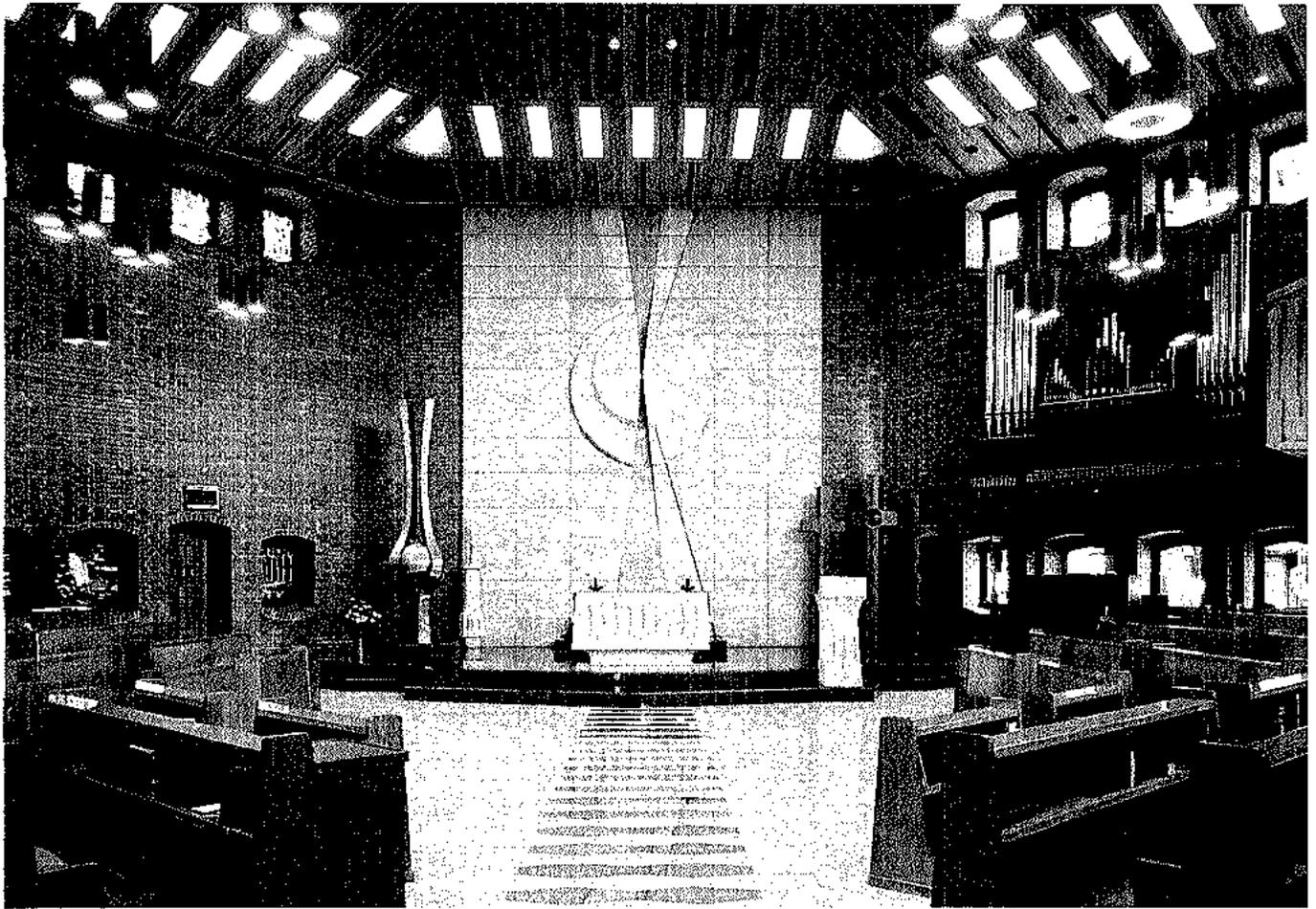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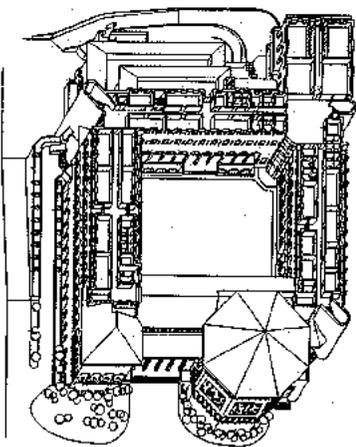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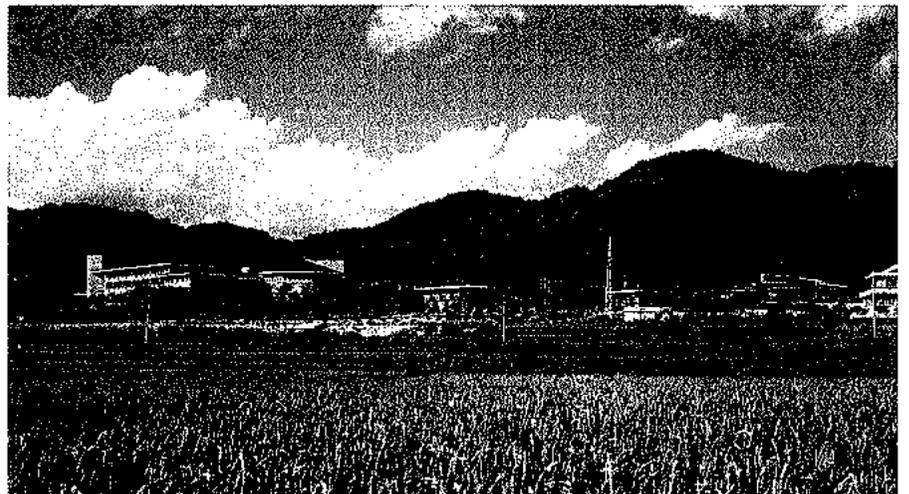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성당내부



아이소메트릭



원경

한일증권사옥

Headquarters Office, Hanil Instrument Co.

洪英熙 / (주)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ong, Yeong-Heui

◆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대지면적 / 1, 201 m²
건축면적 / 533. 4 m²
연면적 / 9, 635. 4 m²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3층, 지상 14층, 옥탑 1층
용도 / 업무시설
주요외장재 / 18mm 열선반사유리 (은색) 및
P.C판위에 백색 외장타일
옥내주차대수 / 42대
옥외주차대수 / 10대

설계소요

설계의 주안점은 한국의 맨하탄으로 불리는 여의도가 최근에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 증권 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바 본 건물도 증권사옥으로서 연관 업종의 건물들과 인접하여 대지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주변 건물과 조화시킨 미래 지향형의 건물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배치관계는 건축선을 좌우 건물과 Line을 일치시켰고 최소의 데지에 대하여 건물의 내부 기능을 최대한도로 활용코저 용적률을 극대화시켰으며 지상 및 지하 부분의 주차 SPACE를 최대한으로 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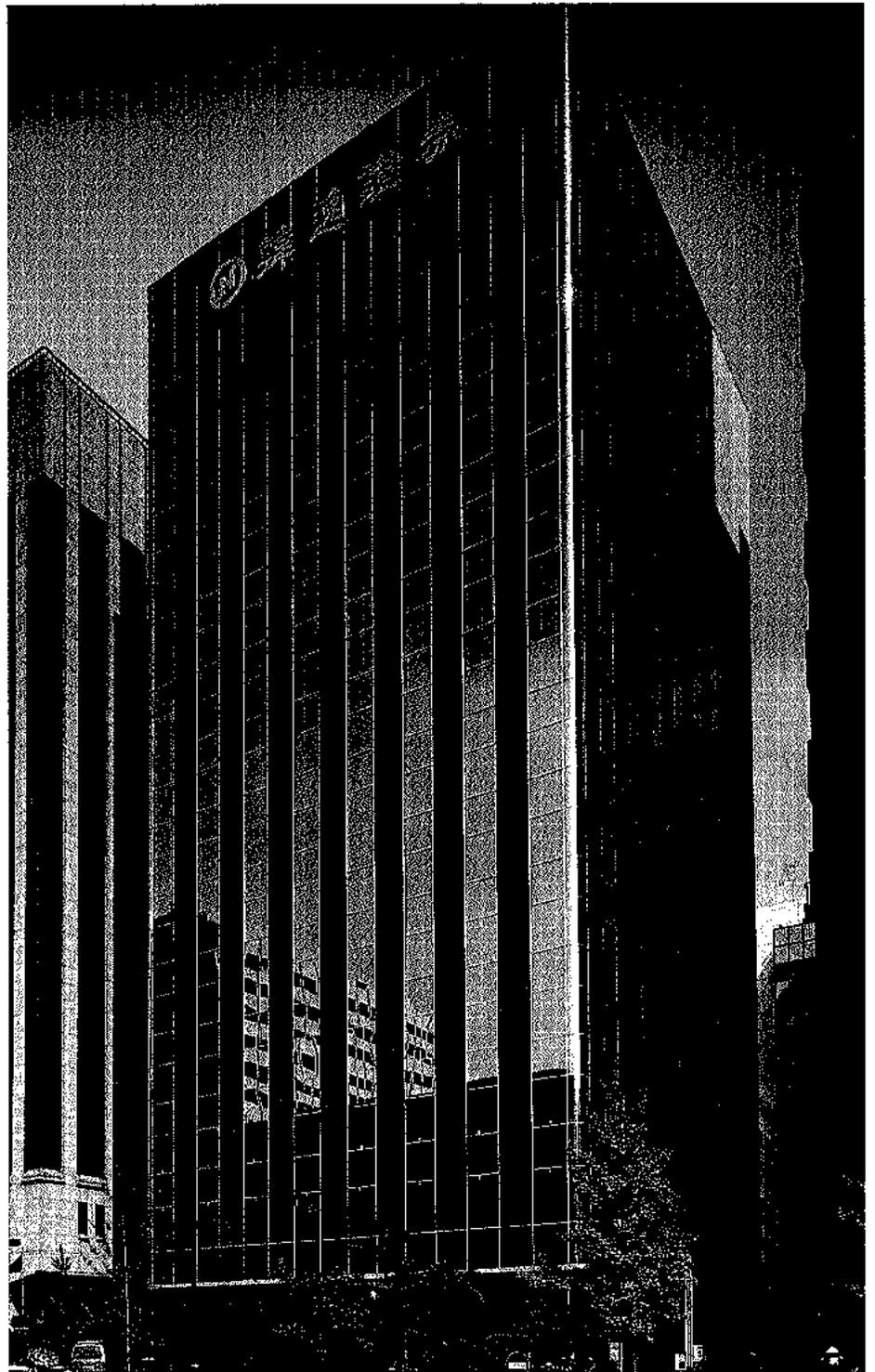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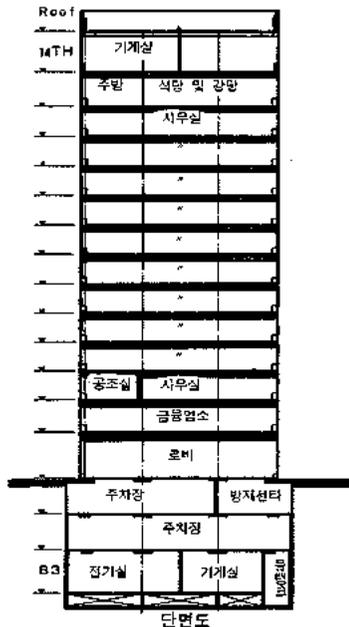
최신 공법인 2 Side와 4 Side Structural Grazing 공법으로 방음, 방수에 철저토록 하였으며 CORNER는 곡선을 두어 부드러운 질감을 갖는 방사유리를 사용, 비려한 외관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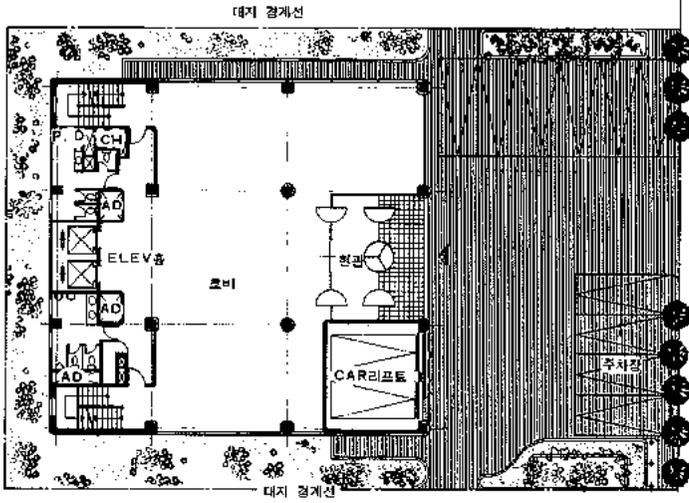
로비 부분의 벽, 바닥 마감은 화강석 대형 판넬을 사용하여 조밀한 조인트 없이 건식공법으로 일체감을 갖도록 시도함.

종래의 개념인 Office와 Core Part와의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층의 중간복도 부분을 Open 함으로서 대고객과의 친근감을 갖는 Living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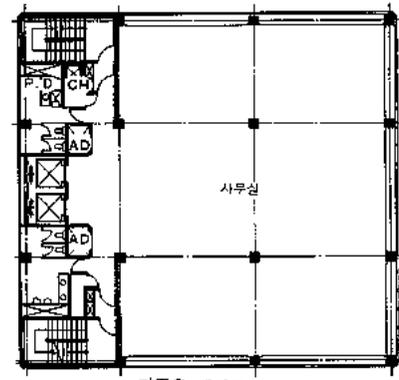
개구부는 Sash Frame의 노출없이 처리하여 외관의 일체감을 구사하였음.

건물내부에 자동 온·습도 조절장치와 경제적인 냉·난방 방식이 되도록 처리하였으며 특수 Floor Duct를 설치하여 컴퓨터화 및 사무 자동화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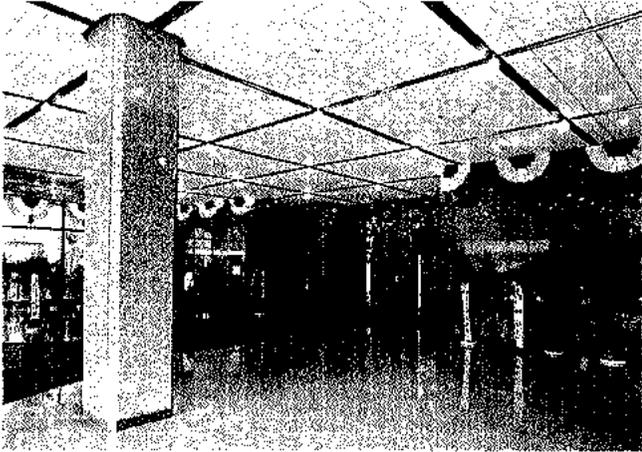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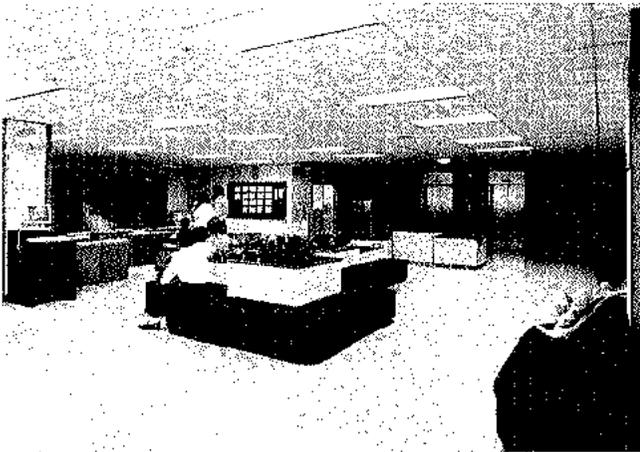
1층 로비면
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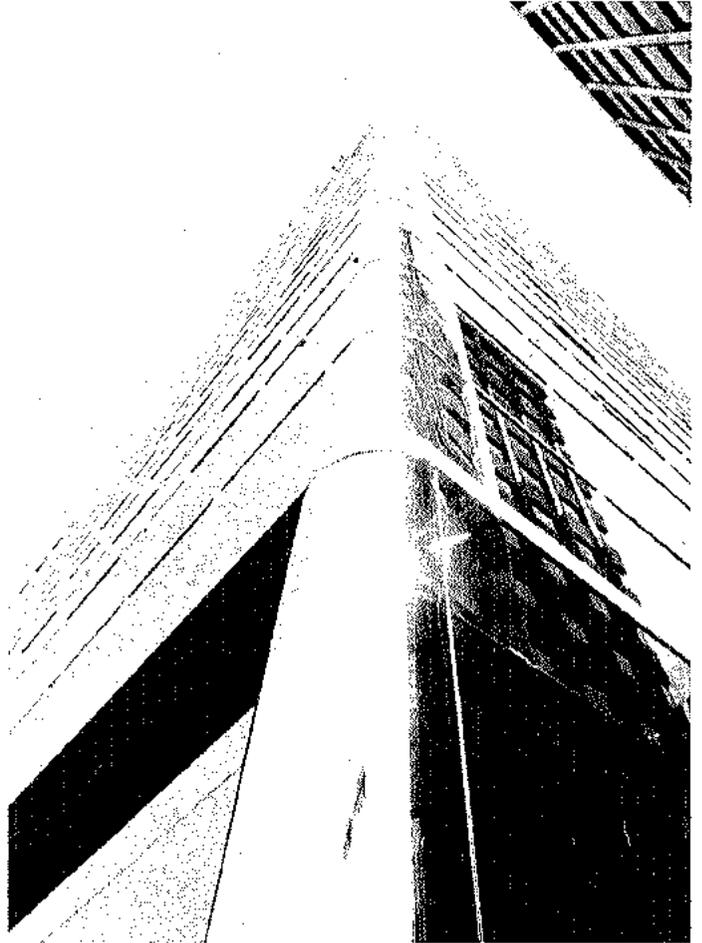
기공층 배치도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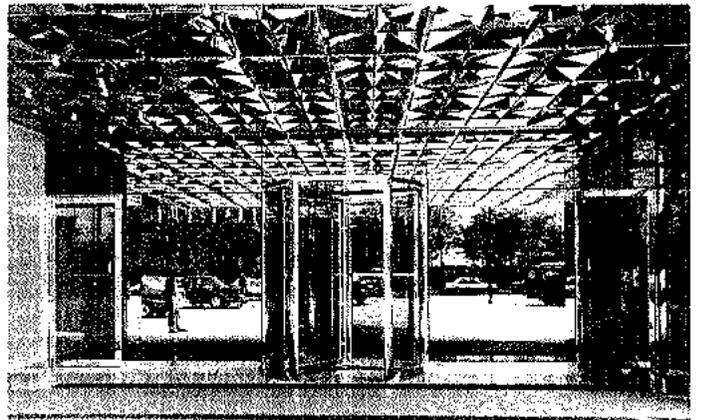
영입장



코너측 외부상세



1층 로비에서 본 주출입구



주출입구 현관상세
건축사 8809 11

중앙대 (안성)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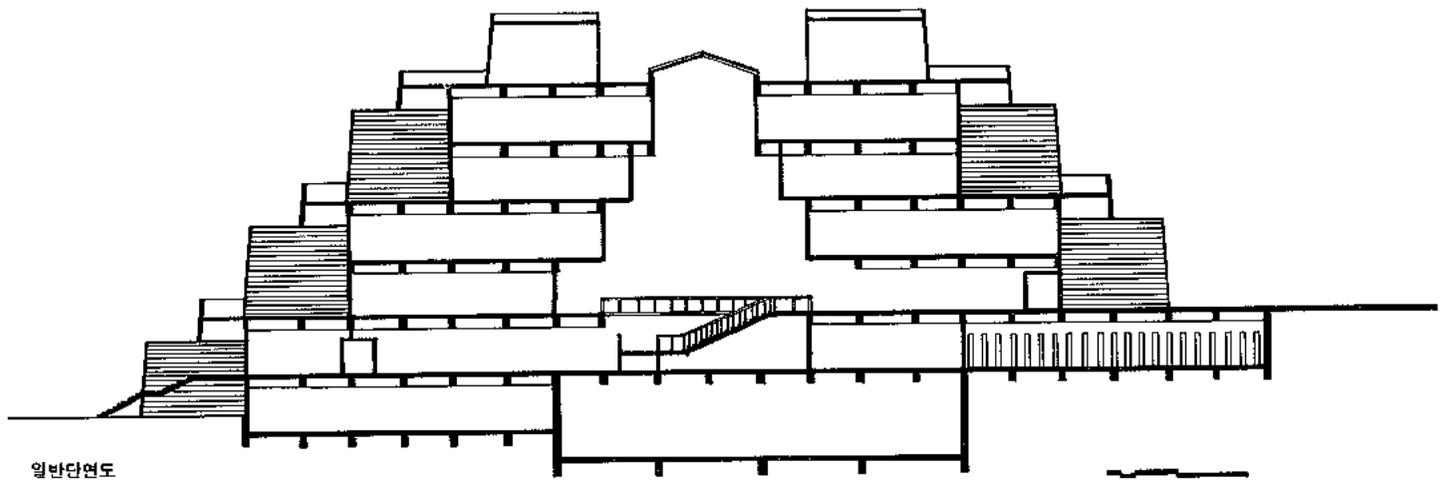
Library of Ansong Campus, Choongang University

公日坤 + 文炳國 / 향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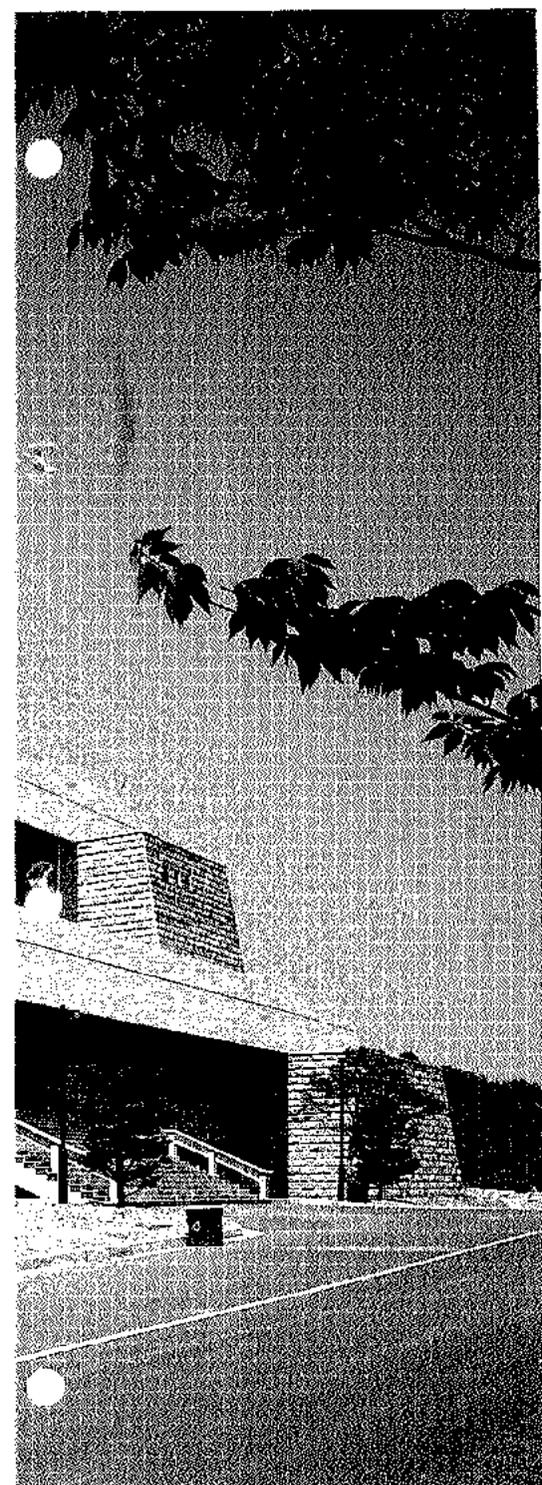
Designed by Gong, Il-Kon & Moon, Byung-Kook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총면적 / 17,028㎡
건축면적 / 5,092㎡
외부 마감 / 화강석거친마감, 노출콘크리트외
수성페인트 및 유리
구조설계 / 이수원 (서진건축)
전기 및 설비설계 / 김인선 (하나기연)
시공 / 동산토건
설계 / 1988. 3
준공 / 198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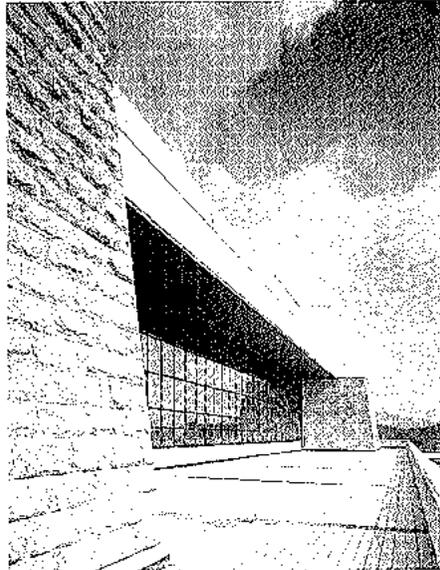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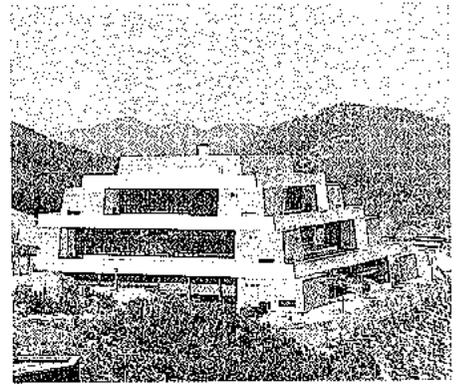
일반단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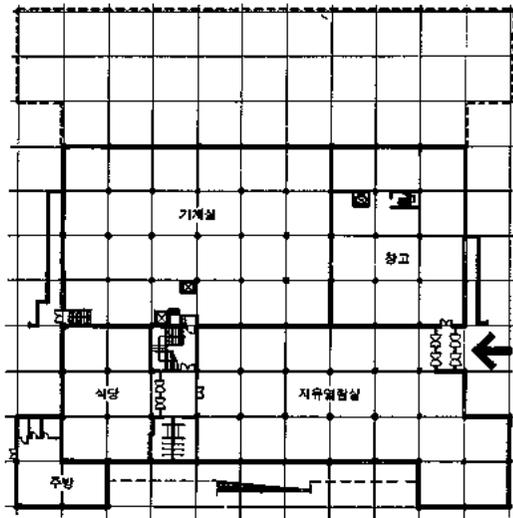
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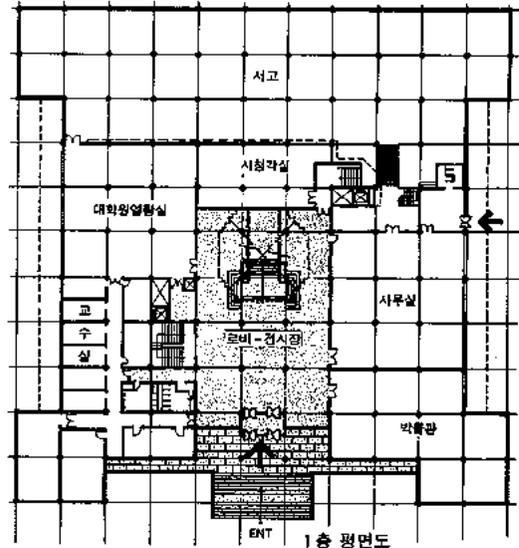
원경



개가식 열람실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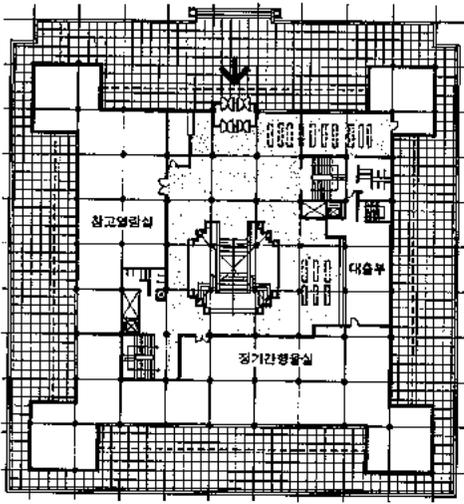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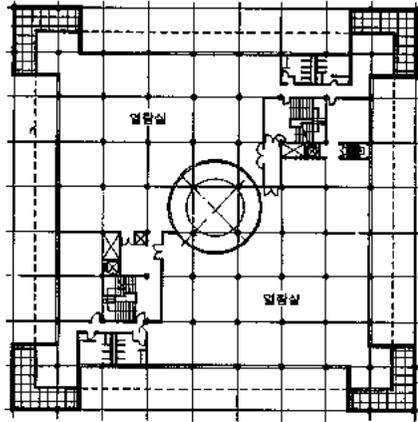
ENT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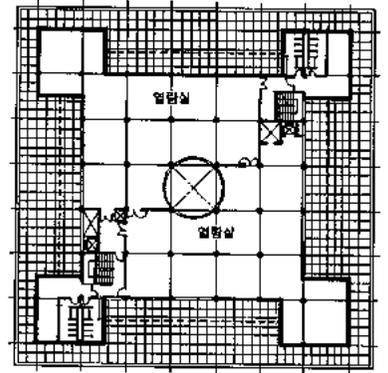
계단실 전경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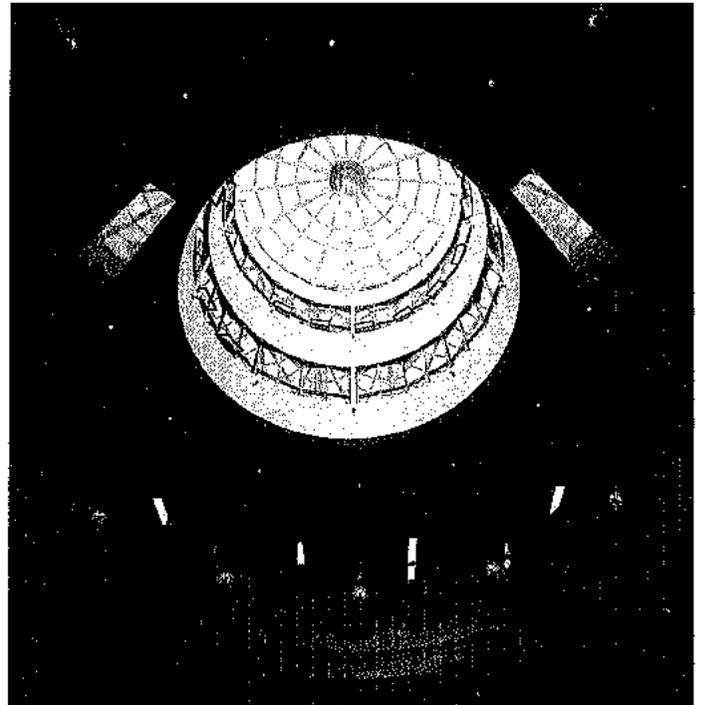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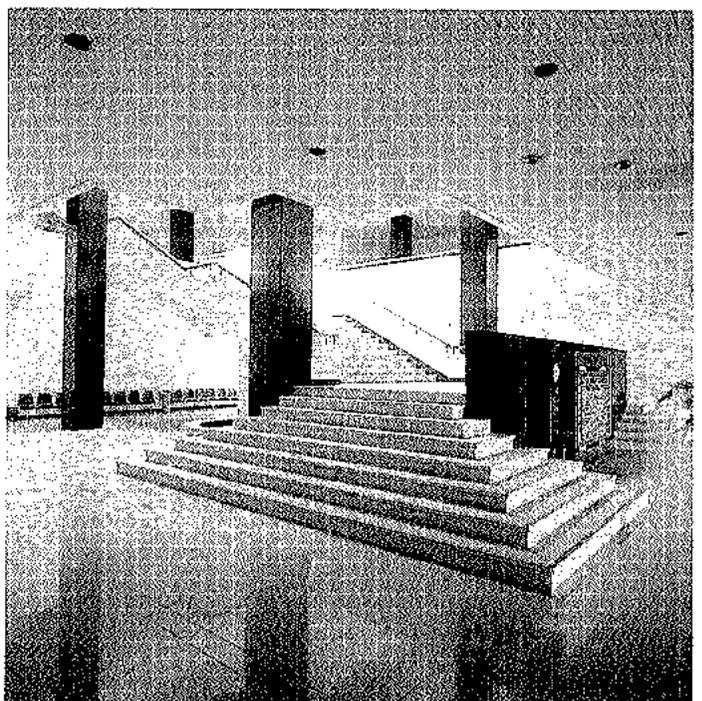
2층 로비에서 본 계단출입구상세



천창상세



2층 대출부에서 본 계단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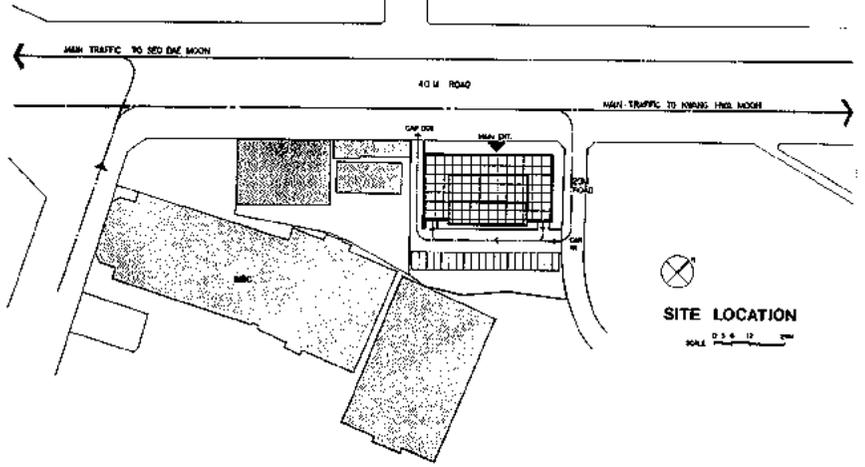
1층 계단입구

시티코프센타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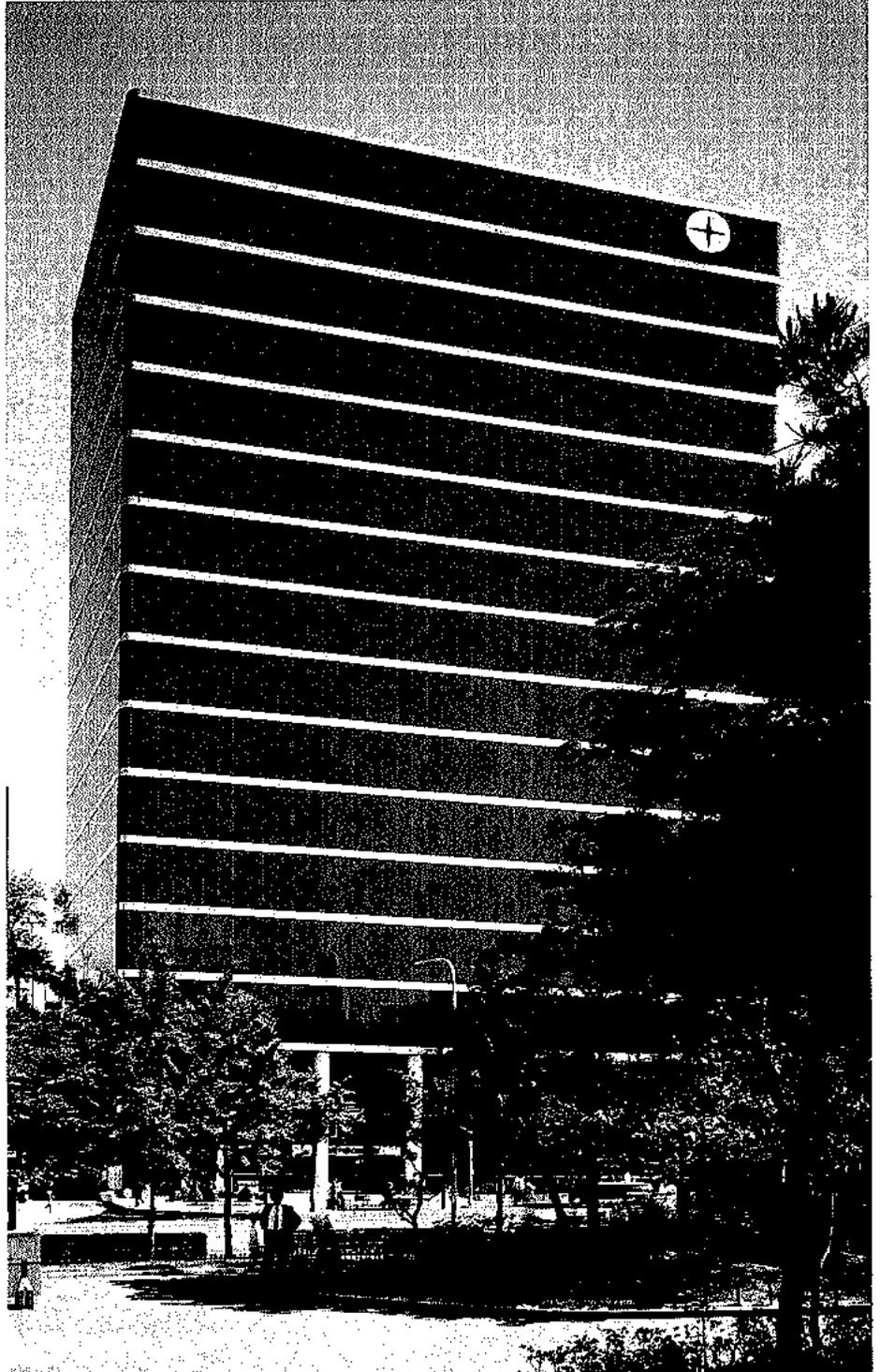
Citi Corp. Center Building

예종합건축사사무소

Art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 ◆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재개발 6지구
- 대지면적 / 2,678.1m²
- 건축면적 / 1,005.2m²
- 건폐율 / 37.5%
- 용적률 / 556.12%
- 건물규모 / 지하 3층, 지상 16층
- 최고높이 / 64.05m
- 녹지면적 / 452.9m²
- 지하층면적 / 4,909.9m²
- 지상층면적 / 14,893.4m²
- 연면적 / 19,803.4m²
- 주차능력 / 옥외 : 21대, 옥내 : 86대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바닥 : 화강석, Stane Tili
벽 : 스테인레스 스틸, 페이그라스
외부기둥 : 네오바리에
- 공사기간 / 85.10 ~ 87.10
- 시공 / 쌍용종합건설 (주)



설계소도

본 건물은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지상 15층, 지하 2층 건물로서 1층은 장식적 효과를 최대한 살린 로비와 층당 평균유효면적이 761m²로써 적절한 칸막이가 가능하며 설계시 부터 유효공간을 최대로 구상하였다.

경비시설, 방화시설 및 건물관리 시설은 모두 컴퓨터에 의해 파악되고 작동·조정되는 자동화 관리기법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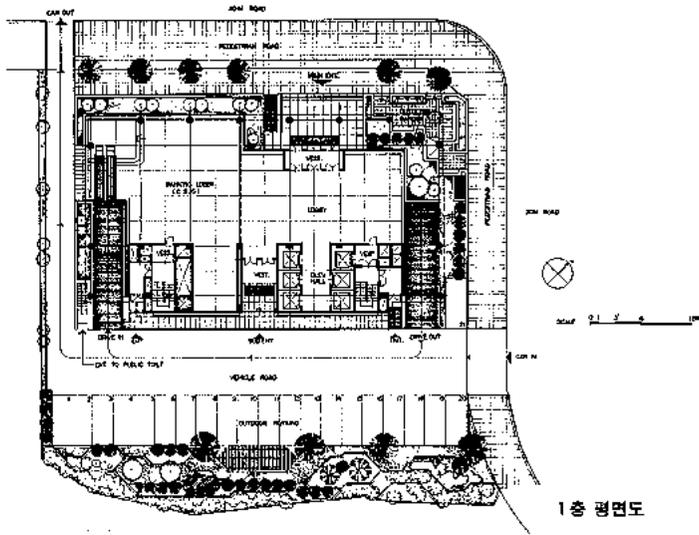
주차시설은 지하층에 86대, 지상에 21대의 주차장이 있어 총 107대를 주차시킬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는 2대의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며 이 엘리베이터는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구획을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기능상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 통신, 테이터라인 등을 융통있게 자유자재로 배선할 수 있는 Access Floor System을 설치하였다.

방음효과가 뛰어난 천정재질을 사용하고 천정은 1.5m x 1.5m Grid System을 설치하여 사무실의 칸막이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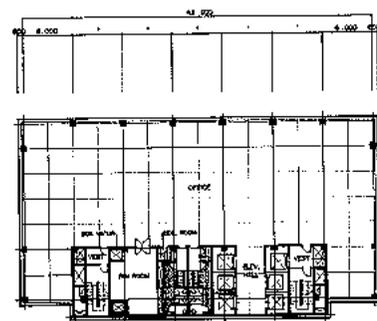
완벽한 스프링 클러 시스템과 열연감지 장치와 풍량 및 실내 온·습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V. A. V (Variable Air Volume) System을 채택하였다.

건물 전체를 감싼 유리 커튼벽은 자연광을 전혀 손상치 않으며 2중 복층유리는 뛰어난 단열효과와 더불어 도시의 소음을 현저하게 줄여주고 이능한 실내분위기를 연출시키도록 하였다.

전경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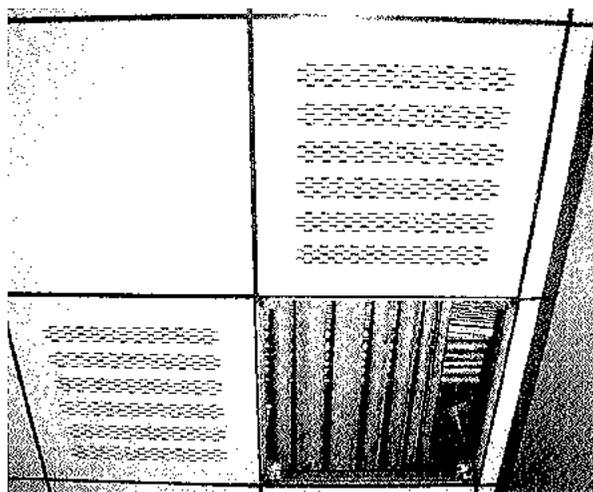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영업장 내부



옥외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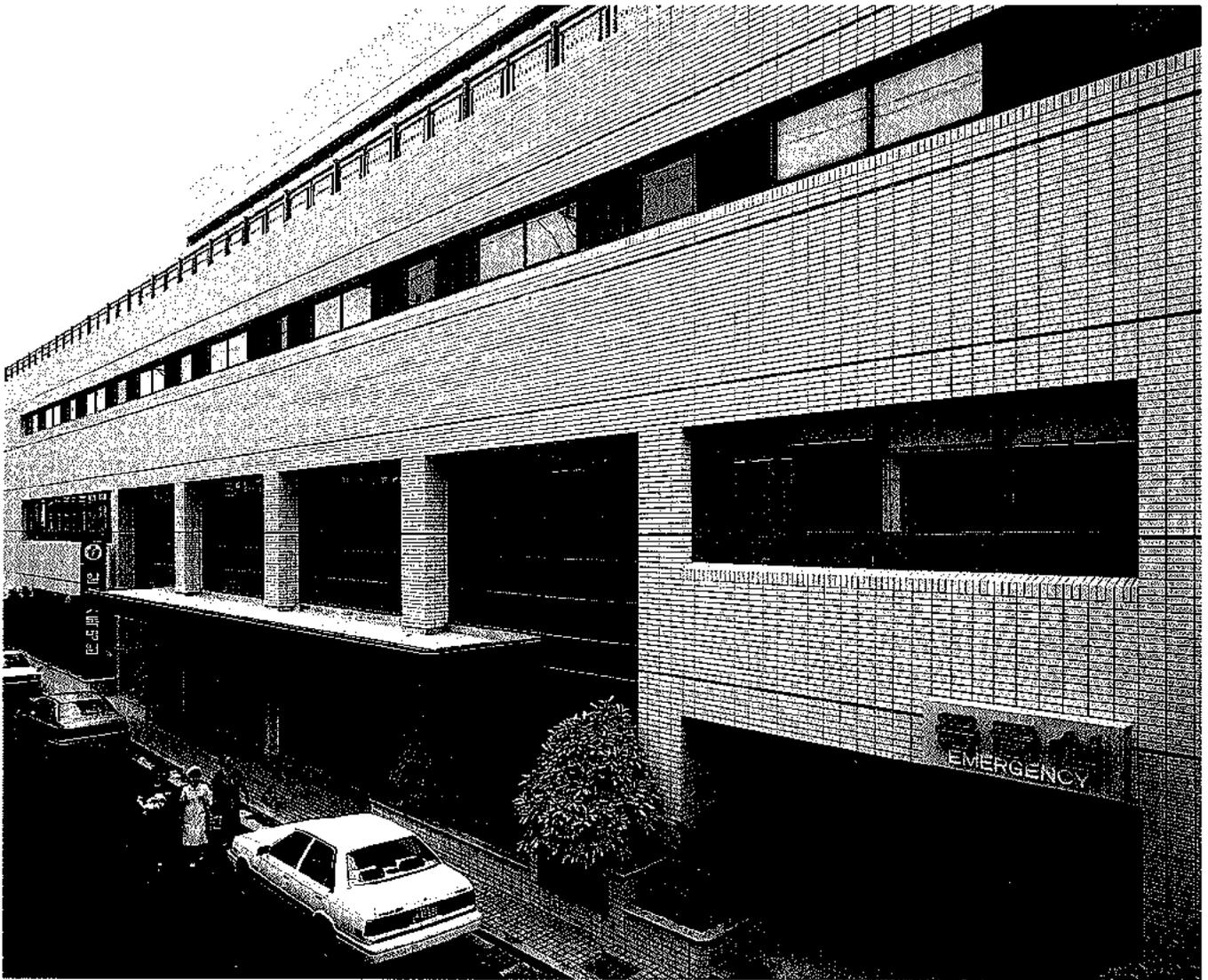


국내 최초로 건축용 Access Floor로 시공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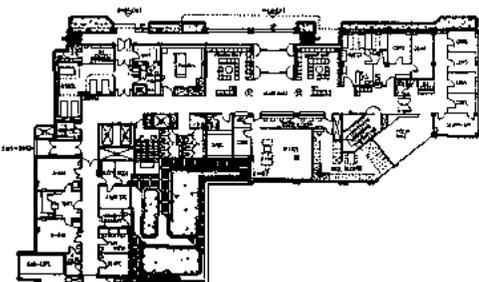
일신기독병원 모자보건센터

IL-SIN Christian Hospital Comprehensive Maternal Child Healt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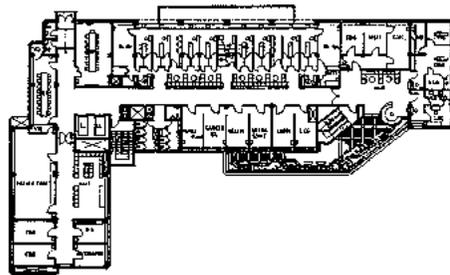
金宗根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밤아건축
Designed by Kim, Jong-K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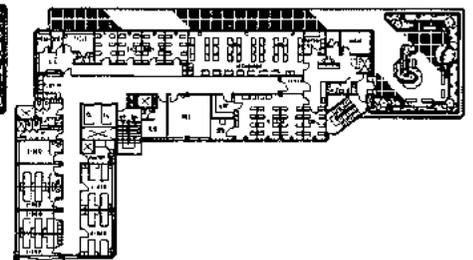
전면주출입구상세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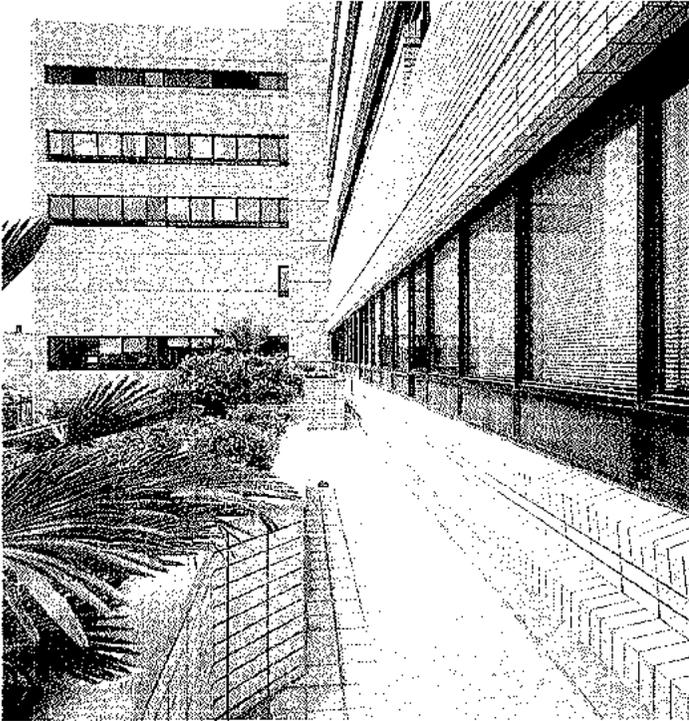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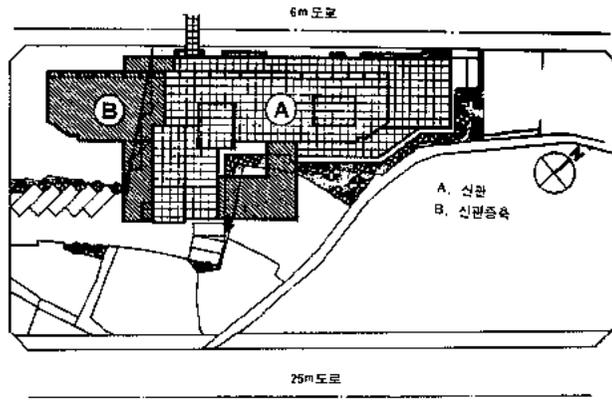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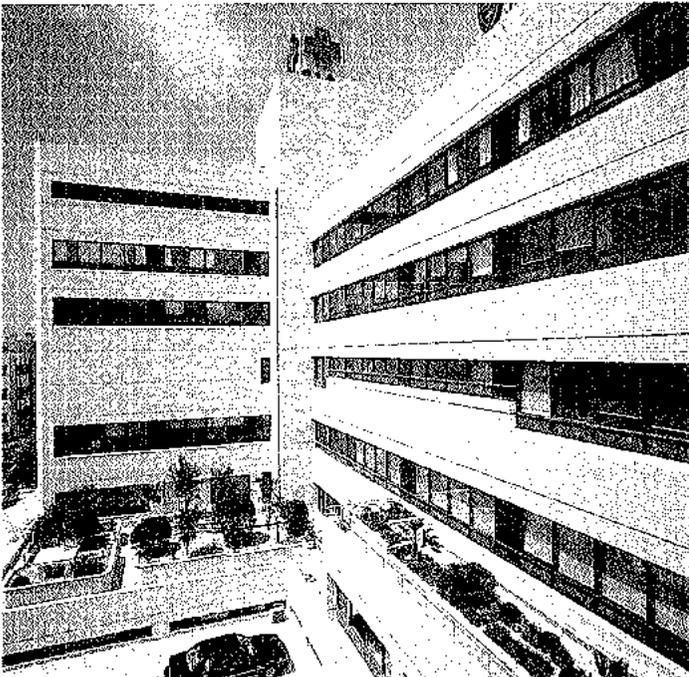
◆
 대지위치 / 부산시 동구 좌현동 432
 대지면적 / 2,526.54m²
 건축면적 / 1,124.91m²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 / 외장용 타일
 설계 / 1986
 준공 /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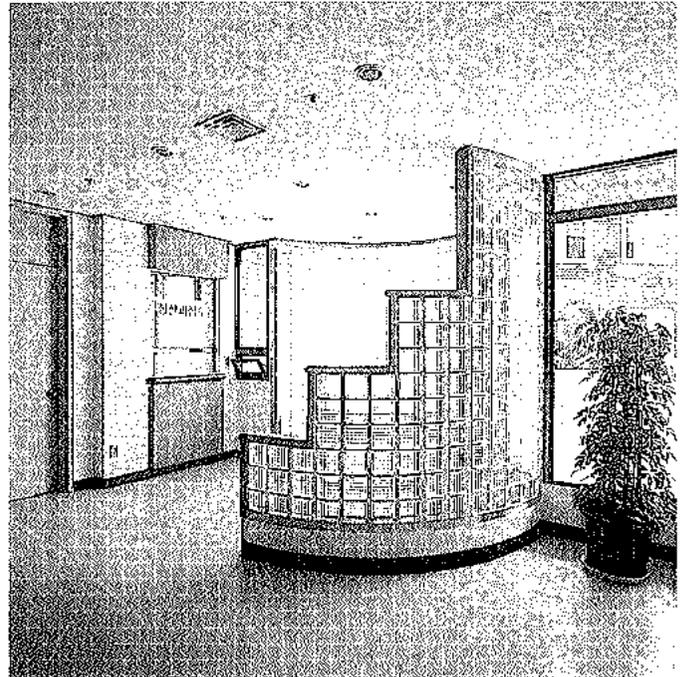
배면상세



외벽상세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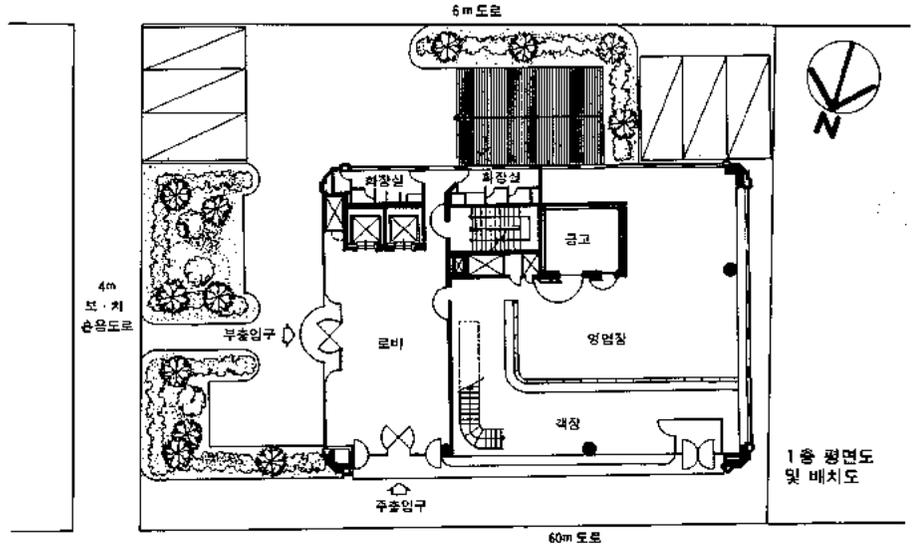


접수대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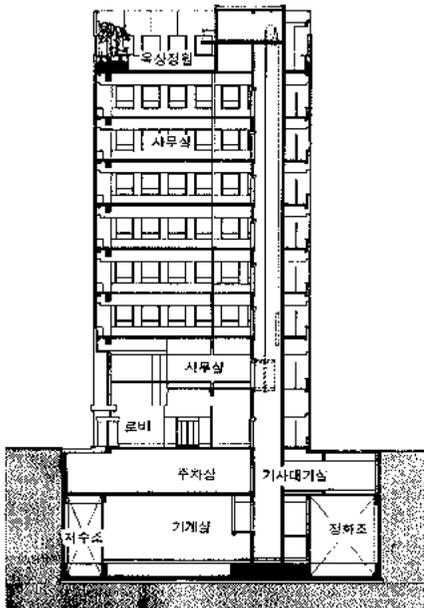
신라수산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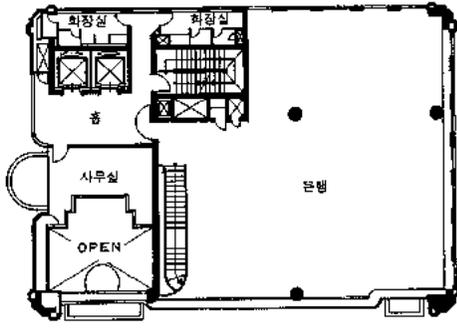
Silla Sea Food Co. Headquarters Office

金榮洙 / 종합건축사사무소 建築國
Designed by Kim, Yo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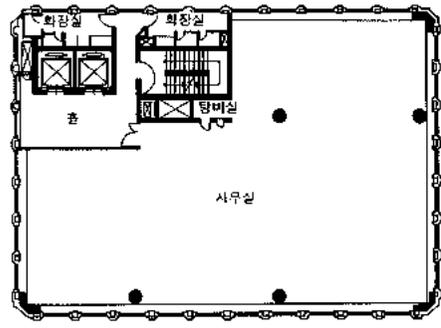


-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동구 석촌동
- 대지면적 / 1,130.1m²
-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2종미관지구
- 건축면적 / 436.81m²
- 연면적 / 4,542.6m²
-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 구조 / R. C조
- 외부미감 / 벽체 : G. P. C미감
창호 : 24mm반사유리 (골드)
- 공사기간 / 87. 4. 15(착공) ~ 88. 4. 30(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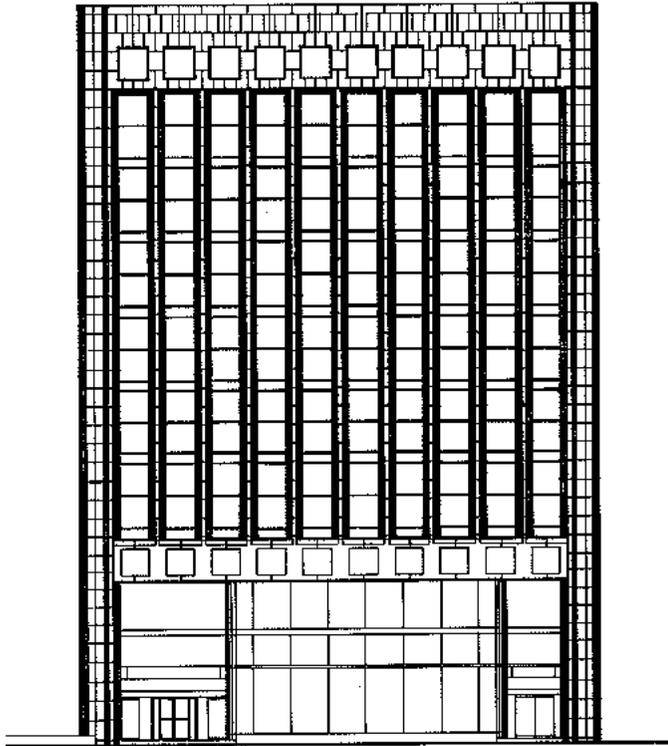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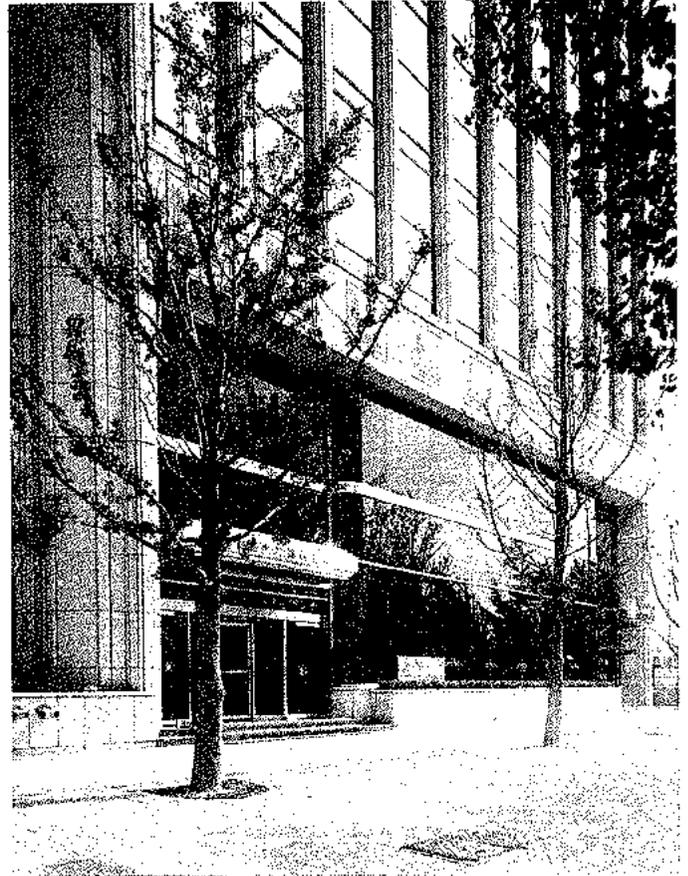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입면도



주출입구상세



1층 로비에서 본 출입구상세



부출입구상세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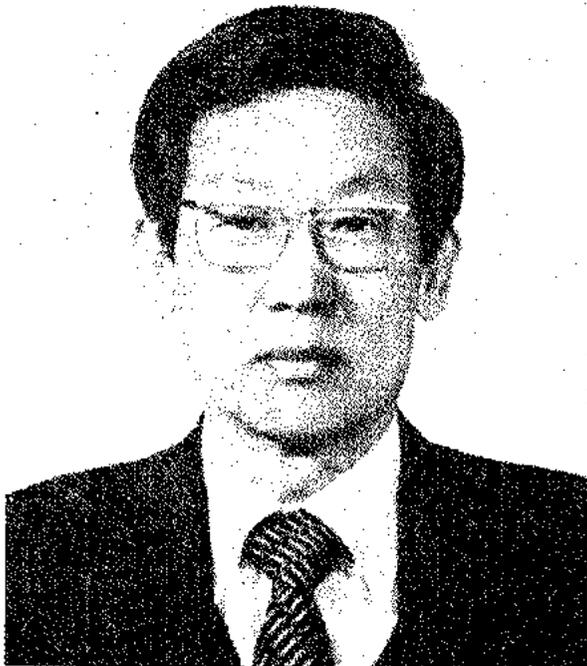
학술토론회 (Conference) 소개 - 3

Introduction of ACA-3 Conference

ACA3 집행본부 기획위원회

기조연설

연사 : 한태동
제목 :



한태동

발표연사소개 :

중국의 로우리 인스티튜트와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했으며 1956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기독교사상 강좌교수 및 동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대학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종교와 기독교'가 있으며 약 60편의 발표논문이 있다.

연설초록 :

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전통적인 공간성에 대한 건축의 근대성을 얘기하기전에 지난 반세기(1930~1980)동안의 주요 발전상을 개괄해 봅시다.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제명에 잘 나타내지는 바와 같이 미스 반 데어로는 공간미학에서 단순비례라는 한계를 넘어 단위 벡터가 벡터합의 일반법칙으로 제시되는 단순화된

일차선형성을 추구했다.(수동)
이러한 선형의 구법은 공간을 투명하고 엄격하며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꼬르뷔제는 단순 스칼라 승합에다 대수적 증가를 공간성에 보냈다. 그는 공간을 순차적으로 상호연관속에 확장하고 율동적으로 진동하도록 했다. $y = f(\sin X^2)$. 한편 그로피우스는 다변수 함수의 관점에서 벡터의 차원을 확장했다 : $y = f(X_1, X_2, X_3, \dots)$

대수학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건축공간을 개념적으로 정의했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의 스칼라 및 벡터의 요소를 부가했다. 위상학적으로는 그들은 분리(T₂ 공간)가 가능하고 실함수(유리순열)의 관점에서 겹 수 있는 계량공간'위에 그들의 건축을 구성했다. 이들 근대건축의 외연적 공간에서의 성과는 공간조직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러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을 선호하는 원시성으로 되돌아 갈수는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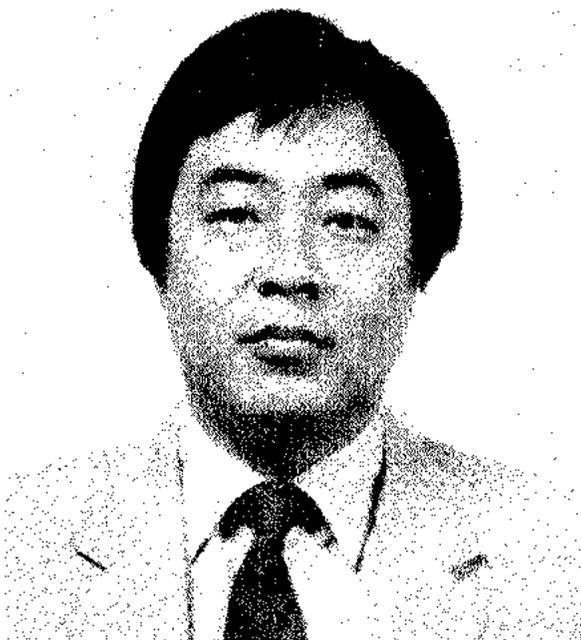
'우주'와 '집'의 전통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거의 3500년전에 사용되었던 가장 오래된 문자라 할 수 있는 갑골문자로부터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에 의하면 우주는 원초적인 조상들로 구성되며 태양으로 상징되는데 태양은 모성의 동쪽에서 태어나 정으로 진행하며 다시 모성의 서쪽이 받아주어 저승으로 내려가게 된다. 태양의 하강은 북소리로 알 수 있고 이의 상승은 시간의 순환을 나타내는 날개로 예시된다. 중앙의 수평선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를 뜻한다. 지구는 풍요한 수확을 위한 비를 바람과 구름의 매개로 얻는다.

가족과 집의 기능에 관한 어머니는 생물적 과정에 관여하고 아버지는 유전적 과정에 관여한다. 생물적 과정은 아이의 잉태로부터 성숙하기 까지의 과정으로 표현된다. 유전적

토론회1, 두번째 발표

주제발표연사 : 강홍빈

발표제목 : 기술의 자율성과 사회적 결정론



강홍빈

발표연사소개 :

1971년 하버드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고 엠·아이·티 대학에서 예술·건축 및 환경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주택공사 건축연구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작품은 올림픽공원, 독립기념관, 한국의 신수도 등이 있다. 올림픽공원의 성공적인 완성에 공헌한 바 훈장이 수여되었다.

발표문 초록 :

한국에서의 건축관계 기관들은 사회에의 기여를 위한 집단적 추구로 발전될 만한 일들을 겪고 있다. 이 움직임은 기존건축과 실천적 양태를 그 기초부터 재고하려는 짧은

건축가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들은 건축전문직의 자율성은 순진한 공론에 불과할 뿐이었고 사회현실로부터의 격리는 억압적인 사회관계를 영구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퇴행적이라고 여긴다.

적어도 한국에서 자성의 기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축가라는 직업 집단에 대해 이 비판은 새롭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한다. 이 비판은 건축가 집단이 만족하며 그속에서 안주하며 실행해 왔던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 외부로부터 인식되어서 급격히 팽창한 건축직업 집단은 물질적 성장에는 크게

이바지 했지만 사회현실과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둔 법칙'을 발전시키는데는 실패했다. 건축이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실행이 아니면 내적으로 주관적인 예술적 관행으로 여겨지는 한에서 이의 사회적 상호관련성은 도외시 되어왔다. 이러한 태도는 권력 엘리트나 자본가 혹은 벼락부자들간에 그들이 새로 획득한 신분적 특권을 건축형태를 통해 나타내려는 유수의 건축주들에게 의해 더욱 조장되어 왔다.

젊은 비평가들의 판단은 쫓점을 지르고 있지만 그들자신도 사회적 활성성을 선동하는 이상으로 건축의 실천 관행을 개척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결정론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개혁된 실행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과도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사회에서의 건축의 역할에 대한 전적인 회의를 불러 일으키거나 건축 전문직업에 대한 독선적인 자기과장을 조래한다. 젊은 건축가들의 비판속에 내재하는 이 결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는 건축이 인간활동의 전문화된 분야로서 효과적인 수 있는 영역안에 굳건한 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두개의 주요 문제점은 '도시주의'와 '건물유형론'의 개념을 세련화 시키는 것과 이를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문론적이고 후자는 범칙적이라 할 수 있는바, 이들은 집단적 규범이 개개성원들에게 전달되고 또 개인들의 행동이 공동체적 내용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주된 매개체이다. 그들은 분명히 사회적 산물이고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 물리적 형태로 실현되는 한 건축적 간섭의 정당한 주제라고 여겨진다.

※ 학술토론회 진행안내

제3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이틀간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이사회에 이어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학술토론회가 있으며 연합행사로서 아시아 건축학생 잼보리대회와 건축작품 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리게 되어 있다.
금번대회 학술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정신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이다.
학술토론회는 4개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제4토론회를 제외하고 매 토론회당 2편의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1편의 주제발표당 주어진 시간은 40분이며 발표자는 발표에 이어 토론회 의장의 주재아래 2인의 토론자와 20분간 토론을 벌이고 다시 15분간 청중들과 토론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3개의 토론회에

6명의 주제발표 연사가 참가하게 되며 마지막 제4토론회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대회 수석보고자 (Rapporteur General) 의 사회로 6명의 발표자, 기조연사, 12명의 토론연사 및 3명의 토론회의자 등이 모두 참석하여 청중들과 더불어 앞서 3회기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진다. 약 25분에 걸친 기조연설은 8일 저녁의 개회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학술토론회 일정표

일자	주 제	제 목	초 청 연 사	토 론 연 사	토론회 의장	레 포 터
11. 8 (화)	개 회 식 기 조 연 설		국무총리 (한국) 한태동 (한국)			
11. 9 (수)	제 1 토론회 건 축 사 와 공 동 사 회	Traditional Processes and Modern Products	C. B. Wilson (영국)	Rusi Khambatta (인도) Robi Sularto (인도네시아)	Felipe Mendoza (필리핀)	Robecca Tobia (필리핀) Shahab Ghani Khan (파키스탄) (1 - 2명 (한국))
		Between Technological Autonomy and Social Determinism	강 흥 빈 (한국)	Lochi Gunaratna (스리랑카) Kington Loo (말레이시아)		
	제 2 토론회 건 축 사 의 사 회 적 임 무	The Public, The Private, and The Sacred	Charles Correa (인도)	Joshua Jih Pan (자유중국) Ejaz Ahed (파키스탄)	김 성 국 (한국)	Zaigham Jaffery (파키스탄) Bashirul Haq (방글라데시) 1 - 2명 (한국)
		Type As a Social Agreement	N J. Habraken (네덜란드)	Froilan Hong (필리핀) Tomoyoshi Kato (일본)		
11. 10 (목)	제 3 토론회 미 래 의 건 축 사 역 할		Rod Hackney (영국)	Esa Mohamed (말레이시아) Kamil Khan (파키스탄)	Sumet Jumsai (태국)	Michael Sumarijanto (인도네시아) Budi Sukada (인도네시아) N. A. Badheka (인도) 1 - 2명 (한국)
		Place, Environment Stock and Architecture	Tsutomu Shigemura (일본)	Tao Ho (홍콩) 장성준 (한국)		
	제 4 토론회 중 합 토 론		초청연사 전원	토론연사 전원	수석 보고자: Tay Kheng Soon (싱가폴)	결의문 채택 위원
	폐 회 식					

자연의 유토피아를 서구인에게
-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현실주의자 -

에밀리오 암바스

Overseas Contemporary/Emilio Ambasz

成仁洙 /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 에밀리오 암바스 근영

1. 대표작

스페인, 코르도바에 위치한 '부부를 위한 주택'(1978년 설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아이가 없는 부부의 주말별장으로, 명상과 관조를 위한 장소로 계획되었다. "주광을 차단하고 석양의 색조를 반사해 들여오는 땅속의 집"으로 계획 되었다. 지하에 위치하여 마음의 휴식처점 생각을 위한 장소로 마련되었다. 코르도바에서 23km 떨어진 밀밭 지대에 위치한 대지에 세워진 이 별장은 파티오를 중심으로 하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 주거형태를 현대화시킨 것으로, 거실을 건조한 기후로부터 주택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 땅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거친 스테코를 칠한 두개의 큰벽은 외부에 높게 설치되어 직각으로 만나고 있으며, 주택의 경계와 모서리의 입구를 보여주고 있다. 입구를 들어서면 계단은 쉼터가든으로 내려가는데, 계단폭은 90도로 벌어진다. 쉼터가든의 바닥에 내려가면 양 옆벽에 계단이 두개있다. 두벽을 따라 각기 출발해 계단을 올라가면 발코니에서 만날 수 있다. 직각으로 만난 높은 벽 위에는, 스크린으로 가릴 수 있는 나무발코니가 있어 멀리 밀밭을 바라보며 명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거실과 방들은 쉼터가든인 파티오 측면의 복도 옆에 거대하게 트여진,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뒤에 흠에 면한 벽은 휘어져 있다. 부엌, 욕실 등 실생활에서의 요구는 기본적인 몇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벽과 바닥은 유리타일로 마무리 되었으며 천장을 통해 내려온 빛이 빛난다. 11(사진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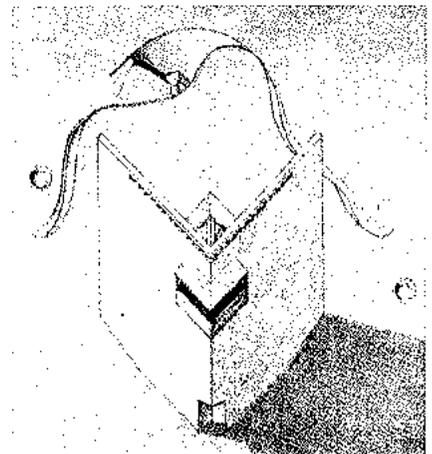
1980년 P/A 상을 수상했으나, 건축주의 요청으로 계획은 보류되었다. 이에 대해 P/A 상 심사에 참가한 헬무트 얀은 "정말 살만한 집이다. 그러나 기념적 건물이며 조정처리가 돋보인다. 별장은 대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용도는 기능적이다. 벽은 벽이상의 상징적인 것이며, 계단으로 상부에

오르면 주거 환경은 살만하고 훌륭한 조건이 구비되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확대 된다"고 이야기 한다. 심사위원 로버트 스텐은 "이 계획안은 땅속에 집을 지어도 건축이 될 수 있음을 부여준다. 곡선으로 땅을 깎아낸 것은 매우 스페인풍이다; 이집은 3차원의 조경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 찰스 로저스는 "나에게는 곡선으로 땅을 판 것은 환상적이며, 모든 부분이 벽을 돋보이게 한다. 아름다운 구성이며.....만약 곡선을 없앤다면 다른 계획안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심사위원 프랑크 게리는 "공간의 조각으로서, 입구의 촛점으로서 계단은 아름답다. 주택은 초현실적 상장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며, 자체로서 조각물이다. 외부의 거대한 오브제와 지하주거는 경이적이며, 인간을 하늘로 올려주는 감각이 있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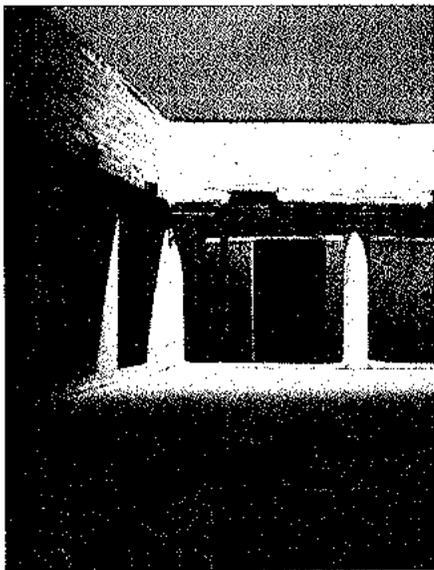
이 작품에서 주택이 오브제로 나타난 것은 건축공간에 관해 잠재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을 지녔다는 것이 된다. 즉, 오브제 (Objet) 란 예술과 관련 없는 물건이나 그 한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내어 절연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형성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일상적인 용도를

스스로 시인이기를 원하는 암바스는 어느 지역의 건축가인가?
고대 그리이스의 도시국가?
고대 중국의 어느 마을?
스페인의 어느 마을?
스스로 시인이기를 원하는 에밀리오 암바스는 어느 언어로 말하는가?
라틴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니면 에스페란토 언어로 말하는가?

◆ 成仁洙
52년 仁川生으로 75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同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송민구 건축, 의전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울산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4. 동쪽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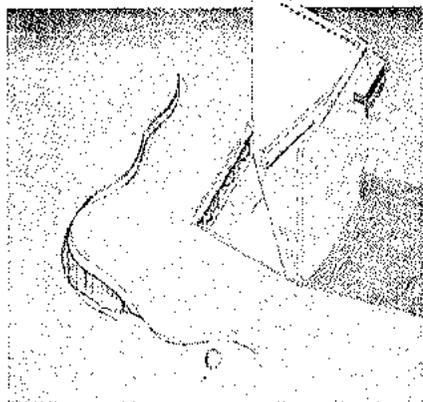


6. 거실 내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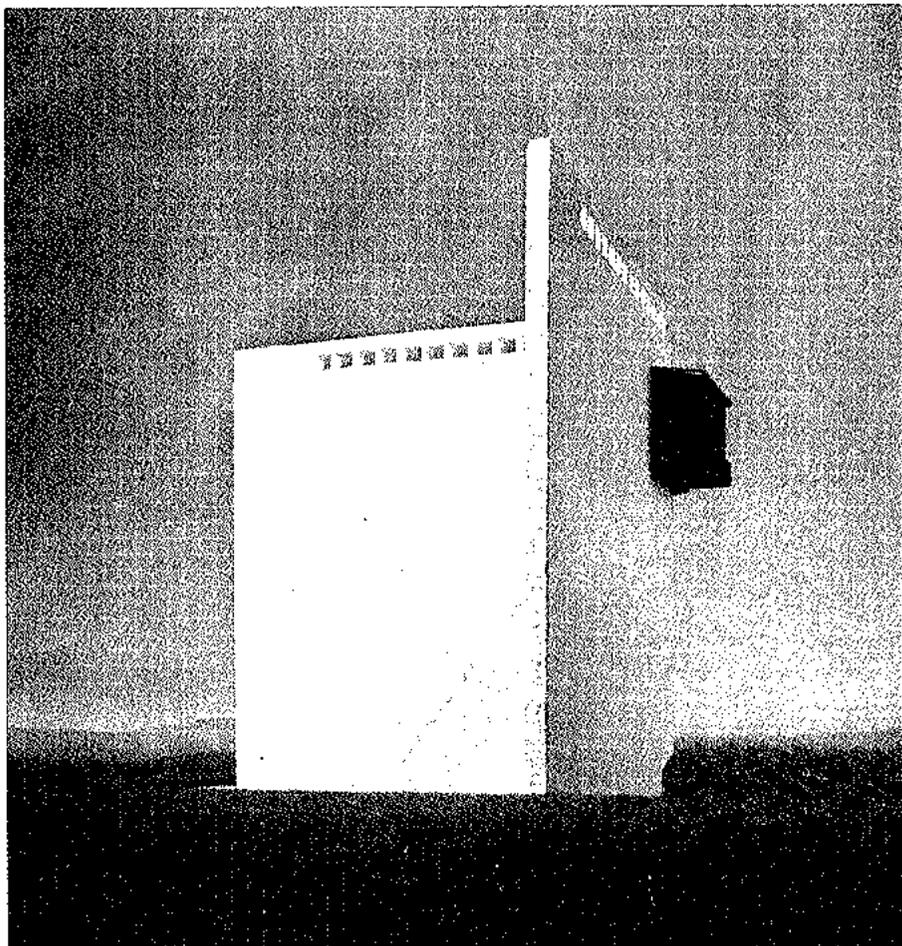
다르게 해석한 것이 건축가에게는 가능했으나, 코르도바의 주택의 경우, 건축주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 '코르도바의 주택'이나 '아르카디안 흙집' 등에 나타난 기본원리는 같다. 서구의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이나 고전적언어를 모두 벗어나서 새로운 건축을 다시 발명하려는 노력으로 지하주택, 태양열 이용, 형태의 오브제화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77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로자 지역에 지어진 포도경작자의 집은 건축물 자체보다 자연속에서 인간이 정착하여 자연과의 조화, 인간의 평화를 통하여 인간의 꿈이 담긴 공동사회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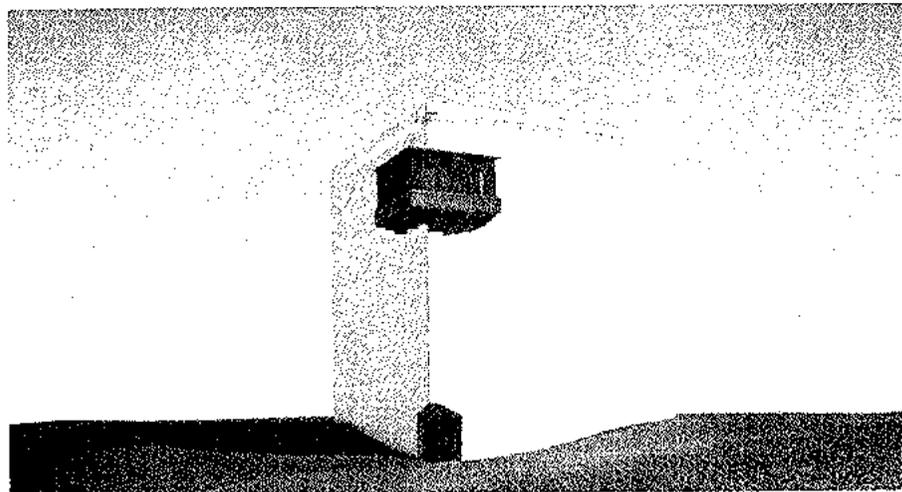
사례를 살펴 보면, 포도를 경작하려는 멕시코 - 아메리카인(키카노 Chicano) 들의 협동농장의 요청으로 계획되었는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9세대가 남부 캘리포니아 계곡에 땅을 얻을 수 있었다. 더운지역으로 포도경작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포도경작연구가의 도움으로 남부유럽의 더운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상에 떠 있는 철사그리드를 이용한 재배법을 익혔다. 남부 이탈리아에서와 같이, 3m이상 높이에 5m씩 떨어진 콘크리트나 나무기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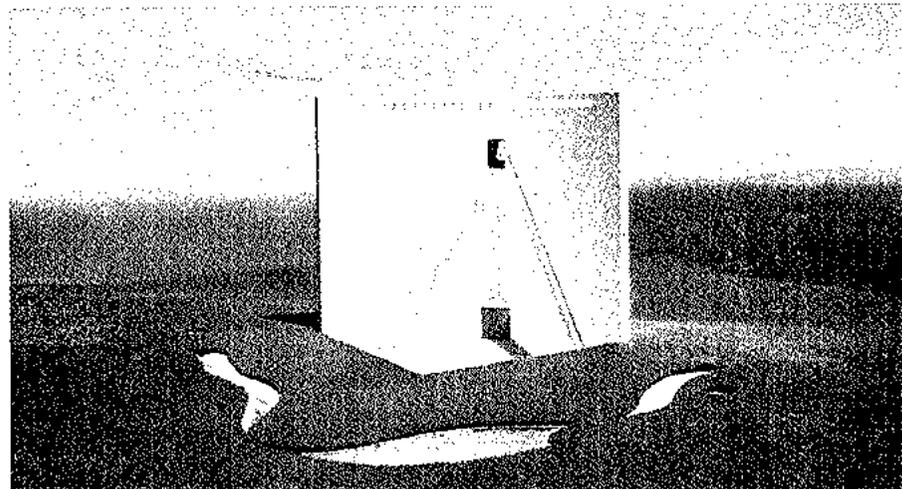
5. 등축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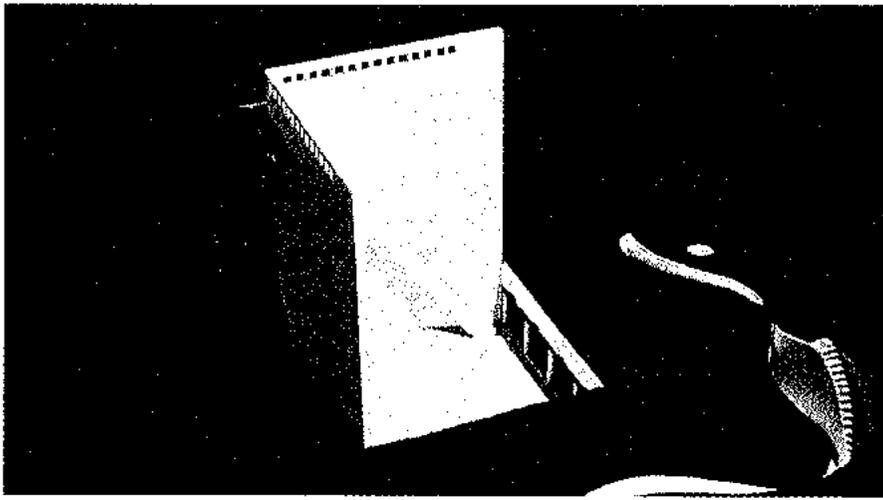
1. 두벽이 만나는 지상 돌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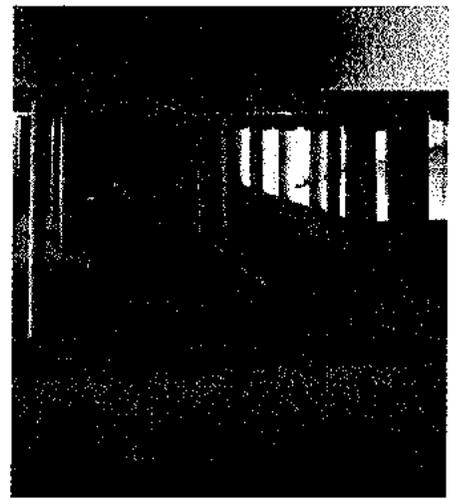
2. 입구와 상부의 발코니가 보이는 전경



3. 선크가튼과 계단이 보이는 뒷부분



7. 중정과 현장의 곡선



8. 중정에서 보이는 주택입면

그리드는 수평으로 확산된다. 포도는 자라서 기둥을 타고 올라 철사그리드로 수평으로 퍼진다. 포도잎은 밀집된 지붕을 형성하여 뜨거운 해를 막아주며 밑에 포도가 달린다. 이 그늘은 지상에서 아스파라가스등의 다른 작물농사를 가능케 해준다.

정착에는 4단계가 있다. 1단계에서, 9세대는 바로 포도밭의 그늘 밑에서 산다.

나무올타리 등은 각세대를 구분해주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동주택을 그안에 설치한다.

오래전부터 방치되어온 폐허의 농장안에 있던 흙집에 남아있는 벽으로서리에서부터 포도밭으로의 입구가 포도밭의 위가 열린

오솔길로 연결된다. 멕시코 아메리카의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9가족이 사용하는 광장은 초기 스페인계 미국인들의 마을을 연상시키는 정형적 배치를 이루었다.

입구로부터 주거지까지 길을 형성하는 여러개의 나란한 담장 울타리는 협동농장이 진입로를 따라 농사가 잘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첫 정착자들의 희망에 따라 심어졌다. 지하에 지붕이 없는 작은

예배실을 지하 상수면이 나올때까지 계단식으로 땅을 파서 만들었다. 예배실의

십자가는 상수면이 달라지면 십자가의 위치가 달라 보인다. 일요일에 모두 교회에

와서 한삼씩 흙을 파서 예배실 입구에 쌓는다. 하나가 동산이 되면, 그 옆에 다시

쌓는다.

전기는 호수의 좁은 지역에 설치한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로 공급한다. 호수의 도랑을

파서 동물의 축사로 보낸다. 흙으로 둘러싼 가축사는 바람에 의해 가축냄새가 주택지로

오지 않도록 배치했다.

2단계에서 새로이 16세대가 참가한다.

첫이주자처럼, 그들도 이동주택을 몰고온다. 그러나 2단계에서 16개의 개인주거영역은

격리된 나무올타리와는 다른 배열을 지니고 있다. 2개의 커다란 주거지역의 광장이

삼각형을 이루며 추가되었다. 이 광장은 금요일밤 댄스파티가 열리며, 토요일

협동농장의 생산품을 이웃마을 주민에게 판매하는 야외시장이 열린다. 이 주거지역의

광장은 9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놀이터를 이용하고,

그동안 호수가에 만들어진 정원에서는 10대의 청소년들이 만난다. 이 정원은

프리즘형태로 2m2에 6m 높이의 울타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드 패턴에 의한 이

구성은 계곡의 광활함에서 도시의 질서를 엿볼 수 있다. 개인적인 작은 공간의

연속은 - 나무올타리의 각주의 덩어리로 속이 빈 - 은폐한 공간을 제공하였거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고, 두사람이 만날 수 있다. 삼각광장에 면한 첫이주자의

9개의 작은 광장은 반 - 공적 (Semi-Public) 공간으로

이용된다. 이 광장에 벽돌로 된 요리용 오븐과 큰 식탁이 있어, 점심의 공동식사에

이용된다. 학교에서 멕시코 문화유산에 관한 강의가 있을 때, 이곳의 식탁을 학교의자로

이용할 수 있다. 2번째 이주자가 도착할 시점에 협동농장의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어 낼 시점에 이를만큼 자란다. 입구 근처에 있는 포도주 양조장은

- 멕시코인이 농산물을 저장하는 전통적 방법에 의한 구조형태인 - 원추형의

싸이로에 포도를 저장한다. 포도주 양조장은 지하에 있어, 목제통에서 저온으로 유지,

보관된다. 3단계 정착시에는 정착계획이 건축가의

희망을 초월해서 더욱 진전된다. 내부의 각세대를 사적공간으로 분리하는

나무담장벽이 없어지고 서로 교류하는 생활이 될 것이다. 4단계에서는 정착단지는

포도밭에서 풍부한 포도와 포도잎의 그늘아래 인간이 평화롭게 살수있게 모든

벽이 사라지는 상태를 영원히 추구하는 상징으로서 서있게 된다. 3(사진 11~18)

이러한 열망은 인간의 유토피아의 원초적인 상태를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구인의 유토피아의 근원은 어떠한가? 현대의 유토피아로 여겨온 현대도시는

더이상 우리에게 유토피아는 아닌 것으로 암바스는 판단했다.

2. 활동과 작품 4)

암바스의 양친은 네덜란드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왔다. 암바스는 1943년 아르헨티나의

레시텐시아에서 출생하였고, 그가 자란곳은 브라질과의 국경에 가까운 비가

많은 지방이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명문 고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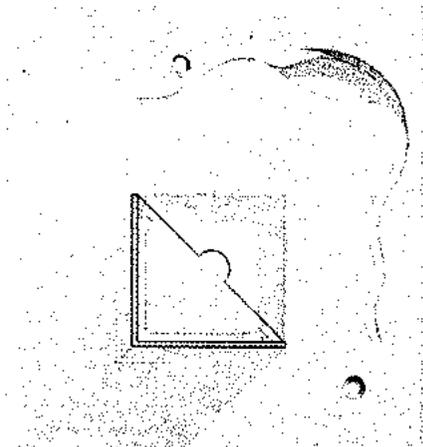
입학하였으나 야간부에 다녔다. 주간에는 설계사무소를 다녔다, 실무를 배우고 봉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병역을 필한 후, 얼마동안 암바스는 주유소에서 일했다. 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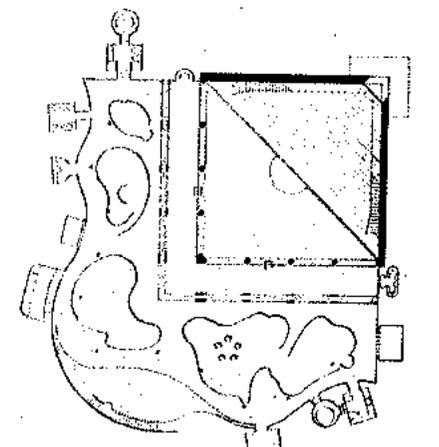
낮에는 U.S. 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밤에는 영화를 보며 영어 공부를 하며

유학준비를 했다. 암바스는 영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어느 것이나

능숙하다. 대학을 선택할 시점에 이르러, 그는 장학금을 제일 많이 지급하는



9. 배치도



10. 평면도



18. 포도밭

프린스턴대학으로 정했다. 프린스턴 대학과정을 1년간 수학한 것을 포함하여 프린스턴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2년 반만에 끝냈다.

1966~69년, 프린스턴 대학, 건축 및 도시설계학과에서 강의했으며, 그동안 1967년에는 서독 울름(Ulm) 조형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1969년 피터 아이젠만이 이끄는 건축·도시연구소의 창설자의 일원이 되었다. 1970~76년, 뉴욕, 현대 미술관(MOMA: Museum of Modern Art) 디자인 부문 담당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때 많은 기획전시회를 준비하여, 뉴욕과 이탈리아 순회전등을 개최하였다.

"이탈리아 디자인전"(1972년) 60년대 말, 이탈리아 실내디자인 분야의 혁신적 내용을 미국에 소개했다.

"맥킨토시 의자전"(1974년)

"루이스 바라간전"(1975년)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은 현대 멕시코의 맥락속에서 인간의 영원한 희망을 표현한, 서정적 내용을 담은 건축언어를 사용했다. 멕시코의 건축은 강한 바람, 강렬한 태양, 폭우를 지닌 물리적 환경에 대해 페티오와 격리된 정원을 형성하는 내향적 태도를 지닌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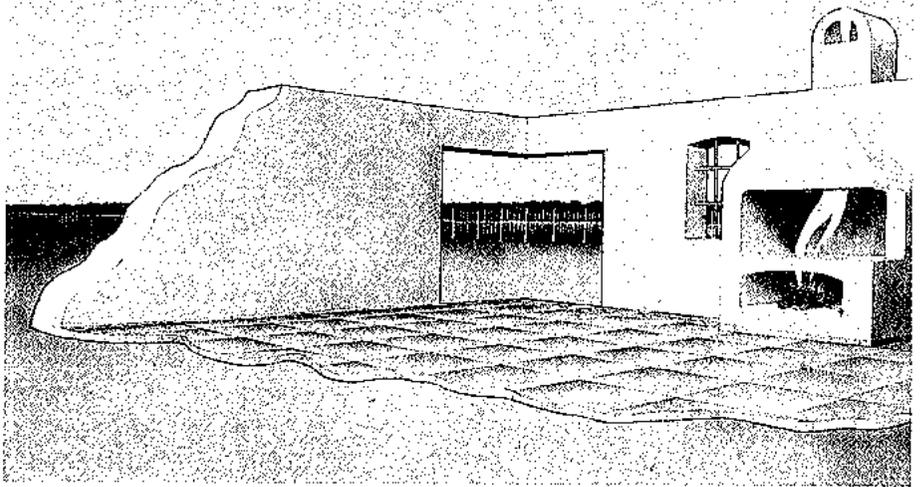
"택시 프로젝트"(1976년) 뉴욕시 교통체계에 대한 제안.

"새로운 주택 조정"등을 기획함. 이때의 전시회들은 대부분 책으로 발간되었다. 어려서 부터 여러 종류의 디자인을 - 우편봉투, 포스터, 달력봉투, 책표지, 연하장, 일기장, 엽서등을 -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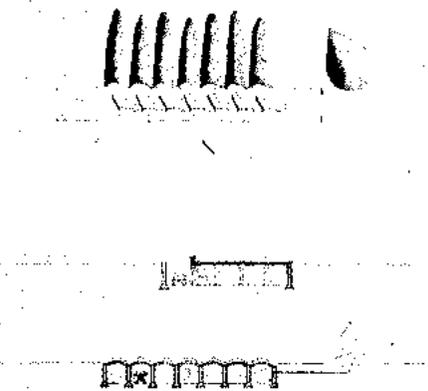
1975년

뉴욕과 볼로냐에 사무소를 내고,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의 일을 혼자서 했다. 암바스는 초기에 실현보다는 계획안에 치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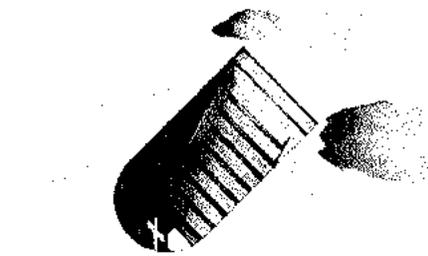
*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시내 재개발의 일환으로 보자르 양식의 법원을 예술센터로 개조한 계획안. 23회 P/A 상 수상. 프로그램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존건물인 보자르 양식의 미국 법원건물(1908년 완성)의 커뮤니티 예술센터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었다. 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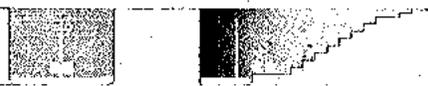
11. 마을입구 - 옛 주택의 폐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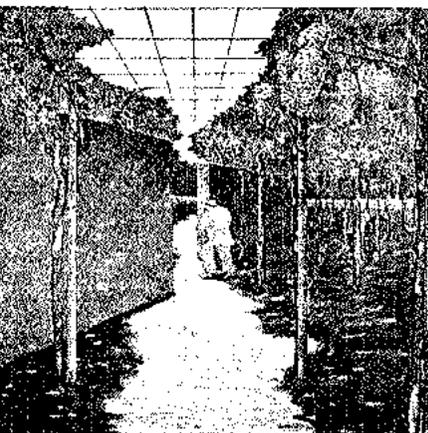
12. 포도주 양조장 단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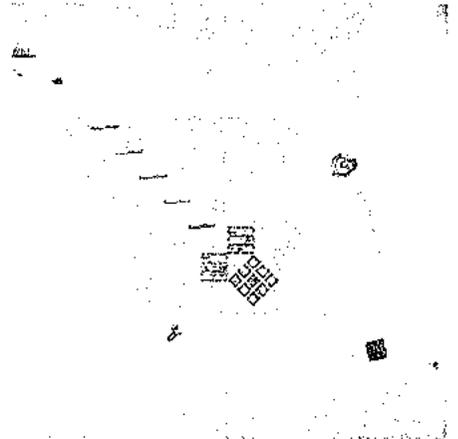
13.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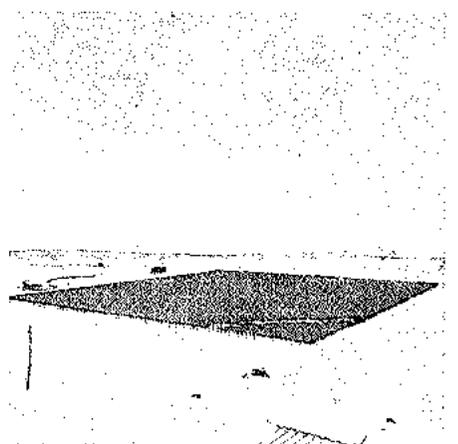
14.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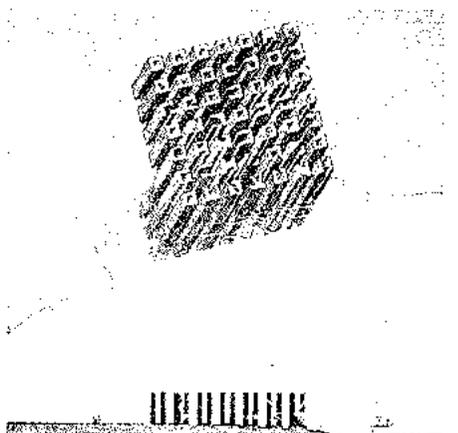
16. 포도밭과 나무들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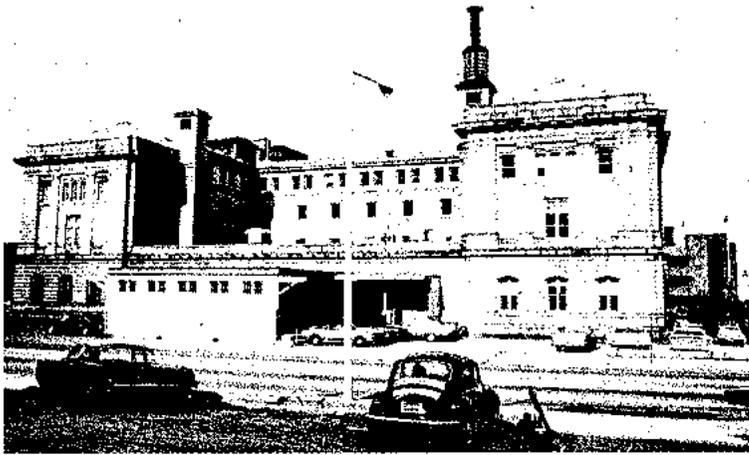
13.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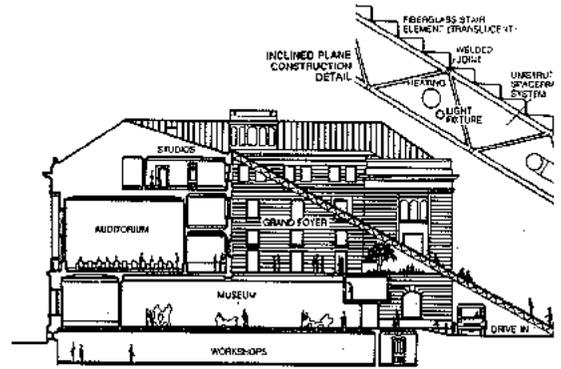
15. 조감도



17. 평면도



19. 기준건물



20. 단면도

포기했던 시설을 활용하고 미활용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로서 대규모 활용계획의 일환이었다. 6'(사진19~21)
 * 멕시코, 컴퓨터 연구센터, 건물설계.
 * "살아있는 우화 : 회의적인 어린이(회의론자)를 위한 디자인 이야기 모음"로 장 폰테뉴 상 수상. 7'

1977년

* 미국, 조지아주, 보레고 스프링스, 농촌의 공동주택. 지방문화와 농경생활과의 조화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이루어진 이 계획은 8가족의 자급자족의 집단농장이다. 이들은 도시에서 시간제로 직장생활을 하며 정착을 한 후, 입주자 6가족을 늘린다. 입구의 벽을 상징하는 태양열집열장치 뒤에 경사지의 지하주택이 이어지고 뒤로 저장창고인 사이로가 높아져 있다.

집열장치를 받치고 있는 높은 집을 짓기 위해 파낸 흙으로 만들었다. 8'(사진22~27)

* 농촌의 공동 자급자족사회에 대한 계획안이 시리즈로 페루에서 이루어졌다.

*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로자, 협동농장계획. (1장 참조)

*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 지안 칼로 페리티와 함께, 페르테브라 의자 설계로 미국 IBD 에서 주는 금상을 수상함.

1978년

* 서독, 하노버 남부, 루덴 하우스. 기억과 망각 사이의 정원.

설계경기의 수상작이다. 이 도시의 희생자를 위해 2차 세계대전의 슬픔과 파괴를 잊지말자고 계획된 조경 오브제이다. 약 800㎡의 대지위에 약 2m 높이의 나무담으로 독일군의 철십자 문양을 만들었다. 이 문양은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된다. 이 철십자의 모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색의 공원과 잔디로 바뀌게 되어있는 계획안이다. 9'(사진28~31)

* 스페인, 코르도바, 부부를 위한 주택. (1장 참조)

1979년

* 벨기에, 브루셀 근처 비어지. 라빈 저택. 대지는 약 81,000㎡의 광대한 계곡이 있는 대지이다. 건축주는 오래동안 생태학, 천연자원의 절약, 대기구성이나 조경에 의한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건축주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국제적 활동을 하는 재능있는 사진가, 영화제작자인 건축주의 부인과 두 자녀를 위한 주택에서 끊임없는 방문객을 맞는 주택의 기능을 해결하였다.

대지의 계곡을 이용하여 주택은 땅속에 묻히고, 사계절 동안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게 했다. 늘이실, 거실, 침실순으로 3개층이 나뉜다. 10'(사진32~37)

* 페르테브라 의자 설계로 이탈리아 SMAU 상 수상.

* 로잔느, 브루셀 람벨은행 로잔느 지점 1980년

* "팔 집" (Houses for Sale) 미국에서 건축가를 초청해서 개최한 세번째 전시회로서 초청된 건축가들은 에밀리오 암바스, 피터 아이젠만, 비토리오 그레고리, 아라타 이소자키, 찰스 무어, 사저 펠리, 세드릭 프라이스, 오스발트 마티어스 용거스 등의 8명의 건축가가 초청되었다. 이들은 주어진 대지조건과 공사비에 맞춰(4,520㎡)의 대지와 땅값을 포함하여 공사비 25만불에 맞춰) 단독주택을 지어 현대건축의 전망을 보여주도록 요청받았다. 결과는 1980년 책으로 발간되었다. 건축가가 초청된 이전의 다른 전시회는 "시카고 트리뷴 현상설계의 매슬은 옹모안들"과 "뉴욕 현대미술관선정 우수 건축작품 전시회" 등이 있었다.

"팔 집"의 전시회를 통해 암바스는 "아르카디아를 기억하는 흙집" (Arcadian Berm House) 을 설계하였다.

이 주택은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되고 흙이 채워진, 커다란 삼각형의 단면을 지닌 두개의 흙담 사이의 입구를 지나, 코르도바의 주택에서와 같이 넓어지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쉼터가든이 이어진다. 지하정원의 주위에 그자의 형태로 주택이 땅에 묻혀 있고 그자 중앙의 원형 홀은 노출되어 외부 뒷 정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완만하게 경사져 지상으로 올라간다. 공기조화는 자연환기를 통하고, 70% 에너지를 수동적 태양열 집열방식으로 얻고, 남쪽의 큰창은 열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중앙홀은 넓은 거실과 식당이며, 손님침실을

포함해서 침실 5실, 욕실 4실, 큰 부엌, 세탁실, 술 저장고, 여러개의 창고가 있다. 11'(사진38~45)

1981년

건축가 연합 전시회 출품, 도시 컬럼버스로 들어가는 도로의 조경을 한 작품. (사진46)

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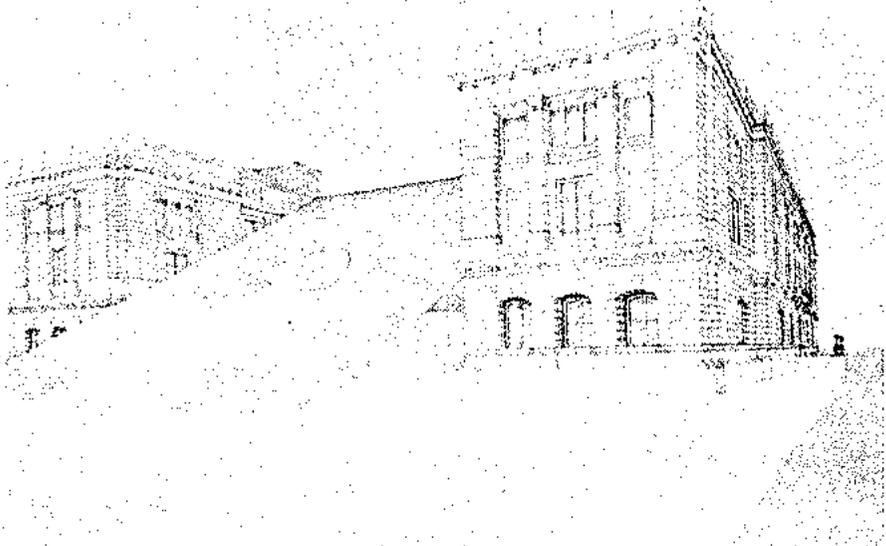
* 텍사스주, 오스틴 연구소, 석유수출에 관한 연구를 아갈고 있는 슈림버거회사는 본부가 파리에 있고, 실험실은 오스틴에 있는데, 하이테크 응용을 위한 실험실이다. 오스틴 실험실은 작은 단위로 옥외의 보행동선이나 호수와 조경으로 이루어진 구성효과는 건물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사진47~48)

* 뉴 올리언즈 미술관, 750개 응모작 중 최종 6작품 선발시 뽑힌 작품으로, 전시장, 식당, 상점이 호수 위에 떠있다. 구관을 향한 긴 진입로를 거쳐 다시 땅속의 통로를 통해 보트선착장에서 자동차로 오고 가는 모드에 의해 9개의 균일한 건물배치로 이루어진 신관의 미술관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 12'(사진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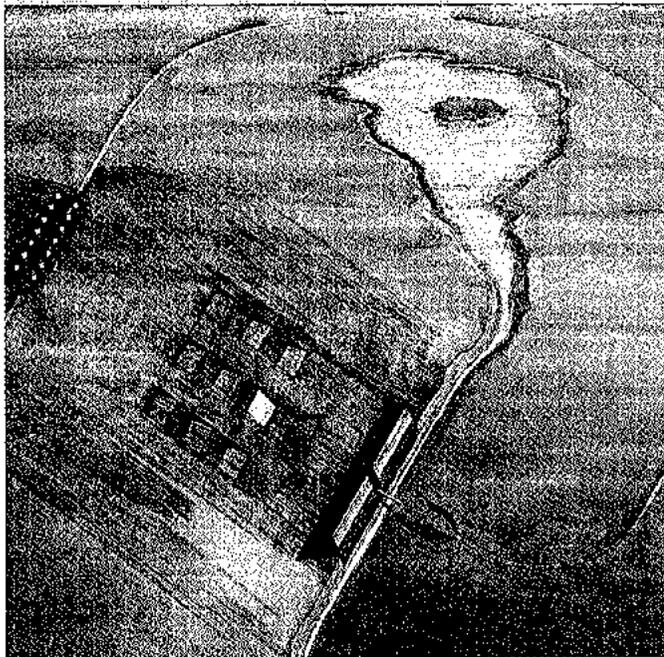
1984년

* 스페인 살라망카시, 메이어 프라자. 살라망카는 이베리아 반도 중간에 위치한 오래된 유럽도시중의 하나이다. B.C. 300년부터 켈트족, 로마족, 무어인들이 정복했고, 멸망했다가 재건된 도시이다. 도시 중심지역에 휴식의 장소로 보다는 상업, 문화활동의 중심지를 만들었다. 추리퀘라 (Churriguera) 가 설계한 바로크식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균일한 기둥이 아케이드를 이루며, 연속된 입면으로 되어있다. 지상에 아케이드가 도로쪽으로 개방되어 다양한 상업활동이나 개인적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시설이 들어있다. 계획은 새로 들어선 시 당국이 이 광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했다. 춥고 더운 기후에서 사람이 모여 앉을만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편편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지금의 광장을 나무로 그늘이 쳐서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 되기를 바랐다.

사각형의 평면은 높이가 낮아지며, 중앙의 무도장을 향해 계단으로 내려간다. 나무로 이루어진 상부면의 높이는 본래 광장의



21.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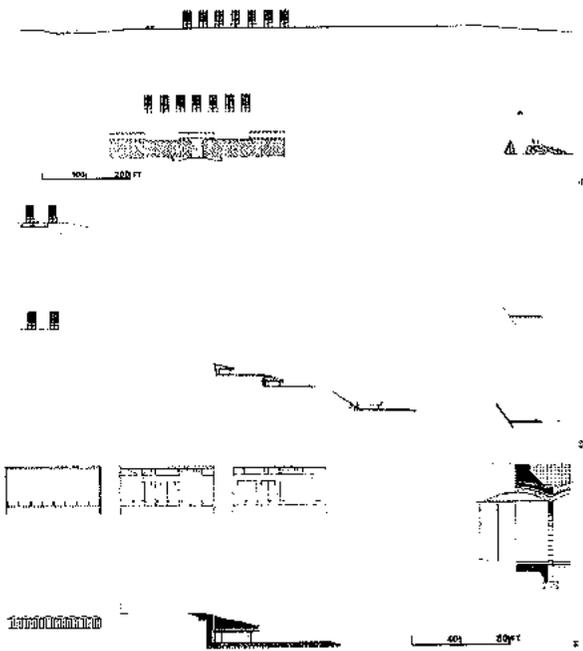
22. 조감도 및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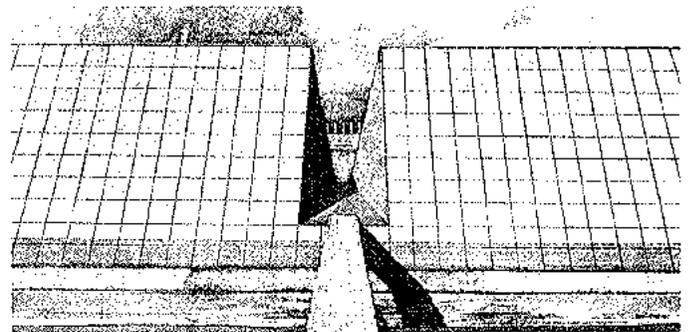
24. 정면에서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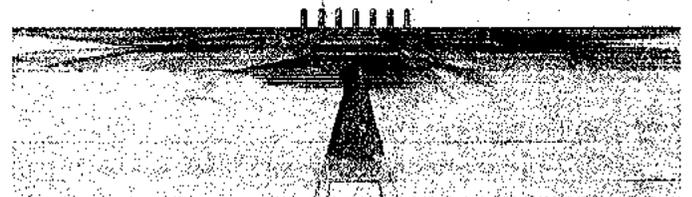
25. 뒷부분 사이로에서의 앞쪽 전경



23.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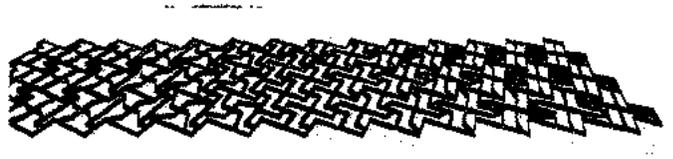
26. 입구의 태양일 집일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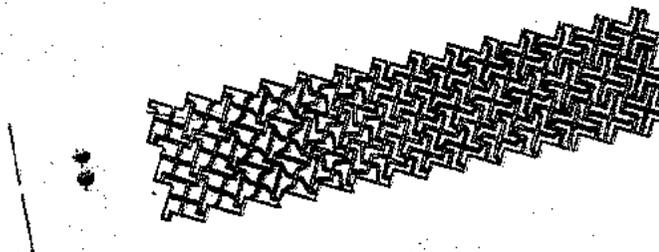
27. 사이로와 경사지 바닥의 주택



28. 입구부시도



30. 녹지부분의 변화단계



29. 정원의 동쪽투시도



31. 녹지부분의 변화단계

지면의 높이가 되어, 광장에 다가서면 광장바닥에 나무잎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단을 밟아 나무밑으로 내려가면 나무줄기는 광장의 포장면에서 솟아나와 높이가 솟아있다. 기둥 같은 나무줄기와 머리위에 무성한 잎으로 된 덮개 밑으로는 아케이드가 있는 건물하부가 보인다. 나무 그늘이 진 광장 밑에는 영화관, 체육관, 지역사회를 위한 사무실들, 무도장이 있다. 수동적 태양열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그늘이 지어 광장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져 광장바닥 돌계단에까지 햇살이 들게 한다.

도시의 기념적 건물인 살라망가의 옛건물 사이에 나무를 심어, 시민의 활동의 중추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그늘진 피서지를 제공하여 광장을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었다. (사진51~53)

* 휴스턴, 중앙광장, 건축주는 도시 휴스턴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광장을 요구. 암바스는 물리적으로 은유적이고 영적인광장을 해답으로 제시함. (사진54~56)

1985년

* 루실 할셀 은실, P/A 상 수상. 텍사스, 산 안토니오 산 안토니오 식물학 센터에서 세운 식물원. 기후는 더운지역이며 완만한 구릉지에 세워져 있다.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 건물들은 일부가 땅에 묻혀 있다.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 건물들은 일부가 땅에 묻혀 있다. (사진57~59)

* 85년부터 뉴욕 건축가 연합회(아키텍츠클럽 리그)의 회장을 두번이나 역임.

1986년

* Expo 92의 마스터 플랜
미대륙 발원 500주년을 기념하여, 스페인의

세빌리아에서 1992년에 개최될 만국 박람회에 대비하여, 에밀리오 암바스가, 스페인 정부의 요청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기로 되었다.

1987년

*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관, 벤츠 자동차 전시장으로 3단계의 자동차 전시장이 있는 건물이다. P/A 상 수상작이다. (사진60~62)

뉴욕, 암바스가 설계한 미국 민족박물관이 뉴욕 53번가에 지어지고 있는데,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시저 펠리가 설계한 뉴욕 현대미술관 신관과 서로 가까운 지역에서 비교되는데, 이 건물에서 암바스는 루이스 설리반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3. 그의 생각

“나의 설계작품에 관한 노트”에서 암바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사실 나는 그래픽 디자인, 공업 생산품이나 건축작품을 만들지 않는다. 이는 건물이나 생산품이거나 간에 오브제를 만든다. 오브제의 일부는 가끔 계획안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도 나는 계획안뿐인 이 오브제가 인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오브제라고 확신한다. 나의 작품경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의 해결태도는 항상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있는 문제보다 초월하여 해결하려 한다.

달력이 인쇄된 종이 봉투를 예를 들어 보자. (사진63)

간편한 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은 빼어 낼 수 있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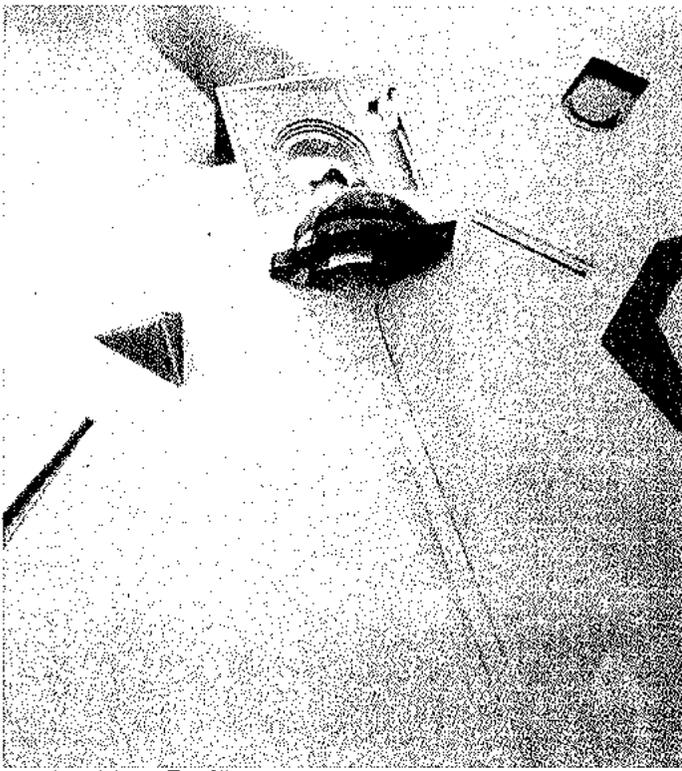
달력과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종이봉투는 그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어서 처방전, 신문스크랩, 세탁물, 복권, 아기용 기저귀 또는 낙엽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달력은 미래의 계획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과거를 기억하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문제 해결태도의 두번째 특징은 게으른 성격때문이기도 한데, 다시 사용할 만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지 주위를 살펴 보게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달력의 경우도 사무용 봉투나 식료품 종이봉지 등을 두루 활용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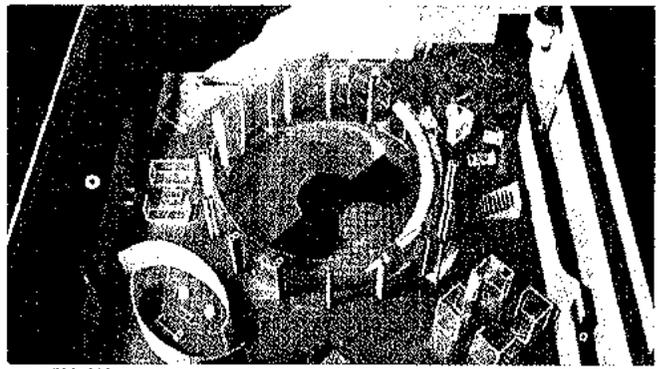
디자인 과정에 대한 선조들의 맹목적인 믿음, 또는 새로운 생산품을 인류의 문제를 치료해 주는 것으로 믿어 온 것을 배반했다는 가벼운 죄책감을 느끼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이론을 개발코자 했다.

유럽의 영원한 탐구정신은 유토피아 개념에 담겨있다. 즉 종말을 믿는 신념이다. 미국에 다시 나타난 신화는 영원한 시작으로서의 아르카디아(Arcadia)이다. 아르카디아의 전통적인 모습이 인간적인 정원이라면, 미국의 아르카디아는 ‘인공적 자연’으로 나타났다. 즉 인공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숲이고, 인간의 마음을 반영한 것들이다. 주위에 숲에 있는 나무로부터 처음으로 의자를(문명의 이기를) 찾아낸 사람들처럼, 지금의 미국의 디자이너도 그들 주위에 있는 오브제, 설계과정(기쁨 과거의 기억)들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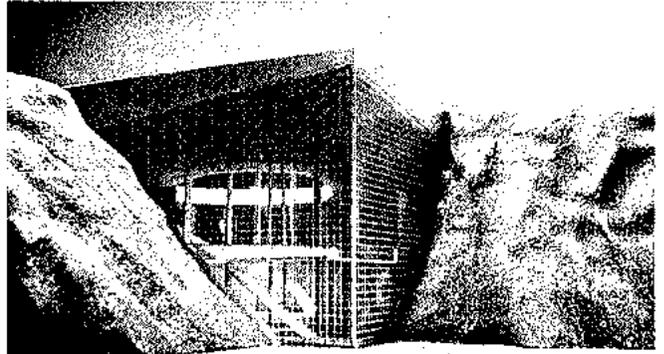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숲이 사라진 것과 같이, 의자등 인간의 생산품이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또는 재사용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적어도 인간은 스스로만든 사막에서 정원사노릇을 한 자신을 발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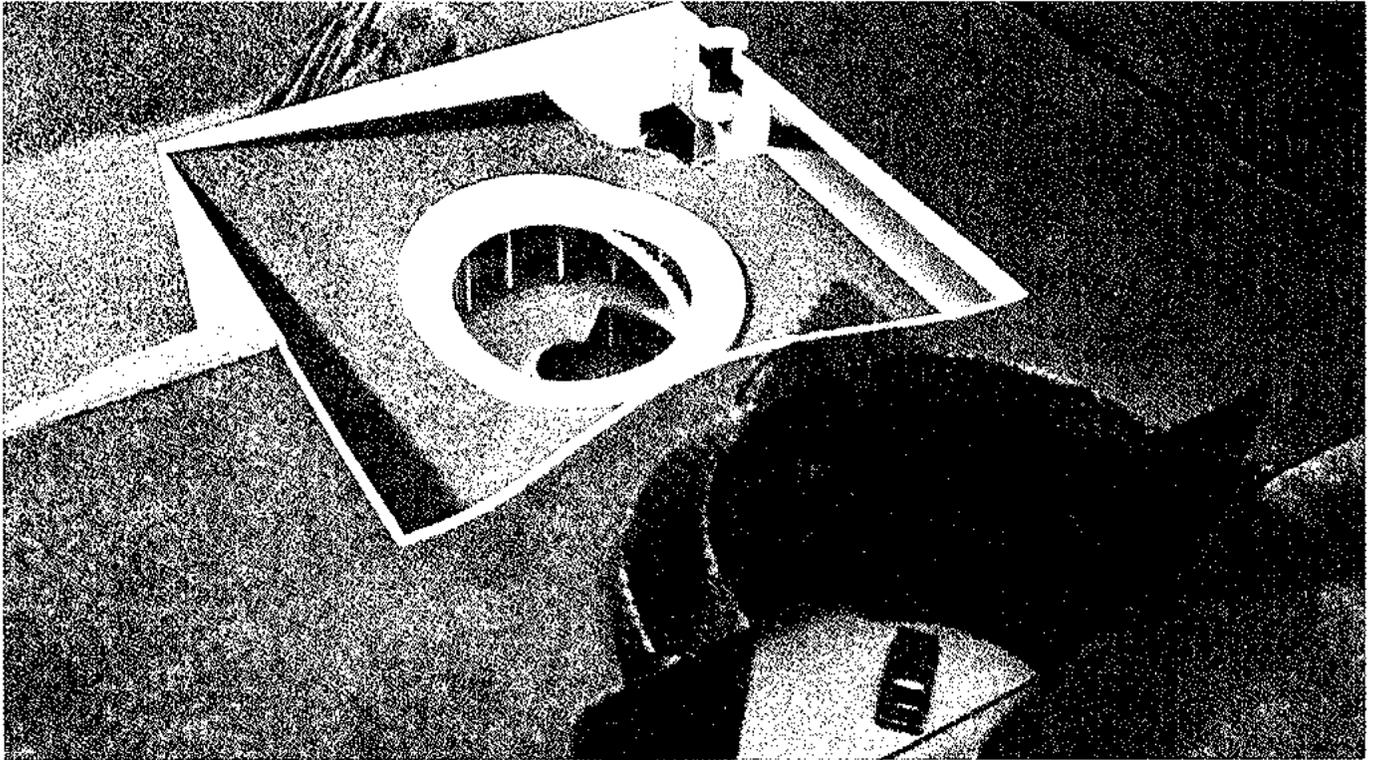
32. 전경 (사진은 모두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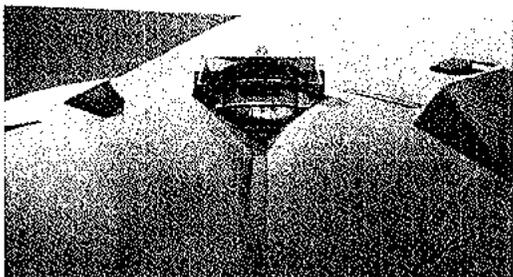
35. 내부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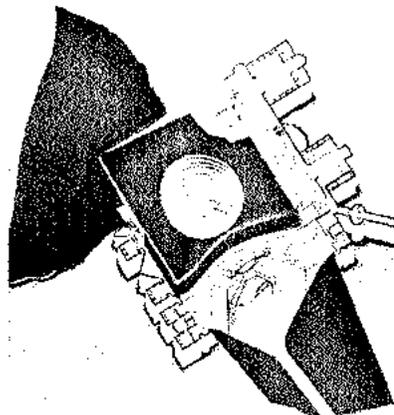
36. 좁은 계곡에서 본 거실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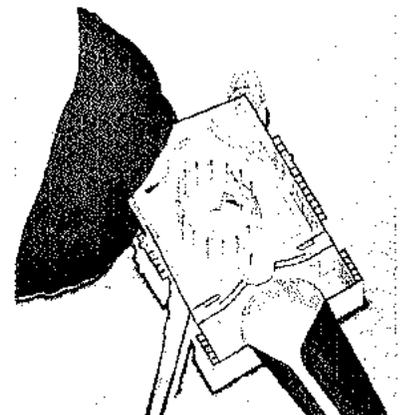
33. 주택조감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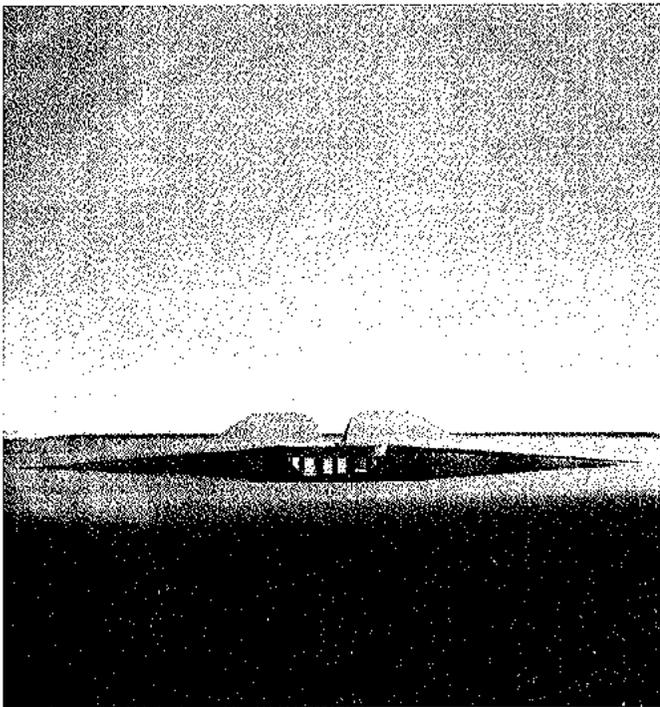
34.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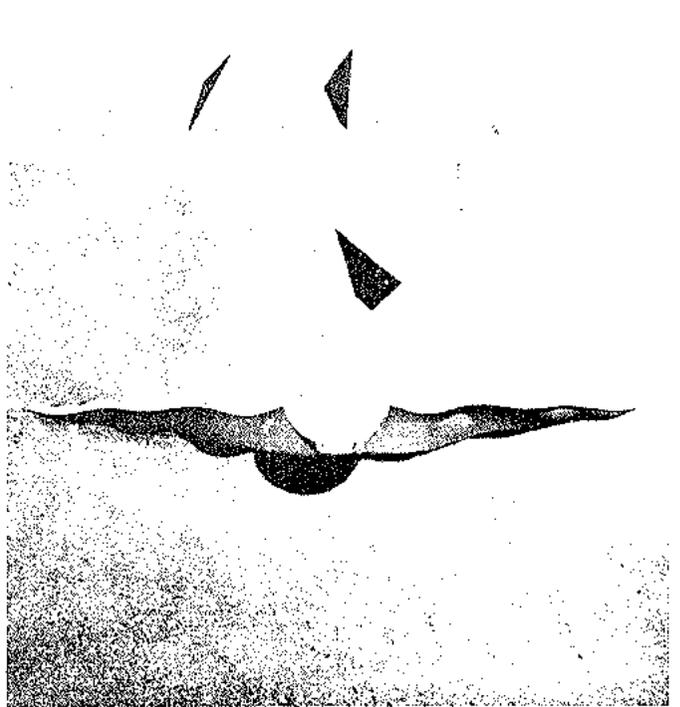
37A. 주택 내부의 등축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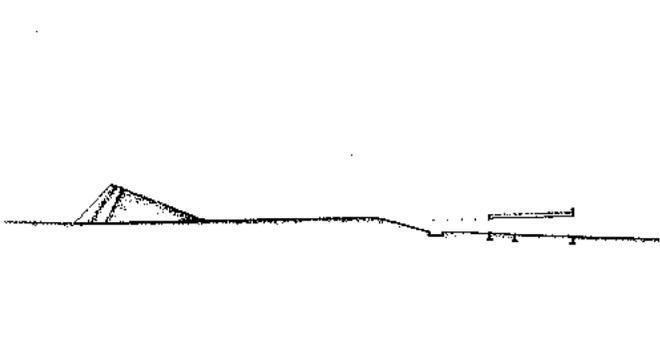
37B. 주택 내부의 등축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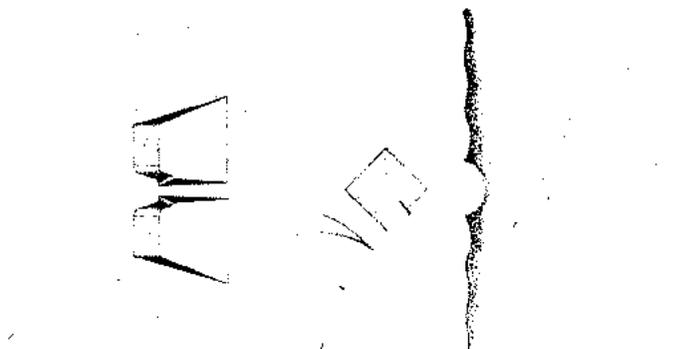
38. 대지 뒷편에서 본 거실(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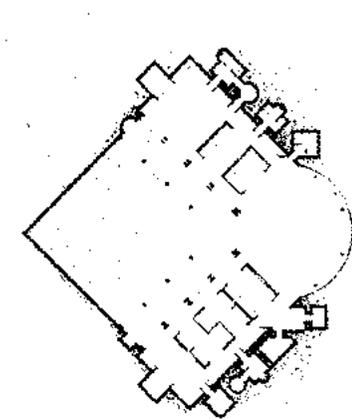
39. 위에서 본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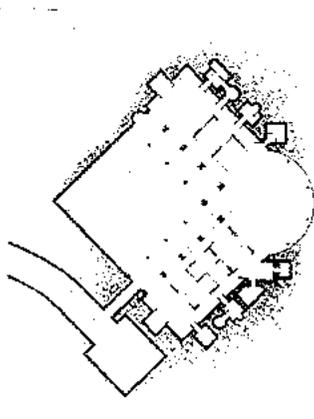
40. 주택 중심을 지른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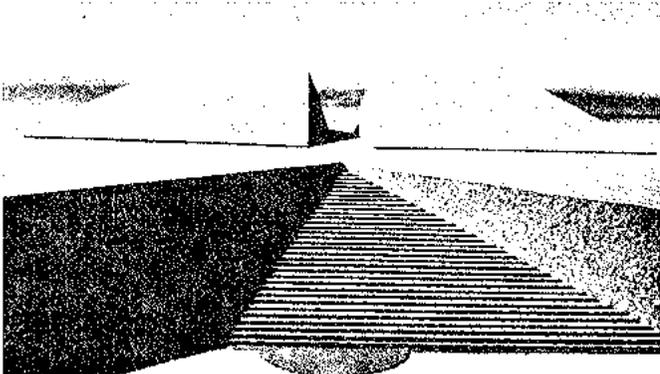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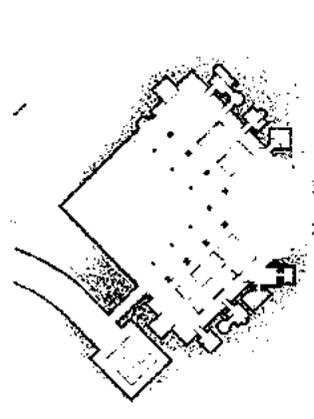
41. 고객에 따라 변형하는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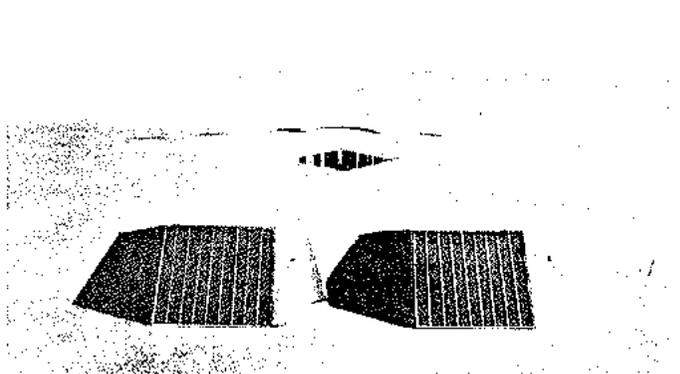
42. 기구가 있는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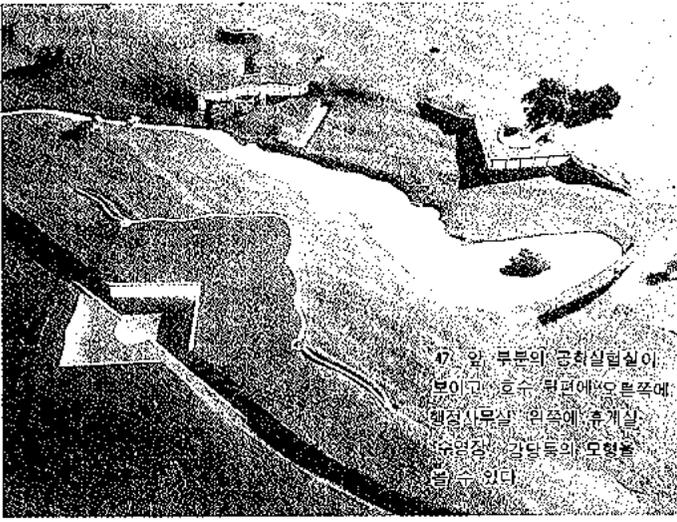
43. 연못과 차고가 있는 평면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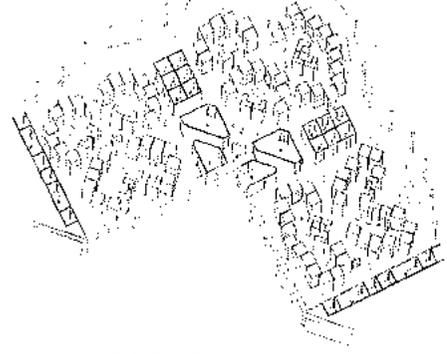
44. 정원의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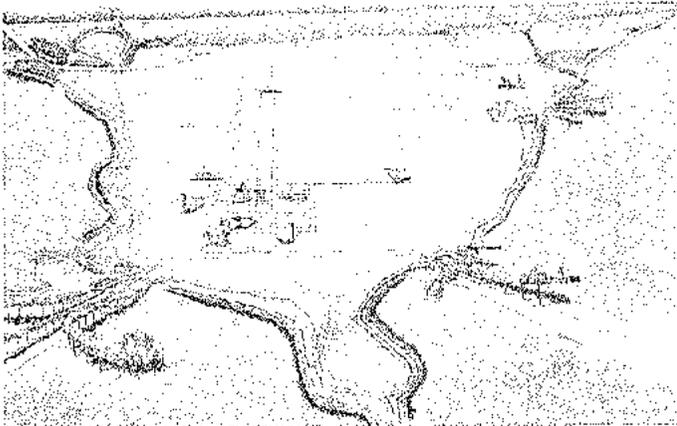
45. 입구의 집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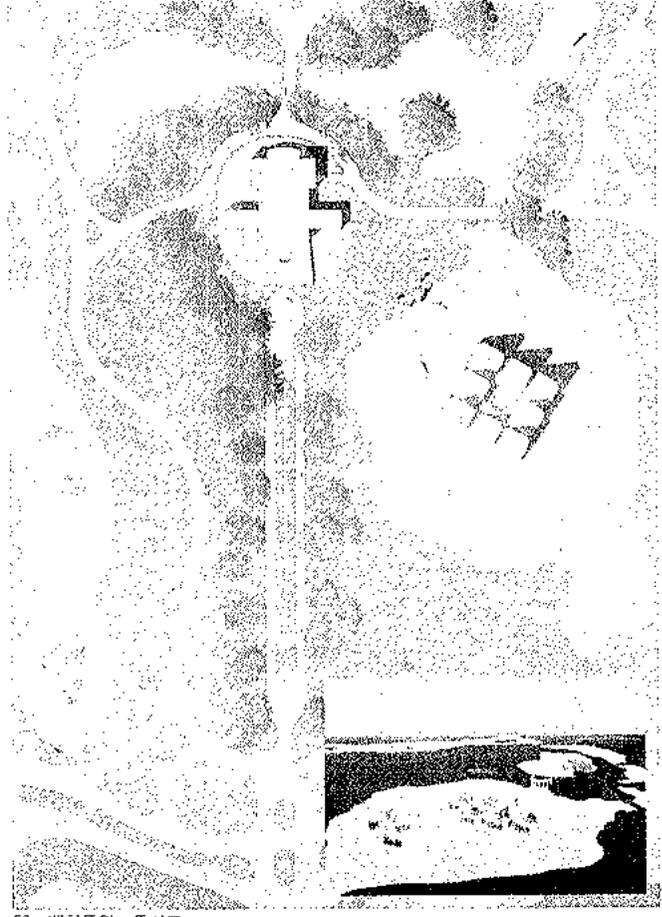
47. 앞 부분의 공학실험실이 보이고, 중수 펌프에 의해 끌려오는 물의 흐름이 오른쪽에 있는 시모실의 왼쪽에 출구실, 수영장, 각 단들의 모형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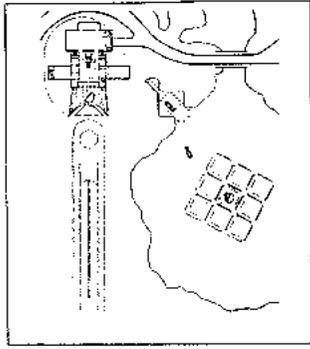
48. 공학실험실의 내부 층축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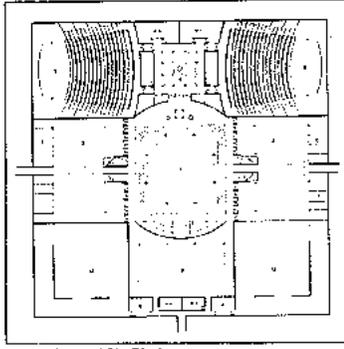
46. 지도에 표시된 조경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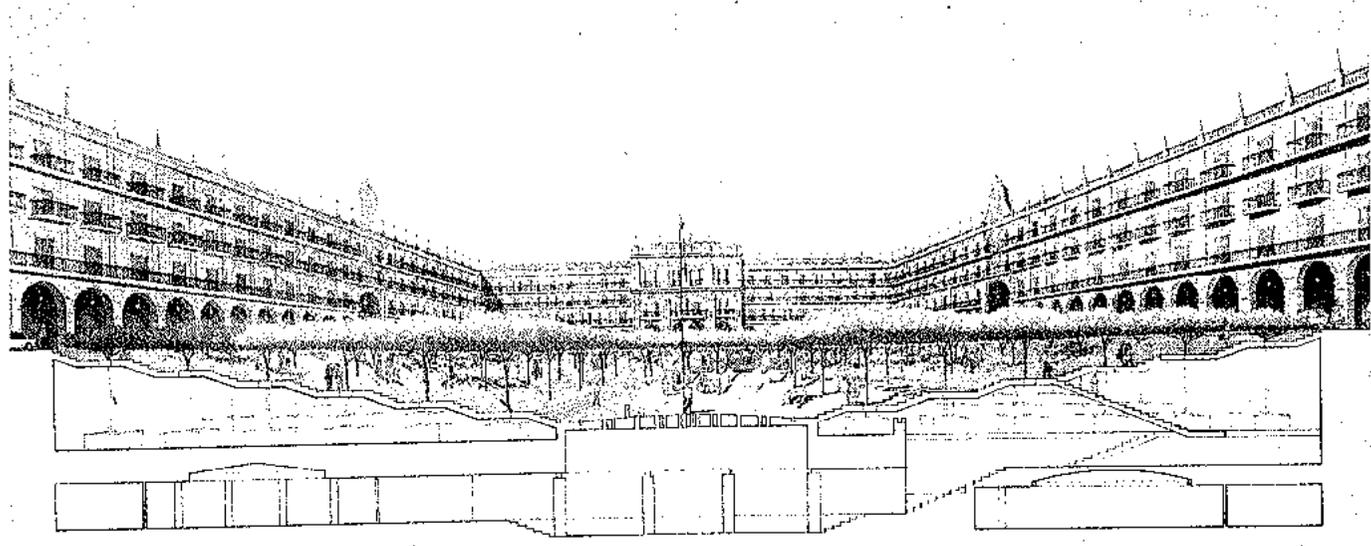
50. 배치도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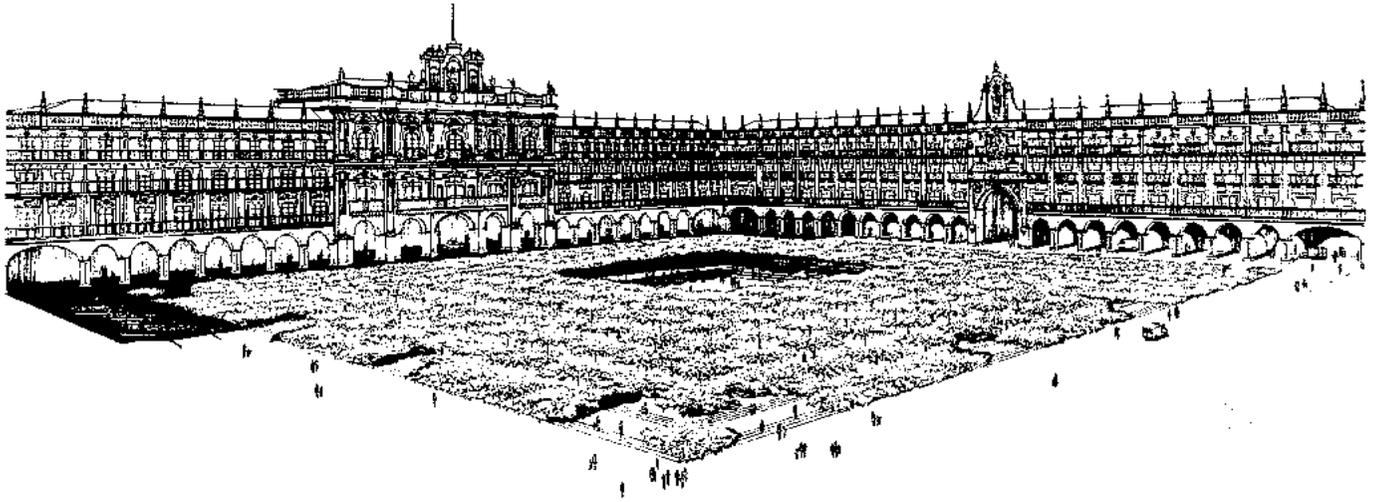
49. 배치도



52. 광장 지하 평면도



51. 광장의 단면투시도



53. 필경투시도

될 것이다.

결코 함치될 수 없는 양면성으로서의 영원한 몸짓을 보여주는 설계자들은 지금 인류의 단생을 종교적 의식으로 어떻게 축하하는지 또는 종말의 엄숙한 의식을 어떻게 치뤄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개념의 원리는 폐쇄체계로서의 개념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어야 하고, 반면에 각 구성요소는 서로 바꿀 수 없는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균일한 변화를 지니는 인공적 자연과 역동적 조화를 지니는 디자인의 생각은 세분화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경험적 과제로서, 인공적 자연이 사람을 살게하는 생산기술과 생산품을 그릴 수 있는 작도법을 만들기 위하여, 둘째는 규범적 과제로서, 경험적 작도법의 응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회의 요구의 대안위 프로그램에 맞춰 개인적 요구나 욕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계는 종합적 과제로서, 인간에게 규범적 선언의 압력과 경험적 범위나 영역으로 규제된 공포와 욕구를 화해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형태에 부여하기 위하여, 나는 설계자의 실제작업은 일단

기능적이거나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간의 실용적 요구가 만족되기 바래서가 아니라, 주로 우리의 정열과 상상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오브제를 만든다. 우리가 오브제를 만드는 상상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오브제를 만든다. 우리가 오브제를 만드는 작업의 기초는 詩的 원리에 의한 것이다. 설계자의 주위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 작업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 실용적 형태위에 시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¹⁵¹

실용적 형태속에 내재한 시적인 원리, 새로운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단서들에 흥미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숲속에서 6피트 길이에 3피트 폭의 피라미드 형태로 배열된 흙더미를 본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난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것이다 : 여기에 누군가의 무덤이 있다고, 이것이 건축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A. Loos, *Arkitektur*, 1910)

아돌프 로스의 이야기에 비유하여 풀리오 이레이스 (Fulvio Irace) 는 암바스의 건축을 시학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낱말의 잔물결이 숲으로 대체되고, 즐거움을 낳는 주택으로 무덤의 개념이 대체된다면, 로스의 말은 암바스가 스페인 코르도바 근처에 지은 주택에 대한 복잡한 말을 강조하고 그 뜻을 밝힌, 즉 내용을 배운은 말이 된다. 암바스는 매우 엄격한 태도로 극히 적은 요소를 활용하여 건축적 드라마의 최대한의 효과를 살렸고, 그 건축효과는 그 예배식을 축하하고 있다.

지금 건축은 두가지의 주요한 제한에 묶여있다. 건축자체의 기억(그러므로서 신비한 언어가 되어, 자발적이고 비밀스런 기억의 좁은 영역을 매번 되풀이 소비케 하는 기억)으로 모두 되돌아 가거나 그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한 상징의 역할과 신호를 만드는 과정을 떠맡기 위해 문화적 소중함(과 이를 인용함으로써 재밋대로 받는 위안)을 잊게 한다.

이러한 양극성은 코르도바의 주택에서 요소들로 구성된 것과 같은 이중 신호 (Signs) 체계에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거친마감의 단단하고, 고고학적 유물로 보이는 기하학의 날카로움을 지닌 수직면의 나열을 보게되고, 다른 편으로는 '유기적' 곡선형이 미미한 수평성으로 약화하는 여러 방식선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된다.

이러한 대립적 형태론은 암바스에게 친근한 것이다. 우리는 그의 프로젝트에서 자주 대립성을 발견하게 된다. 조지아주 켈부로우크 주거계획안에서 집열판이 있는 방죽의 매스가 지닌 단정적 형태와 주거와 개구부를 둘러싸는 흙더미에 미주한 사이로의 똑같은 간격이 보여주는 리듬사이의 강력한 대조를 볼 수 있다. 보레고 스프링스 근처 키카노(멕시코계 미국인의) 포도경작자의 협동농장계획에서

우리는 농장의 폐허를 입구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하로의 계단이 위가 뚫린 엄격한 규칙을 지니고, 포도주 저장고의 볼트를 덮는 리드믹한 언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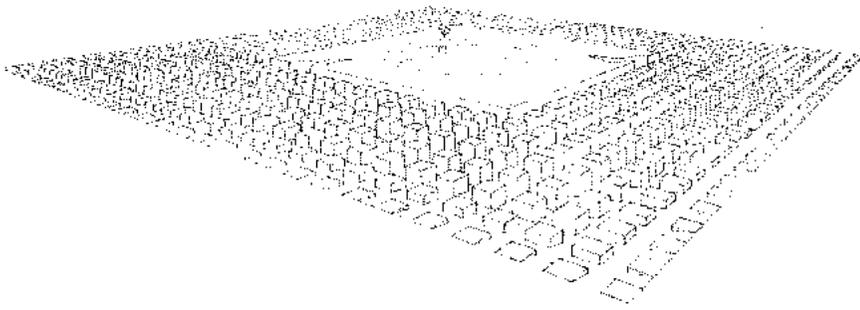
루덴하우젠의 프로 - 메모리아에서는 우리는 다시 미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드러운 자연건축재료(생울타리)와 정원의 배치의 정밀하고 지세학적 배치의 대립적 현상을 볼 수 있다.¹⁵²

암바스에게 드러나는 대립적 현상은 필요불가결한 조화를 보여준다. 마이클 솔킨은 건축가의 태도를 2부류로 나누어 그중 "재발명"의 태도로서, 암바스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형태를 창출하는 현대건축가들의 작업의 성과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 모든 건축가들은 그들의 건축이나 디자인 작품을 이론적 입장으로 무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역사주의의 엄격함이나 심지어 황당한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으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마치 건축가의 상상력을 고차원의 이념으로 합법화하려는 듯이 심각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형태가 아니라 이론이 심각할 정도로 현대건축의 논쟁거리가 되었으며 건축가들은 이 위험한 토론에 빠져들고 있다.

건축에서의 새로운 운동에 배경이 된 이론을 탐구할 때, 설계실무자들은 전통적 습관대로 두가지 전략중에 한쪽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것들의 첫번째 전략은 과거의 건축물 속에 묻혀 있는, 바로 자신의 뿌리인 것을, 건축가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인 '재발견'이다.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반적으로 순간적이며, 바로크나 초기 모더니즘이 이해될 때와 같으며, 주관적이며 일반적이다. 로버트 벤츨리나 마이클 그레이스와 같이 탐구는 감동을 주는 형태의 재발견에서 시작된다. ; 그 이념은 나중에 설명된다.

두번째 전략은 '재발명'의 전략인데, 아주 다른 것이다. 이 과정은 보다 더 본질적이다. ; 탐구는 근원을 보는 것이라기



54.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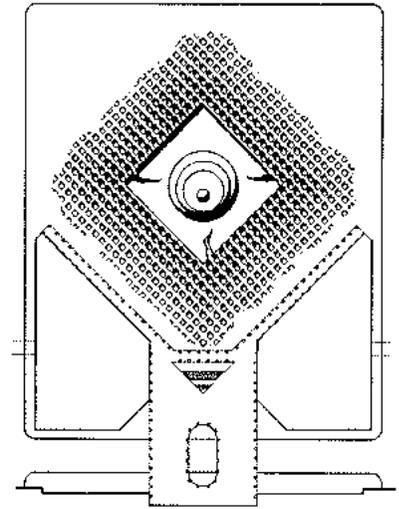
보다 그에 담긴 비밀을 찾는 작업이다. '재발견'자의 텍스트가 역사책이라면, '재발명'자의 것은 寓話나 교훈적 이야기로부터이다. 재발견자가 엄격하게 복잡한 이론을 찾는다면 재발명자는 걸음으로는 꾸밈없는 단순성을 찾는다. 재발견자가 언어로 설명한다면, 재발명자는 제례의식으로서 설명한다. 에밀리오 암바스는 바로 건축을 재발명하는 건축가중 한사람이다. 건축에서 자연상태로 돌아가려 한다. 그는 위대한 건축가를 찾는데 보다 최초의 건축가에게 더욱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그는 건축에서의 최고의 선언보다 건축의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형이상학자의 태도로서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방법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모색하며 첫 원리를 찾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건축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감각을 지녔기에 혁명적이다. 그래도 이 용어는 숙고한 끝에 사용된 용어이며, 암바스는 건축을 혁신화하려 할 뿐이며, 건축의 사회적 관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유머니스트의 자격으로서의 예술가의 진정한 관심영역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1차원적이므로 "이후 단순한"정치적 해결안은 거부한다. 그는 스스로 뛰어난 시인으로 여긴다; 논증에서의 그의 관심은 단순히 문학적이다. 아름다움이란 그의 기본적 목표이다; 아름다움이 조화를 지니는 것이 그의 희망이다.¹⁷⁾ 솔킨의 설명대로 암바스는 과거의 것에서 발견하여 응용하기 보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만들어 내려한다. 인간에게 꿈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 건축과 한편의 시가 탄생하도록 노력한다. 어른을 위한 동화를 쓰듯이, 서구인에게 새로워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문명의 구조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습관에 대해서도 암바스는 이야기 한다. 저녁식사때, 가족과의 단란한 이야기 시간이 T.V. 시청으로 파괴되고, 아르헨티나의 정치체제 속에서 T.V 는

얼마나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가 하며 '알팍'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우화집에 표현했다.

4. 배경과 상황

a. 아르카디아(Arcadia) - 서구의 유토피아의 근원.

인간에게 유토피아의 환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이념으로 인간의 조건을 규정짓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유토피아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투쟁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근원에서부터 파악해 본다면 우리는 한국인의 유토피아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의 선조의 꿈은 어떠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린 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시대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남지만 이의 대답이 손쉬울리 없다. 우선, 서구의 유토피아의 실체에 접근해 보자. 이것 또한 우리의 것을 찾는 작업의 시작일 것이다. 그리스 본토는 산악지대로서 땅이 메달렸으나 골짜기는 기름진 곳이 많았다. 골짜기 마다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인구가 늘어 해양으로 진출하여 상업행위나 해적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로서 분자도 얻게 되었다. 2백년간 완성되었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 호머도 당시의 작가의 통칭이었다.¹⁸⁾ 단순한 서사적 내용을 지닌 시들과는 달리 일정한 규격과 격조를 갖춘 장편서사시 내지 역사시를 쓴 호머(호메로스)는 눈 번 늙은작가이며 가수인 개인이 아니라 시인의 통칭이라 한다. 이것의 특징은 노래라기 보다 주문이나 신탁, 군가 또는 노동요 등의 성격이 복합된 것이다. 그들의 노래를 통해 그리스 인들은 약탈행위, 해적행위를 시적으로 미화하였다. 자유분방하고 신을 겁낼 줄 모르는 세계관은 그들이 언제나 비상사태에 몸을 두고 있었다는 점, 그들의 생활이 언제나 승리의



55. 루시도

연속이었다는 점, 그 문화적 환경이 언제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등의 결과이다. 자기보다 더 문화도가 높은 타민족을 정복하고 고유의 문화보다 훨씬 진보된 문화를 향수하게 되었던 그들은 조상전래의 종교로부터의 속박을 벗음과 동시에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이나 금기사항까지도 자기들은 정복자라는 한가지 이유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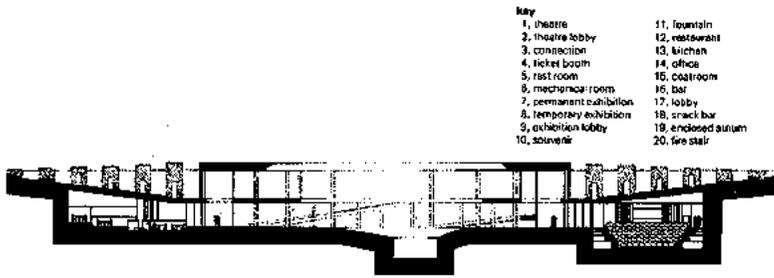
B.C.6 세기경에는 세계에서 공자, 석가, 조로아스터등이 활동한 중요한 시기이었다. 호머에 나타난 신은 정복을 일삼는 귀족계급의 신이며 농부에게 유용한 곡식의 신이 아니었다. 호머는 그리이스의 소아시아와 이웃의 섬들로 구성된 이오니아 지방의 정신적 산물이었다. 당시 통일되기 전까지 국가단위로서 도시국가는 이오니아, 스파르타, 아르카디아, 고린도, 트리키아 등이 있었다.

이중 그리이스의 문화에 기여한 바는 이오니아, 스파르타, 아르카디아 등이며 이중 스파르타는 군사면에서 기여했다. 아르카디아는 유명한 농업도시로서 기여했으나 분위기는 야만적이었다. 고린도는 세력이 풍부한 무역중심의 도시였다. 디오니소스신, 바카스신을 그리스인에게 제공한 트리키아인들은 야만적 평가를 받고 있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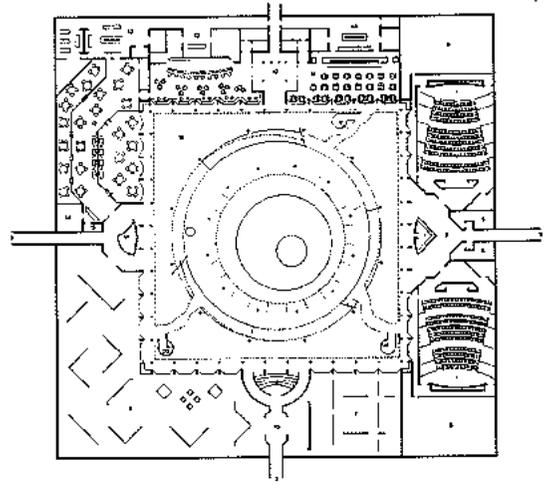
역사가인 폴리비우스가 태어난 아르카디아는 농사를 위주로 하는 촌락사회였으나, 도시에서는 전원적이라고 부르지만 야만적인 공포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판(Pan) 신을 섬기고, 여러가지 풍작송배의 의식을 지켰다. 이 의식에서는 신의 조상 대신에 내모난 기둥을 세워 놓고 경배하는 일이 많았다. 염소는 풍작을 상징하였다. 농민들은 너무 가난하여 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양식이 떨어지면 판신의 조상을 마구 때렸다. (중국 농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b. 서구인의 유토피아

아틀란티스와 환상의 대제국 : 인간에게



- Key
- | | |
|-------------------------|----------------------|
| 1, theatre | 11, fountain |
| 2, theatre lobby | 12, rest-room |
| 3, connection | 13, kitchen |
| 4, ticket booth | 14, office |
| 5, rest room | 15, coatroom |
| 6, mechanical rooms | 16, bar |
| 7, permanent exhibition | 17, lobby |
| 8, temporary exhibition | 18, snack bar |
| 9, exhibition lobby | 19, enclosed stadium |
| 10, souvenir | 20, fire stair |



56. 단면 및 평면도

역사가 있기전, 또 다른 역사시대를 지니고 있다고 추측되어 오다 일부 확인되기도 했거나 전설로 남아있는 대륙이다. 서구인은 대서양에서 가라앉은 아틀란티스를 선호하는데, 무우 대륙은 지금의 태평양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대륙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우대륙은 지금부터 1만2천년 전에 대륙이 그 지하에 찬 가스층이 꺼지면서, 바다로 가라앉고 문화의 파편들이 태평양 연안에 흩어져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아틀란티스대륙도 1만1천5백년 전에 대서양 지부틀터 해협이 맞은편에 존재했다고 하고, 이것을 전해 들은 바를 플라톤이 기록했다.

“아틀란티스는 문명의 중심지로…… 그 세력은 이집트나 티베리아, 아테네들에 미치고,…… 문화가 발달한 먼 무우제국, 마야제국과 교역이 성행하고, 기름진 토지, 풍부한 수확, 훌륭한 도시시설, 경마장, 경기장등 금은 보화, 향료, 상아등이 풍부한 곳이었다. 특산물로는 오리히르콘의 원광석등이……”²¹⁾ 유토피아의 시작으로

아틀란티스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아르카디아로 부터 말할 경우가 더 많다.

아르카디아 : 서구인이 결코 겪어 보지 못한 정신의 고향으로, 야만적 분위기의 농촌도시 아르카디아에서 유래하여,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세에 다시 전원생활에의 동경이 아르카디아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플라톤의 유토피아 : 플라톤이 “국가(Politeia)”에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도시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12개의 부분으로 분할해서, 동등하게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앙부와 주변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게 되므로, 토지의 양부가 평등하게 되도록 배려해서 5040개의 소구획으로 계획했다. 5000호의 각 세대는, 아들 또는 아들이 없는 경우 사위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하며, 이외의 아이들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양자의 인연을 맺거나 이민에 의해 분산시키고 있다. 가족제도 조차 조절 받는다. 수호자(신관), 평민(직인 또는 농부), 전사 등 3계급으로 나누어, 개인적 욕심이 없는 정의로써 통제하는 정의사회를 그렸다. 남녀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전사로서 키우기 위해 지금보다 범위가 넓은 체육과 음악을 가르쳤고, 인간의 약한 심성을 노래하는 시인은 비난 받았다.

경제제도는 공산주의를 제안했다.²²⁾ 비투르비우스의 이상도시 : 사회주의적 색채가 없는 이상사회로서 8개 내지 12개의 구획으로 도시를 구분하였다. 전락상의 이유로서, 위생상의 이유로서 기하학적 형식에 치중하였다. 시장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B.C.30 년경)²³⁾ 천년왕국설 : 유대인의 이상도시에 관한 생각이 담겼는데, 예수가 제림하여 천년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믿는 이상의 왕국으로, 예수가 제림하는 날에, 죽은 의인이 부활하고, 지상에 평화의 왕국이 서서 천년간 예수가 이왕국에 군림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신앙설이다. 그러므로 신전은 구원과 예언성취의 사상을 표상하는 곳이다.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 : St. Augustine 의 Civitas Dei(The City of God) 신국론은 412년부터 427년까지 쓰여진 것으로, 410년 로마가 고트족의 침략을 받은 것에 대해, 이교도들의 질문이 있었을때 기독교의 입장을 개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해 기술하여 중세기에 미친 영향이 컸다. 이 중 신국에 관한 묘사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 세계는 두 도성으로 분할되었다. 한나라는 신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또 한나라는 사탄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악마의 도성에 속하며, 아벨은 신의 도성에 속한다…… 즉, 신국이란 선택받은 자들의 사회이다. 또 신에 대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담겨있는 사례중의 하나로, St. Gall 수도원의 마스터플랜 혹은 이상적 계획안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 병자간호, 가정, 농업 및 공업기술에 쓰이는 건물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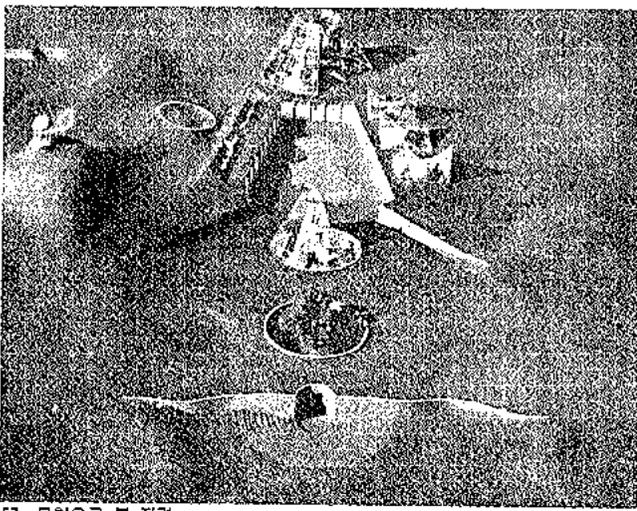
르네상스기의 이상도시 : 비투르비우스와 그의 생각에 영향받은 알베르티(1401~72), 필라레테 등의 세사람은 뒤이어 르네상스의

건축을 형성하는데 공헌한 건축가들인데, 알베르티는 공공건축, 지배계급시민, 중산층, 서민층의 주택등 도시를 여러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부유층의 건축과 별장이 검토되어 병원, 감옥, 병원들이 기술되고 있다. 알베르티는 원형평면의 요소를 좋아했지만, 지형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수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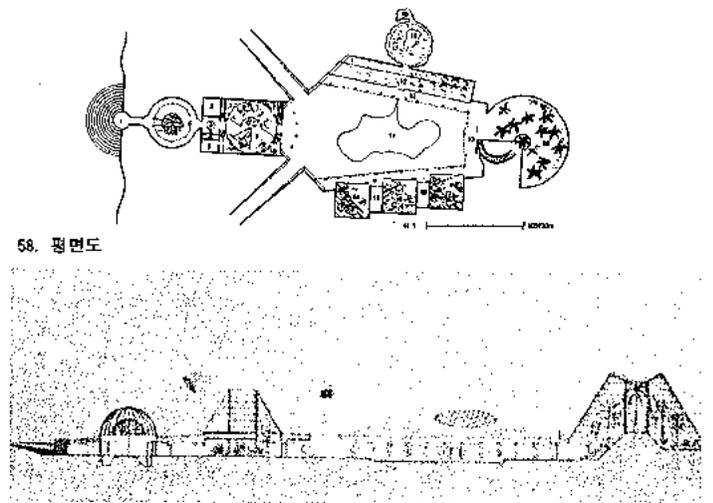
르네상스 최초의 완전한 이상도시 계획안은 1457~64년경에 필라레테에 의해 기록된 그림으로 묘사되는데, 가공의 도시 스포르진다(Sforzinda)에 나타난다. 그의 후원자 후란체스코 스포르자를 위해 도시의 모델을 만들었다. 종교적 편견을 벗어나서, 인간을 위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 궁전과 남녀별로 분리된 학교, 감옥 그리고 ‘악덕과 미덕의 회관’ -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 을 지었다. 10층의 이 환상적 건물은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고 있다. 원안에 팔각별의 형태의 담을 배치하였고 중심에 회관을 두고, 방사선 16방향으로 뻗은 길중간에 동거리로 광장을 두고 시장과 교회를 위한 공지를 제공한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비투르비우스의 제안을 응용하였다.²⁵⁾

유토피아 : 토마스 모어가 1534년에 쓴 사회공자소설의 제목에서 등장한 이말은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모어는 인간의 자만심을 비난했는데, 신의 계시의 도움 없이도 착한 생활을 하는 유토피아 인을 그려냈다. 이에 비해 “신의 계시를 받은 우리 영국인들과 우리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은 왜 이꼴인가?” 하는 것이 ‘유토피아’가 보여주는 기본정신이다. 54개의 도시로 된 섬으로 농업, 도시, 사회제도, 무역, 철학, 노예제도, 결혼풍속, 처벌, 전쟁, 종교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사회제도의 관심외에, 건축에 관한 관심도 표명되었는데, 수도

아모롯(Amaurot : 희미한 도시 혹은 불확실이라는 뜻)은 정방형에 강을 끼고 있다. 도시계획은 유토피스왕에 의해 계획되었는데, 도시는 주위에 높은 성이 있고, 탑과 요새가 있다. 차량운행을 위한 넓은 도로, 주택은 6m 도로에 면해 나란히



57. 모형으로 본 전망



58. 평면도

59. 단면도

배치되었다. 사유재산이 없는 만큼 누구나 쉽게 다른 집을 드나들 수 있으며, 10년만에 한번씩 시민들은 재비뿔아 주택을 바꾼다. 정원을 아끼고, 아름다운 정원이 도시에 가득하다고 묘사하고 있다.³¹⁾

스카모치의 이상도시 : 16세기 후기 르네상스 영향하에 있던 매너리즘 시기에 스카모치는 로마시대의 전형적인 건물에 관한 연구를 한후 “우주건축의 이념”을 통해 이상도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비두르비우스와 필라레타의 전통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형태는 12각 별형태안에 12각형을 두고 거리는 직교좌표를 만들었다. 도시중앙에 강이 흐르고 5개 구역으로 나누어, 5개의 광장을 규칙적으로 분할하여 중앙광장은 시노리아 시청사가 위치하고, 다른 4개 광장은 상거래, 공설시장, 야채과일시장, 주류농시장으로 나누었다.³²⁾

근대 초기의 이상도시 : 1776년의 르두(Ledoux) (1736~1806)에 의한 유토피아의 표현이 프랑스 쇼 지방의 소금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에서 원형으로 설계되었고, 1784년 볼레(Boullee) (1727~1799)의 속이 텅비고, 안에 지구모형이 매달려 있는, 뉴튼기념관 계획안이 역시 원형으로 되어있다. 후에 하워드의 레치워스 전원도시의 원형에서 조차 원형도시로 묘사된다. 계몽주의 시대의 유토피아의 필요조건들을 지니고 있는 이 계획들은 ‘우주를 상징하는 원형’으로 나타난다. 이때 건축가 들은 사회변화 보다는 건축적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³³⁾

사회주의 :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상 시몽, 로버트 오웬, 새틀르 푸리에등이 주장한 이상적 사회들, 공상적 사회주의라 한다. 계획 경제 협동 사회의 구상으로 “통일과 협동의 마을”은 로버트 오웬이 제안한 새로운 사회 제도이다. 로버트 오웬(1771~1858)은 이상도시안을 제창했는데, (1817년) 자급자족하며,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갖추고, 토지와 공장이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공동 사회였다.

그 내용은 800~1200명의 인구에, 1인당

1에이커의 토지 면적을 경작하고, 대광장 중앙에는 교회, 학교, 대식당등이 있고, 공동으로 취사와 식사를 하는 협동사회를 그렸다. 19세기의 유토피아의 개념으로 의미있고, 실행은 실패로 그쳤으나, 미국 서부개발에 공헌했다 한다.

푸리에는 팔랑스테르(Phalansteres) 라는 공동생활시설을 제안했는데, 공업에 기반을 두고 가족단위의 생활과 보육원, 집회실등을 설치한 건물이다.

이들 오웬과 푸리에등은 주거수를 제한한 주거단위, 집중된 시설등을 지녀 현대의 주거해결과 유사한 편이다.

오웬의 경우, 상당한 부자로서 재산을 털어 미국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어, 실현했는데 실패로 끝났다. 후에 이에 대해 마르크스가 이들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생각치 못하고 공상에 그쳤다고, 비평하므로서 공상적 사회주의로 이름지어 졌다.³⁴⁾

c. 현대적 유토피아

산업사회의 초기의 유토피아의 개념은 사회전체를 구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었고,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로 나타난 하층사회에 대한 구제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19세기 유토피아는 정열적인 사회사업이나 자기 구제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비교되었는데, 후에 정치적 비교를 포함하여 판단되었다. 개인의 사유와 자유를 인정한 이념으로서 자본, 민주주의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주의의 판단기준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느냐, 아니면 집단이나 국가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더욱 진전되어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 전위당의 1당 독재로 말미암아, 이론의 실현에 문제있음을 우리가 보고있다. 이러한 사회제도도 인간의 현재를 토대로 한 미래사회 예측과 희망에서 나온 것이다.

아테네 현장 75조³⁵⁾에 기록된 “도시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와 집단행동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과학적 기술의 예찬에서 부터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결정물로서 지금의 세계의 도시문화가 꽃피고 있으나, 이의 문제점도 지적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르니에, 쌍델리아의 미래파 도시이념이나 르 꼬르뷔제가 제안한 300만명을 위한 현대도시 계획안등은 이러한 기계도시로서 이상도시였다. 기계시대의 유토피아에는 아키 그램이나 구성주의자들의 태도로 포함된다.

아리조나주에 있는 여름용 피서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주택 - 탈리어신 웨스트 - 의 경우는 이미 자급자족이나 협동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수영장, 극장, 방앗간등 시설과 설계실, 공동식당, 직원용 주택, 학생용 주택, 라이트의 주택이 단지를 이루며 벌판에 자리잡은 것도 그러한 사례다. 라이트의 제자 파올로 솔레리의 아콜로지로서 이루어진 건축도 비슷한 사례이나 형태는 기하학과 신고전주의의 영향이 스며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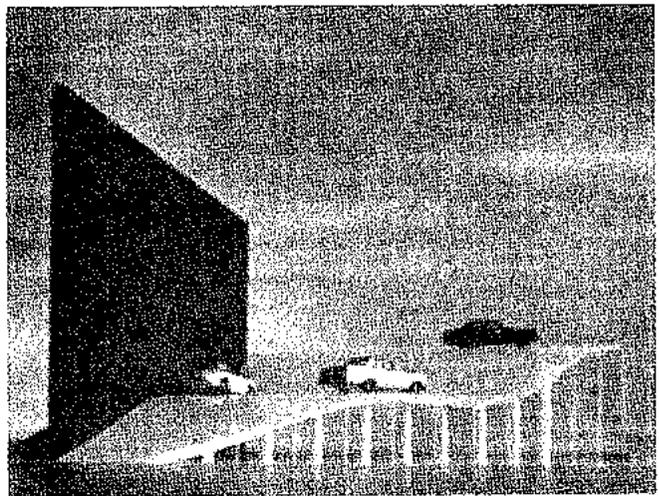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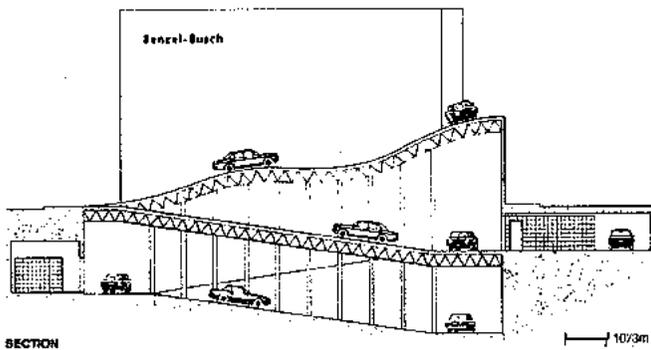
클린 로우는 유토피아와 도시의 이미지는 불가분의 것으로 보았다. 헬렌 로제나우는 이상도시와 유토피아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토마스 모아가 사형당한 것과 같이, 유토피아는 과격한 체제변화를 기본전제로 하고있고, 이상도시 개혁자들은 그에게 부여된 사회와 지역의 범위내에서의 개혁자들과 보았다.

로우는 유토피아는 스스로 변화하는 사회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체도 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유토피아는 가장 적당할 해답이며 따라서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해답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 특히 유토피아는 계획되고 밀폐되어 자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폭력에 의해 전체화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하나의 참고물로서, 발견을 위한 도구로서, 좋은 사회의 불완전한 이미지로서 남아 있어야 할것을 예언했다.³⁶⁾

d. 동양의 유토피아 - 대동사상

“예기”의 ‘예운’편에 나오는, 공쯔(공자)가



60. 단면도

61. 모형

그런 이상적 세계의 구상으로

- (1) 천하를 모든이의 도로 삼고, 현명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서 나라의 정치를 맡기고,
- (2) 사람은 신의로서 서로 화목하고,
- (3) 나의 부모만 부모로 알지 않고, 나의 자식만 자식으로 알지 않으며,
- (4)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젊은이는 일할 자리를 얻고,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과부, 고아, 병자는 버림을 받는 일이 없고,
- (5) 재화는 사장을 하지 않으며, 힘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간계는 행하지 않으며 도둑이 없으므로 집은 문을 잠그지 않는, 이런 상황을 대동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대동사상'은 풍쯔(공자)만의 독자적인 이론이 아니라, 순수한 유가만의 이론으로 보기도 어렵다. 大道라는 말은 '노자'에 나오고, '大同'이라는 말은 '장자'에 유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도가적 색채가 짙다. 중국에서 청말에 이르러 개혁론자는 대동사상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싹을 발견하여 이것을 이론의 논거로 삼았다.

강유웨이(강우위)는 그의 책 '대동서'(1919년)에서 예기 예운편등에 묘사된 유가의 이상세계를 유럽식의 근대사상으로 재해석하여 일종의 유토피아 사상을 만들고, 그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거란세에서 송평세를 거쳐 대도세로 발전한다는 것으로 풍쯔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계의 막애평등등 이상사회관을 전개하면서, 그의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나라구별의 철폐, 가족의 폐쇄성 타파 등을 주장하였다. 이책은 중화민국 초기에 일부 혁명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근대는 유럽을 초월하고 있지도 않고, 낙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럽과도 일본과도 다른,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처음부터 걸어온 것이며 지금도 그러한 것"이라는 미조구찌 유우조의 지적은 우리의 세계관에 자극을 준다. 그는 "중국 근대를 보는 시각"이라는 글에서, "예컨대, 손문의 이른바 王道는 전통적인 대동사상에 그 연원이 있으며, 이 대동사상이 쑨원(손문)뿐만 아니라 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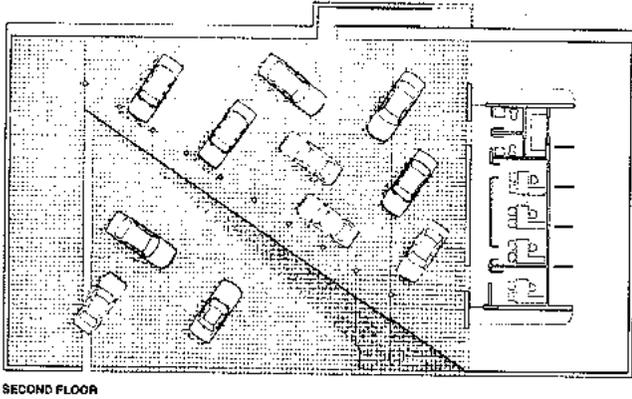
공화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쑨원이 그의 삼민주의를 곧잘 대동주의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 이 대동사상의 기본적인 내용은……근대적인 공화사상에서 더 나아가 인민민주주의적인 그것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는 유럽의 민권, 평등사상이나 마르크스주의의 흡수등이 있는 터이나, 그러한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대동사상의 상속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①

즉, 대동적인 근대의 특징이 개인의 권리 보다는 국민이나 인민의 전체의 권리로서 주장되고 있었다는 점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대동사상의 유토피아적 개념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요새 갑자기 중국이 보여주는 저력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사회주의를 소화해 내고, 드디어 자본주의를 소화해 내려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미조구찌 유우조의 지적처럼 중국의 대동사상의 힘은 실제로 사회주의 성격이 강했었기 때문이고, 중국의 '근대'라는 시대구분은 다른 기준에서 해야 한다는 평가를 불매 더욱 그러하다. 우리 선조들의 꿈은 유교사회에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손이 번창하고 오래살아 백수를 누리는 것"이었다. 김만중의 "구운몽"에 나타난 이상사회는 꿈속의 세계에 비유되었다. 꿈의 세계영화는 부질없는 것이므로 현실적 이상사회를 바랐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차원의 이상이 아닌, 가문이나 가족의 꿈이었다. 사대부의 가치개념은 불교진리와 연관되어 가문과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바랐다. 도가에서의 '신선'이나 '신선술'에 관한 것이나, 상주의 '오복동'전설은 무릉도원의 영향을 받고있다. "나뭇꾼이 우연히 굴속에 들어가니, 그곳에 별세계가 있었는데, 환대를 받고 돌아와, 후에 다시 찾아보니 자취가 없었다"는 오복동의 전설은 도교에서의 무릉도원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회의 체제변화나 개혁의지를 담은

것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이야기나 실학과 박지원이 그린 '허생전'에서의 무인도 이야기등이다. 허생전에서는 무인도로 도적들을 데리고 가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문자를 아는 사람은 모두 데리고 섬박으로 나와 무인도를 낙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다. 불교에서의 미륵신앙이다. 정감록의 정도령 이야기는 어려운 시절에 더욱 확대 된다.

5. 그에 대한 견해

서구건축이 근래 자신의 단일한 가치기준으로 세계를 파악했던 것에서 벗어나, 주위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받아들여 질까? 아르헨티나의 건축가들에게 서구문명을 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스페인의 건축을 그들은 어렵게 접했던 까닭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서구인은 서구의 전통에 내재된 원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바로보지 않기도 한다. 두개의 대별되는 경향이 통사론, 의미론 또는 유형론 모두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암바스가 한 작업은 전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는 왜 건물을 땅에 묻었을까? 에너지문제, 환경적 측면에서의 이유에서 일까? 아니면 건물의 입면을 묻은 것일까? 그런다 해도 입면의 단편들을 중정에 있는 기둥과 보에서 간단하게나마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 내려온 서양건축의 고전언어나 현대언어 모두 땅에 묻고 그곳에서 암바스가 진정으로 새로 발명한 건축의 시어를 우리에게 보이려 하고 있다. 폴린 로우의 말대로, 유토피아가 하나의 참고물로서, 발견을 위한 도구로서, 좋은 사회의 불완전한 이미지로서 남아 있어야 할것을 예언했다. 그럼에도 암바스는 새로운 유토피아, 실현가능한 아르카디아를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 그가 협동농장을 제안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SECOND FLOOR

62.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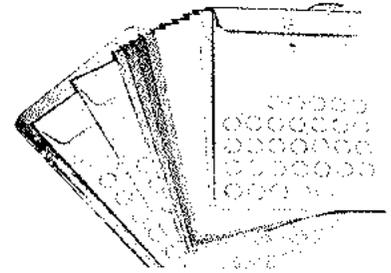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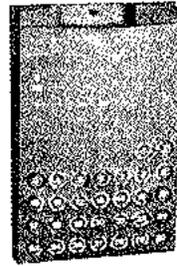
멕시코계 미국인이거나 페루인들이며, 최근 큰일을 맡긴것도 스페인이다. 통용되는 범위가 적은 건축언어나 형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그안에 일상적인 형태가 아닌, 암바스만의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없이 계속되는 작업속에서 가장 몽상적인 건축가들이 보여주는 작품이 아무리 같은 것이라 해도, 암바스는 시각적 창작물에서 몽상적인 이념이 주는 장애요소를 그의 천재성으로 벗어났다. 관련론자라기 보다 우화작가인 암바스는 매우 기초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 우리들은 이데올로기가 쇠퇴한 후에도 불변성의 고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암바스에게 반어법 (Irony) 은 가장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이다. 그는 한정적인 해답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의 보다더 아름다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그는 작업에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므로서 더욱 틀림없이 그에 다르게 한다.

프로젝트는 예술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그의 글은 위트의 차원에서 반응을 유도한다. 다양한 표정으로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화를 꾸며내는 것은 암바스의 작업에서 중심적인 일이지만, 부수적인 문학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화를 해석해 보면, 의식(儀式)을 위한 것이며, 암바스의 작품은 거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화로 그의식을 돕는다.

우리에게 근대란 서구와는 다른 모습의 충격과 가치혼란의 시기이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와 잃어버린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실체는우리에게 해답을 줄 것이다. 중국의 근대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근대도 독자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가 바라보는 세계와 자신과의 끝없는 대화속에 그 해답은 있을 것이다. 여기에 건축가의 일관된 작품언어는 기본적 전제가 된다. 즉, 자기언어로서 건축세계에 대해 일관된 질문을 던지는 작가를 바라보게 된다.



63. 달력 겸 봉투

□註□

- 1) A + U : 1980 : 05, pp.46 ~ 49.
- 2) Annual P/A Awards, pp.16 ~ 17.
- 3) DOMUS, 1979,5,pp.38 ~ 40.
- 4) A + U : 1980 : 05, B.J.Archer, "Houses for Sale", New York, Rizzoli, 1980.
- 5) GA.48.Luis Barragan
- 6) P/A Design Awards 21 ~ 23 회, pp.100 ~ 101.
- 7) "Working Fables : A Collection of Design Tales for Skeptic Children", Prix Jean de la Fontaine.
- 8) A + U : 1980 : 0.5, pp.40 ~ 43.
- 9) A + U : 1980 : 05, pp.44 ~ 45.
- 10) A + U : 1980 : 05, pp.50 ~ 53.
- 11) B.J.Archer, 앞책, pp.3 ~ 15.
- 12) Domus 1984 : 06, pp.30 ~ 31.
- 13) Domus 1985 : 04, pp.12 ~ 13. A.D.1984 : 1/2,
- 14) Architectural Review, 1984 : 06, p.54.
- 15) A + U : 1980 : 05, pp.34 ~ 35.
- 16) A + U : 1980 : 05, pp.55 ~ 59.
- 17) A + U : 1980 : 05, pp.36 ~ 39.
- 18) 헬렌 로제나우 앞책, pp.37 ~ 40.
- 19) 토마스 모어 저, 주요섭역, "유토피아"을 을유문고 109, 서울, 을유문화사.
- 20) B. 러셀, 앞책, p.26.
- 21) 제임스 처치워드, 지방훈역, "태평양에 침몰한 환상의 대제국과 아틀란티스"서울, 도서출판 부름, 1983.
- 22) B. 러셀 저, "서양철학사"상권, pp.143 - 헬렌 로제나우저, 이로경역, "이상도시 - 건축적 전개 -"서울, 태림문화사. 1986. p.4.
- 23) 헬렌 로제나우, 앞책. p.7 ~ 10.
- 24) 헬렌 로제나우, 앞책. p.19. B. 러셀, 앞책. pp. 452~463
- 25) B. 러셀, 앞책. pp. 23~25.
- 26) 아놀드 하우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고대 중세편. pp.67 ~ 77.
- 27) 헬렌 로제나우, 앞책. p. 48.
- 28) 폴린 로우 저, "이상향의 건축", 윤계희,

- 지연순역, "근대건축론집"9편, pp. 235 ~ 253. 서울, 세진사.1986년.
- 헬렌 로제나우, 앞책. pp.86 ~ 101.
- 29) 거름신서33, K. 마르크스, F. 엥겔스 저, 김재기 편역,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pp.195 ~ 291.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 30) Le Corbusier, "아테네 현장", 이윤자역, 서울, 기문당.1986.
- 31) 폴린 로우 저, 앞책. 헬렌 로제나우, 앞책. pp.154 ~ 169.
- 32) 미조구찌 유우조 저 "중국근대를 보는 시각", 청람논단7. 민두기 편역, "중국현대사의 구조", 제4부, 평가편' pp.281 ~ 293. 서울, 청람문화사.1983.
- 33) Machael Sorkin, "The Architecture of Emilio Ambasz". A + U : 1980 : 05, pp.36 ~ 39.
- 34) Fulvio Irace, "The Poetics of the Pragmatic - The Architecture of Emilio Ambasz". A + U : 1980 : 05, pp.55 ~ 59.
- 35) Emilio Ambasz, "Working Fables: A Collection of Design Tales for Skeptic Children", A + U : 1980 : 05, pp.107 ~ 114.
- 36) P.A. 1979 : 04, pp.142 ~ 143.
- 37) Architectural Review. 1981 : 01, pp.19 ~ 22. "Reconnaissance"
- 38) Peter Buchanan, "An Awe-filled Arcadia: The Architectural Quest of Emilio Ambasz". A + U : 1983 : 08, pp.30 ~ 35.
- 39) Marthin Filler, "Ambasz and the Poetics of Architectural Space". A + U : 1983 : 08, pp.62 ~ 66.
- 40) A.D. 1980 : 11/12.
- 41) Architectural Review, 1983 : 11. "Laboratory Landscape"
- 42) P.A. 1985 : 01, "the Lucile Halsell Conservatory". pp.120 ~ 121.

□정정 : 본지 8808호 p. 21 김기철작 펜싱경기장 설계자는 강건희 (홍대) 교수 + 동명건축으로 바로 잡음.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 - Ho

百濟의 建築

●彌勒寺 造形計劃의 特性

미륵사지에 대한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는 동·서원 및 중원의 9층탑 說과 함께 필자가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이 사지 배치에 사용된 用尺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高麗尺 (東魏尺이라고도 함)으로 산정되는데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용적과 曲尺과의 환산비는 1.155곡척에서부터 1.176곡척까지 환산할 수 있어 약 2%의 오차를 나타내고 또 실제로 오래된 유구이므로 실측하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숫자적으로 계는 길이에 따라서도 오차가 있을 수 있어 평면 배치의 치수는 경우에 따라서 1-2고려척이 차이질 수 있음을 솔직히 알려준다. 미륵사의 평면계획은 우리나라 古代寺址중 그 어느 것 보다도 거의 완벽하게 기하학적으로 均齊됨을 알 수 있는데 먼저 가람규모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람 전체의 규모는 남회랑지의 동·서기단 끝까지의 길이가 490고려척이 되고 중원가람의 동·서회랑지의 건물 중심선間 거리는 190척 (이하 고려척임)이며 남·북 회랑지의 건물중심間은 246척이다. 그리고 東·西院의 동·서 회랑지間의 거리는 140척이며 가람북쪽 講堂區에서 동·서 廡房址 外側기단의 거리는 379척으로 380척에 가까워 중문지에서 강당지 중심간 거리인 380척과 같다. 또 중문지에서 탑지까지의 중심거리는 三院이 다같이 88척이고 이는 탑지에서 금당지까지의 거리와 같다.

또 중원 금당지에서 강당지까지의 건물중심 거리는 204척이다. 중원 가람에서 중문지와 금당지 중심간의 거리인 176척은 중원 동·서회랑지의 內側 邊柱列間 거리와 같다. 그러므로 탑지의 心柱자리를 중심으로 위의 176척을 한 변으로 하는 正四角形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이 미륵사 伽藍의 규모를 정해주는 기본길이 된다. 이 정방형의 대각선길이는 계산상으로 248.8척이 되는데 이것은 前記 중원의

남회랑지에서 북회랑지 중심간 거리인 246척과 거의 같다.

전체 가람규모에서 본다면 남회랑의 총길이 490척을 한 변으로 하는 正三角形의 頂點은 남면에서 높이 424척으로 되는데 이것은 가람 남북 전체거리인 420척과 비슷하다. 그러나 본래의 강당 기단북면이 현재의 기단보다 북쪽으로 약 2m, 前記 가람 남북 총길이보다 1.2m 북측에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본래의 강당지 기단 북면 중앙에 그 정점이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람의 남북 全長은 전술한 정방형의 한변인 176척을 한 변으로 한 正八角形으로도 限定되어 이 팔각형의 전폭을 계산상으로 $176 + 176 \times 1.414 = 424.86$ (尺)이 된다. 또 이 기본 정사각형을 북쪽으로 연속하여 하나를 더 그려보면 이 북쪽변은 강당지 기단의 남면에 일치되어 계산상 중금당지에서 강당지 중심간의 거리인 204척에서 강당지 기단의 남북폭 56척의 반을 除하면 176척으로 일치된다.

또 강당지의 동서 柱間 全長이 176尺으로 동·서중방지의 남북 柱間全長과 일치된다. 동·서원에서는 남회랑 기단 북면에서 금당지 남면까지의 거리 153尺을 한변으로 한 정사각형을 그리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동·서회랑지의 외변 주열에 한정되며 또 금당 기단의 남면을 한 변으로 하는 정팔각형의 남면은 석탑 하층기단 남면에 떨어져 남북 기리 85척이 된다. 이와 같이 미륵사의 가람평면계획의 形成은 正三角, 四角, 八角形으로 均齊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건물의 위치를 정한 것으로 믿어지며 도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圖式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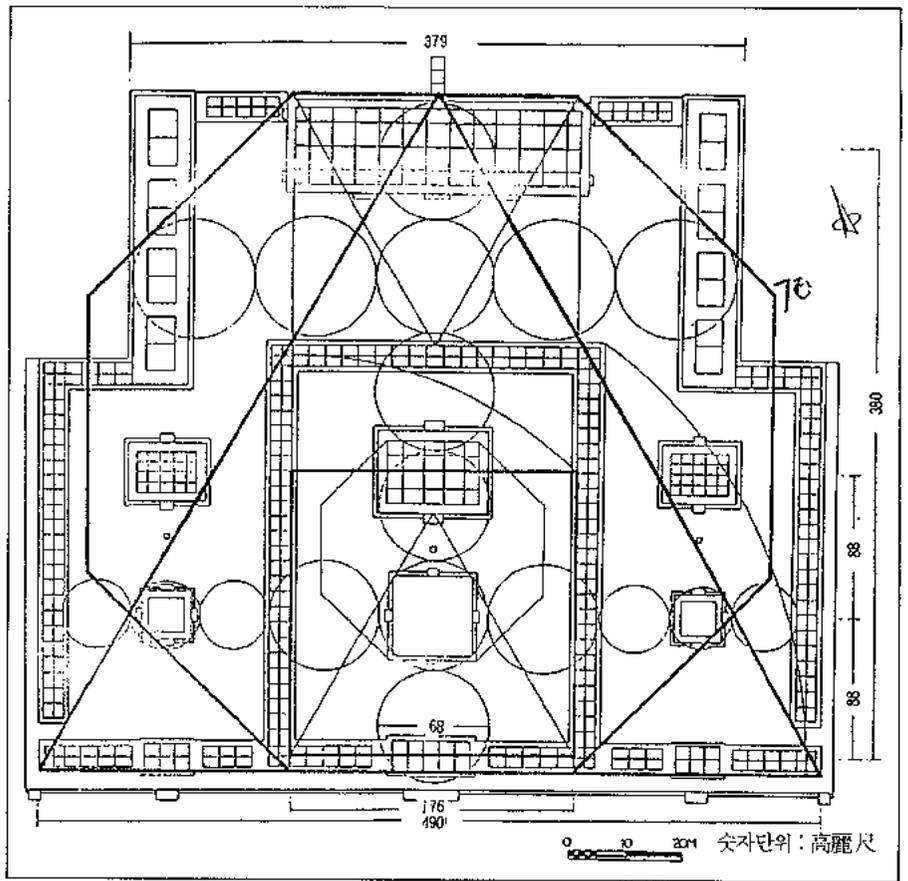
다음 건물지의 규모를 살펴보면 목탑지 上層基壇의 한 변을 48尺으로 잡고 이것의 $\sqrt{2}$ 倍(對角線長) 68尺은 금당지 상층기단 一邊長과 같다. 또 기단의 正面長과 側面長의 比는 1.3 : 1로 되고 그 상부 柱間全長의 比는 1.4 : 1로 $\sqrt{2}$ 比에 가깝다. 동·서원의 건물지

◆ 張慶浩
36年生으로 한양공대 건축파를 졸업 (61) 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을 거쳐 87년 3월 제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1988년 홍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규모는 동·서가 서로 대칭되었다. 여기서 석탑 상층기단은 30尺×30尺인데 이것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柱間 21尺×21尺 대각선 길이인 29.7尺에 가깝다. 금당지의 상층기단은 47尺×37尺으로 그 비가 1.27 : 1이나 柱間은 35尺×26尺으로 1.35 : 1 정도이다. 그런데 이 동·서 柱間全長은 석탑지 하층기단의 한 변 길이와 같다. 강당지와 승방지는 그 긴 변의 기단短邊幅은 40尺으로 하고 회랑지의 폭은 그 절반인 20尺이다. 또 건물지와 가람규모의 관계에서中金堂 기단 동서 길이, 혹은 목탑지 기단의 대각선 길이 68尺을 3배하면 중원의 동·서회랑지 外廊柱列間의 거리와 가깝고 이를 6배로 하면 중문지 南端에서 講堂址 北端까지의 거리와 가깝다. 이것은 동·서 승방지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석탑지 상층기단의 대각선長의 3배는 동·서원의 兩側 회랑지 사이의 폭을 정해준다. 이와 같이 비록사의 가람배치 계획은 건물과 伽藍규모 등이 幾何學的인 有機性을 나타낸다.

● 彌勒寺의 建築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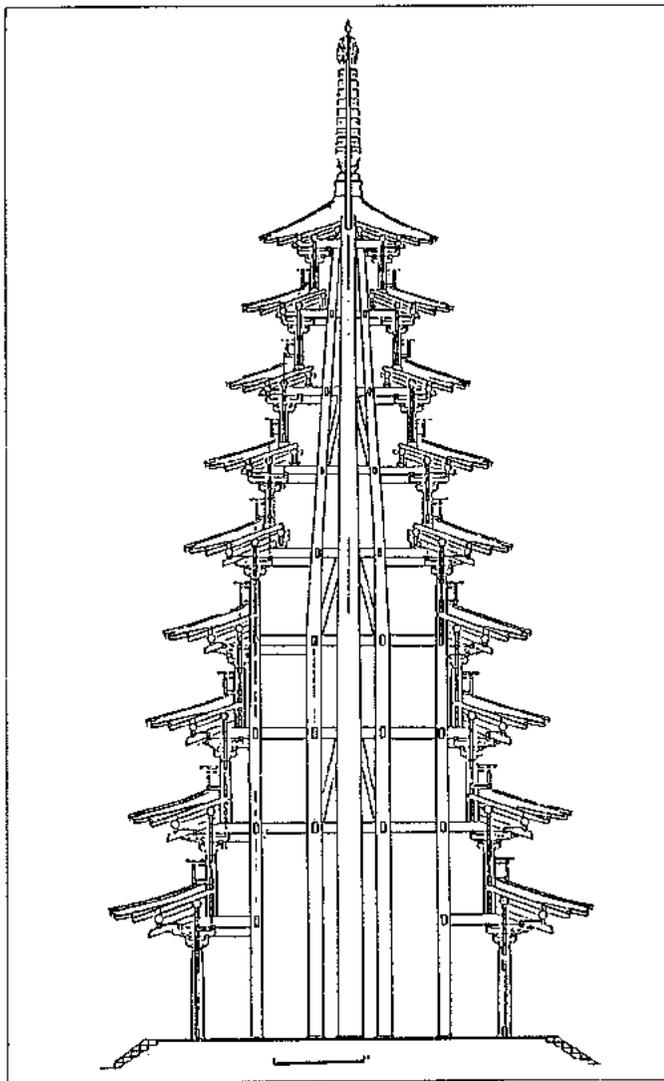
이 사지의 西塔은 현재 6층만 일부 남아 있어 본래 7층설과 9층설이 있다는 설명은 이미 앞에서 하였지만 發掘調査 결과 석탑의 最上層 屋蓋石과 그 위에 놓이는 露盤石이出土됨으로써 9층이었다는 論證을 밝힐 바 있다. 따라서 中院의 木塔 역시 9층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여 金堂 등의 복원을 추측하여 보면 도면 4와 같은 조감도를 想像할 수 있다. 비록사의 건축공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三院 並列式으로 伽藍을 형성한 이 寺院은 발굴결과 남측 진입공간에 大淵池가 가람 동서쪽을 가로질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심軸을 따라서 남북으로 진입 道路가 놓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못의 북면護岸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 m 떨어져서 傾斜한 段이 놓였는데 높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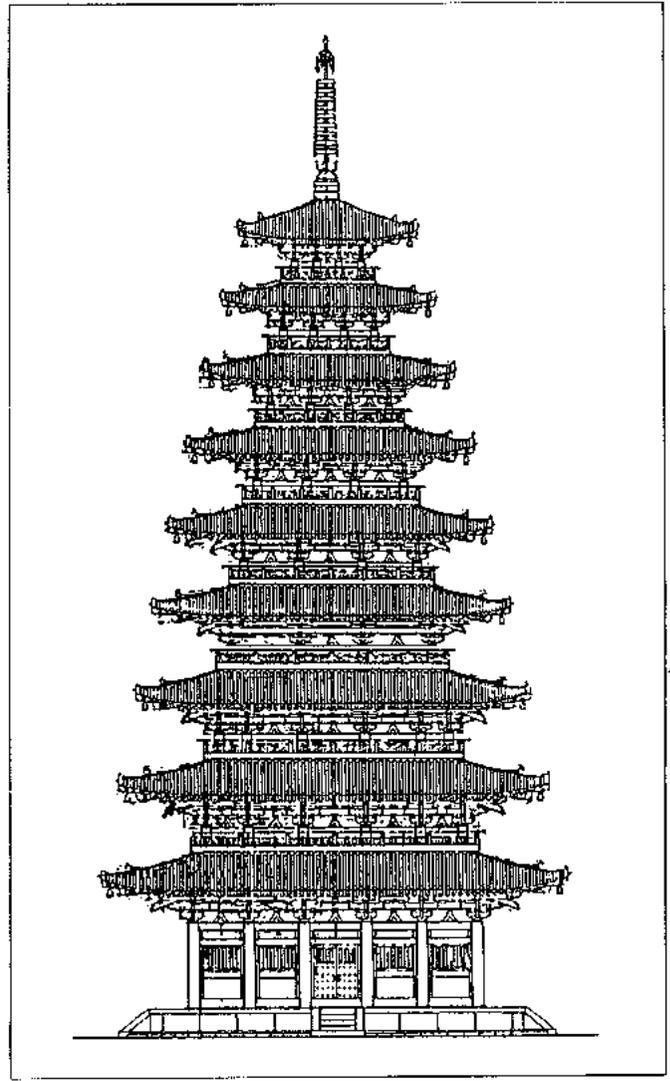
圖面 1. 彌勒寺址 伽藍均齊圖

〈表 1〉 彌勒寺址와 皇龍寺址의 伽藍規模 比較

區分		M	曲尺	高麗尺	換算比
彌 院	距離				
	東·西迴廊內邊柱間	61.56	203.15	176	1.154~1.159
	東·西迴廊址中心柱間	66.54	219.58	190	1.156
	南·北迴廊址中心柱間	86.8	286.44	246	1.164
	中門址와 塔址間	31.21	102.99	88	1.170
	塔址와 金堂址中心間	31.30	103.29	88	1.174
東· 西 院	金堂址와 北迴廊址中心間	25.76	85.0	73	1.164
	東·西迴廊址內側 基壇線間	41.2~ 42.3	135.96~ 139.59	117~ 120	1.1610~ 1.163
	東·西迴廊址內邊柱間	43.5~ 44.6	143.5~ 147.18	124~ 126	1.158~ 1.168
	東·西迴廊址中心柱間	48.2~ 49.3	159.06~ 162.69	138~ 140	1.153~ 1.162
	南·北迴廊址內側 基壇線間	76	250.8	216	1.161
	南·北迴廊址外側 基壇線間	90	297	256	1.160
講 堂 址 區	講堂과 中金堂中心間	71.61	263.3	204	1.158
	東·西僧房址中心間	118.7	391.71	338	1.159
	上同內側基壇線間 (中心)	104.7	345.51	298	1.167~ 1.171
	上同外側基壇線間	132.7	437.91	379	1.155
伽 藍 址	南迴廊 東·西長	172.16	568.13	490	1.159
	講堂과 中院北迴廊中心間	45.85	151.31	130	1.164
	中門址와 講堂址間	134.13	442.63	380	1.165
	南北外側基壇線間	148.21	489.09	420	1.165
	南迴廊址南端에서 後側築臺까지	158.97	524.60	448	1.170
	外廓 담장址 南·北間	288	950.4	820	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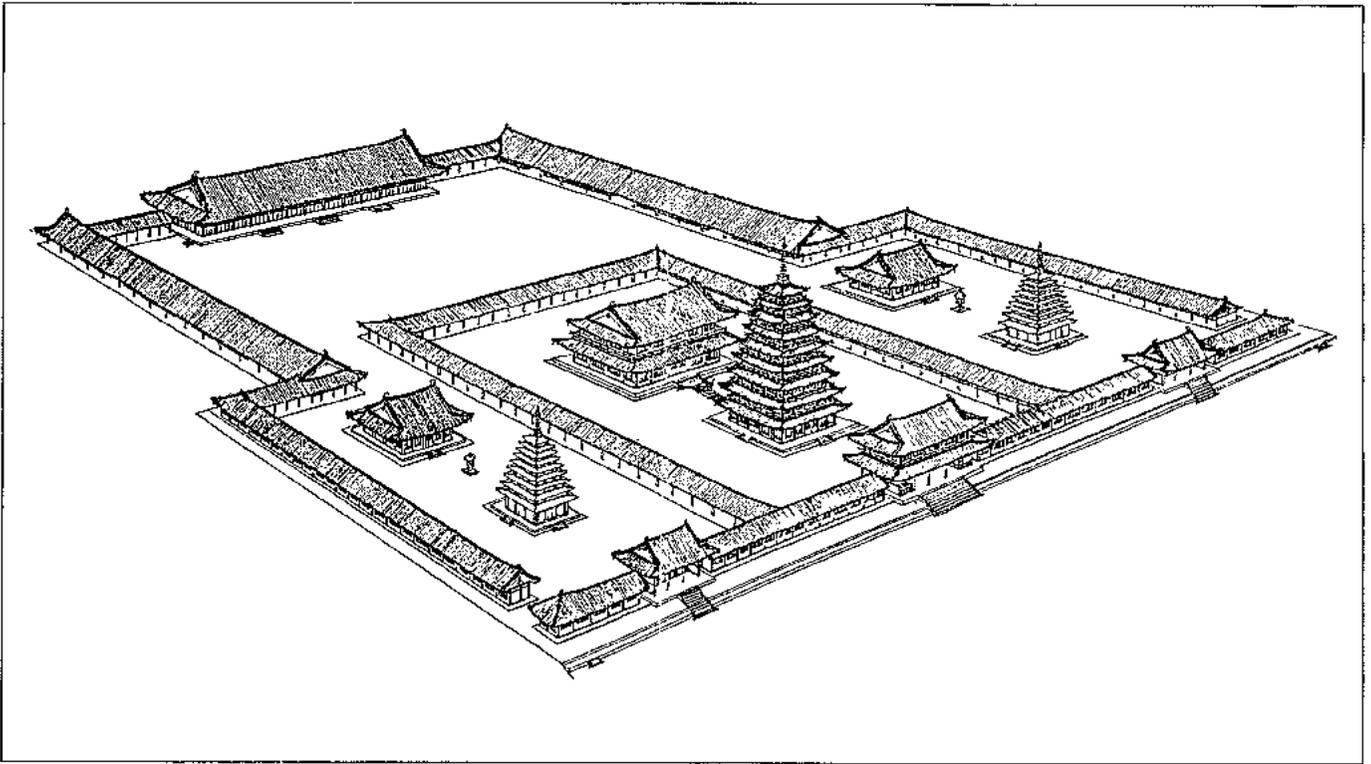
圖面 2. 彌勒寺 9層木塔 推定復元 斷面圖



圖面 3. 彌勒寺 9層木塔 推定復元圖

〈表 2〉彌勒寺址와 皇龍寺址의 各 建物址 基礎 및 柱間의 比較

區分	建物址名	上 層 基 壇				下 層 基 壇				柱 間			
		曲 尺	高麗尺	對角의 길이	換算比	曲 尺	高麗尺	對角의 길이	換算比	曲 尺	高麗尺	對角의 길이	換算比
彌	木塔址	55.2 ~ 56.1	47~48	66.45~ 67.87	1.169~ 1.179	60.06	52	73.5	1.155	39.6	34	48	1.164
	中院金堂址	79.86× 60.06	68×52	85	1.155~ 1.177	85.99× 66.00	74×56	93.4	1.162~ 1.173	66× 46.2	56×40	68.8	1.155~ 1.178
	中院中門址	57.75× 41.25	49×35	60.2	1.168~ 1.172								
勒	講堂址	215.49× 64.81	64.81	194.2	1.157~ 1.158					203.61× 52.93	176×46	179.9	1.150~ 1.157
	東·西院 金堂址	54.45× 42.9	47×37	59.8	1.158	60.88× 49.5	52×42	66.8	1.170~ 1.178	41.25× 唐尺42×30	35×26 唐尺42×30	43.6	1.155~ 1.178
寺	石塔址	35.3× 35.3	30×30 唐尺35	42.4	1.176	41.25× 41.25	35×35 唐尺42	49.5	1.178	24.75× 24.75	21×21	29.7	1.178
	東·西院 中門址	39.6× 28.05	34×24	60.2	1.164								
址	迴廊址(幅)	12.44~ 23.1	19~20		1.155~ 1.187					15.51	13~13		1.142~ 1.193
	僧房址	215.19 ×46.2	186×40	190.25	1.155~ 1.157					207.57 ×14.85	176×33	179	1.178~ 1.179



圖面 4. 彌勒寺 伽藍 推定 鳥瞰圖

약 2m이다. 이段을 올라서면 가람 남단 담장이 섰던 자리가 있어 이곳에서부터 平地로 中門 앞까지 펼쳐지다가 중문앞에서 낮은 석축단이 2단을 이루어 놓이고 이 위에 중문이 세워진다. 여기서부터 講堂址까지는 거의 평지를 이루었고 강당 후측에는 低濕地를 사이에 두고 석축단이 다시 놓이는데 이 위에도 평지를 마련하여 건물을 세웠으며 그 건물위로 다시 한단이 높아진 傾斜面 위에 북측 담장이 놓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람의 左右側에는 背山인 龍華山峰에서 부터 감싸며 내려받은 陵線으로 둘러져 있고 그 아래에는 북에서 남으로 하천이 흘렀던 것이다. 가람 내부에는 9층의 石塔이 양쪽에, 그리고 9층의 북탑이 중앙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또 이들 뒤에는 각각 舍堂이 놓이고 그 주위에 廻廊이 둘러져 각각의 區域을 限定시켰다. 그리고 남북軸線上 북측에는 거대한 강당이 놓였고 그 양측 전방에 僧房이 남북으로 길게 놓였다.

이와 같이 배치된 미륵사의 건축공간을 살펴보면 우선 외부 進入空間이 내부 主空間에 비하여 낮게 마련된 데다 큰 연못을 두고 있어 불교의 彌勒天界와 人間俗世를 隔離시키고 속세에서 이곳으로 진입하는 동안 清潔한 연못에 모든 속된 마음을 씻어버리고 佛界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진입공간은 소위 視覺的階層秩序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인식과정으로서의 계층질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경사면을 올라가서 담장 혹은 남대문을 지나서 緩衝의 轉移공간에 접하게 되고 이 곳에서 다시 단을 형성하여 그 단을 올라서면 회랑과 중문이 놓여 이곳을 통과해야 主空間에 도달하게 된다. 主空間에는 橫으로 3區를 둔 3院伽藍을 나란히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地面으로 보아 같은 평면상에 조성되었으나 그 규모의 비로서 계층을 이루었는데 中院의 內庭면적과 동·서원 內庭面積의 比例는

1.5 : 1로서 중원 내정이 더 크다. 건물기단에 있어서도 大小의 차이는 있는데 금당의 경우 그 면적비가 2 : 1이고 南邊기단길이의 비는 1.47 : 1이다. 또 탑의 경우 면적에서 2.4 : 1이고 기단변 길이의 비는 1.56 : 1이다. 이와 같이 내정의 면적과 건물크기에 있어 위계질서를 두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兩夾區의 伽藍으로 구분하고 있음도 위치에 따른 계층구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註 □

1. 拙稿, 皇龍寺址를 中心으로 考察해 본 우리나라 古代寺刹伽藍, 大韓建築學會誌 1980. 9~12月號.
2. 拙稿, 彌勒寺址 石塔復元에 關한 研究, 考古美術 통권 173호, 韓國美術史學會, 1987.

경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축

1888. 9. 15~1988. 10. 2

(綜合) 病院設計 着眼事項

曹浚鉉 / 建設部 建築審査担当官
孫炳錫 / 建設部 建築課 建築技佐

I. 概要

1. 計劃概念

(1) 의료시설의 내용

保健 :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건강증진
위주 시설

医療 : 각종 질병의 진단위주 시설

再活(Rehabilitation) : 마비기능의 회복,
잔존기능의 유지와 보완기능의
개발위주 시설

(2) 의료시설의 분류

① 시설 및 Life Cycle에 의한 분류

- 입원시설 : 유상 진료소, 병동
- 통원시설 : 외래부, 무상진료소

② 시설 전문성에 의한 분류

- 일반병원 : 일반적인 병원, 외래과과
(내·외과 등)

- 전문병원 : 모자보건원, 소아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요양소 포함),
전염병원, 나병원 등

(3) 病院의 위치 및 부지선정

① 사회적 조건 : 교통, 도시 Service
(상하수도, 전기, 가스등), 사회적 환경
(소음, 공해, 폐기물 처리, 일조,
진과장해) 등

② 자연적 조건 : 부지의 지형과 넓이, 기후
植生 등 (특히 주차장용지의 충분한 확보 필요)

(4) 病院의 규모

① 병원이 위치하는 지역사회 및 당해 병원의
이용권에서 1일 평균 입원 환자수를 결정함.

② $B = (A \times L) \div U$ 에서 병상수를 결정함
여기서, B : 병상수

A : 1일평균 입원 환자수

L : 평균 입원일수

U : 평균 병상 이용률(0.6~0.8)

(5) 病院의 각부 구성

① 病棟

- 주요업무

환자가 입원생활을 하면서 진료와 간호를
받는 부분으로 환자가 주야로 사용하며
병원 기능상 가장 중요함

- 내부구성

• 일반간호 단위(내과계, 외과계, 혼합계
등)

• 산부인과, 소아, 노인등의 간호단위

• 특수간호단위(결핵, 전염병, 정신병계,

암 및 RI계 등)

② 外來診療部

- 주요업무

환자가 동원하면서 진료와 치료를 받는
부분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장수가 되며
년년에는 건강진단의 업무부 겸함

- 내부구성

• 접수, 사부, 투약창구

• 종합진료실

•各科진료실

• 건강진단실

• 구급 또는 구급처치실

③ 中央診療部

- 주요업무

특수한 기구를 갖춘 전문 공통적인

진료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 기재 및 약품의 준비, 재공으로
병동과 외래진료부의 진료활동을 도움

- 내부구성

• 검사부, 방사선부, Rehabilitation 부

• 수술부, 분만부

• 약국, 수혈부, 중앙재료실

• 혈액무석, 고압치료실 등

④ Service 部

- 주요업무

물품과 에너지의 공급 및 처리나 직원에
대한 생활 Service를 하여 병원 전체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 내부구성

• 급식부, 세탁실

• 중앙창고, 폐기물 처리실

• 전기, 기계실

• 직원식당, 편의실

• 의공수리실, 영선수리실 등

⑤ 管理部

- 주요업무

진료 및 시설의 조직과 운영등을 통괄하여
사무처리를 하며 정보관리 및 대외관계
업무를 하는 부분

- 내부구성

• 원상실, 사무장실, 간호상실, 회의실 등

• 입·퇴원사무실, 외래접수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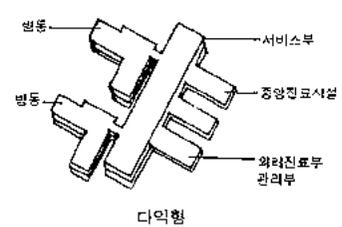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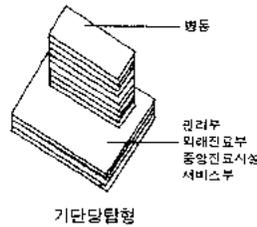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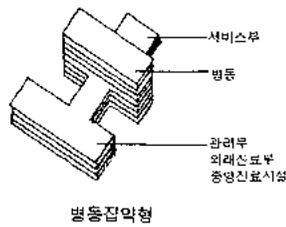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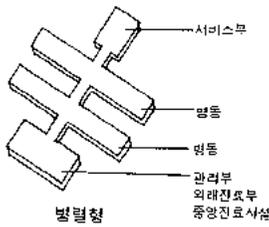
일반사무실, 전화교환실

• 방재센터, 전산실

• 의료사회사업실, 영안실 등

(6) 病院설계시의 고려사항

① 지역과의 대응 : 당해병원이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의 검토, 규모의 결정, 부지의 선정등을 할 때 지역의 현황과 장래의 동향을 고려해야 함

②환자의 시점에서 고려: 병원의 이용주체는 환자이고 환자는 야사이므로 계획 시점에서 설계의 완결에까지 환자위주의 배려를 해야 함. 병동의 설계를 비롯한 모든 의료시설에 있어 이러한 배려가 가장 중요함

아울러 환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호 직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함

③의료기술의 발전에 대비: 검사, 방사선, 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분야에 있어 의료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과 설비면에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계획 및 설계에서의 의료기술 반영을 요함

④전체구성의 명확화: 병원 각부의 기능은 극히 세분화되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개개역할과 전체구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함. 이를 위해 진료관리, 시설관리, 불품관리, 정보관리등의 방식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따른 명확한 건축구성이 필요함

⑤병원의 성장과 변화에 대비: 의료 Service 기대 수준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건축설비 기술의 진보로 병원시설의 변화, 규모의 성장이 전망됨. 이러한 변화 및 성장을 미리 대비하여 증개축에 대한 사전 배려가 필요함

⑥방재대책: 보행이 곤란하고 허약한 환자가 거주하는 병원은 방재대책이 특히 중요함. 화재뿐 아닌 기타 재해 (지진, 수재, 정전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고려되어야 함

등)가 완비되며 소음, 공해, 일조등 사회적 환경에 무리가 없는 곳으로 한다.

- 식생, 기후,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곳으로 한다.
- 장래 증축의 여유가 있는 부지를 선정한다.

(2) Block Plan

Block Plan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는가?

- 부지와 건물의 조화, 각동별의 조화에 유의하고 옥외 필요공간 (조경, 주차장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병동각부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Service부, 관리부)를 분리시켜 서로의 연관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 Block Plan의 기본형 (대표적인 예)은 다음에 준한다.
- 증축을 대비하여 각동을 구성한다.

(3) 기능별 배치원칙

각 기능의 배치에 있어 대자를 집약적,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상호 연관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병동은 병원전체면적중 20~40% 정도를 차지하고 Block Plan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환자가 안정되게 요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되도록 배치한다 (일조, 외부소음, 조망, 부지내 환경, 문병용 출입동선 등을 고려)
- 외래진료부는 외래환자가 출입하기 쉽고 알기쉽게 접근부 (Approach)를 계획하고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구급부는 통상 외래진료부와 통합 배치하나 일반 외래자와 출입구를 분리하여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
- 외래진료실은 외부시설이나 소음에 유의하여 배치하며 약국, 사무실, 방사선부, 검사부, Rehabilitation 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근접 배치한다.

- 중앙진료부는 병동과 외래진료부에 밀접하게 배치하고 내부 각부문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따라 각실을 계획한다.
- 중앙진료부는 의료기술의 진전에 따라 시설의 확장과 분화, 설비의 변경등이 가장 생기기 쉬운 부분이므로 설계에 있어 장래의 증·개축을 대비해야 한다.

•Service부는 일반적으로 병원 후면부에 계획하여 식품, 연료, 제품품반입과 폐기물 처리등의 별도 반출입구를 설치하고 타부분 (특히 진료실, 병실)과 차단하여 설비소음, 열, 악취등을 방지한다.

•관리부는 Service부와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근접 배치하고 진료사무의 일부는 외래진료부에서 맡게 한다.

- 전산실 및 방제센터는 하층에 위치하되 화재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4) 진입 및 주차계획

병원의 진입과 주차계획에 다음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병원은 주로 환자나 허약자가 이용하므로 하차지점에서 현관까지의 보행진입 거리를 짧게 한다.
- 보도와 차도를 엄격히 분리하여 혼잡을 방지한다.
- 외래환자와 문병용, 구급부, Service부 등의 진입동선을 각각 분리하여 혼잡을 방지한다.
- 차량 전·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충분한 차도폭을 확보하고 환창차로 (Loop) 등을 이용하여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 엠블런스등 응급환자 수송차는 바로 현관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을 넓게 계획한다 (연면적 150m² 당 1대 기준으로 산정하나 법정주차대수보다 초과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의 경우 병상당 1대로 계획함)
- 주차방식은 부지형태에 맞게 직각주차, 45°주차, 평행주차 또는 지하주차, 기계식주차 등의 제방법을 강구하되 도로의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 4 조의 기준에 맞도록 계획한다.
- 차량동선 및 주차장은 기능별로 구분 배치하는 것이 좋다. (외래출입차량; 택시·자가용, 직원차량, 응급차량, Service차량,

II. 審査指針

1. 配置計劃

(1) 부지선정

병원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고려되었는가?

- 지역사회의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한다.
- 도시 Service (상하수도, 전기, 가스

영안실용차량 등)

※ 주차장법 시행령 제 4 조의 시설기준

주차형식	차로의 폭 (m)	
	출입구가 2개이상일때	출입구가 1개일때
평행주차	3.5	5.5
직각주차	7.6	7.6
60도대향주차	6.4	6.4
45도대향주차	3.8	5.5
교차주차	3.8	5.5

* 굴곡부는 5m이상의 내반반경 확보

* 중단구배는 17% 이하

* 경사부는 조면으로 함

(5) 조경계획

식재 및 조경시설을 계획은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양에 알맞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식재계획은 병실 각창의 시각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에게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으로 조경하되 부지의 지형 지세에 맞게 아름다운 외부공간을 창조한다.

• 옥외 휴게시설등을 계획하여 환자 및 일반시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조경년적을 넓게 잡아 환자의 산책로등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 불필요한 외부 계단은 삭제하여 지체부자유자 또는 휠체어 환자의 산책로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한다.

• 외부 주도로와의 사이는 수림대를 구성하여 차량소음등 환자의 안정을 해치는 소음·공해를 차단한다.

2. 平面計劃 (I) - 病棟

(1) 일반사항

병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기능 및 동선관계의 평면계획적 사항으로서 병원의 기본계획 개념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었는가?

- 환자의 병약한 육체나 신경에 대한 배려를 중점적으로 하여 관찰하기 쉽고 (간호상의 요구) 환자의 Privacy를 확보 (환자측의 요구) 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병실군과 병동입구에 대한 간호 근무실의 위치관계는 간호원의 동선 단축과 병동관리의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간호단위는 각각 독립시켜 계획하고 장애의 증축에 대비해야 한다.
- 1Bed당 병동 면적은 최소 15㎡ 이상 가급적 20㎡를 기준 (구미에서는 40~50㎡)으로 하며 전체 병동 면적중 병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40~50%가 되도록 한다.
- 병동은 외래진료부 또는 중앙진료부에 근접 계획하여 환자의 동선을 줄이고 한국적 관습상 가족·친지등의 문병이 빈번함을 감안하여 편의를 도모한다.

(2) 간호단위

병동의 합리적인 평면계획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간호단위 (간호관리를 하기위해 입원환자를 Grouping하여 통괄하는 것을 말하며 각 단위마다 간호장과 1조의 간호원이 딸리게 된다)의 구성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는가?

- 간호단위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질병 및 연령, 간호정도로 구분하되 그에따라 다음과 같이 병상규모를 정한다.
- ① 내과계, 외과계, 혼합계: 40~45Bed
- ② 산부인과, 모자보건: 30Bed
- ③ 정신과: 40~50Bed
- ④ 소아과: 30Bed
- ⑤ 중증간호 (Intensive Care): 7~12Bed
- 각 간호단위마다 환자관계 제실 (병실, 격리관찰실, 면회실, 휴먼실, 화장 및 세면실, 세탁실, 욕실, 샤워실등) 과 간호관계제실 (간호근무실, 안내실, 기록실, 작업실, 진찰처치실, 회의실, 오물처리실, 기재실, 리넨실, 배식, 급탕실 등)을 완비하여 독립된 생활공간을 형성한다.
- 개별 간호단위내의 면적 배분은 병실 40~50%, 간호제실 20~30%, 공용면적 20~30%로 한다.

(3)各科별 유의사항

병동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외에各科별로 특수한 요구조건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내과계 병동

- ① 수술을 하지않은 일반 질환의 환자 수용
- ② 입원기간은 비교적 장기임 (평균 79일)
- ③ 복약, 주사, 영양, 안정등이 중시됨
- ④ 중병 및 격리병실의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외과계 병동

- ① 수술을 하는 일반질환의 환자수용 (일반외과, 정형외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환자 포함)
- ② 입원기간은 비교적 단기임 (평균 41일)
- ③ 수술전의 빈번한 검사와 수술후의 합병증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간호, 관찰을 요함
- ④ 회복기의 Rehabilitation을 고려해야 함
- ⑤ 수술부, 검사부, Rehabilitation부와 밀접한 연관을 요함

•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동

- ① 수용자의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임
- ② 입원기간은 단기임 (평균 10일)
- ③ 분만실과 난접해야 함
- ④ 신생아의 취급방식에는 집중보육방식과 보자 동실 방식이 있음
- ⑤ 소아병동은 질환에 관계없이 15세미만의 유아, 학생을 수용
- ⑥ 소아병동은 관찰이 용이하도록 계획
- ⑦ 소아병동은 유희와 학습을 위한 시설을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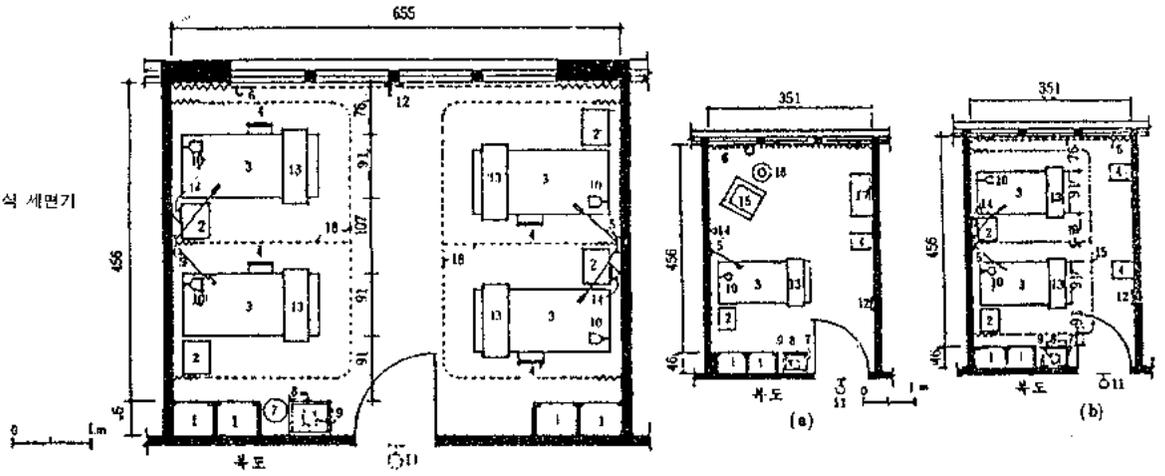
• 노인병동

- ①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합병증이 있는 내과계 질환의 환자가 많음
- ② 입원기간도 일반 내과계보다 장기임 (평균 86일)
- ③ 관찰이 용이하도록 계획
- ④ 보행, 식사, 용변등을 보조하는 시설이 필요함

• Rehabilitation 병동

- ① 근로, 교통재해, 정형외과환자, 뇌졸중환자등 특별히 재활이 필요한 환자 수용
- ② Rehabilitation에 필요한 제시설 (물리치료실, 운동실등) 과의 밀접한

1. Locker
2. 짐
3. 조절 Bed
4. 의자
5. 2종식 간호부 호출기
- 6.窓카텐
- 7.쓰레기통
8. 필름차 또는 무물 조작식 세면기
9. 벽 조명
10. 바닥 조명
11. 복도용 조명
12. 아간 조명
13. Table T Table
14. 전화 콘센트
15. 인락의자
16. Lamp
17. 옷장
18. 카텐



연관 필요

③ 병상주위 세면장, 화장실, 통로등을 통상의 병동보다 크게 함

• 전염병동

- ①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수용
- ② 입원기간은 단기임 (평균 16일)
- ③ 화장실과 세면기를 갖춘 1Bed Room을 원칙으로 함
- ④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로 억제하고 병실을 출입할때 경의와 수세를 할 수 있는 전실이 있어야 함

• ICU(Intensive Care Unit) 및 RI(Radioisotope) 병동

- ① ICU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중증환자 수용
- ② 계속적인 관찰을 요함
- ③ 심장환자는 CCU(Coronary Care Unit)에 수용하고 미숙아는 신생아 ICU에 수용함
- ④ RI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동이며 동선 및 벽체등을 방사선 방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방사능차폐벽체; 콘크리트 1m~2m 두께가 되어야 함)

• 정신과 병동

- ① 입원기간은 최장기임 (1~2년)
- ② 개방형 병동을 원칙으로 하되 중증환자를 위한 폐쇄형 병동도 필요함
- ③ 생활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함
- ④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료 선정이나 병실 구조계획에 유의해야 함

(4) 단위별실 계획

병동내에서 환자가 거거하는 각 단위병실은 환자의 생활과 관찰, 진료에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계획되었는가?

- 병실에서 간호원 대기실까지의 동선은 보행거리 24m이내가 되도록 한다.
- 병실의 종류는 1Bed Room, 2Bed Room, 3Bed Room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보통 1/3씩 배분) 환자의 기호, 중세, 경제적 여유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개별 병실의 조온·조습에 유의한다.
- 개별 병실의 창호면적은 바닥면적의 1/3

간 호 부 (단위: m²)

부 명	실 명	50bed	100bed	150bed	200bed
		2 간호단위	4 간호단위	6 간호단위	8 간호단위
A 병실부	병실 (살내의류 Locker, 전용 변소, 욕실을 포함)	543 (50)	1,090 (100)	1,640 (150)	2,180 (200)
B 부	간호부 Station	33.4 (2)	67 (4)	100 (6)	138 (8)
	Utility 실	34.8 (2)	70 (4)	104 (6)	141 (8)
	Utility 부속실	11 (2)	22 (4)	33 (6)	45 (8)
	오물처리실, 변소, 세면소, 욕실	27.4 (4T, 2B, 4BP)	55 (8T, 4B, 8BP)	83 (12T, 6B, 12BP)	106 (16T, 8B, 16BP)
수 부	Solarium	885 (2)	177 (4)	264 (6)	360 (8)
	치 료 실	-	35 (2)	52 (3)	705 (4)
	병동에선실	23 (2)	46 (4)	69 (6)	929 (8)
	면 회 실	12 (1)	24 (2)	390 (3)	48 (4)
부	Flower Room	93 (2)	18 (4)	27.4 (6)	37 (8)
	소 창 고	22	44	66	89
합 계 (m ²)		820	(1,671.7)	(2,507.8)	(3,343.9)

*註: T=변기, B=욕조, BP=beadpan.

~1/4, 창대높이는 90cm이하로 하여 채광, 조명, 환기에 유리하게 하며 직사광선에 의한 눈부심을 막기위해 블라인드, 커튼등을 설치하고 방충강을 설치한다.
 • 병실 각부의 규격은 다음 표준병실에 준한다.
 • 병실 및 각 부속실의 간호단위별 면적 배분은 다음표에 준한다.

3. 平面計劃 (II) - 外來診療部

(1) 일반사항

외래진료부의 평면구성 계획이 병역관리 시스템과 부합되어 아예따라 각 진료과와 구급부가 합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병역관리 시스템은 각과 보존방식으로 늘어나는 외래 Service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중앙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 중앙관리방식의 경우는 중앙접수창구가

필요하며 창구와 병역관리실은 통합 계획하고 환자의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중앙병역관리실은 각과와 근접하게 계획한다.

- 컴퓨터나 병역 자동 반송설비가 완비된 병원의 경우는 중앙병역관리실의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하여도 되며 창구와 각과 진료실만 연관지으면 된다.
- 내과동 환자의 출입이 많은 과를 현판에 가까운 곳에 둔다. (환자출입빈도: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정형외과 등의 순임)

-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은 Privacy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 초진환자에 대한 안내시설을 충분히 한다.
- 소아과에는 출입경로등 독자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정형외과등 보행이 곤란한 환자가 많은 과는 가급적 1층에 둔다.
- 외래 진료부는 방사선부와 검사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 각과는 점차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경향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배치를 결정한다.

• 접수, 수납, 검사, 진찰, 투약등의 환자동선을 최대한 단축한다.

(2)各科의 기능 및 소요공간

각 진료과는 질환의 성질, 진료 및 치료의 특성, 환자의 상이한 요구에 부합하고 기능에 맞게 소요공간을 구성하였는가?

- 외래부의 입구 주위는 홀, Cloak Room (휴대품 보관소), 접수창구, 회계창구, 투약창구등의 공간이 필수적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기장소 (창구대기 및 흡연공간), 화장실등의 공간을 배치한다.
- 진료과과에는 공통적으로 대기실, 접수공간, 중간 대기공간 (탐의등 수진준비 공간), 진찰실, 처치실 (치료, 주사, 봉대감기등의 처치는 중앙처치실이 있는 경우는 불필요함) 등이 필요하다.
- 소아과에는 격리 대기실 및 진찰실 (전염병질환 소아의 대기 및 진찰), 상담실 (육아상담) 등이 필요하다.
- 외과에는 입원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소수술실이 필요하다.
- 정형외과에는 Gips 실이 필요하다.(Cast 실)
- 산부인과에는 내진실 (부인과 환부의 직접진찰실로 Privacy 보호가 필요함) 상담실 (임신 및 출산상담), 체노 및 검사실 (간단한 소변채취 및 검사), 휴양실 (소수술후의 회복실) 등이 필요하다.
- 피부과에는 방사선치료실 (적외선, 태양등에 의한 치료를 하며 물리치료실에 두는 경우도 있음) 이 필요하다.
- 비뇨기과에는 방광경검사실, 체노 및 검사실이 필요하다.
- 이비인후과에는 부향실 (청력검사를 위해 풍요 및 반향을 없앤 음향실) 이 필요하다.
- 안과에는 시력검사를 위해 암실 (전분적으로 하는 경우는 명실, 암실, 절대암실로 구분함) 이 필요하다.
- 치과에는 기공실 (의치제작), 휴양실 (처치후의 회복실) 이 필요하다.
- 정신과에는 심리검사실과 관찰실이 필요하다.
- 건강진단과에는 분진실 (기초 Data 청취) 과 검진실 (혈압, 심전도, 폐기능, 시·청력, X선등 각종 검사실은 중앙진료부에 두는 경우도 있음) 이 필요하다.

(3) 구급부

외래진료부중 가장 특이한 공간으로 구급환자의 처치 경로에 부합되게 평면구성이 되어 있는가?

- 구급부는 구급처치의 정도에 따라 1차, 2차, 3차 (차수가 높을수록 중증 또는 자체치료: 1차 구급은 응급만 담당하고 타부로 치료 이관)로 나뉘므로 병원의 구급 Program에 맞게 시설을 해야 한다.
- 활동시간대가 병원의 타부분과는 달리 저녁에서 밤중까지 Peak를 이루므로 야간진료에 적합한 시설을 해야 한다.
- 구급부의 출입은 전용입구를 두고 반드시 안내표식을 하여 식별이 쉽게 한다.
-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고 Stretcher의 지지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부근에 사고관제자나 경찰을 위한 주차장, 대기실등을 두어야 한다.
- 접수부 (시간의 접수부를 겸함)는 방식의사실 및 간호원실과 연관되어야 한다.
- 대기실 (공중전화 설치), 처치실, 수술실 (외래 외과와 겸용할 수 있음), X선실 (현상실을 따로 둘 필요는 없음), 고압산소치료실이 필요하다.
- 사고 익일 아침까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회복실과 당직실이 필요하며 신경외과와의 연관이 밀접하므로 구급 배치한다.

4. 平面計劃 (Ⅲ) - 中央診療部

(1) 일반사항

의료시설 설비와 의료기술의 고도화, 병원운영의 현대화로 인한 고가의 시설설비와 전문기술을 집적하여 효율적인 중앙화 전문진료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중앙진료부는 하나의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부분 (검사부, 방사선 및 의학부, Rehabilitation부, 수술부, 분만부, 약국 등)으로 구성되어 각 부분은 독립운영되므로 각부분사이 또는 병동이나 외래진료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설비에 대한 요구가 각부분마다

다르고 복잡하며 설비용량도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비공간이 있어야 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세균에 의한 오염방지 및 방사선의 방호대책이 있어야 한다.
- 진료의 흐름 및 물품반송이 자동화, 기계화하고 있으므로 가부분 내부 또는 부분 상호간의 관계에 이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확장, 분화, 변경등의 장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환자 자신의 이동이 많은 부분 (검사부의 일부, 방사선부 등)은 동선을 단축하고 물품의 이동이 많은 부분 (검사부의 대부분 약국, 수혈부, 중앙재료실등)은 반송방법을 신중히 고려한다.
-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설치 가동하는 부분이므로 전기 및 설비의 Power Supply 와 급배수 계통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장비가중에 대한 구조적 배려를 해야 한다.

(2) 검사부

진단에 필요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면계획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병원 규모가 대형화되면 검사부를 검체검사부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와 생리검사부 (환자를 직접 검사하는 부)로 나누어 분화 독립시킨다.
- 검사부의 규모는 2m²/Bed~3m²/Bed를 권장하되 최소 1.5m²/Bed이상으로 한다.
- 병원 전체면적에서 검사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하되 검체 검사부 3~4.5%, 생리검사부 1~2%로 한다.
- 검사항목이 증가하고 검사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고려하여 검사부는 중추적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검체 검사부는 공간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막이등 직계하며 배관의 접점 및 수리·변경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검체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입원환자는 병동에서 외래환자는 외래부에서 시행하지만 검사부내에서 채취할 경우는 외래부와외 관계를 긴밀히 한다.
- 생리검사부는 이용률을 고려하여 외래부와 병동의 쟁점에서 접근하기 쉬운 조용한 장소에 배치한다.

• 검체 검사부는 환기 및 폐액처리를 완벽히 해야 하며 각실별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일반검사실: 외래환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검사부의 입구쪽에 두며 채뇨실이 필요함
 - ② 혈액검사실: 외래환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검사부의 입구쪽에 두며 채혈실이 필요함
 - ③ 생화학검사실: 채액의 정량·정성분석을 하기 위해 천칭실, Draft실, 전기영동검사실등이 필요하나 간막이로 구획할 필요가 없음
 - ④ 혈청검사실: HB 항원검사실을 따로 둘 수 없음
 - ⑤ 세균검사실: 병원체의 전파 및 감염방지에 주의하고 공기가 다른 방과 섞이지 않게 유의해야 하며 배지실(무균실), 멸균실등이 필요함
 - ⑥ 병리검사실: 수술부와 근접해야 하고 비장이 큰 유해기체(포르말린등)의 환기에 유의해야 하며 표본실, 해부실, 암실등이 필요함
 - ⑦ 기타 새정멸균실, 기계·영장실, 사무실 등이 필요함
- 생리 검사부는 Stretcher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환자 경의, 수세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각실별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① 심전도 검사실은 대기실이 필요함
 - ② 뇌파 검사실은 조용한 장소에 배치하고 광선 차단시설 및 세발시설이 필요하며 측정실을 분리해야 함
 - ③ 폐기능 검사실은 대기실이 필요함
 - ④ 심흉 검사실은 방음에 유의할 것
 - ⑤ 근전도 검사실은 Shield, 측정실이 필요함
 - ⑥ 내시경 검사실은 부위별(위, 장, 기관지, 복강 등)로 검사공간을 나누어야 하며 특히 복강 경실은 정결해야 함
 - ⑦ 기타 초음파 검사실, 접수, 사무실등이 필요함

3) 방사선 및 핵의학부

RI(Radioisotope;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X선 진단부, 방사선치료부, 핵의학진료부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가?

• 대부분 환자가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두며 외배내과,

정형외과, 외과의 순으로 관계가 밀접하므로 배치에 이를 고려한다.

• X선 진단부의 이용빈도가 60%를 넘으므로 가장 출입을 편리하게 하고 면적을 넓게 잡지만, 암전문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비율이 높다.

• 방사선 물질의 관리 및 운영편의를 위해 3부분은 가급적 근접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큰 원칙이 필요하므로 변전실에 가깝게 배치한다.

• X선 진단부와 방사선 치료부는 차폐 방호에 주의하고 단파장의 방사선일수록 투과력이 강하므로 고에너지 방사선 치료실에서는 벽, 바닥 및 천정 슬래브를 상당한 두께(RC: 1m~2m)로 하여야 한다.

• 핵의학 진료부는 방사선량이 일반적으로 적으므로 치료병실을 제외하고는 방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나 비밀봉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므로 오염방지에 주의한다.

• 방사선 방호상 필요한 범위는 관리구역으로 정해야 하며 기능의 변화가 심한 부분이고 장치의 무게가 큰점등을 고려하여 구조가 결정되어야 한다.

• X선 진단부는 취급건수가 많고 기사를 중심으로 한 저원이나 필름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작업동선의 처리에 유의하여 작업통로와 환자 통로를 분리하고 촬영실과 암실사이의 동선을 단축시켜야 한다.

• X선 진단부에서 필요한 실과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시실과 X선 TV실은 조도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환자용 화장실과 조영제를 씻는 곳이 필요한
- ② 촬영실(주로 CT; 컴퓨터 단층촬영, X선혈관 촬영(ANGIO) 등)은 수술적 조작이 따르므로 실의 청결도가 높아야 하며(준비실 필요), 수세시설이 필요함
- ③ 조차실은 관찰창(납유리 사용)을 두고 환자와의 대화, 관찰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④ 기타 접수실, 사무실, 대기실, 탈의실, 준비실, 처치실, 관독실, 기록필름 보관장고 등이 필요함

• 핵의학부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출입구는 1개소로 하고 출입구 부위에 오염관리실을 두며 벽, 바닥은 불친투성 재료로 마감한다. 또한 배수, 환기, 폐수물처리(별도계통), 배관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 핵의학부에서 필요한 실과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관리실: 비밀봉RI로 인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원 출입관리, RI사용기록, 피폭량 측정, 인원 및 불품의 오염검사, 접수, 사무실등이 필요함
- ② 환자대기실: 여유공간이 넓어야 하며 RI투여후 수시간을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안한 대기시설을 구비해야 함
- ③ 화학검사실: 채뇨실 및 RI수세실을 만 만들어야 함
- ④ 체외계측실: 선산기등 계측기에 적합하고 여유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RI주사가 이루어지므로 특히 오염에 주의해야 함
- ⑤ 시료측정실: 타실에서의 방사선에 영향받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함
- ⑥ 치료 및 처치실: 차폐차호시설, 오염방지 시설이 필요함
- ⑦ 준비실: 치료 및 처치실, 저장실과 근접해야 하며 오염도가 가장 높으므로 오염제거용 샤워가 필요함
- ⑧ 저장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차폐구조가 필요함
- ⑨ 폐수물 보관실: 오염과 차폐방호에 주의해야 함
- ⑩ 기타 동물실험실(악취주의), 진찰실, 창고 등이 필요함

(4) Rehabilitation부

의학적 재활(Rehabilitation)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서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계획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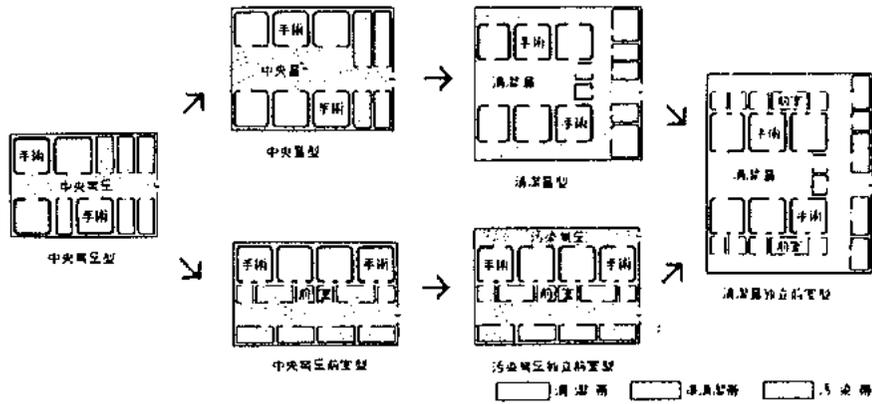
• 환자 자신의 의욕회복이 중요하므로 채광면적을 넓히고 마감손질을 밝은 분위기로 한다.

•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옥외 훈련장과 연락을 긴밀하게 한다.

• 휠체어나 지팡이등을 사용하는 환자가 많으므로 통로, 대기실, 화장실, 경의실 등을 보통의 경우보다 넓게 잡는다.

• 현화 요법에 필요한 실과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치료실(특수욕실, 온수기포발생실등)은 외부로부터의 Privacy 보호와 환기에 유의하고 실내에 화장실과 휴양Space를 구분(커텐등)함



- ② 온열전기 광선요법 : 커튼등으로 소구분함
- ③ 운동요법실 : 옥외 훈련장에 근접배치하며 휠체어, 소지품등을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기계를 설치할 벽면이 필요함
 - 기타 작업요법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 언어 치료실, 심리요법실등을 들 수 있다.
 - 대기실 (보호자용 대기시설도 필요), 휠체어 거치장등이 필요하다.

(5) 수술부

수술이라는 특수한 작업에 필요한 공간, 설비등이 완비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 구성시킬 수 있게 평면계획이 이루어졌는가?

- 수술부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수술실을 가능한한 무균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동선 (의료동, 환자, 물품) 을 정리하여 단축시키는 것이다.
- 수술부의 청결을 위해서는 수술부들 통행이 안되는 막힌곳에 두고 수술부내를 청결도에 따라 Zoning 한다.
- 수술부는 Span과 층고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쉽게 증축할 수 있는 장소를 백한다.
- 수술부에 출입하기 위해서 옷과 신을 비껴입는 장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경의공간을 마련한다.
- 수술부의 공조는 타계통과 별도로 선정하여 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 병상부 75Bed 당 1실의 비율로 수술실의 규모를 산정하되 전문화된 수술실을 추가시킨다.
- 위치는 병동 및 외래외과와 근접시킴과 검사부중 병리검사실, ICU등과의 관련성도 높다.
- 멸균재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중앙재료실과 밀접한 연결을 꾀하되 다른 공급창구와는 별도로 수술부에 직결시킨다.
- 수술부의 청결 Zone에 필요한 실 및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술실 : 일반수술실외에 X선수술실, Bioclean수술실, 고압수술실등 전문 수술실을 둘 수 있음
- ② 청결작업실 : 청결 Zone 별도로 청결물 보관, 기재실, Linen 실 등 필요함
- ③ 준비실 (전실) : 수세실, 청결소계용구실 등 필요

- 수술부의 준청결 Zone에 필요한 실 및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Gips 실 : 공작실과 측정실, Gips실 등을 둠
- ② 기록실, 회부실 : 서로 근접시킴
- ③ 경의실 (신발 갈아신는 장소를 기능적으로 배치할 것)
- ④ 기타 휴게실, 간조, 점수, 마취의 근무실 등이 있음
- 오염 Zone에는 세척실, 소점사실, 가족대기실, 거치실등이 필요하다.
- 수술부의 평면형은 다음과 같으며 가급적 우측부의 평면구성을 권장한다.

(6) 분만부

구급인원이 많고 이용시간대가 24시간 계속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임신부가 안전된 분위기에서 분만할 수 있게 계획되었는가?

- 야간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이상 분만에 대비하여 분만중 1실은 수술실로 쓸 수 있게 하거나 직접 단기간내 수술실로 급송할 수 있게 동선을 계획한다.
- 진통실과 분만실은 환자의 Privacy를 보호하고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분만부에 필요한 실과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진통실 : 차음 구조로 하고 좌용실과 화장실을 필요로 함
- ② 분만실 : 흡음 및 차음구조
- ③ 목욕실 : 분만직후 신생아의 복욕과 체중 측정에 필요한 시설을 함
- ④ 수세실 및 작업실 : 분만전후의 작업으로 기재별근, 오물세척대동 필요함
- ⑤ 기타 기록실, 경와실, 당식실, 가족대기실등이 필요함

(7) 약국

조제와 투약의 기능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면이 계획되었는가?

- 외래 환자부의 현관에 근접 배치한다.
- 약국면적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약국면적} = (\text{병상수} + \frac{1}{2} \text{일평균외래환자수}) \times (0.5 \sim 0.6) \text{ (m}^2\text{)}$$

- 조제실, 제제실, 멸균실, 세병실, 약품고, 관리실 등이 필요하다.
- 조제실과 회계창구는 근접 배치한다.
- 조제실은 가급적 간이 Belt Conveyor를 도입하고 집진시설을 하여 직원을 보호한다.
- 대기실은 가급적 넓게 잡고 지루하지 않도록 안락한 설비를 한다.
- 조제실등은 분말이 많이 발생되므로 충분한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5. 平面計劃 (IV) - Service 部 및 管理 部

(1) 급식부 및 식당

환자에 대한 급식은 환자의 체력유지와 동시에 의학적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다음사항에 준하여 합리적인 평면구성을 하였는가?

- 급식부의 규모는 2m² ~ 1.2m² / Bed로 하고 병원 전체면적의 2.5~5% 정도로 잡지만 급식작업의 기계화 및 가공식품의 도입으로 면적의 감소요인이 생기므로 시설확장에 대한 대비는 필요없다.
- 급식방식과 소독방식 (금·배식과 소독을 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 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전염성 질환의 환자 급식은 위생 유지관리상 특별한 고려 (직접 병동에서 별도로 식품소독) 를 하여야 한다.
- 의학적 치료 (식이요법) 의 수단이므로 다양한 식단을 마련할 설비를 갖추고 일반적으로 환자는 식욕이 없으므로 배식시 보온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배치한다.
- 내부공간에 있어 찻셋기, 밥짓기, 차리기, 식기소독 등을 흐름에 맞추어 평면을 계획한다.
- 반출입자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 식사의 운반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곳,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 열 및 냄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추고 방충, 방사에 유의한다.
- 식당의 규모는 1.1m² ~ 0.45m² / Bed로 하고 병원 전체면적의 1~4% 를 차지하나 환자식당의 유무, 직원식당 및 외래자 식당의 내용에 따라 시설규모 차이가 크다.

- 식당은 환경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 정원이 있으면 이상적인 배치가 된다.
- 식당내 흡연을 위해 별도 흡연실을 만든다.

(2) 세탁 및 Linen부

세탁 및 Linen부를 계획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규모는 0.7㎡~0.1㎡/Bed로 하고 병원 전체면적의 1% 내외를 차지하나 외주나 임차의 정도에 따라 시설규모 차이가 크며 임차의 보급으로 소요년적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 세탁량은 환자 1인당 1.8kg~2.5kg, Dry Cleaning 0.2kg~0.4kg을 기준으로 한다.
- 세탁물의 종류나 양은 각 시설이 거의 일정하므로 계획적인 작업공정을 만들기 쉽고 일관 작업이 용이하다. 따라서 일관작업에 유리하게 공간 및 설비를 배치한다.
- 고온, 다습, 진동, 소음, 배출가스, 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고 바닥의 건조유지에 주의한다.
- 배수 및 Dry Cleaning의 폐수처리 대책이 필요하다.
- 겹수, 분류, 접어서 정리하는 곳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채진, 환기를 철저히 한다.

(3) 기계실 및 사무실

기계실 및 사무실이 계획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기계실의 규모는 5.5㎡~2㎡/Bed로 하고 병원 전체면적의 5~10%로 잡는다.
- 보일러의 소음, 진동, 열이 진료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한다.
- 기계설비는 가능한한 부하의 중심에 배치하여 공비 및 유지비를 절감한다.
- 물품의 반입, 반출등은 후방으로 나가는 동선처리를 한다.
- 사무실은 병원의 행정조직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
- 진료사무관계 일부는 외래진료부에서 분담한다.
- 사무실은 병원 전체와 관련되나 특히

Service부와의 관련을 밀접하게 한다.

- 쓰레기, 적출물등의 소각 및 처리에 관한 배려를 해야 한다.
- 내외 관계업무 사무실은 출입하는 성질에 따라 원내 각부에 위치한다.

(4) 영안실

영안실의 계획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병원의 후면에 별도 입구를 두어 전면 일반출입자의 눈에 띄지 않게 한다.
- 출입구 안내를 분명히 하여 영안실 이용객(문상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 영구차의 출입은 별도 Service 동선을 이용한다.
- 병원 내부에서 영안실로 시체가 오는 동선을 별도 구획하여 입원환자 및 내방객과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 문상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고 혼잡하지 않도록 규모를 잡는다.
- 시체실(냉동필요), 부검실이 필요하다.

6. 立面, 斷面計劃 및 防災計劃

(1) 입면계획

병원의 입면이 안정되어 환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병원의 입면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출입자 및 입원환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외부마감은 되도록 밝은 색조로 하여 희망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 소아, 노인, 정신병동 등의 고층화는 부적합하다.
- 주위건물, 자연환경, 조경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병원으로서의 상징적 Image가 필요하다.

(2) 단면계획

병원의 특성에 맞게 단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각실별 표준 층고 및 천정고는 다음과 같다.

층 별	천정고	층 고
기 계 실	7	7
기타 지하층	5	5
외 래 부	2.5	4.5
X 선 부	3.1~4	5.2
수 술 부	3	4.5
검 사 부	2.5	4.5
Rehab. 부	3	4.5
약 국	2.5	4.5
분 반 부	3	4.5
병 동 부	2.5	3.8
관 리 부	2.5	3.8

- 장대높이는 0.8m~1m를 기준으로 한다.
- 경사로의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도록 한다(경사로의 경사도는 1/10~1/12 정도가 좋음)
- 계단의 경사도는 30°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건물보다 단고를 낮추어 완만하게 한다.
- 자동 반송설비가 특히 많이 보급되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단면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재계획

신체부자유자, 환자 다중을 수용하는 건물이므로 특히 방재계획에 완벽을 기했는가?

- 화재에 관한 감지, 경보, 피난, 소화의 각분야에 대해 진물적 설비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수평피난을 제일 목표로 한다.
- 환자를 일시 피난시키는 장소를 각층에 2개소이상 만들고 그곳으로 피난상의 통로 안전을 확보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연면적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하고 각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 화재방지와 위생 목적상 흡연장소나 화기취급 장소를 한정하는 것이 좋다.
- 방재센터를 설립하여 방재대책을 일원화해야 하며 특히 방재센터는 화재에 안전한 위치, 구조로 한다.
- 지진에 관해서는 구조체는 물론이고 건축설비, 의료기기, 각종 배관등의 내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건축기준법과 건축사법상의 벌칙과 주요제도에 대한 개관

姜錫俊 / 동아건축사사무소, 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일본국의 건축기준법(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우리 한국 건축관계법의 참고적인 요점만을 발췌 요약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건축기준법에 있어서는

1. 이 기준법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최고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약120만원)의 낮은 벌칙 (이는 준법정신이 투철 하여서 인지? 민주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인지 연구과제)

가. 이중에서도 행위자 처벌 원칙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특정행정청이나 건축감시원의 시정 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에 위반한 죄가 최고 형에 속하며,

나. 설계자(위반 설계의 경우) 위반 벌칙에는 징역은 없고 단지 10만엔(60만원)이하의 벌금이 고작인데 그나마 건축사(설계자는 모든 관련되는 처벌 조항에서 좀처럼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권익이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 여기서 기준법99조(10만엔 이하 벌금)의 5호의 예를 들어 보면(관련 조항 마다 동일)
예 : —건축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시공자가 설계도서 없이 시공 또는 설계도서를 가지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 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자)라는 식으로 면제 단서가 붙어 있어 철저히 행위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고

라. 실사 건축사가 위법 건축과 관련하여 징계(업무정지)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건축사를 징계하기 위하여서는 처분 당국에 건축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사 심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마. 또한 이 건축사 심사회에는 건축사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위한 건축사 10~30명으로 구성되는 시험 위원회가 속해 있으므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되어 있음은 한국 사회에서 법개정이나 시험의 출제나 채점등에는 교수 만능주의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바. 또한 직접 위법 행위자인 건축주나

시공자도 함부로 행정조치나 고발 등을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되어 있다. 즉, 시정지시등의 행정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법 건축주나 시공자 등에 대하여 그의 증인이 동석한 공개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1차 청문에 불복한 건축주나 시공자는 청문실시 해당 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심사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이 심사에 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건설대신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즉, 철저히 민주화된 3단계의 견제 장치가 되어 있다. 이때 관계 공무원은 청문과 심사때마다 상황 설명 및 진술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됨은 물론이다.

둘째 : 건축사법에 있어서는

1. 건축 기준법 상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설계 도서를 믿고 건축주사의 확인(허가)을 생략하거나 감리 건축사의 준공 완료 보고서(준공계의 이면 기재를 통하여)의 작성에 의하여 처리되는 위임 제도가 특히 조항으로서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건축사에게 위법 공사에 대한 시정 권고나 위법 보고 등의 역겨운 의무는 지우지 아니하고, 감리건축사에게는 오직 시공지도만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건축주나 건축감시원의 책임 하에 행정력의 권위를 바탕으로 건축 행정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따라서 한국 건축사법 39조와 같은 검사 조사사 등의 허위작성이라는가 준공을 둘러싼 금품수수 운운의 처벌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3. 일본의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상에서의 건축사에 대한 처벌 경향을 보면 건축사의 본연의 기능인 조형예술의 창작활동에 대한 설계 업무상의 부실을 위주로 처벌 함으로서 창작활동의 장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어서의 건축사에 대한 처벌 방향은 공무원의 행정 본연의 업무 임에도 그의 일부(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를 건축사에게 떠 맡겨 놓고 감리부설과 조사·검사업무의 분성설 만을 구실삼아 책찍질 함으로서 건축사를 처벌의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음으로 해서, 심신의 안정 가운데 신장될 수 있는 창작 활동에는 저해를 주고 오직 관의 행정보조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음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셋째 : 결론적으로

1. 우리의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1965년도에 일본 관계법의 거의 100% 가까이를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그 범주의 맥을 같이 하였으면서도 유독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나 권익은 도외시 된채

2. 관료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강요된 실권 없는 관료적인 교역스러운 행정 보조 업무만을 봉사하여 오면서도 계속되는 체찍질 만을 맞아오고 있는 오늘의 한국 건축사와 일본 건축사들의 처지에는 GNP의 차이 만큼이나 격차 짐을 통감하게되며
3. 오늘의 일본 건축사들이 일반 사회인으로부터 변호사, 의사와 같이 선생님으로 숭앙 받는데에는 인격적인 도약도 있었지만 위와 같은 권익 보장의 제도적인 장치가 일조를 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전적이고도 민주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절감하며 지난날의 반성과 함께 내일의 민주 자율행정에 대비한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된다.

건축기준법 발췌요약

1. 벌칙

제7장 벌칙(건축기준법)

제98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공중지 또는 시정에 대한 특정 행정청 또는 건축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 백 80만원)

제99조 다음 각호에 1에 해당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건축사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자 선정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
2. 건축물 설비, 공작물등에 관한 사전

◆ 姜錫俊

25년 인천생, 44년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와 61년 경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77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현재는 동아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확인(허가), 사전입주 지반안전규정에 위반한 자.
- 3. 위반 건축물의 설비 및 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규정에 의한 특정 행정청 또는 건축 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 (현장 중사원 포함)
- 4. 사전 확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설비, 공작물 등의 공사 시공자.
- 5. 대지의 위생안전, 구조내력, 내화 및 방화구조, 채광환기, 청화조, 전기안전, 피리침, 승강기구, 지하층방화; 재료품질 특수 건물의 내장, 건축선 돌출, 용적율, 건폐율, 건물높이, 대지안의 공지의 규정등에 위반한 경우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설계도서 없이 시공 또는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계 시공자)
- 6.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하여 기준보장을 위한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설계도서 없이 시공 또는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계 시공자)
- 7. 용도 지역내의 건축물, 또는 도매시장 용도의 특수 건축물의 위치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주 또는 축조주
- 8. 도매시장 용도의 특수 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설계자(설계도서 없이 시공 또는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계시공자)
- 9. 응급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자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 10. 재해 지구내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 11. 용도 변경에 관한 준용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건축물의 소유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
- 12. 공작물에 관한 준용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② 전항의 5호 6호 또는 8호의 규정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위반이 건축주, 공작물의 축조주, 또는 건축설비의 설치자 등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자 또는 공사 시공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주,

- 공작물의 축조주 또는 건축설비의 설치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형을 과한다.
- 제10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착공신고 등을 불이행 또는 허위 신고한 자
- 2. 현장에 건축확인(허가)장의 불표시
- 3. 건축불 유지·관리보고 규정에 의한 불보고 또는 허위 보고한 자
- 4. 공사 현장의 반입 건축 재료 등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부방해한 자
- 5. 전 4호 사항에 관한 질문에 불답 또는 허위로 답한 자
- 제10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의 그의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3조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의 법인 또는 타인에 대하여도 각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의 당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진력한 흔적이 증명 될 때에는 그 법인 또는 타인에 있어서는 차한에 부재 한다.
- 제102조 제39조 2항, 제40조 또는 43조 2항, 제49조 1항 50조, 제68조, 또는 6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항에는 “이것에 위반한 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요구의 규정을 둘 수가 있다.
- 건축주사**
- 제4조(건축주사)
- 시행령(1920년 령271호)으로 지정한 인구 25만 이상의 시는 시장의 지휘 감독하에 제6조 1항 규정에 따른 확인(허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 시키기 위하여 건축주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정·촌(市·町·村)전항의 시제외)는 그장의 지휘 감독하에 제6조 1항 규정에 따른 확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 시키기 위하여 건축주사를 둘 수가 있다.
- ③ 시정촌이 전항, 규정에 따른 건축주사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의 설치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都·道·府·縣

- 知事)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정촌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된 경우에 건축주사를 둘 때에는 시정촌장은 건축주사를 두기 30일전까지 그 요지를 공고하고 또한 이것을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도,도,부,현,은 도,도,부,현,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사를 둔 시,정,촌(제98조의2를 제외, 이하 건축주사를 둔 시,정,촌이라 한다)의 구역외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 시키기 위하여 건축주사를 두어야 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전항의 건축주사는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의 공무원으로 건축주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각 시정촌의 장 또는 도도부현의 지사가 임명 한다.
- ⑦ 특정 행정청은 그의 관할 구역을 나누워 그 구역을 소관시킬 건축주사를 지정할 수가 있다.
- 제5조(건축주사의 자격 검정) 건축주사의 자격 검정은 건축주사로서의 필요한 건축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하여 행한다.
- ② 건축주사의 자격검정은 건설대신이 행한다.
- ③ 건축주사의 자격 검정은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2년 이상의 건축행정에 관한 실무 경험이 있고 또는 건축실무에 관한 기술상의 책임 지위에 있었던 자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다.
- ④ 건축주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 시키기 위하여 건설성에 건축주사 자격 검정 위원을 둔다.
- ⑤ 건축주사 자격검정 위원은 건축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건설대신이 임명한다.
- ⑥ 전 각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건축주사의 자격 검정의 수속과 기준 기타 건축주사 자격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영제3조 - 제9조)으로 정한다.
- 영 제2절 건축주사의 자격 규정**
- 영3조(자격 검정 기준)법6조 1항 규정에 의한 확인(허가)업무에 필요한 건축기술과 법령에

관한 지식 및 경험에 대하여 행한다.

영4조(자격 검정 방법)자격 검정은 경력 심사 및 고사에 의해 행한다.

② 전항의 경력 심사는 건축행정 또는 건축공사에 관한 실무 경험에 대하여 행한다.

③ 제9항의 고사는 다음 각호에 계기한 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1급 건축사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1호에서 5호까지의 과목을 면제한다.

1) 건축설계

2) 건축계획

3) 건축구조

4) 건축재료

5) 건축시공

6) 건축 기준법 및 시행령

7. 도시 계획법(1968년 법률 100호) 및

소방법(1948년 법률 18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요

8. 전2호 이외에 건축 행정에 필요한 지식

영5조(자격 검정시행)자격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행한다.

② 자격 검정의 시기 및 장소는 건설대신이 미리 판보로 공고함.

영7조(자격 검정위원의 정원)건축주사 자격 검정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영8조(자격 검정 위원회의 근무)건축주사 자격 검정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영9조(건설성령에 위임)자격 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속은 건설성령(규12조)으로 저어한다.

건축주사의 실무 "예"

제6조(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신청 및 확인)

건축주는 제1호에 제3호 까지에 계기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증축으로 인하여 제1호에서 제3호 까지의 계기한 규모로 되는 경우를 포함) 이들 건축물의 대규모 수선 혹은 대규모의 모양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계기한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착수전에 그 계획이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 설비에 관한

법, 영,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 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화지구 및 준방화지구 외에서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의 증축, 개축, 또는 이전에 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표1(이)란에 계기하는 용도에 공하는 특수 건축물로 그 용도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것.

2. 목조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500㎡를 초과 하는것.

3. 목조 이외의 건축물로서 2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 하는것.

4. 전 각항 계기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도로, 부, 현, 지사가 도시계획

지방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구역을 제외)내 또는 도, 도, 부, 현, 지사가 관제

시정촌의 의견을 들어 그 구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

② 건축주사는 전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계획이 건축사법 3조에서 3조의

3가지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그 신청서를 수리 할 수 없다.

③ 건축주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동항 제1호내지 3호 까지에

대하여는 수리 일부터 21일 이내로(일반건축물) 동항4호에 대하여는

수리일부터 7일 이내로(건축사 심사 건축물) 신청된 건축물의 계획이 대지, 구조, 설비에

관한 법령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그 결과 적합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그 요지를 공문으로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건축주사는 전항의 경우에 신청된 계획이 이들 규정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신청서의 기재 만으로는 적합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달아서 그 요지를 공문으로 전항의 기간내에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대규모의 수선, 또는

대규모의 모양 바꾸기의 공사는 할 수가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 수선 또는 모양 바꾸기에 대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상응한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령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건축 주사를 둔 시정촌의 구역내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정촌에, 기타의 시정촌의 구역내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 도, 부, 현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에 관한 계획에 87조의 2제1항의 승강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 이외로 승강기 1대의 실비를 감안하여 시행령(영제4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동항의 구분에 따라 시정촌 또는 도, 도, 부, 현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의 양식은

건설성 령(규제1조-3조)으로 정한다.

제6조의 2(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확인의 특례)

다음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에 계기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신축에 한함,

제7조의 2제18조 3항 및 6항과 제93조 2항에 있어서도 같다)에 대한 전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1항에 및 3항중에서 "법, 령, 조례"의 규정이라 한것은 이중에서

령13조의 2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전조 제1항 1호에서 3호까지에 계기한 건축물중 건축재료 및 구조 방법이

일체식으로 규격화된 형식(건설성 규칙 1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한다고

건설대신이 지정한 것에 한한다)의 주택

2. 전조 제1항 4호에 계기한 건축물로 건축사의 설계에 해당 되는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연계적용되는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행령에 있어서는

건축사의 기술수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대지

구분에 따라 건축주사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건축주는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사가 완료 된 날부터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당해 시정촌 혹은 도, 도, 부, 현의 공무원은 그 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된 건축물 및 그 대지가 제6조 1항의 법령 조례 등에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전 2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출서 및 전항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의 양식은 건설성령(규제4조)으로 정한다.

제7조의 2(건축물에 관한 전사의 특례)
제6조의 2제1항 각호에 계기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건설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인 공사감리자에 의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한 전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2항 및 3항중에서 "법, 령, 조례"의 규정이라 한것은 이중에서 령13조의 2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건축감시원

제9조의 2(건축감시원) 특정 행정청은 시행령(제14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정촌 또는 도, 도, 부, 현의 공무원 중에서 건축감시원을 임명하여 전조 7항 및 10항에 규정하는 특정 행정청의 권한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전조 7항 및 10항의 규정(내용)

제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특정 행정청은 이 법, 령,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청부인(하청자 포함) 혹은 현장 관리자, 또는 대지 소유자, 관리자 혹은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건축물의 철거, 이전, 개축, 증축, 수선, 모양바꾸기,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위반사항의 시정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이들이 현장 부재시는 직접 현장 종사원에게 명령)

⑦ 특정 행정청은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5항(시공자의 청문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의 정해진 수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령 할 수 있다.

⑧ 전7항의 명령을 받은자는 명령 수령일부터 3일 이내에 특정 행정청에 대하여 공개 청문을 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4항(피청문자 또는 그 대리자에 대한 출두 요구) 제5항(청문사항, 장소, 일시를 청문기일 2일전까지 통지하고 공고 하여야 한다) 제6항(피청문자는 증인을 출석시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시킬 수가 있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문은 그 청구(피청문자의)가 있는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영14조 (건축감시원의 자격) 건축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3년 이상의 건축행정에 관한 실무 경험자
 2. 건축사로 1년 이상의 건축행정에 관한 실무 경험자
 3. 건축 실무에 관한 기술상의 책임자 지위에 있던 건축사로 건설대신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건축행정에 관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자.
- (1971년 고시1016호 1972년 고시 1295호)

건축 심사회

제78조(건축 심사회) 이법이 규정하는 동의 및 94조 1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제결에 관한 의결과 특정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이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 시키기 위하여 건축주사를 두는 시, 정, 촌 및 도, 도, 부, 현에 건축심사회를 둔다.

② 건축 심사회는 전항 규정의 사무 이외에 이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건의할 수가 있다.

제79조(건축 심사회의 조직) 건축 심사회는 위원 5인 또는 7인으로 조직 한다.

② 위원은 법률, 경제, 건축, 도시계획, 공중위생, 또는 행정에 관한 우수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공공의 복지에 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 정, 촌장 또는 도, 도, 부, 현의 지사가 임명한다.

제80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임명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0조의 2(위원의 결격조항) 다음 각호 1에 해당자는 위원이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혹은 준금치산자 또는 판산자로 미복권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의 집행이 끝날때까지 또는 그의 집행을 받는 일이 없어질때까지의 자

제80조의 3(위원의 해임) 시, 정, 촌장 또는 도, 도, 부, 현지사는 각기 임명한 위원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② 시정촌장 또는 도, 도, 부, 현, 지사는 각기 임명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할 수가 있다.

- 1)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합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1조(회장) 건축 심사회에 회장을 두고, 회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② 회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건축심사회를 대표한다.

③ 회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미리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2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 또는 3친등 이내의 친족의 이해관계 사건에 관하는 이법이 규정하는 동의 또는 제94조 1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제결에 관한 의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제83조(조례에의 위임)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심사회의 조직, 의사와 위원의 보수, 및 비용변상 기타 건축 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제94조(불복심사) 이 법, 령, 조례의 규정에 따른 특정 행정청, 건축주, 또는 건축감시원의 처분 또는 이와 관련된 부작위(행정 불복심사회 1972년 법률160호)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부작위를 말함 제97조의 2 제5항에서도 같다)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 시, 정, 촌 또는

도,도,부,현의 건축심사회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 심사회는 전항의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청구인 특정 행정청, 건축주사, 건축감시원, 기타의 관계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출두를 구하여 공개 구두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재심청구)건축심사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설대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96조(심사 청구와 소송과의 관계)제92조 2항 규정에 따른 처분 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건축심사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가 없다.

제97조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대한 법률의 적용) 이법, 또는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부 사무조합을 시,정,촌으로 역장(役場)사무조합의 집행 기관은 시,정,촌의 장으로 본다.

건축기준법 : 시행규칙(제6호 양식)

제6호 양식(제4조 관계) 공 사 안 료 계

공사를 완료 하였기에 건축기준법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 합니다.		소화 년 월 일	
건축주사 귀하	제출자 성명		(인)
1. 건축주 또는 축조주의 주소 성명			전화 번호
2. 대표자 자격 () 건축사() 등록 제 호			전화 번호
주소 성명 건축사사무소 명			
3. 공사감리자 자격 () 건축사() 등록 제 호			전화 번호
주소 성명 건축사사무소 명	() 건축사사무소() 등록 제 호		전화 번호
4. 건축설비에 관하여 의견들은 자의 주소 성명·근무처명			전화 번호
5. 공사 시공자 주소 성명			전화 번호
6. 건축장소 또는 축조상소			
7. 공사종별	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조의 2각호 계기 건축물의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규모 수선, 대규모 모양바꾸기 건축설비의 설치	
8. 확인번호	제 호		
9. 확인년월일	소화	년	월 일
10. 공사기간	소화	년	월 일 부터 소화년 월 일까지
*접수란	*검사의 특례란	*검사란	*결제란 *검사필증란
소화년월일			소화년월일
제 호			제 호
계원인			계원인

(주)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뒷면은 당해 공사가 건축물에 관한 공사로서 공사감리자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2,3 란은 대표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무소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 명칭을 쓰고 주소는 그 사무실의 소재지를 써 주십시오.

4. 란은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공사감리에 연관된 경우에 한함)에 동항에서 정하는 유자격에 대해서 써주고 주소는 그자가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근무처의 주소를 써 주십시오.

7. 란은 "가"는 건축물이 영제13조의 2각항에 계기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0표로서 감싸 주십시오. 7. 란의 "나"는 해당되는 것에 0표로서 감싸주십시오.

일본 건축사법 발췌 요약

I. 징계

제10조(징계)1,2급 건축사 및 목조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준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都,道,府,県,知事)는 재고를 주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고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졌을 때.
2. 이법 혹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타 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기하는 명령 혹은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

3.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2급 건축사 또는 복조 건축사에게 청문을 하고 더욱 필요시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한다. 다만, 당해 1,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중앙 건축사 심사회 또는 도,도,부,현 건축사 심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④ 건설대신 또는 도, 도, 부, 현 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출두를 요구한 참고인에 대하여 시행령(령4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II. 건축사 심사회

제28조(건축사 심사회) 1급 건축사 시험, 2급 건축사 시험 또는 목조건축사 시험에 관한 사무(중앙 지정시험 기관 또는 도, 도, 부, 현 지정 시험기관이 행하는 사무는 제외)를 관장 시킬과 아울러 이 법률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해진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건설성에 중앙건축사심사회를 도, 도, 부, 현에 도, 도, 부, 현, 건축사 심사회를 둔다.

제29조(건축사 심사회의 조직) 중앙 건축사 심사회 및 도, 도, 부, 현 건축사 심사회는 각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지정 시험기관 또는 도, 도, 부, 현, 지정 시험기관이 1급 건축사 시험 사무 또는 2급 건축사등의 시험사무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 문제의 작성 및 채점을 시키기 위하여 1급 건축사 시험에 있어서는 중앙 건축사 심사회가, 2급 건축사 시험 또는 목조건축사 시험에 있어서는 도, 도, 부, 현, 건축사 심사회에 각각 시험 위원을 둔다.

③ 위원 및 전항의 시험위원은 건축사 중에서 중앙 건축사 심사회에 있어서는 건설대신이 도, 도, 부, 현 건축사 심사회에 있어서는 도, 도, 부, 현 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수는 각각 위원 또는 시험위원회 반수를 넘을 수 없다.

제30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위원은 재임 될 수 있다.

제31조(회장) 중앙 건축사 심사회 및 도, 도, 부, 현 건축사 심사회에 각각 회장을 두고 위원회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회무를 총리한다.

③ 회장 유고시는 위원중에서 미리 호선 되어있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3조(시행령에 위임)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중앙 건축사심사회 및 도, 도, 부, 현 건축사 심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령5조-9조)으로 정한다.

령5조(건축사 심사위원 등의 근무) 중앙 및 도, 도, 부, 현의 위원 및 시험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령6조(건축사 심사회의 의사) 건축사 심사회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출석 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열 수 없다.

② 건축사 심사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 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정한다.

령7조(시험위원) 중앙 건축사 심사회의 시험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도, 도, 부, 현의 건축사 심사회의 시험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중앙 및 도, 도, 부, 현의 건축사 심사회의 시험 위원은 각각 1, 2급 건축사 혹은 목조건축사의 시험 과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더욱 시험위원으로서의 적격자가 아니면 아니된다.

령8조(중앙 및 도, 도, 부, 현의 건축사 심사회의 서무)

중앙 건축사 심사회의 서무는 건설성의 주택국에서 하고 도, 도, 부, 현의 건축사 심사회의 서무는 당해 지사가 정하는 국부에서 처리한다.

령9조(건축사 심사회의 운영) 이 법 또는 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사 심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 심사회가 정한다.

III. 벌칙

제3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약1백8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건축사 명칭 사용자
2. 부정 행위로 면허를 딴 자
3. 건축사별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설계 및 감리를 한 자
4.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 4-2 허위 또는 부정 행위로 사무소 등록을 받은 자
- 4-3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고 설계 감리를 한 건축사

②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사를 고용하여 보수를 받고 설계 감리를 한 자.

5. 건축사 사무소를 전임 건축사가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폐쇄 명령에 위반한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

7. 시험 문제의 사전 누설자

제35조의 2 1급 또는 2급 건축사 시험 사무에 관하여 지극한 비밀을 누설 한 자 또는 동 시험문제를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의 3 1, 2급 건축사 등의 시험 사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지정 시험기관 또는 도, 도, 부, 현의 지정 시험기관의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의 4 부정 채점을 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무소 등록 사항의 신고 불이행
 2. 보고 불이행 또는 공무원의 사무 검사 방해
 3. 비 건축사의 건축사의 유사 명칭 사용
- 제36조의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앙 및 도, 도, 부, 현의 지정 시험기관의 임직원은 2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1. 장부의 불비치, 불기재, 혹은 허위기재 하거나 장부의 불보전
 2. 보고 불이행 또는 공무원의 사무검사 방해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급 건축사 시험사무등의 전부를 폐지한 때
- 제37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타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의 법인, 또는 타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사무소 개설자가 그 업무를 폐지, 사망, 파산, 법인의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신고 불이행

2. 사무소 개설자가 규칙에 따른 장부 및 도서의 비치 불이행

한국대 일본 건축법상 벌칙 대비표

○ : 한국대상자
● : 일본대상자
▲ : 선택적 (일본)

번호	벌칙 내용	한국		일본		대상자				비고
		조항	벌칙량	조문	벌칙량	건축주	위반자	설계자	감리사	
1	무허가 건축	54	3년, 5000만원		10 만엔	○ ●				
2	건축선 돌출	54	〃		〃	○ ▲		●		
3	건폐율 초과	〃	〃		〃	○ ▲		●		
4	용적율 초과	〃	3년, 5000원 병과		〃	○ ▲		●		
5	높이제한초과	〃	〃		〃	○ ▲		●		
6	대지안의 공지 초과	〃	〃		〃	○ ▲		●		
7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공 중지시정에 대한 특정 행정청건축 감시원 명령 위반			98	1년, 20만엔					
8	건축사의 설계와 감리불선경	54	2년, 2000만원	99	10 만엔	○ ●				
9	건설업법상 사공제한 위반	55	〃			○				
10	감리자에 불이익 금지	55	〃 〃			○				
11	사전 입주 위반	〃	〃			○				
12	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54 조 벌칙행위	〃	〃			○				
13	중 간 검 사 미 필	〃	〃				○			
14	유 지 판 리 의 무	〃	〃			판립주자				
15	무단도로 폐지 또는 변경	〃	〃				○			
16	손피우려대지조성이용벽설치	〃	〃			○		○	○	
17	구 조 안 전	〃	〃	99	10 만엔	○ ▲		○ ●	○	
18	무허가 가설 건축물	〃	〃			○				
19	무허가 옹벽 및 공작물	〃	〃	99	10 만엔	○	●			
20	무허가설비 공작물에 대한 시공 중지, 시정명령 위반			〃	〃		●			
21	대지내 위생안전, 정화조 채광 환기			〃	〃	▲		●		
22	내화 및 방화 구조			〃	〃	▲		●		
23	전기안전, 피뢰침, 승강기구조			〃	〃	▲		●		
24	무 신 고 건 축	56	200만원 벌금			○				
25	착공, 준공 신고 불이행	〃	〃	100	3 만엔	○				
26	가설건축물착공신고불이행	〃	〃		〃	○ ●				
27	위 법 시 공 불 보 고	〃	〃						○	
28	토지굴착 부 에 대한 정리	〃	〃			○			○	
29	도로 내의 건축 제한	〃	〃			○			○	
30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	〃	〃			○			○	
31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위반	〃	〃			○				
32	용도 지역내의 건축물 또는 도매시장 위치위반			99	10 만엔	▲		●		
33	재해지구내의 건축 제한 규정위반			99	10 만엔	○ ●				

번호	별 칩 내 용	한 국		일 본		대 상 자				비 고
		조 항	벌칙량	조문	벌칙량	건축주	위반자	설계자	감리자	
34	허가도서 현장 불비치	56조의 2	2의 30만원 과태료	100	3만엔 벌금	○ ●				
35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불신고	〃	〃			○				
36	준공검사 필증의 불비치	〃	〃			○				
37	현장에 허가관 불표시	〃	〃			○				
38	유지관리 결과 불보고	56조의 2	2의 30만원 과태료		3만엔 벌금	○	●			
39	현장반입재료의 검사시험방해			100	〃		●			
40	양 별 규 정	57		10		○ ●		● ○		

○ : 한국대상자

● : 일본대상자

한국대 일본 건축법상 벌칙 대비표

번호	별 칩 내 용	한 국		일 본		대 상 자				비 고
		조 항	벌칙량	조문	벌칙량	건축사	전 임 건축사	개설자	위반자	
1	사기, 부정 면허 취득자	39	1년, 500만 월벌금	35	30 만엔	○ ●				
2	무자격자의 설계감리금지	〃	〃			○				
3	면허 대여자	〃	〃			○				
4	사기, 부정등록한자	〃	〃	35	30 만엔	○ ●				
5	무등록자의 업무의 금지	〃	〃	35	〃	○ ●		●		
6	업무정지 명령 위반	〃	〃	35	〃	○ ●				
7	허위조사 및 검사 조서 작성	〃	〃			○				
8	금품 수수제공, 약속 등	〃	〃			○				
9	건축사별업무 범위위반			35	30 만엔		●			
10	전임건축사의 사무소 관리 위반			35	〃		●			
11	사무소 폐쇄명령 위반			35	〃			●		
12	비 건축사의 유사명칭사용	40	50만원 벌금	36	20 만엔		●			
13	건축사 협회명칭 사용금지	〃	〃			○				
14	개설자에 대한 보고불성실 검사거부	〃	〃	36		○		●		
15	건축사 신상변동신고	(과태료) 41	30만원 과태료	36	〃	○ ●				
16	면허취소 된자의 불반납(15일내)	〃	〃			○				
17	등록사항의 변경, 휴, 폐업변경신고	〃	〃	36	20 만엔	○ ●				
18	개설자의 대리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42		37		○ ●		●		

한국대일본 건축사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 요건대비표

구분	NO	요건	한국		일본	
			조항			조항
면허취소	1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경우	11조	○	●	9조
	2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미복권자	〃	○	●	7조
	3	건축사법 건축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로 금고이상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불집행확정 후 3년 미경과자.	〃	○		
	4	타인에게 면허 대여	〃	○		
	5	등록취소처분 받고 계속하여 업을 영위한 때	〃	○		
	⑥	건축사의 책임사유로 등록취소처분 3회 받은 때	〃	○		
	⑦	최근 10년간에 업무정지 처분기간의 통산이 36개월을 초과 할 때	〃	○		
	8	등록 구분에 따른 업무 범위 위반	〃	○		
	9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징계 또는 취소)			●	10조
	10	건축사법, 건축법등의 법령 조례에 위반 하였을 때 (〃)			●	10조
	11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 한 행위를 하였을 때 (〃)			●	10조
등록취소	1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건축법 위반으로)	28조		●	8조
	2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고 1년 미경과자			●	26조
	3	사기부정 방법으로 등록 받은자	〃	○	●	26조
	4	업무 범위 위반 행위	〃	○	●	26조
	5	등록 기준 미달때	〃	○		
	6	업무 정지 처분 중에 업무 행위	〃	○		
	7	구조안전 규정을 위반 설계감리를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	○		
	⑧	년 2회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통산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	〃	○		
	9	파산 미복권자			●	26조
	10	조사, 검사 업무를 태만이 한 때	〃	○		
	11	보고의무 불이행 검사 거부 행위	〃	○		
	12	등록 사항의 변경, 휴, 폐업 등의 신고불이행	〃	○	●	26조
	13	징계 처분받았을 때 (1년 이내의 등록 취소)			●	26조
	14	건축사의 업무상 성실의무 위반	〃	○	●	26조
	15	건축사법, 건축법 등에 기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 한 때	〃	○	●	26조
	16	건축사협회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건의 한때	〃	○		
	17	업무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 때			●	26조
	18	등록 취소 2년 미경과자			●	26조
	⑨	건축사의 조사, 검사 업무등의 건축행정의 대행 업무		○		
	⑩	공무원에 대한 건축사 시험 특별 전형제		○		
	⑪	건축사보 보유제		○		

설계경기 2題

㉠ 인천종합문화회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아도무건축 (안)

〈가 작〉 정림건축 (안)

㉡ 마산지방법원청사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정일엔지니어링 (안)

〈우수작〉 서인종합건축 (안)

아도무건축 (案)

A-dome Architects & Engineers Asso. Plan

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 張錫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51 / 583-8553

■ 설계개요
대지위치 /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965일대
대지면적 / 48,258m²
연면적 / 19,288m²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Post Tension, 철골조
Module / 9m×9m
주차장 / 647대 (옥내 450대 가능)
주요외장 / 화강석, 유리, G. R. C



■ 설계소모

인천종합문화회관의 설계용모 요강은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지방의 문화회관과 별 차이가 없이 관에 따른 듯한 요구조건이었다. 인천은 개천기에 대외교역의 관문으로서 뿐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항구도시로 우리의 전통양식에 의한 조형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놓고 작업에 임하였다.

본 대지가 수전입로보다 13m나 낮은 지역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자칫하면 진입하면서 전몰을 내리나 보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생길까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으며, 그 대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상 남북으로 이어진 폭 100m길이 2.8km 시설부지로서 공원중수에 위치하고 인접 북쪽에는 유림의 동산이 조성되어 있어 마치 공원상에 기념비 같은 조형적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화회관에 들어서 연주도 보고, 영화도 감상하고 그림도 보아 문화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휴식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는데...? 전통건축에서 보는 기단을 도입하여 그 속에 소강당, 미술관 등을 두고 상부에는 대강당을 전통건축의 조형을 현대적 감각으로 처리한 기념비적 문화회관으로 구성한다. 많은 사색과 Sketch로 이 안을 마련하였다. 1991년 말이면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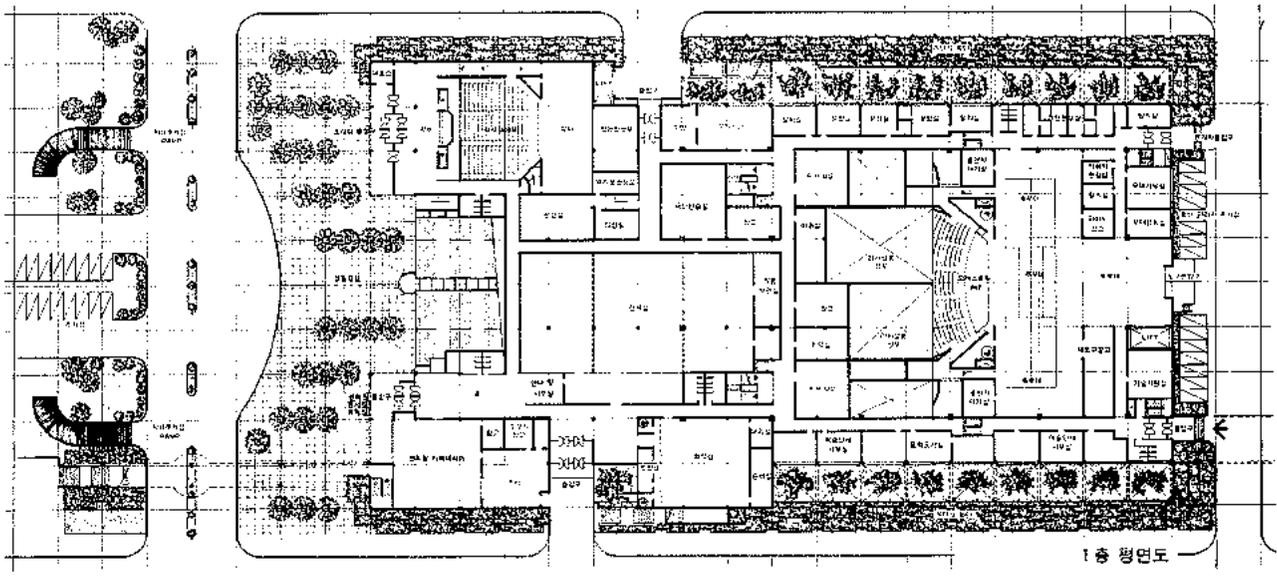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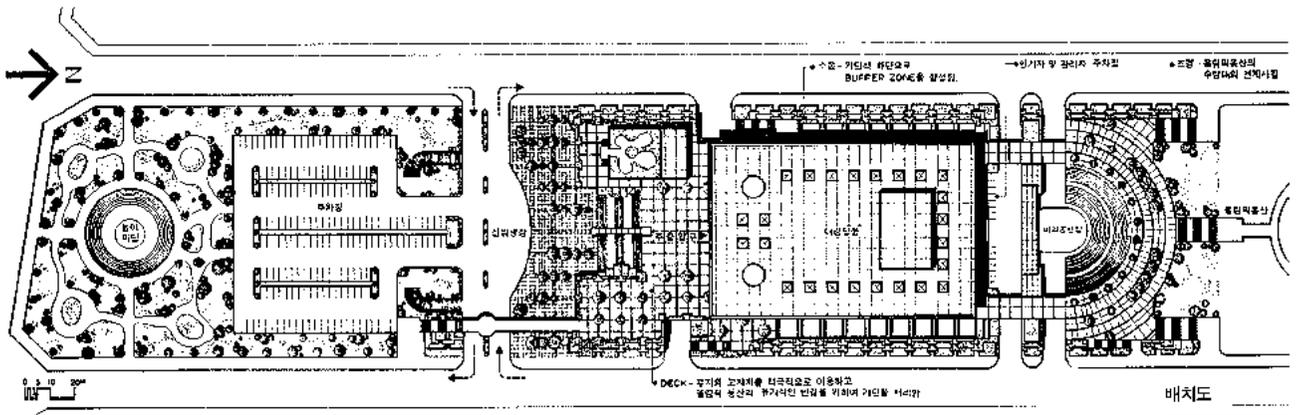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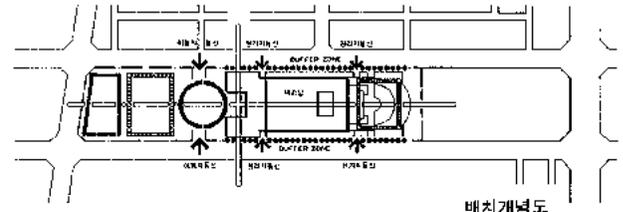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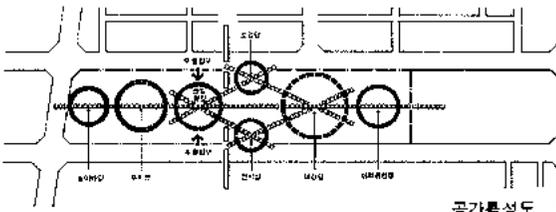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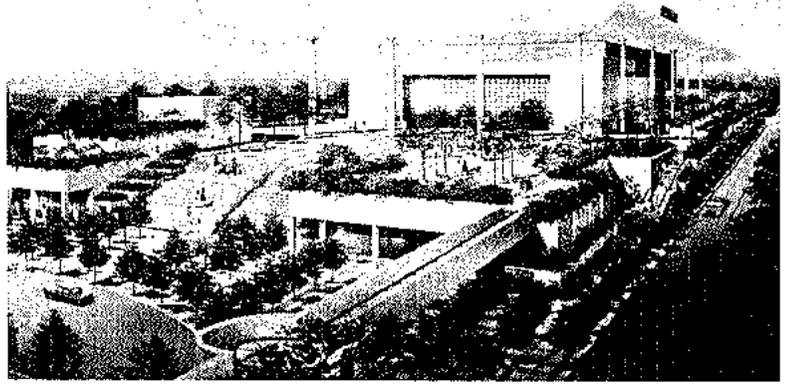
■ 계획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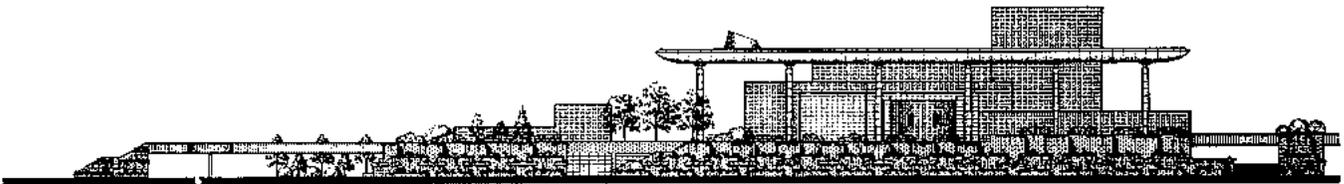
- 주어진 조건에 충실한 기능
- 개화기의 대외 교역의 관문으로서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 전통양식의 조형적 의미를 부여한 건물이어야 했음.

- 주변의 고저차를 감안하여 전통건축의 기단과 조형적 공간을 현대적 감각으로 처리하여 단일건물로서 Monumentality를 강조하였음.
- 시설부지의 효율을 유지하여 휴식과 사색의 욕의 공간으로 구성했음.
- 기단은 소음서미의 Buffer Zone으로 1층의 채광 통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계획현황

- 연면적 5800평, 대강당 1400석
- 소강당 400석, 전시관
- 국제회의장, 식당 및 다방
- 시 관편단체사무실 및 공연시설
- 주차장/옥내 450대, 옥외 200대 (최대 1000대)
- GL± 0. 기단 5.7m, 지붕 25m
- 구조/철근콘크리트 Post Tension공법으로 Space Structure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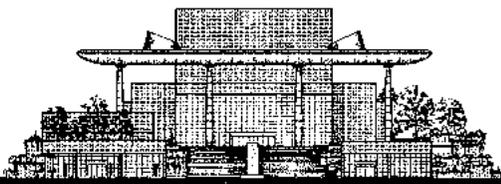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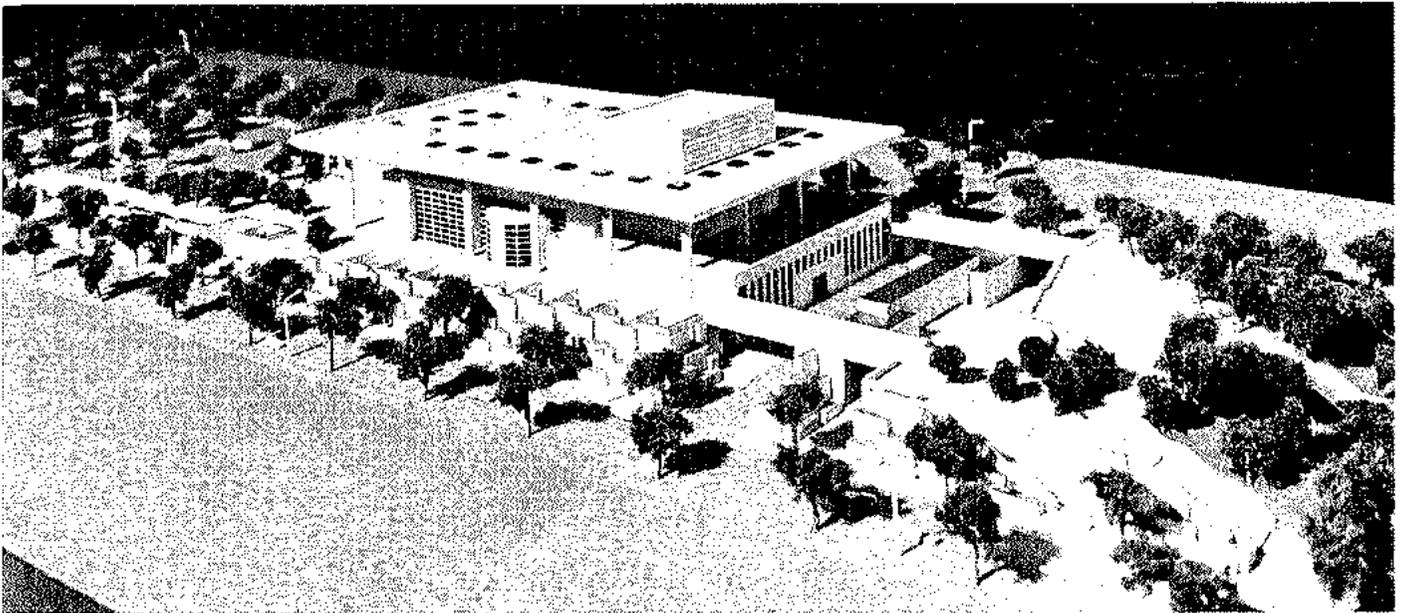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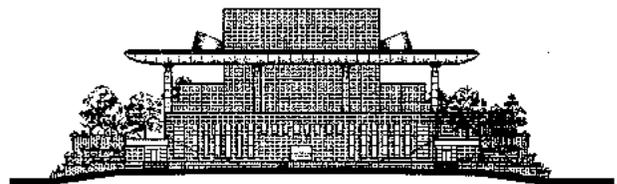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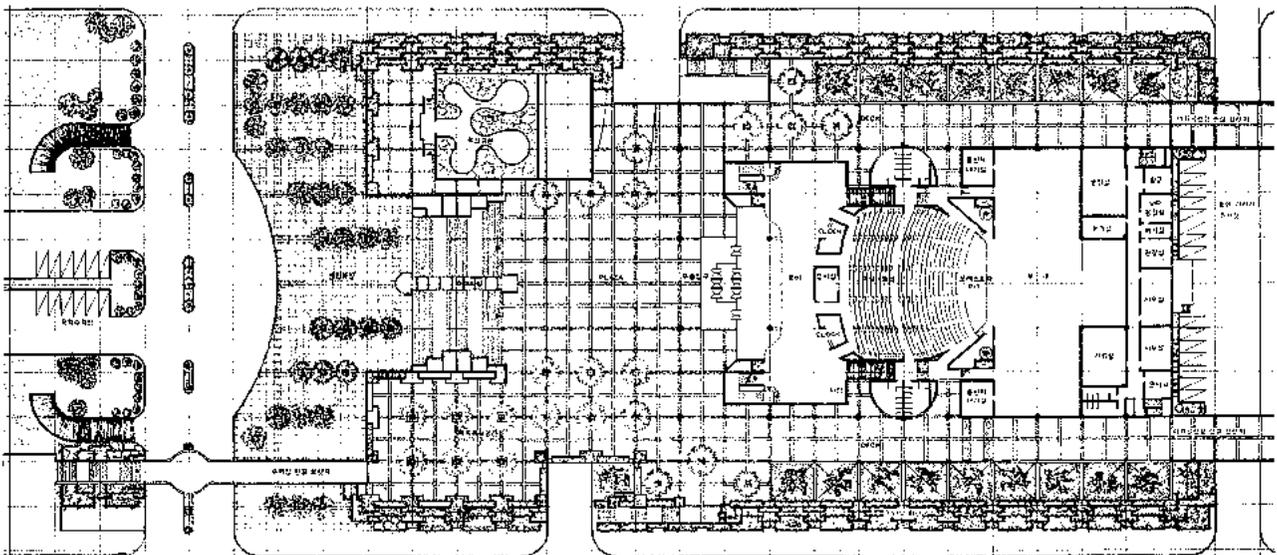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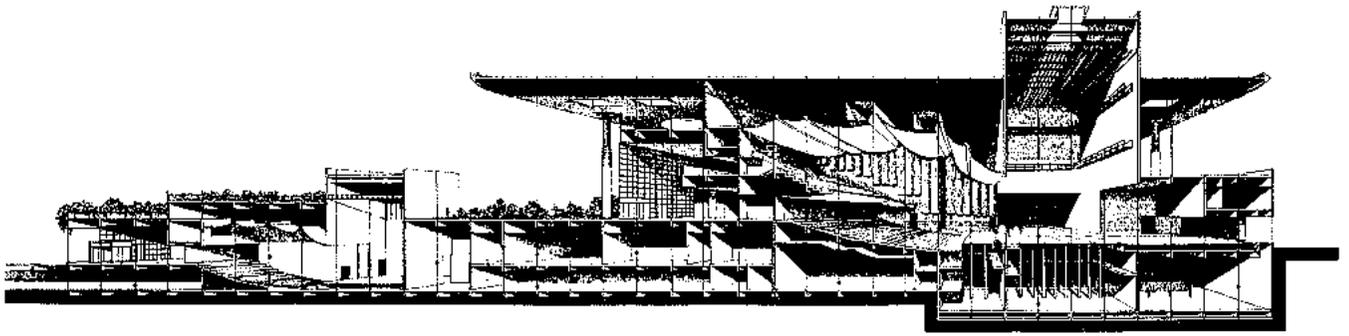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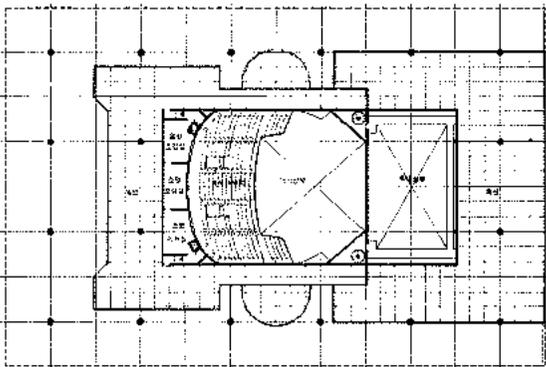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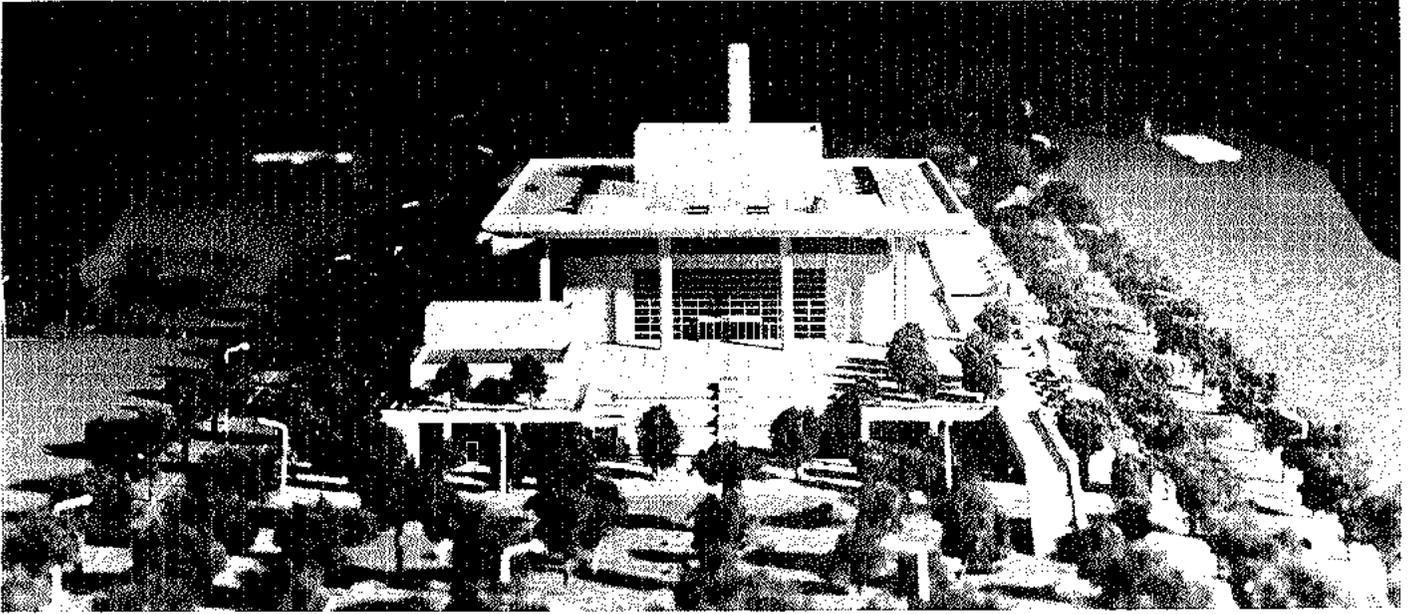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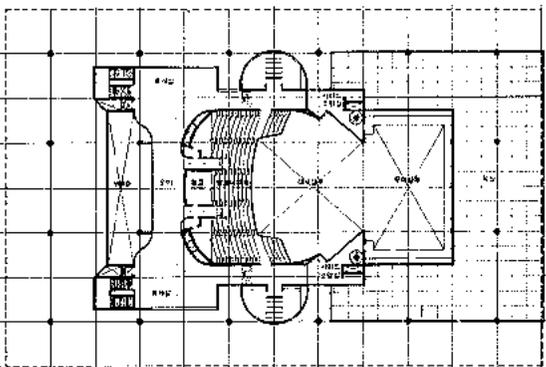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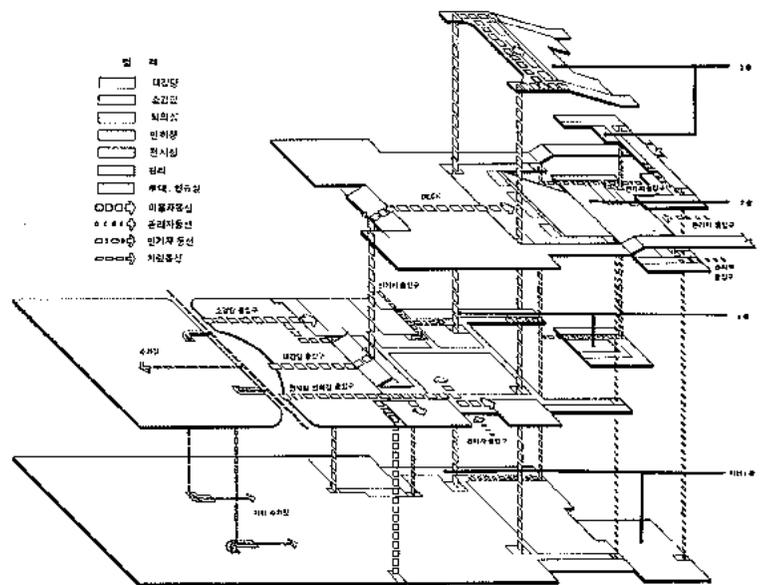
원단면투시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機能 및 動線計劃圖

정림건축 (案)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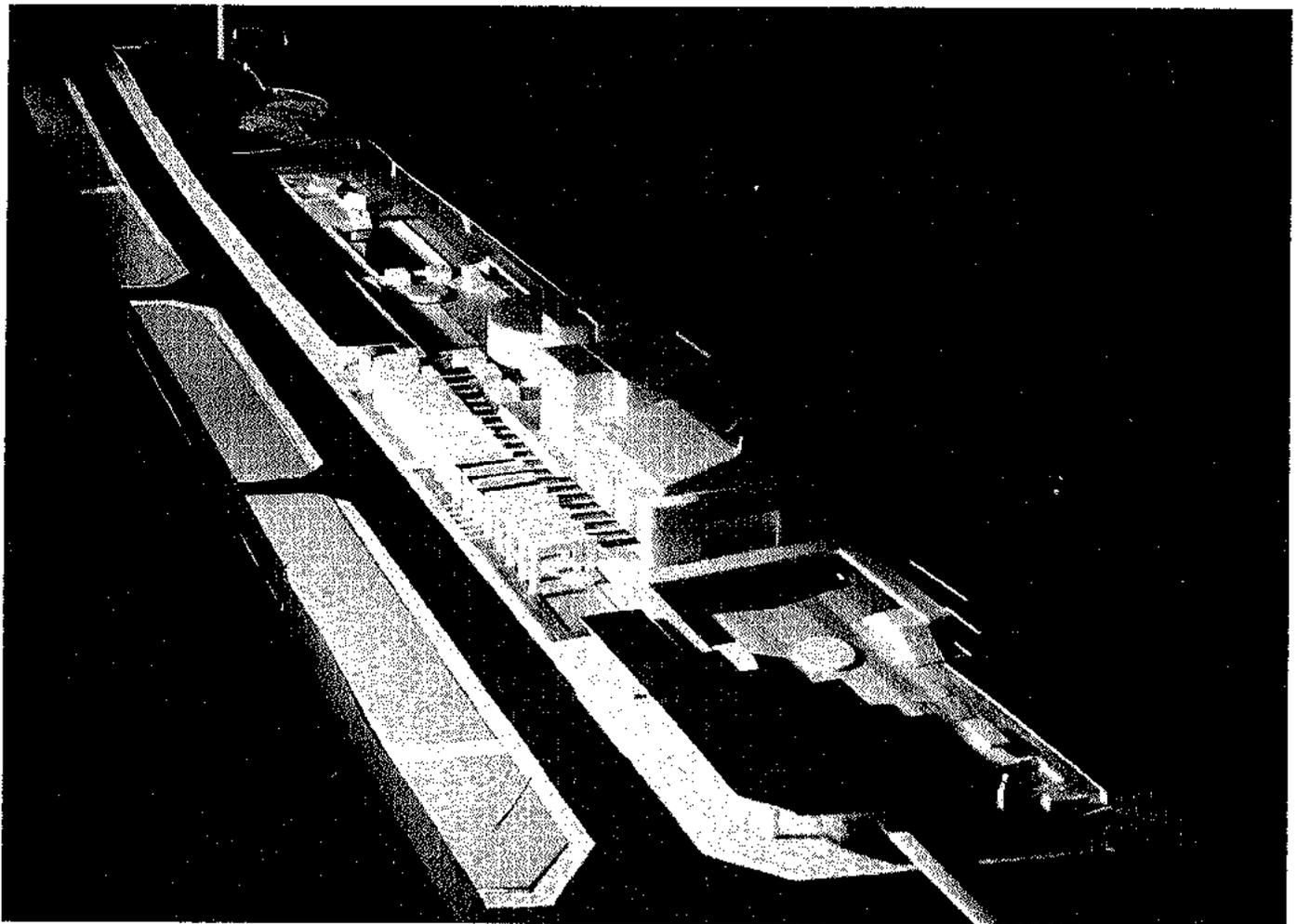
(주)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金正澈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87-1/762-9681

■ 설계개요

대지위치 /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965일대
대지면적 / 67, 270m² (6지구 + 7지구)
• 개화부지면적 (7지구) : 47, 270m²
• 율림포개화기년 부지면적 (6지구) 20, 000m²
건축면적 / 10, 230m²
연면적 / 19, 945m²
구조 및 마감 / R.C철골구조, P.C 및 화강석

- 주요시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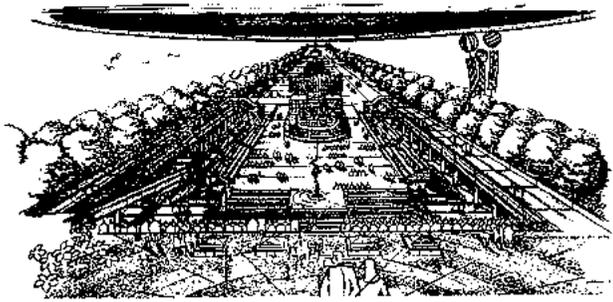
- 대공연장 / 8, 850m² (1300석)
- 소공연장 / 1, 960m² (450석)
- 전시장 / 1, 670m²
- 국제회의장 / 725m² (250석)
- 관리사무실 / 725m²
- 연회장 및 식당 / 850m²
- 시립예술단 연습실 / 2, 51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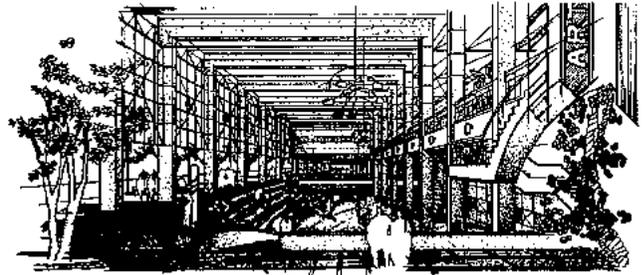
■ 설계소요

사람이 깨고 세상이 열리어 맑게됨은 人丁을 가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함이고, 그곳에는 꿈과 생명이 항상
모순될전대 여찌 편안한 호흡과 건강한 초록을
방שמ일까
도시의 숨소리, 도시의 심장
그것은 인천의 얼굴 바로 중앙근린공원에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받으며
소우주를 가지고자 함인데, 존재를 부여하려는 것에
그들의 가치를 생활理想 실현으로 두고자 함이고,
받으려 함은 지극히 수동적이며 자능적이고 대상의
위리나 원인으로부터 여지 유도되지 않는 그 외의
모든 것이다. 즉 있는 것이라면 모두를 충분히
이용하려는 생활일 것이며, 정서없는 취미가 취미없는
생활의 작용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사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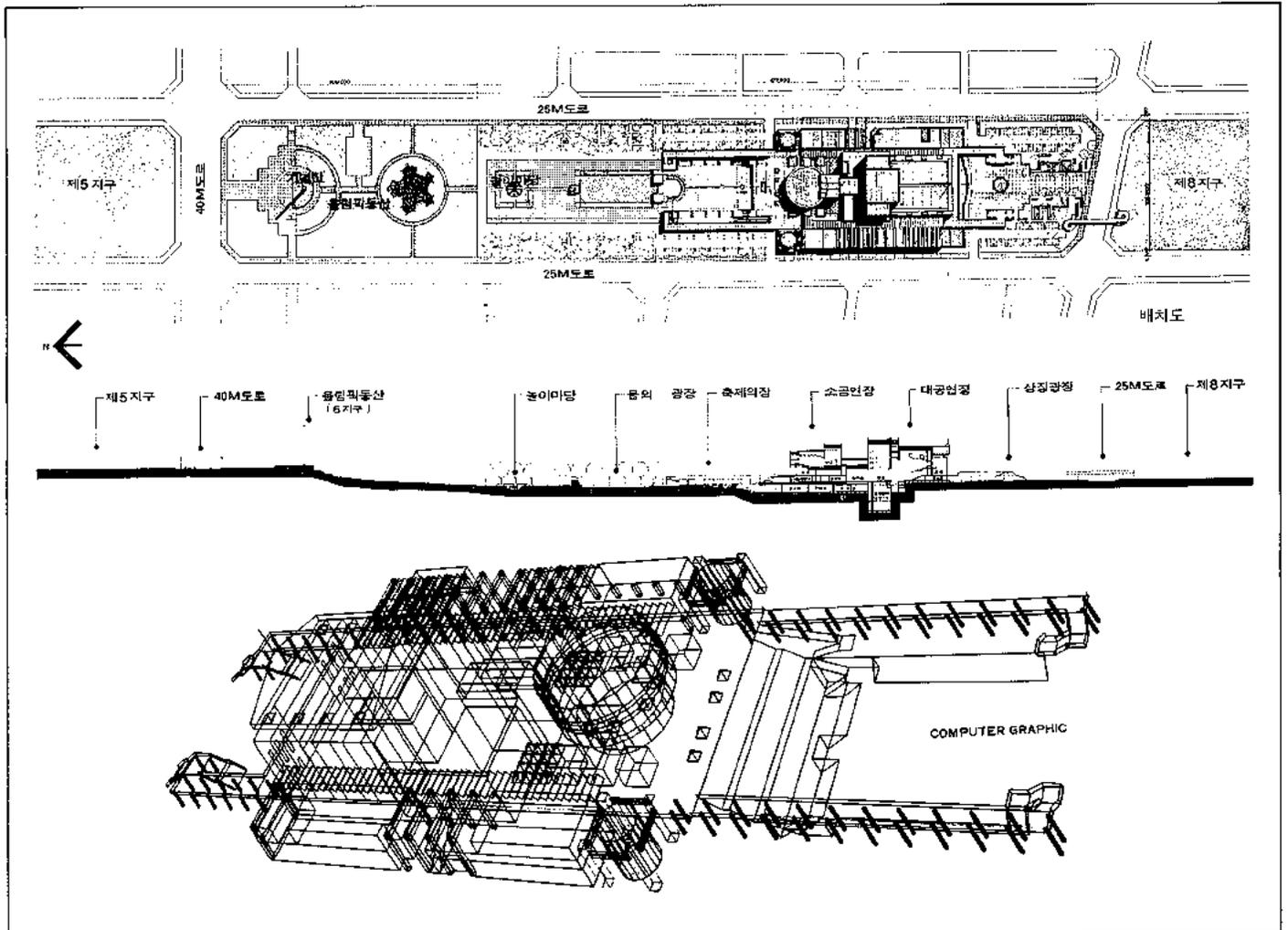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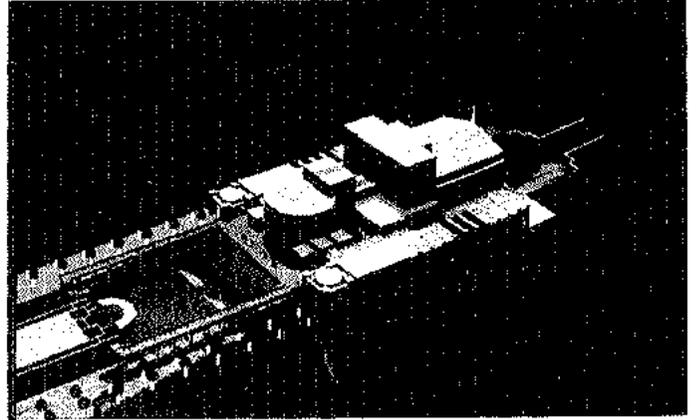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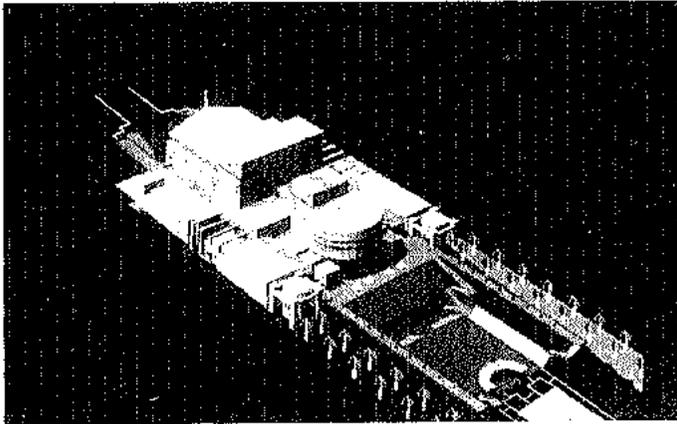
따라서 본 Project의 Theme는 아마 인천의 숨소리를
문화 경관속의 근본적 상호능력에 결부시켜
무관심적으로 보려함에 있고, 주제나 객체의 어떠한
성질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사회 보존이나
개인 보존에 필요한 정열에 기인하고 있다 하겠다.
더우기 한정된 전통적 메시지와 시대적 가치기준의
절어진 순수성의 범위는 상대적, 구조적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원리로써 기존의 문화어휘 사용방법과는
다르게 건축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추구의 노력이다.
그러므로써 넓게는 문화, 문화가치, 문화생활과
좁게는 문화경관, 문화시설이 의미하는
“인천문화회관”을 “문화안전성민”에게 더 잘
서비스 되도록, 돕는 대상을 찾으려는 결과의 표현이
아닐까.
따라서 건축은 “왜”와 “어디로”를 동시에 묻게 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계획담당 김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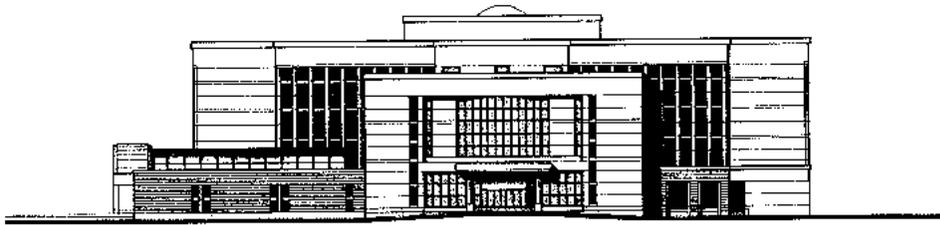


아외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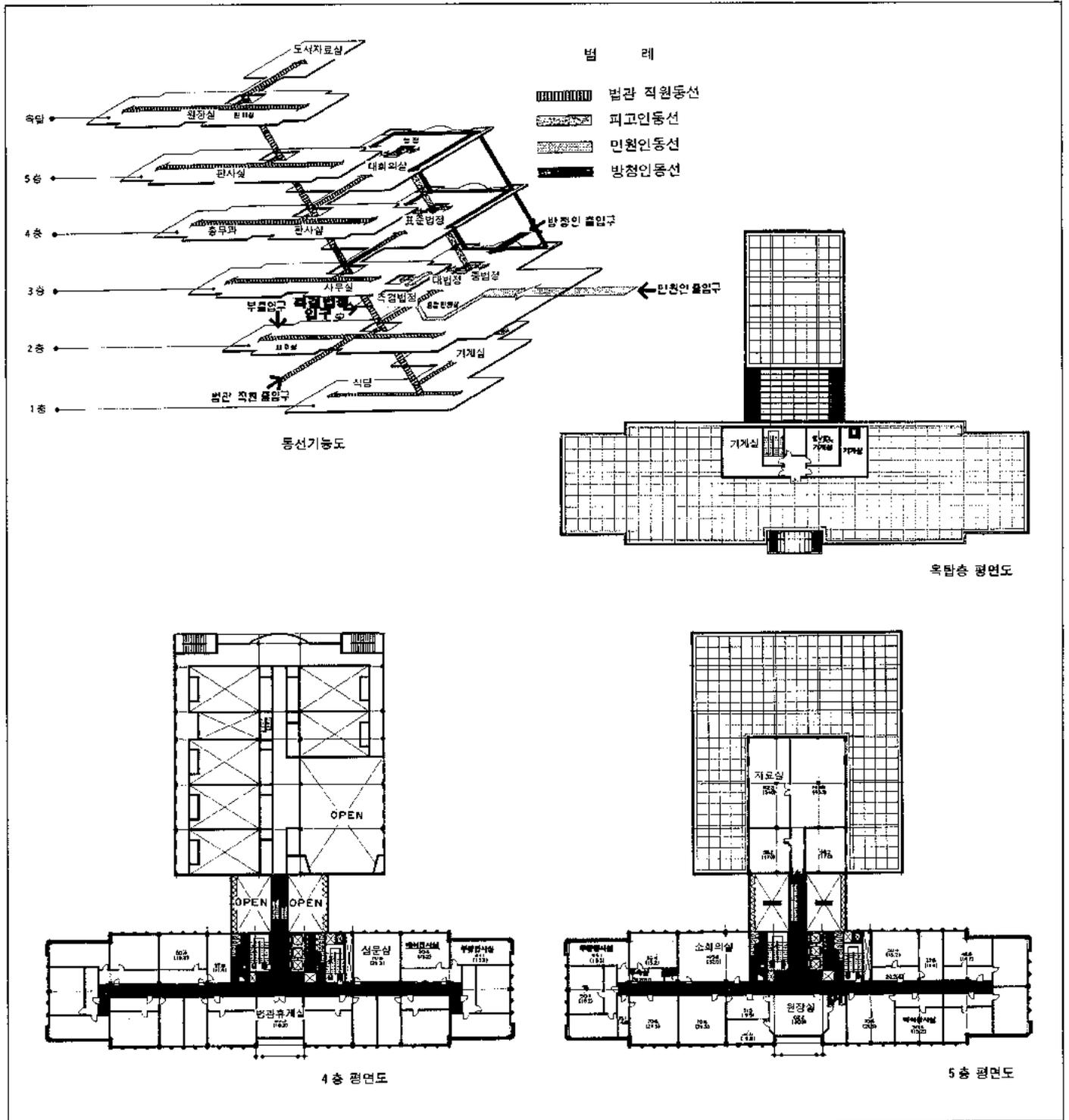


주외관장





배면도



정일엔지니어링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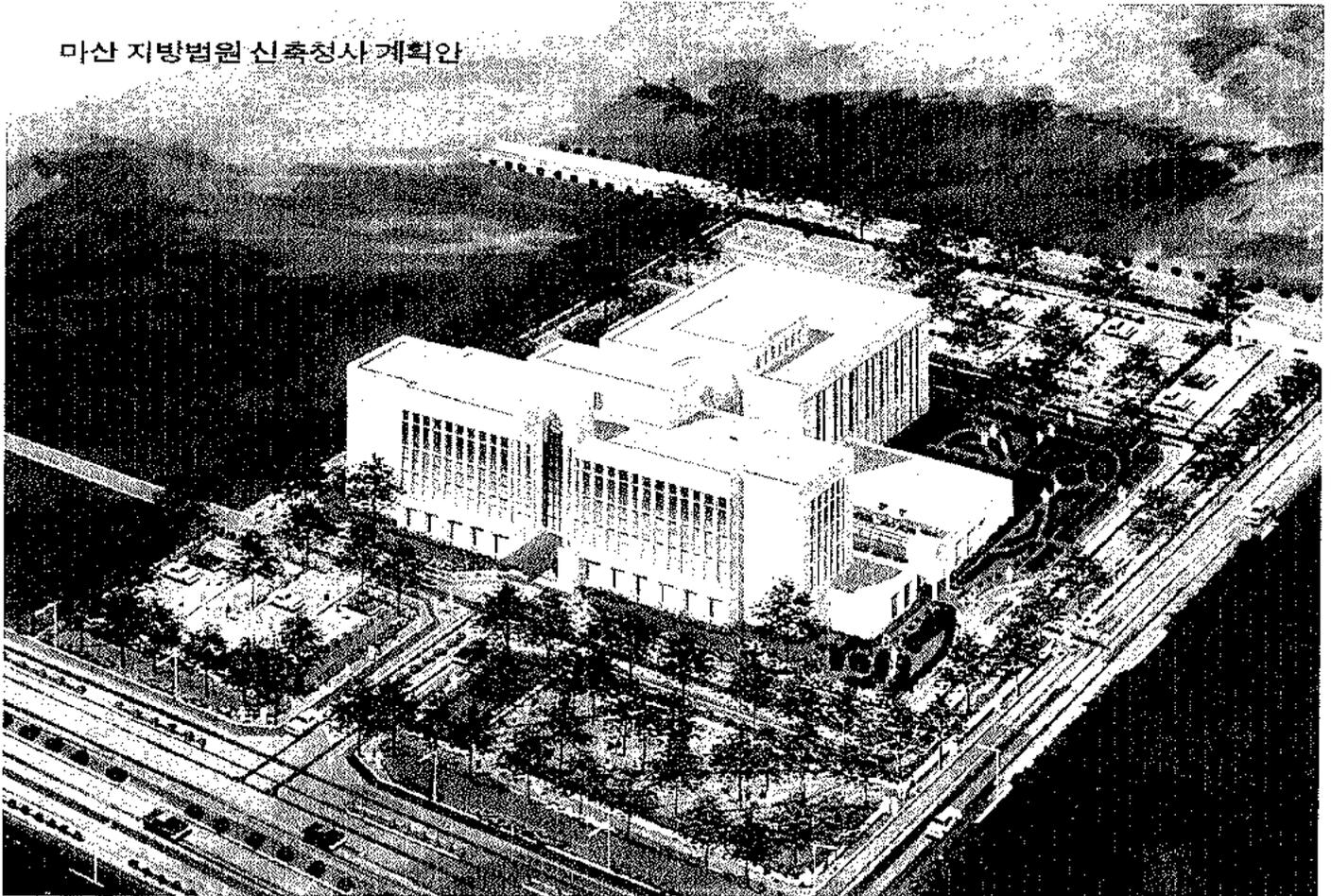
Jungil Engineeri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Plan

(주) 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宋基德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 / 714 - 7938

■ 설계개요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토림동 (사파정농 택지조성 지구 54블럭)
 지역지구 / 주거지역
 도로현황 / 전면 35m, 우측면 15m
 대지면적 / 약 23,430㎡
 연면적 / 15,592.0㎡
 건축면적 / 4,444.7㎡
 용적률 / 58.2%
 건폐율 / 18.9%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요의장재 / 화강석, 석중유리
 주차대수 / 140대

마산 지방법원 신축청사 계획안



■ 계획의 목표

- 2,000년대의 사건수, 법관 및 일반적 수요를 예상,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시설 확보
- 신속한 대민업무의 수행,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제반시설의 확보
- 사무능률 제고를 위한 원활한 동선처리
- 현대적 설비 및 녹지, 주차장 최대 확보

■ 계획원칙

- 건축 계획의 원칙
- 법관 기능의 능률화
- 재판 기능의 원활
-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
- 동선의 단순화
- 대민부서의 집중화
- 장비시설의 현대화
- 토지이용계획의 원칙
- 동선(교통)의 원활
- 녹지 및 주차장의 최대 확보

■ 공간구성계획

- 건물의 각 동은 시민복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이 시민복을 중심으로 사무기능과 재판기능이 각각 독립된 내부공간으로 연계된다.
- 식당과 연결된 선문가든과 시민복은 중앙아트리움을 통해 수직적 공간으로 승화되며 중앙아트리움은 Buffer Space로서 내·외부공간의 상호관입을 유도함.
- 각각 독립된 두 동의 건물은 상호 상이한 기능으로서, 완성된 형태로서 존재하고 민원복을 Major Space로 한 저층부와 통일된 집합체를 이룸.

■ 평면계획

- 1층
- 법관, 직원동선과 민원·방청인 동선분리
- 민원부서 집중배치 → 우측 15m 도로에서 직접 출입
- 선문가든 - 아트리움 - 민원홀로 이어지는 공간의 상호관입으로 인한 기능의 질서 확립
- 기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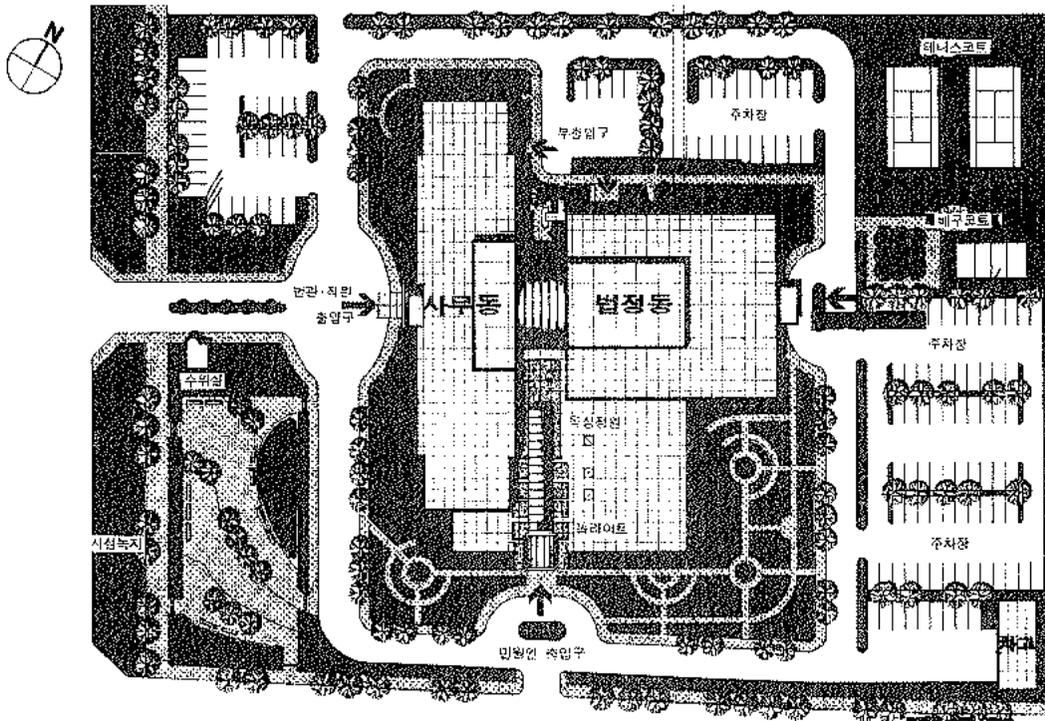
- 법원·직원 동선과 방청인 동선의 구조적 차단
- 방청인 대기실 소음 외부로 발산
- 수직 코어에서 법정동과 사무동의 직접 연결로 인한 가장 경제적인 동선 추구
- 아트리움은 사무동과 법정동의 Buffer Zone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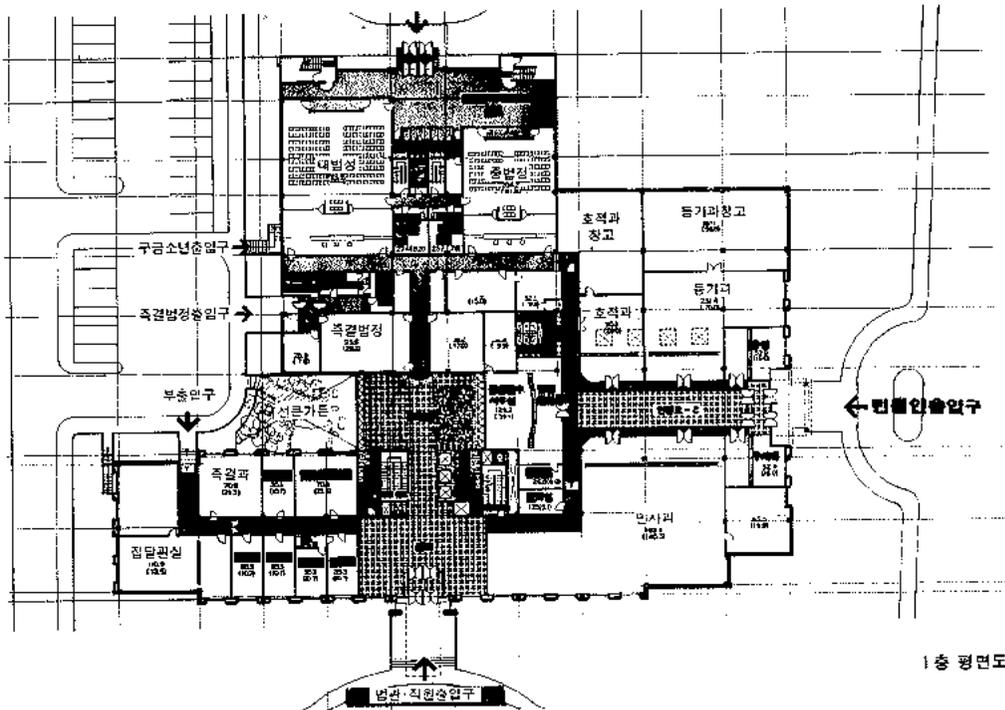
- 공공청사 + 대민업무 + 오피스 → 이질적인 세 이미지의 형상화된 조형개념 설정
- 법의 이미지와 권위표현 → 수직성 강조, 화강석 사용
- 법원의 주기능 표현 → Massive한 사무, 법정동, 저층부(민원)의 결속성
- 정면(FACADE) → 법원의 품위와 신뢰감 표현에 의점 → 지속성 있는 Skin 전개
- 우측면 → 대민봉사의 이미지 구현 역할
- 제 2의 정면성 부여
- 법관층과 법정의 능동한 지위부여
- 사무, 법정동의 통일패턴 유지



정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서한종합건축(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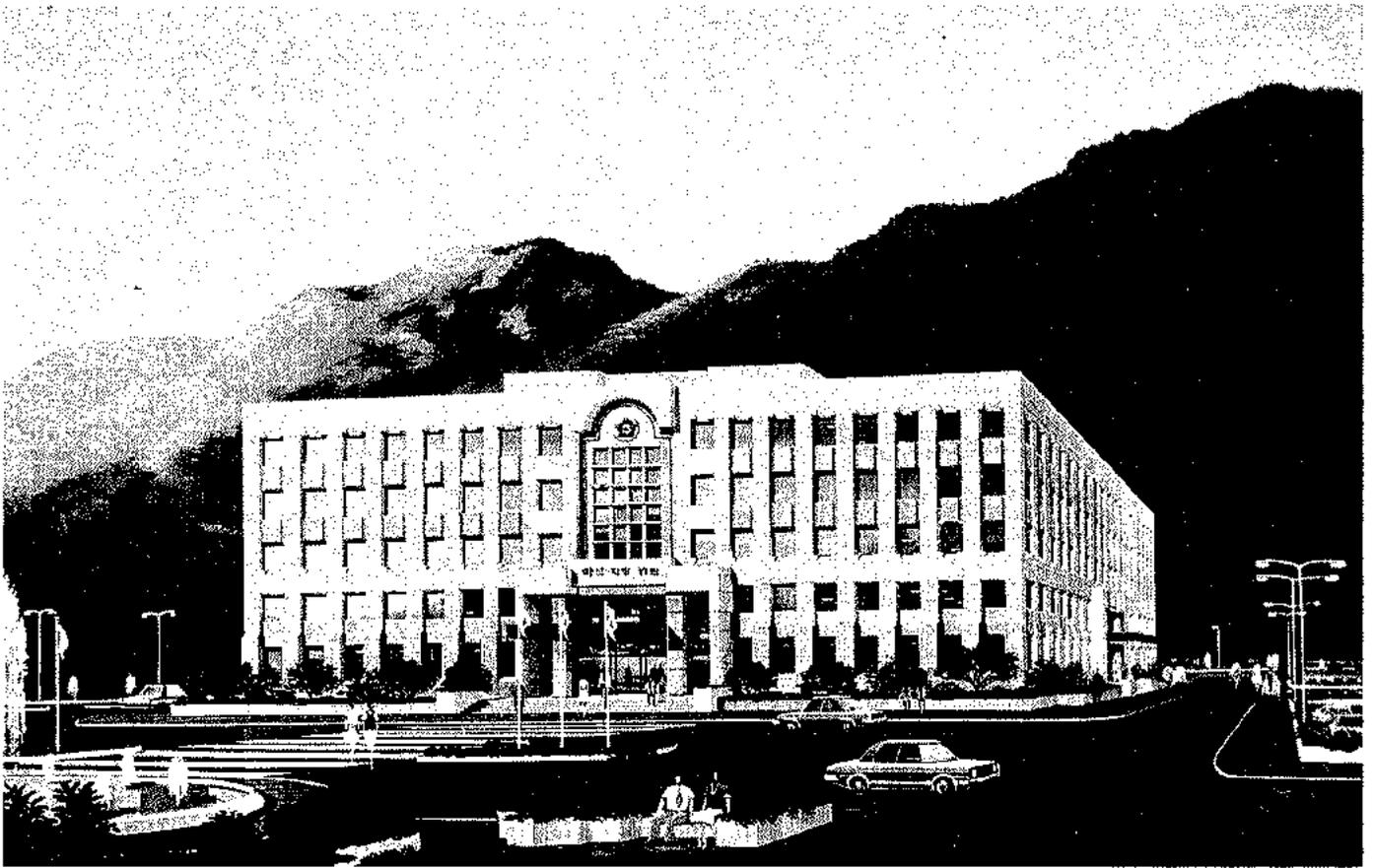
Seohan Architects & Engineers Plan

(주)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 愼國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4 / 546-5381

■ 설계개요

- 위치 / 경남 창원시 토월동 (사파정동 택지조성지구 55블럭)
- 지역 / 주거지역
- 대지면적 / 약 7,100평
- 건축면적 / 1,183.5평
- 연면적 / 4,720.9 (요구면적 4,500평 - 4.8% 증가)
- 건폐율 / 16.7% (법정 60%)
- 용적률 / 59.3% (법정 200~400%)
- 주차대수 / 100대 (법정 79대)
 - 옥외주차 : 97대
 - 옥내주차 : 3대
-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 최고높이 / 24.5m
- 조경면적 / 1,762평 (법정 1,065평)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주요외장재료 / 화상석, 페어그라스



■ 계획목표

- 공공성 : 공공건물로서의 Identity, 건물에 내재하는 고유기능의 표현
- 효율성 : 쾌적한 사무환경의 조성, 신속 정확한 사무처리를 위한 공간의 체계화
- 경제성 : 에너지 절약에 부응하는 건물설계, 구조의 체계화, 살비의 체계화
- 환경과의 조화 : 지역적 맥락속의 대상건축의 위치, 성격의 파악, 주변환경과의 조화, 경관청과의 조화

■ 배치계획

- 건물
- 건축면적은 4,500평 / 6개층 = 700~1,000 평 규모로 전체대지의 약 1/7규모인,
- 따라서 건물은 대지내 섬형 (Island) 으로 4면이 노출될 것임,
- 전면도로와 평행으로 하여 건물의 인지도와 정면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법관, 민원인, 방청인의 출입동선 구분
- 공간적격에 의한 입실 (陪案) 배제 - 중성계획
- 경매법정 및 우세국, 집달관사무실, 은행은

별동으로 계획.

- 주차

- 최소 70~80대 (法定) 규모이나 증가추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상규모의 1/3를 가산한 규모 (주차장 정비지구의 강화조항) 이상으로 계획.
- 직위, 민원인 및 방청객의 주차장을 구분하여 배치.
- 최우호송차량 (즉결살판, 소년심판 등) 주차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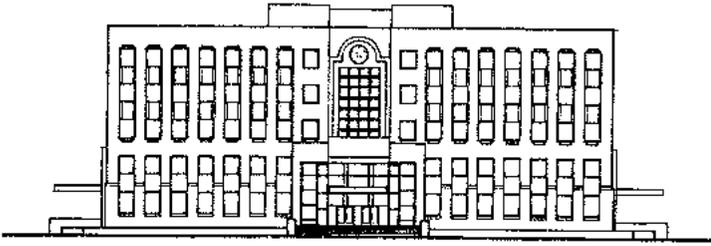
- 조경, 운동시설

- 60m 전면도로의 소음차단을 위한 Buffer Zone
- 주변주거지와의 차단용 위한 Buffer Zone
- 주차장 그늘을 위한 녹음식재.
- 진입로의 축경조절을 위한 경관식재.
- 중정의 활력을 위한 식재.
- 운동시설주변 및 민원인의 휴식을 위한 녹음식재.
- 옥상의 휴게를 위한 정원
- 건축상의 상징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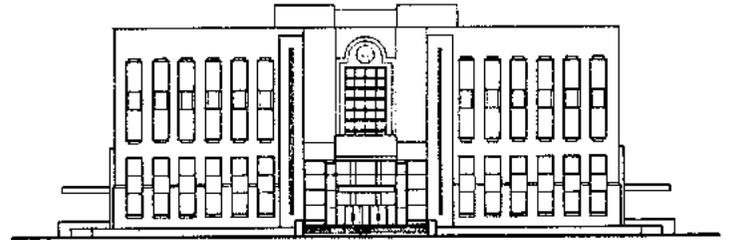
■ 단면계획

- 주출입구 부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Hall 부분을 open시키고 자연채광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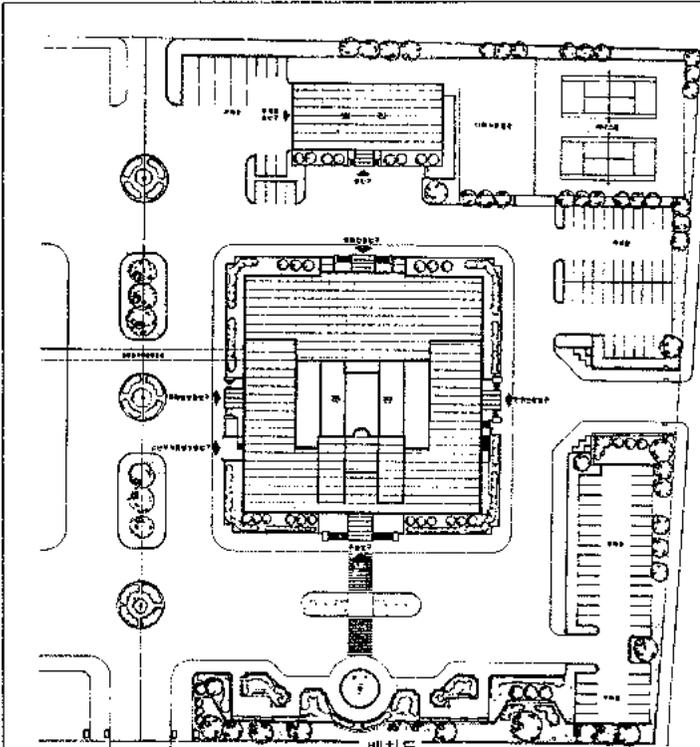
- 각실의 침체에 의한 안살배제를 위해 층정을 계획
- 법정은 천정고를 타실보다 높여 개방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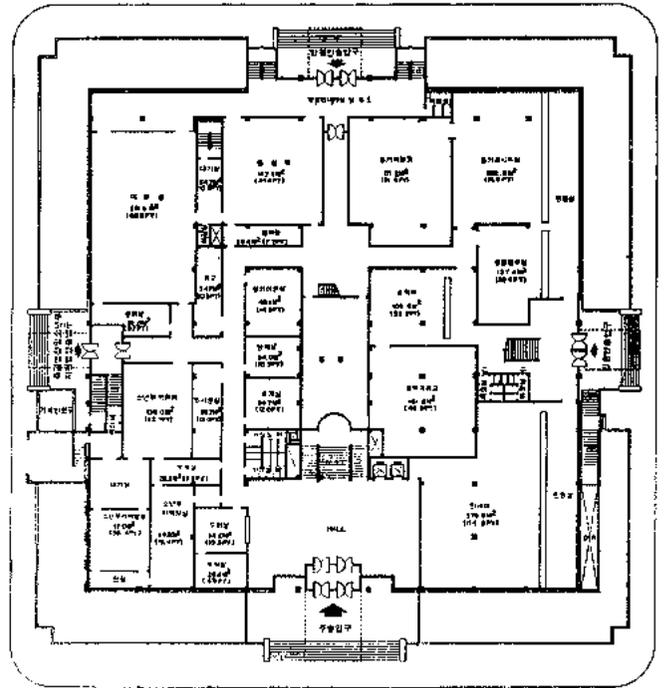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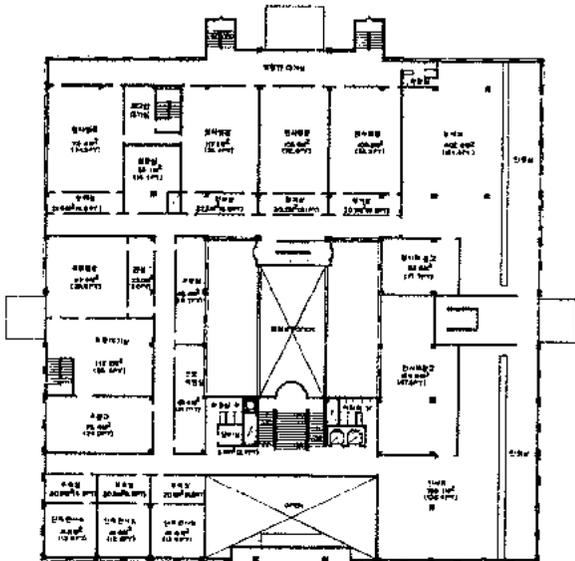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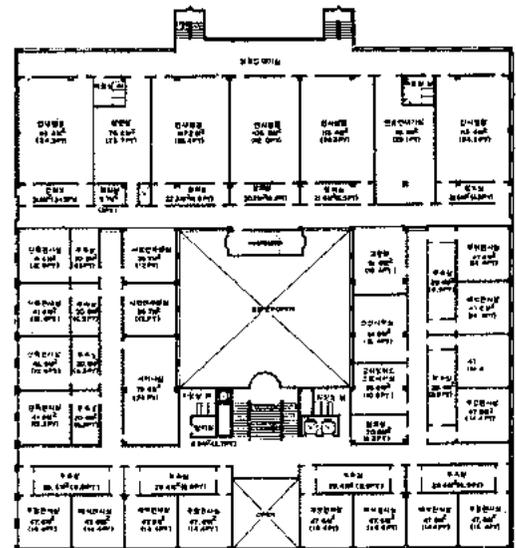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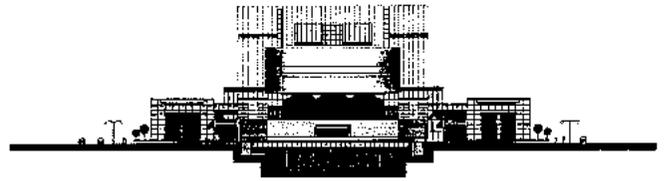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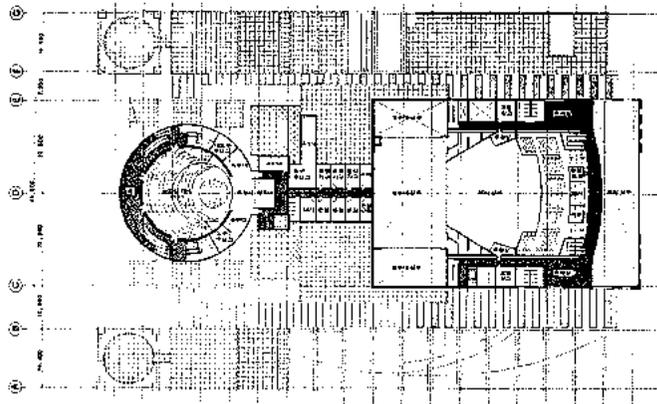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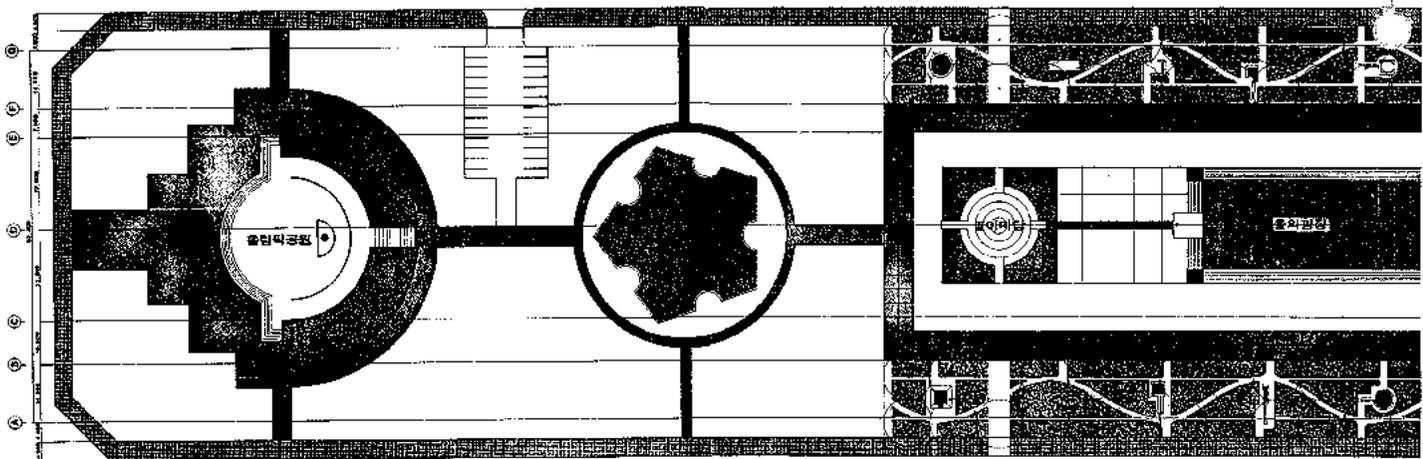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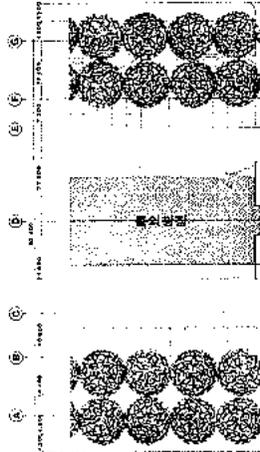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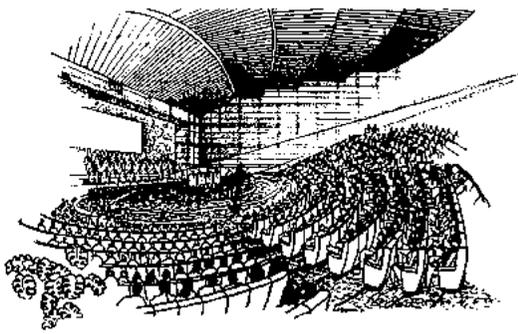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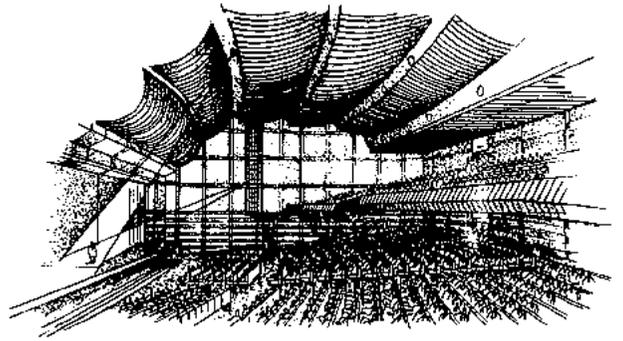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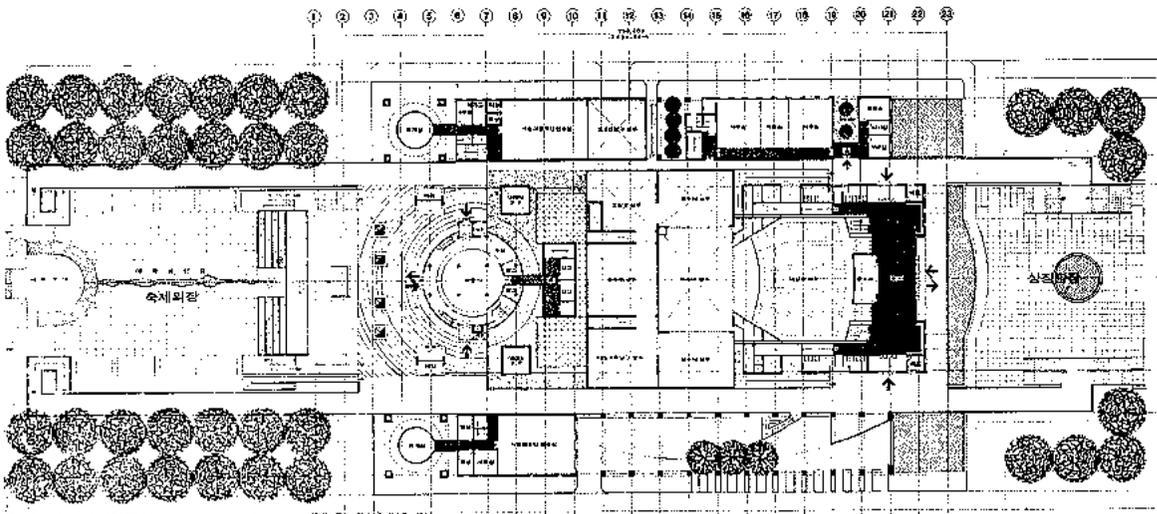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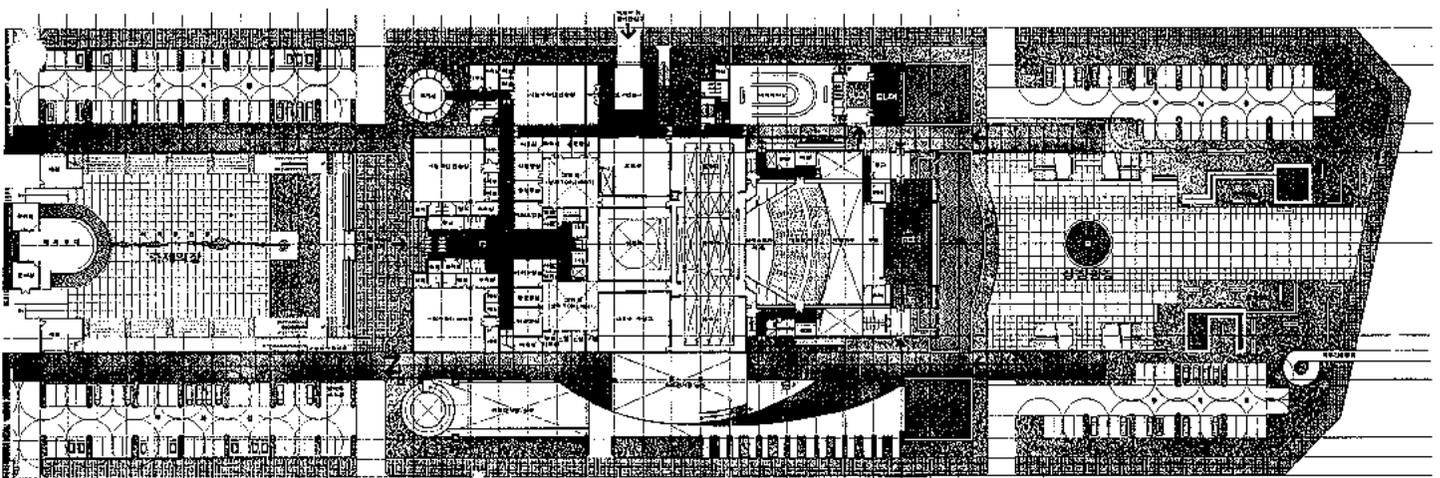
소공연장



대공연장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전문회사 제도 신설)

金永奭 / 국동·영건축사사무소 대표

1987년 10월 24일 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약칭함)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건기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대하고 보니 작년 11월 27일 건축사 협회 제22회 정기 총회시 건기법을 통과시킨 협회 집행부와 이를 반대한 대의원간의舌戰이 눈앞에 떠오르며, 결국 울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동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 제40조(시공감리자의 자격등)을 보면 건축부문의 감리전문 회사의 기술인력중에 시공 기술사와 더불어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듯 시행령안에서 건축사의 갑작스런 출현은 모법인 건기법에서 보면 아물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이미 제정된 건기법 제40조에는 "이 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의 공사감리자로서의 건축사의 존재 이유를 부색케 한것이라든지 또 건기법 제2조에 명시되었듯이 건기법의 적용 대상인 동시에 그 주체로서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건설 기술자"라고 정의할 뿐, 건축사의 위치나 역할등의 정의를 나타내는 조항이나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공 감리자의 자격으로서 건기법에 전혀 없었던 시행령안에서의 건축사의 포함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이미 마련된 건축사의 감리 업무제도에 비추어 볼때 자못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리 전문회사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법 자체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과연 법제처의 눈길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즉흥적인 조치로 건기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2,700여 건축사 사무소의 고유 업무 침해라는 면에서 강한 반발을 나타냈던 건축사의 감리업무 영역을 뒤늦게 의식한 결과 이에 대한 무마책으로써 반영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비록 건축사의 업무 영역을

반영 했다고는 하나 역시 법률 상호간의 중복성, 적용문제, 배타성등의 법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시행령안은 재쳐두고라도 모법인 건기법에 대해 이미 법률로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제13대 국회에서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건축부문의 공사감리에 대한 부문은 이미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마련돼 있는바, 건기법에서 새로 다루어질 필요도 없거니와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서 마련돼 있는바, 건기법에서 새로 다루어질 필요도 없거니와 만일 그렇게 됨으로써 야기될 감리업무의 二元化에 따른 혼란등으로 볼때 건기법에서의 건축에 대한 감리 전문회사 제도는 당연히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있어서 기하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건축사를 끌어 들여서까지 구태여 감리 전문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기법이 기존 감리 제도가 없었던 토목 또는 기타 공사 부문에 감리 전문 회사의 필요성을 느껴서라면 몰라도 건축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 건축법 및 건축사법 테두리안에서의 보완 또는 개선이 보다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새기구, 새 제도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타당하리라고 본다.

만일, 건기법이 시공적 측면에서의 감리를 중시 여겨 감리 전문회사의 설립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건축사의 기존 감리업무에 시공 기술사의 기술적 참여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례로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듯이 말이다.

다음으로, 건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즉 설계 당사자는 감리 업무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민간공사이건,

◆

金永奭
33년 경남생으로 58년 부산대 건축공학파를 졸업하고
72년~현재까지 국동·영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으며, 본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사로 재직중이다.

건축사지는 영원한 우리의 기록이며 유일한 홍보매체 입니다.

정부 발주의 공공 공사(이건간에 또 그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규모이하이건간에 설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비록 같은 자격의 건축사 일지라도)이나, 기구에 의해 설계자가 감리 업무에서 제외 된다는 사실말이다. 이것은 그 제도나 기구를 만든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계와 감리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전문지식 및 경험에 의해 창작 설계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의해 건축물은 시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서 조형적 예술 작품이 생성되는 것이다.

감리 업무는 바로 이러한 건축물의 생성 과정에서 건축사가 설계에서 자기가 의도한 바와 시공과의 합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자기 작품 의도를 설계에 충실히 표현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창작 예술의 본질, 즉 작품의 분위기나 마무리 등의 변화를 감리 업무 중에서 건축사가 계속수정 시행해야만 하는 설계 업무의 계속적인 연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 당사자의 감리 업무의 제외는 동서고금에 없는 상식적 밖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감리 제도가 궁극적으로 시공 과정을 위한 것이지만 시공자가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리 역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의 건축물의 대형 사고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적지않게 시공자의 체제와 영리 목적에 급급한 나머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감리 이전에 앞서 시공 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은 물론, 제도상의 기술자 확보 및 육성으로 기술자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로써 지금까지의 건설 회사에서 벗어나 시공상의 영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면 책임시공 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라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전기법에 나타난 건축 감리 전문회사 제도는, 첫째, 전기법 시행령에서 건축사의 포함으로 인하여 모범상의 모순을 담고 있으며(모범과는 이율배반적이다) 둘째, 감리 제도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과 전기법과의 중복성에 따른 감리 업무의 이원화(二元化)로 인하여 혼란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셋째, 전기법은 감리 과정에서 설계 당사자를 제외 시키므로써 감리 업무가 설계업무와 구분되어질 수 없는 엄연한 설계업무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넷째, 감리 전문회사와 같이 감리기구의 중설로 인한 건축주의 재정적 원가 부담만을 가중 시킬 것이고,

다섯째, 시공 회사의 책임한계와 전면 시공 감리회사의 책임등의 이중적 구조의 마찰 또한 문제점으로도 야기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명시된 건축사의 기본권 및 기본업무를 제한 침해하기보다는 현존 건축사 사무소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세제탕감 조치와 현장 상주 감리 제도를 두고 여기에 대한 대가 조정이 따름으로서 영세한 건축사 사무소 육성이야말로 국가 만년 대가를 위해 마땅할 것이며, 또한 전기법 시행령에 앞서 모법의 건축 부문에 대한 감리 전문회사 제도가 당연히 삭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타율에 의한 것보다는 자율에 의한 건축사 활동의 육성이 건축 문화의 진정한 발전이요, 시대적 사명임을 당국과 협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회원작품모집

회원 여러분의 熱과 誠의 結晶體인 회원 작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작품 제출시는 인쇄원고용 슬라이드 필름, 잉킹된 도면, 설계개요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하며 생각하며 원고모집

- 회원업무와 관련된 좋은일 나쁜일
 - 관계법과 연관된 각종 의견
 - 협회에 대한 의견
 -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 그 밖에 하고 싶은 이야기
- (紙上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보다 발전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 원고길이 : 200 자 원고지 10매정도)

□ 그밖의 원고도 부탁드립니다.

- 건축기행문
 - 각종문예원고(수필, 콩트 등)
 - 논문, 자료 등
- (테마에 제한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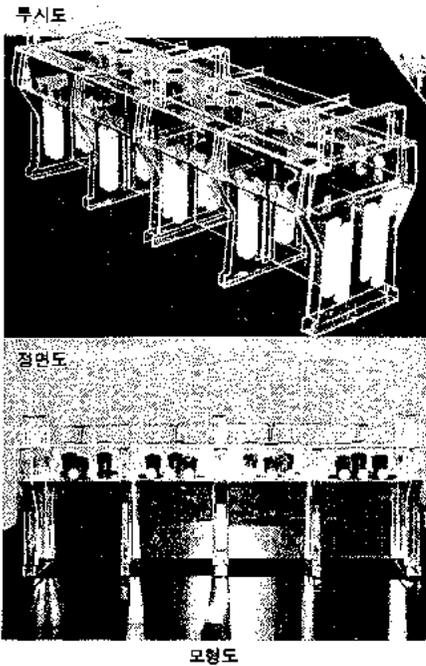
문의 및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603-55
전화 : 581-5711~4

※ 本誌에 掲載하는 會員의 主張이나 研究論文은 本協會의 意見을 代表하오나 또는 論文일 경우 論文認準 次元의 權威를 賦與하거나 其他 想定할 수 있는 諸權益 등에 대해서 本協會가 公的으로 立案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님을 保 밝힙니다.
本誌에 掲載할 수 있는 適合한 内容 内容으로서 誌面이 許諾하는 한 會員은 누구나 研究論文을 掲載할 수 있습니다.

潮力發電所 建築 (Dam兼用) 의 組立式 P.C構造工法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efabricated-Structure Construction Method of In-Jae Tidal Power Dam

李明春 / 상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기술사
by Lee, Myung-Choon



1. 序 論

代替에너지 개발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지구상에 매장된 有限에너지의 賦存量은 석탄이 약 200년, 석유와 우라늄은 약 50년 가량 쓰면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하나, 공업의 발전에 따라 그 기간은 훨씬 단축될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無限에너지源의 개발을 서두를 책임이 있으며, 인간의 公敵인 有限에너지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공해는 지구상 도처에서 폭발과 기상이변등 심각한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有限에너지 고갈 以前 머지않은 장래에 공해방지 시설에 투입되는 자금이 무공해인 無限에너지 분야인 潮力, 太陽熱 등 에너지개발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웃돌지도 모를 일이다.

근래 지구상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빈도, 규모가 날로 심해지는 원인의 하나가 지하에 매장된 석탄, 석유, 우라늄 등 막대한 에너지를 마구 채굴하는데 기인된다고 추측되는데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의 頻度와 強度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 역시 대량의 무연탄등을 채굴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潮汐干滿의 차가 크고, 수심도 얕고, 해안선의 완만한 굴곡과 대륙붕 등 입지적 조건이 우수한 대규모 潮力發電所 건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천혜적 여건을 이루고 있어서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조력발전은 세계최초 불란서 랑스(Rance) 발전소가 1966년 240MW로 운전개시, 1984년 캐나다 아나폴리스 로얄(Annapolis Royal) 발전소로 파일럿(Pilot)가 운전에 들어가는 등 실용화에 전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도 대체에너지 발전에 총력을 경주할 시점에 도달하였으며,

建設工事費 절감과 工期短縮을 위하여 발전소, 건축(Dam 겸용)의 조립식(P, C) 구조공법등을 연구개발하고, 발전기를 국산화함으로써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에너지의 자립국이 되는데 그 역전을 두는 것이며 그간 우리정부에서도 60년대초부터 조력발전 분야의 조사개발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터이다.

금번 민정당이 주최한 대체에너지개발 조력발전분야 세미나(1986. 11. 12)에서 각국의 연사들이 행한 주제 발표의 중요골자를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15년전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대체에너지인 조력발전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주) 한국조력 발전공사의 연혁을 소개하고 본인도 이에 10여년전부터 동참하여 연구중인 조력발전소, 건축(Dam 겸용)의 조립식(P, C) 구조공법 등을 아울러 발표코자 하는 바이다.

2. 西海岸 潮力發電所建設工事 概要(現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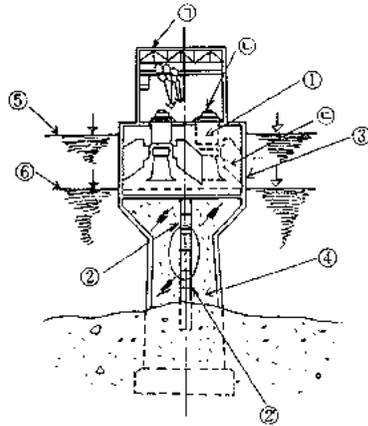
조력발전소, 건축(Dam 겸용) 조립식 P. C 구조공법 연구(원가40%절감, 공기50%단축 목표) - 潮力發電所, 建築(Dam 겸용) 조립식 P. C構造工法 개요 및 연구과정
중래의 砂礫式(제방쌓기) 공법을 개량하여 조립식 P. C 구조 공법으로 발전소, 건축(Dam 겸용)을 축조하는 것으로서 한마니로 柱脚 상부에 발전소 건물(housing) 공사를 하고 주각과 주각사이(頻地壁版) 상부에 기중기(crane)를 가설하여 건축용 P. C판을 조립하는 새로운 구조공법이며 Box형(거푸집대용) 벽판 조립식으로 축조된 내부에 발전기 설비에 필요한 기계기초와 導水路를 구축하는 등 海中 난공사를 자연을 파괴함 없이 저렴한 건설공사비로 공기를 단축하는

◆ 李明春
1919년 함경남도 출생. 한양대 대학원, 일본 특허대학교 工學博士. 한국전력주식회사(구조선 전업), 국방부 건축기정(육군공병감실부), 서울시 초대 건축과장을 거쳐 현재 상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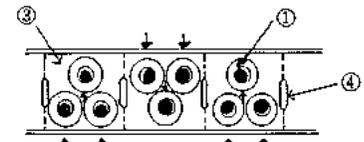
浮力·重力式을 최대한 이용하는 공법

- ① Crane은 Rall Girder를 바쳐주는 기둥만 설치 (무벽)
- ② Crane의 전정위만 지붕을 씌운다.
- ③ 직경 약 2.0m 캡슐로 한다 (맹홀) 해일을 고려하여 설치
- ④ 발전실 측면 벽판은 공경별로 공기에 맞추어 (특히 시험용) 일시에 워셔 3EA 한조로 건설시에 측면 차단한다.
- ① 발전기 설치와 수리할 때 사용한다.
- ② 탈해수 방자 조립식 빈지벽판 혹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미리 설치한다.
- ③ 하부 빈지판은 해수가 탈수되지 아니하게 지반하에 당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빈지홈은 바닥까지 판다.
- ③ P. C - Box 형
- ④ 주각
- ⑤ 빌물
- ⑥ 철물

第一圖 斷面略圖(組立式Box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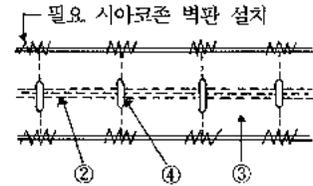


第二圖 配置計劃圖(ZigZag配置)



④ 해일방지용 캡슐 개폐식 (맹홀) 겸용

第三圖 組立式壁板 및 橋脚配置圖



조력발전소「댐」겸용 조립식공법 Box형 구조설계도

특허출원 제254호 (86. 1. 17)

개발된 현대형 조립식 P. C 구조공법의 건축 (Dam 겸용)인데 시설원가절감에 기여하는 최초의 조력발전소, 건축 (Dam 겸용) 조립식 구조공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기술개발연구는 특허출원 제254호 (86. 1. 17자)로 출원하였고 88. 6. 20일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개발에 의거 신기술개발연구 보고서를 건설부에 제출, 동 7월 5일자 長官回信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하 개발된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중 (88. 6. 9) 이라고 알려졌다.

별첨약도(제1도)의 조립식 Box 형 단면야도; ④ 주각 (빈지벽판) 을 현장조립하며, 콘크리트공사 타설시에 ②, 탈해수방지용 조립식 P. C (빈지벽판) 를 ④ 주각사이에 연결하여 상부에 ③ P. C로 Box 형 발전소를 축조하며 발전실 내부에 수차도수로와 발전기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벽한 건설공사를 마감하면서 천정슬라브에는 ① 발전기 설치시 옥상 외부에 설치된 기둥기 (crane)에 의하여, 옥내·외로 ① 캡슐 (맹홀) 뚜껑을 여닫으며 운반조작을 하게 된다. ② 을 가설한 것은 해일이 올 때를 대비하여 구상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제 3 도 (참조) 에 아코콘벽판을 설치할 수도 있다.

옥외 기둥기 (crane) 는 선박이 필요없이 P. C 판을 조립하며 공사용으로 이용되고, 완공후에는 유지관리에 각종 자제기구 운반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중효과를 도모한 것이다. 제 2 도 참조; ① 발전기는 수량을 약 30% 증가하는 목적으로 같은 조건의 발전소 (Dam 겸용) 옥내에 발전기

潮力發電所 建設工事 (재래식과 현대식) 비교일람표

(\$ 당 = 880 원)

번호	工事別	발전소 (DAM 겸용) 構造工法別 축조 (발전기국산)		재래식 공법을 100%로 간주
		재래식 土砂型 공법 (kw/원)	현대식 P. C 개발 공법 (kw/원)	
1	發電機 送配電	187,200 (\$ 212.73)	187,200 (\$ 212.73)	± 0
2	발전소겸 댐	411,480 (\$ 467.59)	125,962 (\$ 143.13)	31%
3	變電所	36,180 (\$ 041.11)	11,085 (\$ 12.60)	31%
4	水門	28,804 (\$ 32.73)	14,898 (\$ 16.93)	52%
5	假設	165,916 (\$ 188.54)	82,268 (\$ 93.49)	50%
6	豫備費	41,479 (\$ 47.14)	41,464 (\$ 47.12)	± 0
7	調査設計費	82,958 (\$ 94.27)	62,451 (\$ 70.97)	75%
8	합 계	954,017 (\$ 1,084.11)	525,328 (\$ 596.96)	55%
9	장 점	1. 특기할 사항없음		(1)공사비 약40% 절감가능 (2)공사기간 약50% 단축가능 (3)연차발전, 전력수출, 단사일借款償還가능 (4)기대한 금수강산을 파괴, 수몰어 전혀없음.
10	단 점	(1)공사비 약40% 증가추세임. (2)공사기간 약 배가 증가될 전망이다. (3)구조상 연차발전이 전혀 불가능 (4)토·사댐인고로 아름다운 금수강산 파괴, 水沒		1. 특기할 사항없음
11	수력, 원자력, 화력 등 장·단비교	(1)원자력, 화력등과 같은 공해를 주방하며, (2)발전원가: 원자력, 화력은 각각 15%~19% 고가이며, (3)수력 및 소수력은 막대한 水沒用地 매입, 어업권, 생활권, 조상묘지 등 수중에 따른 民怨 惹怒로서 놓여진 이주를 위한 간척사업 등 2중, 3중의 예산낭비에 비하여, (4)潮力은 潮池 주변을 준설, 간척지이용 등 7개부문 개발과 병행, 2천년대 에너지공급원		

12 (도)

재래식 土砂工法

개발식 P. C 공법

發電潮池 110km
간척지 335km
潮水 발전구역

지점명	潮差(m)		潮池面積(km ²)		계방길이(m)	發電力(kW)	
	최대	최소	高潮池	低潮池		최대	평균
仁川	9.5	3.20	59.8	124.1	30.8	178,000	102,000
始興	9.5	3.20	20.0	50.0	13.0	73,000	41,600
南陽	9.5	3.20	17.0	35.0	7.0	54,000	31,000
粉陽	9.9	3.26	41.0	-	2.5	137,000	34,000
牙山	9.9	3.26	170.0	-	2.5	307,000	76,700
唐津	9.9	3.26	17.0	-	1.0	46,000	11,500
瑞山	7.9	3.15	30.0	-	10.0	100,000	57,000
加露林	7.9	3.15	111.0	-	25	110,000	27,500
安興	7.6	3.10	41.0	-	2.1	104,000	26,000
淺水	7.0	3.80	202.0	189.0	11.0	347,000	94,000
(1965년) 粉陽牙山綜合	9.9	3.26	41.0	170.0	5.7	161,000	92,000
우리나라 灣力地點일람표 計	-	-	-	-	-	1,617,000	593,300

배열을 Zigzag로 배치하여 →선과 같이 導水路 코스가 되는 것이다. 조립식 P.C 구조공법은 종래의 砂礫堰과는 다르게 각각 주각과 주각마다 독립적인 구분이 되는 것으로서, Span구간을 분할 준공하여 발전을 함으로써 재래식 砂礫堰堤(Dam)와 같이 전체공사비를 투입 전체 준공을 하지않고 무리없는 공사비 예산으로 부분준공, 발전효과를 거둬으로써 전력생산 수출에 획기적인 성과를 발휘코저 하는 바이다. 별첨 조력발전소건설공사(재래식과 현대식) 비교일람표(참조)에서 발전기를 국산화로 보고 건설원가를(\$/kw) 비교하면 재래식 土砂型 공법은 약 1,084\$/kw이며 현대식 P.C 조립식공법은 약 596\$/kw의 건설원가가 소요되는 것인 바, 공사비는 약 40% 절감 가능하며, 공기는 약 50% 단축이 예상된다고 생각되며, 건설단가를 간략하게 略算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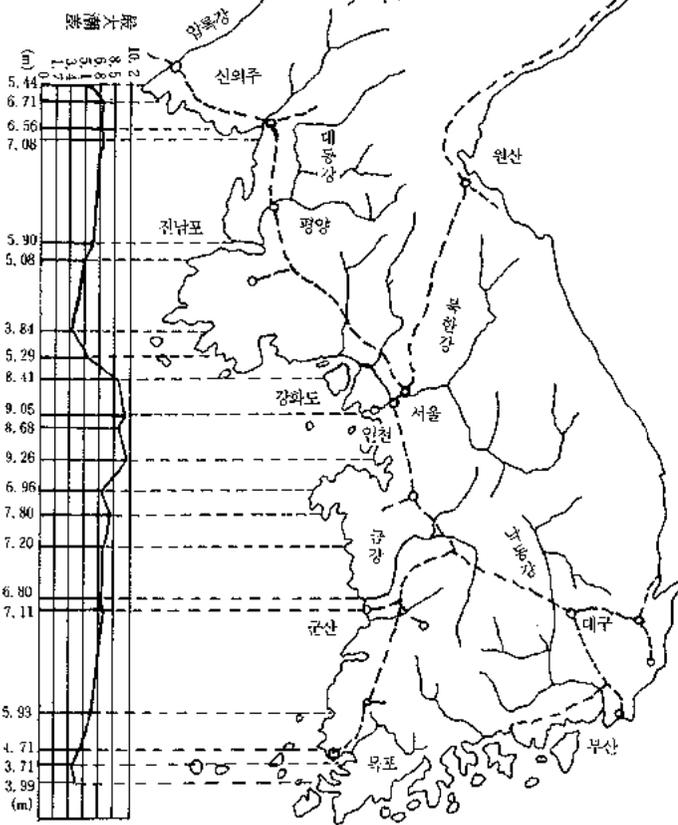
3. 代替 에너지개발(조력발전분야 세미나 86. 11. 11)

대체에너지개발(조력발전분야 86. 11. 12) 회회사에서 李祥義 국회의원은 2천년대 이후 대체에너지의 자급가능한 조력발전개발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전문가와 협조하여 2천년대초까지는 대체에너지가 자급되도록 민정당이 주축하는 세미나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동회에서 張聖萬 국회의원은 최근에 반도체기술, 유전공학기술, 정밀화학기술, 토건기술 등에서 혁신을 거듭하여 자연상태에서 버려지고 있는 조력에너지 분야 개발에서 직접 타당성, 경제성을 짚어본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보임이라고 격려하였다. 이어 崔昇裕 농자부장관은 85년의 에너지수급은 총수요의 76.4%가 석유, 석탄등이 주가 된 수입에너지이며 나머지 23.6%는 수력, 무연탄으로 구성된 국산에너지이던 것이 석유대체에너지 시책을 펴온 바, 석유대체에너지 비중은 LPG 등

에너지 다양화 추진으로 78년 36.5%에서 81년의 41.6%, 85년 50.9%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70년대부터 서해안 10개 지점에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다고 하였다. 공학박사 池哲根 교수는 조력발전의 타당성 전반적 상황에 걸쳐 전세계의 에너지 賦存量은 향후 5십년내지 2백년 안팎이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제 1차 계획이 1957년도에 舊朝鮮電業에서 서해안 10개소를 총발전용량 1천5백MW의 조력발전 지점을 선정하였고 제 2차 계획은 한국전력에서 간척사업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제 3차는 1979년도에 인천만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총발전용량을 7천5십MW로 추정하여 1차~3차 계획에서 발전량이 부러 약 5배가 신장하였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각국에서는 조력발전분야에서 눈부신 대용량으로 발전을 보이고 있는바, 중국의 총11만MW, 영국의 총 7만MW로서 2천년대 영국은 총에너지의 20%를 조력발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하는 바, 오늘날 조력발전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堰堤(Dam)의 조립식구조 공법의 개발로 건축비도 대폭 절감되는 등 조력발전은 더욱 더 유리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자립은 더 나아가서 경제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인, 공학박사 上之蘭博씨는 기술협력과 조력발전소비책에 관하여 현재의 전력수송 방식은 대부분 교류송전방식이며, 송전전압의 승압방식으로 대전류화에 대처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직류송전방식에 따라 계통안정도의 문제가 없이 장거리 送電線路가 소형이 되어 건설비가 저렴하고로, 수백만kw의 전력을 7십5~8십만볼트의 송전선이 實運轉에 들어가고 있으며, 수백km의 장거리송전을 위하여 1백만볼트 이상의 송전선의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하며, 직류송전방식은 가공송전보다 케이블송전에 큰 위력을 발휘하는 고로, 만약 일본에 전력을 수출한다면, 해저케이블, 변전소가 필요없이 송전되며 비락, 민지등의 오손, 비락,

강풍등에의 한 사고를 방지하며, 근래 해저송전으로 인하여 大電力 장거리 송전기술이 발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일본의 기술자가 한국에서 협력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공학박사 幸常吉 에너지경제연구실장은 2천년대의 한국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1차에너지源別 소비실적은 국내가 1975년의 2천7백64만4천톤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1985년에는 5천6백68만9천톤에 달하고 1985년을 기준으로 2001년까지의 전망을 해 보면 국내 1차에너지 연평균 약 4.1% 최종에너지는 3.4%씩의 증가가 예상되며, 석유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41.1%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89.9%에 이를 전망이며, 한편 GNP에 대한 원단위는 연 2.2%씩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인 副技師長 佐藤讓之良씨는 2천년대 조력발전의 경제성 전망에 대하여 불만서 랑스(Rance)는 1만kw 可逆式 펌프수차 24대를 설치하고 캐나다 아너폴리스(Annapolis)는 1만9천9백kw 스토라후로-水車 1대를 설치 현재 운전중인 세계 최대용량기는 미국 록 아이슬란드(Rock Island) 발전소의 5만3천kw이며 일본에서 제작중인 見見發電所用 펌프수차 발전기 6만5천8백kw는 1989년에 운전 개시하면 세계최대용량기가 된다고 하며, 耐海水 재료와 防蝕에 대하여는 기존조력발전소기,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용 해수냉각펌프 등에 기본기술은 확보되었고, 그러나 경제성, 신뢰성을 높이는 신기술의 개발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일본에서는 해수양수발전의 계문체에 대하여 1976년부터 기초조사에 이어 현재 모형펌프수차의 검증시험을 실시중이며, 해수양수용 펌프수차의 각종 防蝕法의 검증이 행하고 있고 계속 바이퍼트 프랜트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하며, 해수이용발전 신기술의 전망은 경제성, 신뢰성 향상때문에 사용재료의 개선과 신소재의 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하여 李祥義

潮位분포도



국회의원은 1986년 현재 우리나라는 6조억원 상당의 화석에너지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석에너지의 과다이용으로 우리나라 하늘과 자연은 공해로 깊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으며 공해제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2천년대에 총에너지의 10%를 風力으로 대체할 계획이고 영국은 역시 2천년대에는 7천만kw 용량의 潮力發電所를 건설 영국 총에너지의 20%를 대체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에너지는 유전공학기술과 관련이 깊고, 태양에너지는 신소재 및 반도체기술과 밀접한 관계이며 조력, 화수력, 풍력등은 대규모 종합플랜트 기술과 연결된다.

대체에너지촉진법은 크게 기본정책수립차원, 기술개발차원 등에서 재정지원, 심의회설치, 개발기금조성, 개발원설립 등이 고려되며, 정부의 개발의지 및 민간유도를 위한 장기적 정책면에서 관련단체전문가 모두가 합심협력하여 21세기는 에너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李鮮義 국회의원은 협력해 줄 것을 역설했다.

駐韓英國大使館書記官 할란 (J. H. Hallan) 씨 주재발표 내용에서 최근 영국 서번 (Severn) 조력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조력발전분야세미나 1986. 11. 12) 에 영국대사관서기관 할란 (J. H. Hallan) 씨에 의하여 발표된 비에 의하면 영국은 Severn에 최근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 약 4천5백6십MW 규모의 건설계획이 수립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영국은 이 조력발전소계획이 완성되면 원자력발전소 1개소에 해당하는 이상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건설예정지는 잉글랜드 서남부의 「그로스다」에서 「라스털」만에 연결되는 서번 (Severn) 河口에 이르는 연장 약50km에 L-7.1km와 연장 약100km에 L-16.3km의 연체 (Dam) 을 축조하고, 그 중앙에 192개의 터빈발전기와 양단에 수문 186개를 설치한다고 한다. 발전계획은 滿潮時 수문에서 조수를 上端潮池에 통과하며, 간조시 조수의 세력으로 터빈발전기를 회전하며, 조수가 약할때는 펌프로 조지에 양수하여 안정된

세계각국의 潮力發電容量表 (Location of Selected Potential Tidal Power Sites)

Location and/or Name	Country	Estimated Potential Capacity (MW)	Estimated Average Ann. Output (Gwh)	Approx. Mean Tidal Range (m)
1. La Rance (St. Malo)	France	240	500	8.5
2. Kislaya Guba (Murmansk)	USSR	800	**	3.9
3. Cook Inlet Knik Arm Turnagain Arm	USA		6,000 12,500	11.5 11.5
4. Passamaquoddy Cobscook	USA/Canada USA	300* 250	1,843 **	5.5 8.5
5. Minas Basin (B9)	Canada	4,028	12,653	12.3
6. Cumberland Basin (A8)	Canada	1,147	3,423	9.9
7. Shepody Bay (A6)	Canada	1,643	4,533	9.6
8. Severn Estuary	U. K.	4,560 (7,000)*	9,350 (13,600)	8.5
9. Solway Firth	U. K.	**	1,400	5.6
10. Morecambe Bay	U. K.	**	1,520	6.0
11. Iles Chausey (Cotentin Penin.)	France	15,000 6,000	50,000 34,000	8.0 8.1
12. San Jose (Valdez Penin.)	Argentina	6,800	75,000	6.0
13. Gulf of Mezen	USSR	157,000	450,000	6.5
14. Penzhinskaya Guba	USSR	100,000	300,000	6.9
15. Secure Bay	Australia	570	1,650	7.0
16. Walcott Inlet	Australia	1,250	3,950	12.0
17. Asan Bay	S. Korea	450	1,345	6.1
18. Incheon Bay	S. Korea	330	900	5.7
19. Gulf of Kutch	India	600	1,610	5.0
20. Gulf of Cambay	India	5,500	11,500	7.0

* Double-basin scheme

** Data not available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서번 (Severn) 발전소 출력용량은 약4천5백6십MW에 달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공되면 전영국의 발전량의 약 6%에 달한다고 하며, 진행되는 현장 실시조사와 기술개발등에만 소요되는 약5백5십만파운드 (한화 약60억원) 이상의 정부원조 자금으로 실시한다고 Severn 潮力그룹 (S. T. P. G) 사들은 말하고 있으며 발전원가: 38.72원/kWh 당으로서 원자력발전원가와 비등하다고 하는 것이며 이 서번 (Severn) 발전소는 2천년까지 가동발전할 계획이라 한다.

4. 現 發電設備實態 (1985년말 기준 16,137,000kw) (화력70%)

(1) 電源別發電容量

- ① 수 력: 2,202,00kw
- ② 화 력: 11,049,000kw (유류66%, 석탄34%)

③ 원자력: 2,866,000kw

(2) 電源別建設單價 (단위: \$/kw)

- ① 수 력: 1,200~3,400
- ② 화 력: 900~1,400
- ③ 원자력: 1,700~2,200

(4) 조 력: 1,200~1,500 (예상)

(3) 電源別發電單價 (단위: 원/kWh)

- ① 수 력: 35.60
- ② 화 력: 69.11
- ③ 원자력: 41.07
- ④ 조 력: 35.60 (예상)

(4) 外貨節約 (연간)

100만kw 기준 (화력) 3억6천만달러
화력발전으로 인한 연소요외화 26억달러 내외

(5) 期待되는 效果

- ① 무공해 양질의 전력을 주변국가에 수출, 서해안시대 막을 연다.
- ② 의화절약과 외채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한다.
- ③ 관련기업을 활성화시킨다. (발전설비의 국산화로)
- ④ 유희인력, 장비의 활용으로 고용증대를 기한다.

- ⑤ 해안도 嶼 산업의 개발에 기여한다.
- ⑥ 해양경비, 국방경비에도 일조가 되어 안보적 차원에도 기여한다.

5. 結 論

대체에너지 개발은 인간의 공통적인 숙명의 과제로서 조력발전은 灣 또는 河 口의 海水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해와 달의 인력으로 조석간만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며, 수력발전은 지표면의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을 발전소 (Dam 겸용) 에 가두워 그 유속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유사하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효과면에서 다르다 하겠다.

潮力은 매일 달의 주기적인 운동과 관련하여 12시간 25분 간격으로 하루 2회씩 조석간만의 차를 형성하는고로 그 세력으로 터빈발전기를 회전하며, 조수가 약할때는 「펌프」로 潮池에 해수를 양수하여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은 30%이하의 하향운전이 어려우나 조력 또는 수력은 15%까지 하향운전이 가능하며, 조력에서 양수발전은 자체양수 및 타발전소와 연계 운전하는 것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73년, 78년의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을 체험하였으며 제 3 에너지 파동이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는 밀어닥친다는 예상이 세계적인 추세인바, 연간 약26억불이라는 발전에너지 연료 (석탄, 석유등) 를 수입한다고 하는바, 이것은 추산 약 250만kw의 조력발전소건설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조력발전의 개발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타당성, 경제성등의 문제로 조력발전의 건설에 신용도가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발전소 (Dam 겸용) 조립식 (P. C) 구조공법 개발과 발전설비의 국산화를 이룩하여 적어도 발전소 건설에 40% 이상 원가절감과 공기에서 50% 이상 단축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부의 입법조치와 국고보조등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妥當性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하여 조력발전소 건설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것이며, 경제성에 대하여는 전력을 생산수출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건설차관에 대한 외채를 갚으며 상환하는데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발전량의 전력이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되고 있는고로 이것은 다시말하면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하는 바, 점차 전력생산을 개량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나아가서 기존외채 상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결론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조력발전건설 공사비를 약40% 절감하며, 공기를 약50% 단축하게 됨으로써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조력발전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며, 간척지 이용등 7개부문 개발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다가오는 2천년대에 산업혁명과 생활혁명을 동시에 달성하게 될 것을 지상의 명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래 인접국 일본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해수를 근해의 산정에 펌프로 양수 인공 저수지 堰堤 (Dam) 를 축조하여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에 따라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는 차제에 晩時之嘆 이나마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민정당추최로 대체에너지 개발 조력발전분야세미나 (1986. 11. 12) 를 개최하여 (학계, 건설계, 기술계등 저명인사 500여명이 참석) 지대한 관심속에 성대히 마쳤다. 작년 국회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체에너지분야의 조력발전 건설공사 원가면에서 가장 관건은 경제적으로 타당성 여부인 바, 다년간 연구를 진행중 금반 發電所建築 (Dam 겸용) 組立式 (P. C) 工法을 연구발표하는 바 조력발전을 약속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연구단계에서 미약하나마 논술하며 각계의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는 바 자못 큰 것이다.

民主化와 自律化에 對한 視覺

崔昌奎 / 건축사사무소 신진

by Choi, Chang-Kyu

학생시절부터 자주 만났고 건축에 대해서, 건축계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만들어 활동하는 씨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던 젊은이 두사람이 - 이제는 30대 후반으로 참신한 작품을 발표하고 의욕적으로 건축에 열중하고 있는, 장차 나라의 건축계에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믿어지는 청년들이 - 참으로 오래간만에 찾아왔다. 늙은이 어른이 된 그들을 만나고 몹시 반가웠다. 그들은 유인물과 "청년건축"이라는 책 1호와 2호를 가지고 왔다. 바람소리에 들은 바 있는 근자 창립된 "청년건축인협의회"의 창립멤버이자 시도자인 청년들이었다.

요즘 사회의 돌아가는 이야기며 건축계의 이야기, 기타 올림픽이야기들을 나누고 헤어졌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찡하는 것을 느꼈고 저들이 장차 우리 건축계의 주체가 될 청년들이구나 하는 늙음함과 믿음직스러움을 느꼈다.

그런 기본 속에서 놓고간 책의 1호를 펼쳐 보았다. 35항에 "건설기술관리법안을 반대한다"라는 제목하에 현건축사협회 서울지부장인 俞崇哲씨의 글이 실려 있었다. 놀라움과 흥분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다. 백만 천만 지당한 글이요 문맥의 내용도 정연했다. 현직 지부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되며 전적으로 그글에 공감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이라면 더욱 격한 언어를 구사했을지도 모를 문맥의 내용을 유경철씨는 정연하게 유연한 문장력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 나름의 격한 심중의 마음을 억누르고 애써 부드럽게 쓴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 그런데 문장의 첫머리에 "건축사지 87년 10월호에서 전제"했다고 되어 있었다. 나는 곧 건축사지 87년 10월호를 서가에서 꺼내어 원문을 다시 읽어 보았다. "청년건축"의 글과 똑같은 글의 내용이었다. 나는 속으로

유경철 지부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요즘 세상에 서울지부장이란 자리에 앉아서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란 제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글을 쓰고, 행정부나 공무원들에게 겁을 먹고 사는 이세상에서 감히 자율화의 시각이 아니고 민주화의 시각이라고 한테 더욱

묘미를 느꼈고 문맥 내용은 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를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건설부에 대해 선의의 충고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우리 사회가 전대미문의 대행사인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민주화, 자율화, 자치화를 목아프게 외치고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때 어떤 部位에서 발안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계류되어 있는지를 우린 세가망게 모르고 있었다.

언젠가 정부는 입법에고제니 하는 따위의 말을 해온 적이 있었다. 그런 약속을 지키려면 그 분야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전문단체에 예고해 와야 할 것이다. 만일 예고해 왔다면, 건축사협회 본회는 이런 문제를 전회원에게서 의견이라도 들어 본격적이 있는가? 또는 어떤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나 해보았는가도 몹시 궁금한 바다. 건축사들의 유일한 정보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지에 기재한 적도 있는가? 이것은 건축사협회 본회의 무능력이었는가, 의도적인 처사였는가, 상부(건설부나 여타의 관에서)의 압력에서 었던가? 알길은 없어도 여하간 俞지부장의 글이 士誌에 掲載되므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靑建協誌까지도 轉載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건협! 우린 이 보임을 우습게 파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젊은 패기로 당당하게 행동하고 발언하고 있다. 발족한지 얼마되지 않은 그들이지만, 건축사협회가 겁을 먹었던 어떤 묵약이나 건설부와 정보교류가 있었던, (이런 때는 반드시 사협 내의 모든 정보가 협의도 하기 전에 새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하고 발언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젊은이들은 과감히 할 말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보자. 7년이상 무사고 근무한 건축공무원에게 건축사국가고시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 나왔을 때 사협은 무엇을 했는가. 당시 약간의 응성거림은 있었어도 뚜렷이 표면에 나타나서 항의했던가? 필자의 기억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변치 못한 글로 士誌에 그 부당성을 피력한 바가 있었다. 일간신문에 아주 적은 기사로 나온

기억은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함부로 말도 못하는, 소위 겁을 집어 먹고 살고 있을 때이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린 지금 13대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아 국회를 정성화시켰고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아서 떳떳한 정통성을 부여했고, 우리국회사상 대법원장임명을 비롯한 과거에는 생각도 못할 일을 국회는 해냈고 야대여소라는 국회를 형성시킨 이때 무슨 발언이나 의견을 개진 못할 것이 있겠는가 말이다.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6.29의 확고한 공약을 했고 헌법에도 민주화, 자율화, 자치화가 명시되어 있는 이 판국에 한낱 건설기술관리법이란, 행정의 편리나 부수적으로 파생할 제반소지를 가진 이 법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서울지부장이 의견을 개진하고 전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런 석상에 전문분야인 건축계인사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음으로 양으로 계기가 되어 본부로부터 징계인지 처벌인지를 받았다는 회원에게 보내는 통자서를 받은 바 있다. (내용은 일체 언급치 않고) 본부가 지부장을 징계했다는 것을 보고 어안이 병병했고 건축사협회란 건설부의 Field Office 인자? 징계를 안하면 건설부가 사협회장을 징계하겠다는 공갈이나 압력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개명천지에서 같은 협회내에서 그것도 서울지부장을 분협회가 징계할 수 있는지, 건설부가 승인한 정관에 그런 항목도 있었는지 몹시도 궁금한 바다.

공무원 천국인 우리 사회에서(전국 역사 이래, 아니단군 이래) 가장 비대해진 절대성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정력의 역할은 놀라울 만한 것이다. 왕조시대는 국민이 아니고 제왕의 사유재산에 불과했던 국민 아닌 백성이었지만 현재는 생존권, 인권, 후보권, 발언권 등을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의 국민이고, 민위가 그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때 어디선가 발안, 기안되고 국회까지 가 있는 우리들의 전문분야에 관계되는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제안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민주화로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공무원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의 병졸이나 시녀로 알고 있는 것이 자율화로 가는 길이라면, 말단공무원의 감정이 거스리면 어떤 명목이나 명분을 달아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인권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자치화로 가는 길이라면, 우린 그런 민주화, 자율화, 자치화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前記한 육사 출신의 행정관서에서의 배치나 건축사국가고시에 (명색이 국가고시인데) 공무원에게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으며, 국고의 막대한 투자를 해서 4년간 가장 우수한 청년들을 선택해 고등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시켜낸, 소위 국가를 수호한다는 전문인력을 행정부서에 배당했을 때도 사회 일각에선 우울한 기운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느 신문이나 기타 언론이나 단체가 강력히 항변한 적은 없었다.

왜일까? 그것은 힘의 역학에서 표출되는 심리적인 작용이랄까, 쉽게 말해서 겁에 질려서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청견협은 건축공무원 건축사특혜에 대해 강력한 해명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1자某報) 그 해명의 내용은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 제1차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률이 일반응시자는 15%이고 공무원특별전형은 73%라는 점의 해명과 아울러 일반과 공무원 응시자의 출제내용도 다르다는 점, 특히 공무원에게는 몇가지 응시과목을 면제해준 이유를 들고 있다. 당국은 이들의 공개질의에 대해 복살할 것인가. 또는 어떤 책임적인 입장의 고급공무원이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써 또는 국가적인 정책적 입장을 내세워서 답변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겠지만 여기까지 청견협은 겨우 118명의 회원을 가지고도 당당히 자기들의 할 말을 하고 있는데 3천명에 가까운 회원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협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한 바이다. 더우기 청견협은 마지막에 건축삼단체에게 건축사국가고시를 주관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벌써 몇몇날부터 바라는 문제이고 필자도 언제인가 호주의 N.C.D.C 의 예를 들어

건축국가고시를 건축삼단체에 이관시켜야한다는 견해를 건축사지에 몇번인가 발표한 기억이 있다. 필자는 청견협의 젊은이들에게 장구한 시간과 앓을 보고 건축계를 위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며 절대 남을 비판이나 나무라지 말고 우리자신들이 정성과 성의를 다하면 안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금반 건축사국가고시의 공무원 특혜문제로 건축계의 사정이나 국가고시의 권위나 존엄성을 잘 알고 있을 시험위원들의 (대부분이 아마도 대학교수로 구성되는 것이 상례였다) 명단을 확실히 기록해 두라고 했다. 그것은 국가고시란 입학시험이나 채용시험이 아닌 명실공히 국가고시이니 전원이 합격할 수도, 낙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부의 변명이 공무원의 노후를 생각해서라든지 박봉의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준다느니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건축직 아닌 여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은 어찌 될 것이며 7년정도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관은 더욱 원숙하게 일을 할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퇴직해 설계사무실이나 자영하자고 한다면 전분직 확보라는 점에서도 불편을 느낄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직공무원들이 버리나 부조리가 우위되는 이마당에 어쩔려고 그런 특혜를 주어서 공무원왕국을 만들 작정인가. 또 사전에 커트라인이 대략적으로나마 그어진다든 너무 많이 합격시키면 건축사사무소가 많아진다니 하지만 건축사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사무실을 자영하든 말든 그것은 건설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또 건설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건축사의 수와 일년간의 설계량 같은, 즉 건축사인력수급계획이 있거든 발표해야만 할 것이다. 면허를 취득했으니 반드시 사무실을 자영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건설부소관 건축사법에 위배되는 대형건축물들이나 공공건물들을 외국에다 발주하는 회사나 단체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왜 단속을 못하는가? 형식적으로 기본설계나 계획설계를 외국인에게서 해다가 한국건축사의 명의로 허가나 감리하는 것이 상식화되고 있는 이때 한국건축사를 못믿었다면 한국의 교육제도나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축공무원에게 몇 과목 면제에다 고합격률로 특혜를 준다면 상기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회문제화 밖에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더우기 전문분야에 관한 문제들을 비전문분야의 관리행정직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모순의 시정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사협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궁금한 바다. 곧 다가올 올림픽 후의 지방자치제의 실행에 따른 사협으로서의 대책이 준비나 연구가 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전회원에게 대략적이거나 알려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문득 생각만 해도 지자체가 실시되면 각시도지부는 각시도건축사협회가 될 것이고, 본부는 연합체의 본부 역할 밖에 할 일이 없는데 그때 이때까지 통합재산이나 복지회, 신협, 회관에 관한 권리문제등 컴퓨터도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틀림없을텐데 이때 건설부는 어떤 전가의 보도로 명쾌하게 해결책을 명시해 줄 것인가? 이때까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관여해 왔고 지시해 온 건설부는 이런 때에 한번 실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여하간 건축사국가고시의 시작에서부터 급일에 이르기까지의 시험문제에서 출제나 시험관, 당시의 건설부의 당사해당관의 이름에서 매년의 응시도와 합격률을 빠짐없이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면후일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연구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건축사지는 각부처나 기관에도 발송된다. 지난 88년 7월호에 “정치와 행정의 차이”이란 제목으로 건축공무원에 대한 일말의 불만을 피력한 바있고 8월호에 그글의 후반부가 게재된 바 있지만 건축사협회장, 부회장 앞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고 쓴 글이 편찬위원회에서 완곡한 비트를 당한 적이 있었다. 표현의 과격이 건설부의 반발을 부를 우려가 있고, 한회원의 견해만 가지고 설득력이

없으니 그러한 내용의 글을 여러분이 써서 합쳐서 기재를 하면 많은 건축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효과적이었던다는 것이고 운운의 설명 같지도 않은 설명을 하고 편찬위원들이 걱정하는 과격한 문장을 부드럽게 고쳐서 기재하겠다는 이야기고 보면, 그 내용이 거짓말이었거나 잘못된 의견이라면 마땅히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솔직한 말로 해서 7월호가 나온 후 필자에게 3,4명의 회원에게서 공감한다는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이름을 밝힐 수도 있다) 건축사협회 편찬위원들의 명단을 살펴 보았더니 모두가 참신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건축사계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 사회는 민주화로 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수준의 인사들마저 겁을 먹고 사는지? 관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피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건축사들이 무슨 나쁜 일이나 도둑질이라도 했던 말인가? 양같이 순하게 묵묵히 설계나 감리를 (실무보다 행정이 더 까다롭다) 하고 있는데, 이 순한 양을 자극하고 건드리니까 꿈틀거리는 것이다. 고급공무원들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건설분야의) 퇴직해서 과거의 직장과 잘 통해서, 얼마이상의 정부공사의 감리를 하겠다는니 무슨법을 만들어서, 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자리에 가 월급이나 타먹고 여생을 보내자는 수작인지 사사건건에 나타나고 걸치장거리는 것이고 요즈음의 유행으로 로비활동을 잘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 대형건설업자들이 Turn-Key Base 란 법인지 규정인지를 만들었다가 몇개월도 못가서 흐지부지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내용도 모르고 건축사협회는 반발을 했다. 얼핏 보기엔 설계는 건축사법에 건축사만이 한다고 해놓고 건설회사가 설계까지 해가지고 입찰한다는 것이 소위 Trun-Key Base 인데, 건축사협회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반발했으나 막대한 투자로 로비를 한 그들의 뜻대로 실천에 옮겨져서 몇건인가 해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해서 한 업체가 낙찰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낙찰도 못하고도 설계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절대이윤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인 그들에겐 설계부서를 창설할 시간과 건축사를 고용할 시간 같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기존 설계사무소와 손잡고 계획설계비를 주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입찰을 했더니 낙찰은 안되고 설계비만 지불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다시 로비를 해서 그 Turn-Key Base 란 법인지 규정인지가 유야무야로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때 건축사협회 일각에서 피해의식에서 반발회의가 있었을 때 필자는 반대하지 말고 권장하자라고 했다. 이것은 건축사들에겐 건축사법이 현존하는 한에 있어서는 행운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건의 공사를 여러 건설회사가 모두 설계해서 입찰을 하려면 1건의 동일한 공사를 몇곳의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되니 일을 얻기가 쉬워진다는 것이고, 그것도 본설계도 아닌 계획설계라 할지라도 설계비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운이 좋게 그 회사가 낙찰되면 본설계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설회사와 손잡고 감리도 하며 협조해 줄 수도 있다면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란 말이 성립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그 어리석지않은 건설업체들은 풍부한 자금으로 로비를 하든, 법을 추진시키는 폐기시키는 마음대로 자유자재인데 비해 우리 건축사들은 영세성에서 탈피 못하고 있는 바에야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 그들은 법 제정이나 규정의 제정을 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건축사) 왜 우리에게 관계되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어디서 발안, 기안되고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까지 가서 계류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시나 각구청 건축과에서 날아오는 공문이나 건축사협회나 지부 등에서 오는 연락이나 보고(경과서 등)의 문서를 통해서 그 내용은 고사하고 표면적인 사건의 상황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들은 아니다. 멀리는 건축사협회 창립당시의 일이다. 많은 건축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정관이 하룻밤 사이에 180° 바뀌어져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났던 일로부터, 각지부가 독립체산으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절약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의 자의가 아닌 건설부의 강압적인 타외로 통합예산제를 만든 일로부터, 총회에서 건설부의 의견대로 결의가 안되면 정관을 승인 못해준다고 총회장에 손님으로 나온 건설부 고관의 안하무인의 언행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삼인연서제다, 단독이니 합동이다, 법인지다, 아니 사무실의 명칭까지도 규격적인 제한을 했다든지 공문으로나 협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區內 건축사를 특하면 집합하라는 등…… 무슨 친목회나 평의회나 연락소등 무수한 대소의 簡略기구등도 마치 건축사 자신들이 자진해서 구성한 것 같지만 퇴직한 공무원회원들이나 여러가지 선의의 방법으로해서 구성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는 위법건축사의 수를 신문에 발표해서 공무원들의 근면성을 과시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내 1천5백에 가까운 건축사중 위법건축사가 6천명이 넘는다는 신문보도에 시민은 경악한 적이 있다. 잘 이해가 안가겠지만 삼인연서제이므로 1건의 위법이 있으면 연서한 3인이 다 연계된다. 그것은 1건의 위법에 (이 위법중에는 mm를 다루는 건축도면이나 현장에서의 공무원의 일방적 판단이 위법건수가 된 것도 있다) 연서한 3인이 다 위법건축사가 되어 시민들은 건축사란 위법하는 자들의 단체인 "노가다"들이며 집장사들이고 시가꾼들이라는 인상을 가지게까지 했다. 생각해 보라. 한협회의 회원 반이상이 위법자라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연서제의 발상도 발상이려니와 동일한 업을 하는, 또는 친구지간에 일일이 노비를 체크하고 연서를 해 줄 것인가, 그의 사무실에 수서로 가서 도면을 감시하고 연서를 해 줄 것인가?

몹시도 망서려지지만 그런 발상을 해서
위법건수를 조사해 3배로 하여 공무원의
성실성인가 감시능력을 파기한 공무원은
반드시 승진했을 것이다. 이것은
군대문화적인 연대기합이라는 데서 나온
발상이 아니겠는가. 일개소대중 한사람의
병사가 사고를 내면 그 소대전원이 처벌을
받는 전대미문의 원시적 방법이요, 인권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일로 만일 승진을 노린다면 우린
그런것을 관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린 지금 정치가도, 가칭 지도자도,
공무원도, 건축사도 오늘의 사회에 살고
있고 오늘의 당사자요, 목격자요,
당사자이자 피해자들인 것이다. 두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자라면 다 알고 있다.
근자의 신문에, 우리가 일부러 지칭하지도
않고 자체감사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건축공무원의 비리나 위법사건은 여러신문에
기사화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그들에게
(공무원) 어떤 감회를 줄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콧방귀나 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비웃고 복수를 생각하고 있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은 웬일일까?
공무원과 국민과의 사이의 상호불신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자꾸만 건축공무원만 물고 늘어진다고
할런지 몰라도 이것은 별도리가 없다.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분야일 뿐더러
타분야의 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흥미도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불평이 타분야에서는 그러한 비리나
부조리가 있다 없다 이전에 우리의 건축이란
자체의 特性, 俗性, 屬性, 多樣性,
非絶對 등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우수한 건축이라든가
아름다운 건축이란 기준조차도 없다는
점이겠고 아무리 건축을 전공한 공무원이니
건축사라 할지라도 감각이나 느낌, 선호가
다 다르다는 점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건축에 관한 법이나 규정, 조례, 시행령,
세칙, 더 나아가서는 그런 조문의 해석이
관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에 그들의
해석이 옳던 그르던 그 해석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도 자존심이나
열등외식 같은 것과 질투 같은 것등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인 의미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가 성인도 군자도 아니다. 오직
민주화를 하자, 자율화를 하자, 자치화를
하자라는 막연한 합의가 사회상식이나
생활윤리와 결부되어서 사회분위기의 모양이
되고, 상호대립적이 (내면적으로는) 된 것이
아닌가라고 자성도 해본다. 또 건축과 끊을
수 없는 도시행정이나 교통행정,
환경행정면을 가끔 엿보아도 알 수가 있다.
확실히 정치가나 행정관리가, 집장사,
투기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축을
무엇으로 이해하는지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수일전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제2무임소장관실에서 예종의 간부급인사들을
초청해서 올림픽시설과 공원등을
견학시켜주고 점심까지 제공해 주었다.
필자는 여기서 느낀 바가 많다. 상상외로
정돈이 잘된 각종 시설이나 자연환경등 역대
어느나라 올림픽시설에 비교해도 훌륭하면
훌륭했지 손색이 없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우연하게 15개국, 이미 치루어졌던
올림픽경기장과 시설을 견학한 바 있지만
우리만큼 완벽하게 조화된 시설을 한 나라를
보지 못했다)
그날은 모처럼 비가 와서 견학단은 버스
안에서 돌면서 안내자의 상세한, 훈련된
설명을 들으며 사방을 견학했다. 흐트하고
만족했다.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 했을까? 외국의
조그마한 조각 하나도 어느나라 조각가
누구나 제작한 것이다라고 반드시 작가의
이름을 설명하면서도 큰 시설, 적은 시설을
막막하고 우리나라 작가의 (건축, 조각,
장식, 조경 등에 대해서) 이름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화가났다. 곧
장관에게 달려가서 내국인에게 설명하더라도
우리 작가, 특히 규모가 큰수영장 같은 것의
건축가명을 왜 설명 안하는가,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더니
조장관은 머리를 끄덕이며 "아빨사 그것을
깜박 잊었구만, 각 안내서나 안내자에게
연락해 즉시 하도록 합시다"라고 옆에 있던

박세직조직위원장과 이야기를 하며 서로가
그리 하자고 했다. 이것은 다행한 일이다.
아마도 모든 안내인들은 건축가도 포함해서
모든 작가의 이름을 안내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장관급 인사들도 건축의 이해나
조형물에 대한 이해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비전문분야이니까) 하물며
일반대중이야 말할 나위도 없을 뿐더러
신문기자나 잡지사 기자들에게도 선의로서
조형물이나 예술작품, 기념건축물을
기사화할 때는 반드시 작가의 이름을 빼놓지
말라고 전하고 싶은 것이다.
아울러 어떤 공공건물이든 조형기념물이
낙성될 때 그 식전에 건축가의 초청이나
좌석이 건설업자와 비교해 어떠한가는
물을 필요조차 없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이런 경우 가장 상식에 건축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건설업자에겐
감사장이다 금일봉이다, 기념패가 주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이들은 돈을 가장 많이
만진 사람들이니까) 또는 공공건물인 경우엔
관계공무원에게 포상이 있었다. 건축가에겐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가끔 있기는
있었다. 필자의 경우도 前空士敎會 전전문
옆에 설계자인 필자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고, 전주 예술회관에도 동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이런 것만 보아도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라
할까 접근이 소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실 올림픽시설이나 공원의 조형물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체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일은 선진제국 민주화가
정착되기까지가 수백년씩이나 걸렸고,
그간에 우리가 모르는 험로가 많았을
것이라는 것도 심분 이해가 되기에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민주화도, 자율화도,
자치화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민주란 宇意 그대로만 생각해도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중의 당연한 일로써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자각과 협조 없이는 요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천직인 건축

자체가 관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건축 자체의 내용이 다양, 복잡하기에 풀을래야 풀을 수 없는 건축공무원을 들먹이는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이 “이 시대 우리 건축사들의 독백”이다. 왜 독백인가? 아직 고향이니 포효나 항변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말하지만 건축이란 그 시대상황 속에서 생성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다고 할진데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생활인이고 목적자인 우리는 사회상황을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상황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데 여기에 자꾸만 거치장거리는 것이 관료주의란 것임을 알았고, 이 암적인 의식구조를 어떻게 해서 제거하느냐 하는 마당에 공무원의 천국인양 공무원에게만 특혜 같은 것을 주고, 그 언행들이 오만하고 유행어처럼 쓰여지는, 군림하는 태도에 격분하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법의 존엄성이나 권위성을 상실한다면 무법천지나 무정부 상태로 밖에 될 수 없지 않았는가. 그리 멀지 않은 얼마전의 필리핀의 사태를 우린 상세히 알고 있다. 이 며칠 전의 버마사태를 우린 주의깊게 주시했고, 그 결과를 목격했다. 민의를 수렴한다고만 하던 정치나 정치인, 자칭 지도자들은 얼마나 민의를 수렴했는가? 바로 눈앞에 올림픽이란 대사를 놓고 너나 할 것 없이 진실과 성실을 이방인에게 보여주어야지 허세나 줄속, 과장을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천재도 당장에 타협이나 타격을 할 수도 있는 일까지도 이 더위와 더불어 올림픽이 지난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을..... 올림픽으로 인해 건축경기가 물가가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올림픽, 올림픽 하고 아무리 떠들고 흥분해도 16일간의 축제이고, 외국인은 16일이 지나면 다 가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7년간을 이 16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지와 정열과 노력을 주입해 왔던가. 때문에 기필코 소기의 효과와 성공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요즘 이상한 생각이 가끔난다. 올림픽에 금메달에 대한 집착이 우리만한 나라가 있는가하는 생각이다. 미,소는 정치적 양대진영의 대표격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일본등은 생각보다 금메달에 집착을 안하는 것 같은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아마도 여유요 자신감인 것만 같다. 인류축제답게 즐겁게 축제를 하고 메달을 따면 따고 못따면 어쩌냐는 여유인 것만 같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탕의 정신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대표선수 선출의 잡음이 있다거나 맹훈련중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다든가는 좀 생각해 볼만한 일인 줄 안다. 하기가 우린 언젠가 남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젊은 병사들을 월남땅에서 피를 흘리게하고 그 댓가로 무엇을 얻어 왔는지도 모르겠다. 젊은이의

◆ **崔昌奎**
필자는 1917년 황정남도에서 출생, 농경
총아고등학교 졸업 후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1972년에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신진을 자영하고 있다.

피를 팔아 달러를 벌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허다 했지만 말이다) 이제 젊은 선수의 부상과 불구에 대한 사후책은 무엇인지 알고만 싶다. 성공했을 때 몇몇 특정인의 공로로 돌린다고 오직 정부 주도하에 서려면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다. 혼자 증언거리는 독백이기에 멋대로 마음대로 써보는 것이다. 아직도 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적해 있다. 입추가 지나간 것도 며칠전이다. 오늘이 말복이다. 제아무리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야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한나절 낮은 산에 오르니 바람 한점 없고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 시공이 정지되고 침묵과 고요 뿐이다. 마치 진공상태이다. 갑자기 나뭇가지에서 초가을 매미가 금속성으로 울어대어 적막을 깰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고요를 느끼게 한다. 바람 한점 없는 따가운 하늘에 태양이 있는 열을 다 내뿜고 있는 듯하지만 이 고요와 침묵과 정지를 흐트릴 수는 없다. 언제까지 이 고요와 앙금이 다시 움직일 것인가. 건축가이자 시인인 李箱의 권태가 실감나게 느껴지는 나뭇그늘에 앉아서 무심코 이런 독백을 해보는 것이다. 권태는 참기도 어렵지만 감미롭기도 한 것이다.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76-0123~5
FAX 279-1718

理事會 및 支部長會議 개최

本協會는 8월9일과 8월26일, 安箕泰 회장 주재로 제 7 회 理事會와 제 8 회 理事會를 개최하고 協會가 추진중인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또 8월25일에는 제 3 회 支部長會議를 개최하고 추진중인 업무 및 懸案 등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각각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7 회 理事會

일시: 1988. 8. 9(화) 14:00~
장소: 본협회 회의실

*부의사항 의결내용

• 1989년도 예산편성지침(안): 1989회계년도 본부 및 각시도지부 예산편성을 위하여 회계규정 제26조에 의거 제 1 회 예산편성위원회(88. 8. 5)에서 협의 결정된 대로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 부의사항으로 상정한 바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협의사항 의결내용

• 건축관계법령 개정추진방향: 가. 종합추진기구 설치: 법개정관련 종합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하며 명칭 및 구성은 회장에 위임. 나. 공청회 개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추진담당위원회 구성과 예산확보문제 등 추진방법은 회장에 위임.

제 8 회 理事會

일시: 1988. 8. 26(금) 10:00~
장소: 본협회 회의실

*부의사항 의결내용

• 건축설계비 감면여부: 강원도 지부장으로부터 78. 9. 25일자 본협회에서 각시도지부에 지사한 「설계 및 공사감리비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등문서 지사의 효력상실 여부를 질의하였기 본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부의한 바 심의결과 환원하여 감면하지 않기로 결정함.

(경위) 가. 본협회에서 지사 226-612('78. 9. 25) 호로 전달된 문서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설계비 감면 협조지시에 따라 동 소도읍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인하여 설계된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할 경우는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되는 새마을화관(330㎡ 미만)과 중중목욕장(165㎡ 미만)의 예와 같이 동 설계요율은 설계감리 보수요율의 50%를 설계 보수요율로 적용 정부시책에 호응하기로 제19회 이사회('78. 9. 22)에서 결의하여 78. 10. 1부터 시행토록 지시된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어촌 주택개발사업, 취약구조 개선사업, 소도읍 가꾸기 또는 소도읍 정비사업 등 유사한 형태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감면의뢰되므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와 관련된 건으로서 회원업부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함.

(강원도지부 의견) 회원 자의에 의한 경제적 협조는 장기적인 수 있으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경제적 협조는 일시적이어야 하므로 농 문서의 감면 지시는 1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겠으며, 지부자체에서 이에 따른 조치를 행정기관에 취하고 정상적인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별표1(건축물의 설계, 감리 보수요율표)의 하단(주:3)에 새마을 사업으로 부락민이 공동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새마을화관

(330㎡ 미만)과 중중 목욕장(165㎡ 미만)의 설계 및 감리보수요율은 설계·감리 보수요율의 50%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문제의 농·어촌주택개발사업, 취약구조 개선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기준 변경: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댓가의 기준중 노임 단가기준이 개정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88-156호 88. 8. 6)되어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 기준액을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코자 부의한 안건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여부: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용역업체에의 용역의뢰 여부를 결정코자 부의한 바 심의결과 용역을 의뢰키로 하되 용역비는 1989년도 예산에 편성, 사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키로 결의.

• 실적회비 산출기준 현실화: 실적회비 산출기준의 현실화 여부를 결정토록 부의한 안건으로서 심의결과 30%선에서 상향 조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되 그에 따른 조건표를 작성,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협의 결정키로 함.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 대한 개정 건의가 있어 심의결과,

개정된 직접인건비 기준

구 분	직접인건비		학력 및 경력의 기준			비 고
	현행	변경	학 사	전문대졸	공고졸	
건 축 사	64,700	72,500	-			특급기술자
건축사보(고급)	49,500	55,400	10년이상	12년이상	14년이상	고급기술자
건축사보(중급)	36,100	40,400	5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14년미만	중급기술자
건축사보(초급)	24,100	27,000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초급기술자
보 조 원	15,100	17,400	5년미만			중급기능자



▲ 제 8 회 理事會

가. 서울지부 개정건의(안)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나. 경기지부 개정 건의는 회원수와 업무량을 감안한 직제기준을 설정,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 본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

〈참고 : 개정건의내용〉

- 서울지부 개정건의(안): 직위에 따른 직급을 구분코자 하며 그에 따라 직급별 직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 부장은 2급 또는 3급에서 3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 경기지부 개정건의(안): 소속지부 회원의 증가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1과(총무과)로 되어 있는 직제를 1부1과(총무부 총무과)로 확대코자 함.
- 본부개정(안): 건축사 연금담당 직원(여) 1명 증원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단, ACA-3대회 초청어부 : 본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매년 격년제로 회장단을 총회(전국대회)에 상호 초청해 왔으며 금년에는 본협회가 ACA-3 대회에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단 일행을 자비 부담하에 11월8일~10일까지 3일간 초청코자 하는 바 협의결과 초청키로 함.

• ACA-3대회 추진위원 임기: ACA-3대회 추진위원은 지부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임 지부장들의 임기가 ACA-3 대회 개최 직전인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동위원직도 10월말까지만 하고 새로 선임되는 신임 지부장들이 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의 지부장이 계속 ACA-3 대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협의결과 오는 10월 지부총회에서 지부장이 개선될 경우에는 현행규정에 따라 신임지부장이 위원직을 맡도록 하되 구 지부장을 우대하여 명예위원 등의 자격으로 참여시키기로 협의.

제 3 회 支部長會議

일시 : 1988. 8. 25(목) 14:00~
장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 : 이사, 감사, 시도지부장

• 세미나(공청회) 개최 협의: 법개정에 따른 기초 설문을 작성,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실시토록 하며 세미나 주제와 일시 장소 등은 사무처에서 결정하되 올림픽 종료 직후에 실시되도록 함.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어부 협의: 정기총회에서 승인후 실시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개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 실적회비 산출기준 현실화에 대한 협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인상하도록 함.

建築士資格 特別銓衡 추가시험

건설부는 9월4일(일) 仁川 소재 建設技術教育院에서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4백46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 그중 4백34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결과는 10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추가시험 광경

88 定期監査 실시

본협회는 제23회 定期總會의 개최를 앞두고 9월5일~10월19일 사이에 본부를 비롯한 14개 시도지부의 88년도 定期監査를 실시한다.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본협회 감사일정표

지부별	기간('88)	지부별	기간('88)
제주	9. 5~6	충남	9. 23~24
부산	9. 7~8	충북	9. 29~30
경남	9. 9~10	강원	10. 4~5
광주	9. 12~13	경기	10. 6~7
전남	9. 14~15	인천	10. 10~11
전북	9. 16~17	서울	10. 12~14
대구	9. 19~20	본부	10. 17~19
경북	9. 21~22		

慶尚北道支部消息

(지부장 金永吉)

• 金永吉지부장, 交響樂團 창단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金永吉 지부장이 私財를 들여 浦項交響樂團을 창단, 향토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어 문화예술계에 훈훈한 감격을 주고 있다.

“음악예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 가치가 어떤 예술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절대적 요소”가 된다고 믿는 金永吉지부장은 이 交響樂團의 창단이 “포항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면의 활발한 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젊은 음악애호가를 겨냥, 비발디 콘체토 op. 3 No.9와 헨델의 모음곡 수상음악등으로 프로그램을 짜 최능식씨의 지휘하에

7월29일 창단공연을 한 포항교향악단은 자신 특유의 개성적인 소리를 창조하려는 열의로 가득차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열고 12월에는 송년음악회로 제 2 회 정기연주회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악장: 정성봉

총무: 서해진

바이올린(18): 정성봉, 신문식, 최원영, 이명주, 윤교숙, 김민애, 구신애, 장현석, 김윤경, 이은미, 김혜경, 김일영, 김봉호, 윤상철(협), 권동호(협), 박은주(협), 이윤경(협), 전재우(협)

비올라(6): 최문열, 성혜영, 박선영, 이정옥, 신용희, 박미애(협)

첼로(6): 서해진, 김보경, 김진, 이상률, 이광미, 조태신(협)

콘트라 베이스(3): 정진복, 유양환(협), 정희중(협)

플루트(2): 박순걸, 김민정

오보(2): 김동인(협), 오정미(협)

클라리넷(2): 홍순규, 김해득

바순(2): 현필선(협), 전만익(협)

테너 색스폰(1): 이신형

엘토 색스폰(1): 오식권

호른(2): 황홍근, 장용표

드럼셋(2): 송수용, 정희택

토롬본(3): 이승화, 이상대(협), 김정태

탐파니(1): 장석기

타악기(3): 김의열, 구동희, 백계순

• 제2회 영남건축사 친선골프대회

8월24일 경주 조선컨트리클럽에서 경북지부 주관으로 제2회 영남 건축사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지부 회원 19명, 대구지부 회원 11명, 경남지부 회원 14명, 경북지부 회원 7명 등 51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본대회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승: 박문용(경남지부)

- 메달리스트: 장학신(경북지부)

- 준우승: 서천수(경남지부)

- 3위: 장기용(대구지부)

- 룽게스트: 이영기(경북지부)

- 니얼리스트: 도정기(경북지부)

- 행운상: 김화자(대구지부)

- 버디상: 여육동(대구지부)

- 파상: 양정부(부산지부)

- 보기상: 김신재(부산지부)



◀ 영남지역건축사친선골프대회



7월29일 개최된 포항교향악단 창단공연(자취: 최능식)

新入會員

정회원



崔昌孛
1946. 6. 6
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일우·내외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5
552-1092



蘇春松
1953. 3. 21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한라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1-5
412-1118



梁景鎬
1942. 1. 1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협신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174-29
305-1133



梁秋菊
1957. 9. 6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2-16
599-6277



嚴淳祚
1955. 10. 19
경북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서원환경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19-23
484-0480



裊相善
1956. 11. 8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복인건축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7
543-3593



程海相
1952. 2. 15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734-1444



洪慶善
1955. 8. 21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청송종합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구 간석동 334-5
424-1264



文尚基
1953. 1. 29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734-1444



洪鍾弼
1952. 1. 15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예도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민수동 342-78
432-3685



宋健洙
1948. 10. 29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원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9
419-0937



金正大
1956. 8. 15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양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187-23
2-2288



崔元晷
1954. 1. 12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미드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08
406-7970



李徹淳
1929. 5. 13
서울대학교 토목과
건축사사무소 백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83-3
82-4300

新入會員



韓奎峯

1937. 4. 20
부산대 건축공학과, 중앙대국제경영대학원
(주) 천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20
546-1001



姜晉求

1939. 10. 10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3-2
72-4338



金成國

1954. 12. 20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4-4
590-8031



吳政元

1952. 9. 26
경기공업전문학교
藝一건축사사무소
부천시 중구 원미동 65-22
653-6814



金建東

1942. 1. 1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원, 내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9-9
543-8247



俞相澹

1955. 9. 24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35
419-0462



韓尚勳

1954. 11. 23
서울대, 동대학원 건축
유니온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783-6208



姜在熙

1956. 3.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백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0-3
540-1693



洪承迺

1959. 7. 4
울산공과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합
인천시 북구 십정동 407-10
434-4922



李相均

1955. 12. 11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1
549-1622



姜鍊植

1942. 2. 1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태화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2-1417



■ 준회원 ■

金允中

1936. 10. 7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롯데건설(주) 건축부 이사
서울시 서초구 신사동 339
593-6111



金相天

1955. 10. 10
서울산업대학 건축과
(주) 태기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북구 부평동 372-3
529-9591



卞漢燮

1944. 7. 6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제일은행 건축담당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733-0070

新入會員



李成浩
1943. 6. 26
전남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234-8141



李鎔杓
1939. 11. 25
삼척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서울시 노원구청 건축과
서울시 노원구 구청건축과
900-1342



朴鎭榮
1935. 2. 24
홍익대학교 건축미술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세기건축
서울시 중구 수표동 47-6
266-4267



韓龍大
1934. 12.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삼양건설산업(주)
서울시 중구 정동 22-2
730-8124



鄭敦永
1945. 10. 14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3
783-5301



廉 潛
1946. 5.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株) 漢陽
서울시 중구 정동 1-17
739-4411



張光秀
1939. 8. 2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780-3355



安廣祐
1954. 3. 5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37-0684



權英守
1933. 2. 14
경남고등학교 건축과
마산시 교육청
경남 마산시 봉암동 435-1
96-2006



金奉勳
1952. 3. 15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조달청 감리 1과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520-3
593-5412



李相文
1939. 12. 23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한신공영(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0-1
599-4317



鄭昌謨
1957. 5. 10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한교육보험 설계관리부
서울시 종로구 1가 1번지
737-2233



李康赫
1941. 11. 11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주) 화인주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2-4
544-4078



尹錫輝
1953. 4. 15
천안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충남 천안군청 건설과
충남 천안군 성거면 신월리 343
2-2041

1988년 7월분 도서신고 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4,432,366㎡ 보다 9% 증가(404,057㎡) 한 4,837,023㎡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7월분 합계한 전년누계 29,766,089㎡ 보다 42% 증가(12,390,513㎡) 한 42,156,602㎡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6월분 7,293,416㎡ 보다 33.7% 감소(2,456,393㎡) 한 4,837,023㎡의 실적을 보였다.
* 전북지부도서통계자료는 제외함. (전북지부 사정상 현재까지 자료도착이 아니됨.)

全國圖書申告概況(地域別 增減狀況)

(연면적 기준) (전년동월비)

(단위 M²)

지부별	구분	87년도	88년도	비율(%)
증가지역	인천지부	301,021	437,498	45
	경기지부	696,790	856,998	23
	강원지부	154,022	155,665	1
	충북지부	134,564	235,442	75
	충남지부	237,055	422,023	78
	전남지부	139,754	211,550	51
	경북지부	308,257	402,974	31
	경남지부	430,879	601,488	40
	제주지부	30,705	72,468	136
감소지역	서울지부	992,217	741,768	-25
	부산지부	418,061	338,428	-19
	대구지부	233,537	223,548	-4
	광주지부	150,710	137,173	-9

全國圖書申告概況(種別前月對比 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M²)

종 별	6 월분	7 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944,158	819,148	-125,010	-13.3
다세대주택	297,733	296,265	-1,468	-0.5
연립주택	184,383	82,537	-101,846	-55.2
아파트	2,369,050	782,524	-1,586,526	-70
근린생활시설	1,282,907	1,051,879	-231,028	-18
종교시설	58,935	35,842	-23,093	-39.2
의료시설	18,025	55,241	37,216	206
교육연구시설	129,345	193,567	64,222	50
업무시설	274,269	213,926	-60,343	-22
숙박시설	170,126	101,165	-68,961	-40.5
공장	1,053,580	709,856	-343,724	-32.6
기타	510,905	495,073	-15,832	-3.1
계	7,293,416	4,837,023	-2,456,393	-33.7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

(사부별: 합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1,785	1,814	674,204	166	173	67,564	0	0	0	1,951	1,987	741,768
부산지부	1,253	1,384	273,484	326	355	43,603	50	52	21,341	1,629	1,791	338,428
대구지부	632	675	153,547	591	616	63,806	29	29	6,195	1,252	1,320	223,548
인천지부	441	484	423,422	34	34	9,234	11	14	4,842	489	532	437,498
광주지부	281	287	114,731	69	72	20,947	6	6	1,495	356	365	137,173
경기지부	1,579	1,688	677,748	223	264	153,402	42	42	25,848	1,844	1,994	856,998
강원지부	371	435	109,457	101	109	35,501	35	35	10,707	507	579	155,665
충북지부	415	472	190,931	132	152	43,084	8	8	1,427	555	632	235,442
충남지부	857	868	357,179	170	170	37,426	69	69	9,418	1,096	1,107	422,023
전북지부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지부	439	509	178,631	151	163	32,220	5	5	699	595	677	211,550
경북지부	551	618	322,362	180	207	76,642	19	19	3,970	750	844	402,974
경남지부	1,222	1,417	442,157	509	574	139,099	32	37	20,232	1,763	2,028	601,488
제주지부	174	191	70,329	26	26	2,028	1	1	111	201	218	72,468
합계	10,000	10,842	4,006,182	2,678	2,915	724,556	310	317	106,285	12,988	14,074	4,837,023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

(지부별:누계)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17,999	18,582	8,472,680	1,450	1,516	612,806	0	0	0	19,449	20,098	9,085,486
부산지부	8,444	9,716	3,060,338	2,378	2,637	422,032	356	371	114,595	11,178	12,724	3,596,965
대구지부	5,017	5,473	1,708,781	3,409	3,588	262,774	207	207	61,514	8,633	9,268	2,033,069
인천지부	3,588	3,772	2,659,792	284	317	158,688	113	114	41,609	3,985	4,203	2,860,089
광주지부	2,568	2,654	1,094,042	492	526	196,296	46	49	12,581	3,106	3,229	1,302,919
경기지부	14,286	15,309	6,459,926	1,788	1,976	1,000,183	367	367	251,513	16,441	17,652	7,711,622
강원지부	2,591	2,936	892,782	598	728	181,535	110	110	34,419	3,299	3,774	1,108,736
충북지부	3,093	3,489	1,228,251	854	931	313,084	81	82	16,318	4,028	4,502	1,557,653
충남지부	4,973	5,086	2,336,291	882	882	384,296	486	486	126,357	6,341	6,454	2,846,944
전북지부	1,850	2,004	1,028,427	495	512	160,242	125	125	29,577	2,470	2,641	1,218,246
전남지부	2,863	3,296	1,194,523	841	1,031	353,357	45	45	16,261	3,749	4,372	1,564,141
경북지부	4,425	4,973	1,989,488	1,220	1,442	793,695	132	133	53,982	5,777	6,548	2,837,165
경남지부	8,657	10,048	3,041,064	2,998	3,610	924,424	172	181	67,901	11,827	13,839	4,033,389
제주지부	1,329	1,481	361,566	164	164	38,437	2	2	175	1,495	1,647	400,178
누 계	81,683	88,819	35,527,951	17,853	19,860	5,801,849	2,242	2,272	826,802	101,778	110,951	42,156,602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

구분 지부별	FY : 1987년			FY : 198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12,437	13,061	6,745,682	19,449	20,098	9,085,486	7,012	7,037	2,339,804	35%	
부산지부	8,538	9,993	2,565,075	11,178	12,724	3,596,965	2,640	2,731	1,031,890	40%	
대구지부	7,182	7,831	1,627,383	8,633	9,268	2,033,069	1,451	1,437	405,686	25%	
인천지부	3,334	3,626	1,476,573	3,985	4,203	2,860,089	651	577	1,383,516	94%	
광주지부	1,935	2,032	821,138	3,106	3,229	1,302,919	1,171	1,197	481,781	59%	
경기지부	10,738	11,846	5,472,272	16,441	17,652	7,711,622	5,703	5,806	2,239,350	41%	
강원지부	2,678	2,973	829,988	3,299	3,774	1,108,736	621	801	278,748	34%	
충북지부	3,186	3,581	1,047,274	4,028	4,502	1,557,653	842	921	510,379	49%	
충남지부	4,232	4,355	1,595,547	6,341	6,454	2,846,944	2,109	2,099	1,251,397	78%	
전북지부	2,111	2,350	980,670	2,470	2,641	1,218,246	359	291	237,576	24%	
전남지부	3,156	3,611	991,740	3,749	4,372	1,564,141	593	761	572,401	58%	
경북지부	4,822	5,494	2,061,244	5,777	6,548	2,837,165	955	1,054	775,921	38%	
경남지부	10,553	12,655	3,213,896	11,827	13,839	4,033,389	1,274	1,184	819,493	25%	
제주지부	1,596	1,816	337,607	1,495	1,647	400,178	(101)	(169)	62,571	19%	
누 계	76,498	85,224	29,766,089	101,778	110,951	42,156,602	25,280	25,727	12,390,513	42%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950	5,074	762,513	1,005	1,027	53,192	51	51	3,443	6006	6,152	819,148
다 세 대 주 택	1,456	1,538	280,776	371	373	15,159	6	7	330	1,833	1,918	296,265
연 립 주 택	58	91	81,035	6	6	1,502	0	0	0	64	97	82,537
아 파 트	79	270	750,882	12	17	31,642	0	0	0	91	287	782,524
근 련 생활 시설	2,274	2,315	926,848	470	484	90,300	135	135	34,731	2,879	2,934	1,051,879
종 교 시설	53	62	26,035	34	37	7,519	9	9	2,288	96	108	35,842
의 료 시설	9	10	45,783	8	9	9,458	0	0	0	18	19	55,241
교육 연구 시설	37	41	83,059	102	117	107,820	9	9	2,688	148	167	193,567
업 무 시설	102	114	170,934	68	80	31,474	15	15	11,518	185	209	213,926
숙 박 시설	123	125	78,402	39	41	19,761	6	6	3,002	168	172	101,165
공 장	335	544	499,455	202	292	193,804	32	35	16,597	569	871	709,856
기 타	524	658	300,460	360	432	162,925	47	50	31,688	931	1,140	495,073
합 계	10,000	10,842	4,006,182	2,678	2,915	724,556	310	317	106,285	12,988	14,074	4,837,023

한국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기법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랜 경험 및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구조물 안전도 검토상 문제가 되었던 실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 내부결합 및 철근 배근상태 그리고 기타 구조 해석상 필요한 제반 자료를 첨단 장비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을 통하여 저렴한 검사비용으로 제공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 업무 내용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검사

- 조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 장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철근 탐사

- 철근위치 및 방향
-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직경

콘크리트 비파괴결합 탐사

- 균열심도
- 열화심도
- 화상심도
- 동상심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계측 (STRAIN GAGE계측)

- 균열폭 변위
- 구조물 기울기 변위
- 침하변위

정밀 진동시험

- 바닥 진동
- 지반 진동

대상 건물

- 신축건물
- 증축예정건물
- 화재·동해건물
- 용도변경건물
- 부실 시공건물

한국콘크리트 비파괴검사 K C N 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1 은성빌딩 503호
PHONE: (02) 922-8994, 대구 (053) 93-0188